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102-10

www.mogef.go.kr

20
21

청소년백서

20
21



여성가족부

청소년헌장 (1998. 10. 25. 개정)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발간사



우리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디지털시대의 본격 진입을 비롯해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나온 발자취를 토대로 장점은 살려서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단점은 보완하여 내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2021 청소년백서」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을 위한 디딤돌을 쌓고자, 1965년 이후 매년 활동, 복지, 안전·보호, 교육 등 분야별로 청소년정책의 주요성과 및 현황과 전망, 각종 통계 등을 담아 각 시기의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진단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을 위해 더 나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 환경에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정책참여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차단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청소년정책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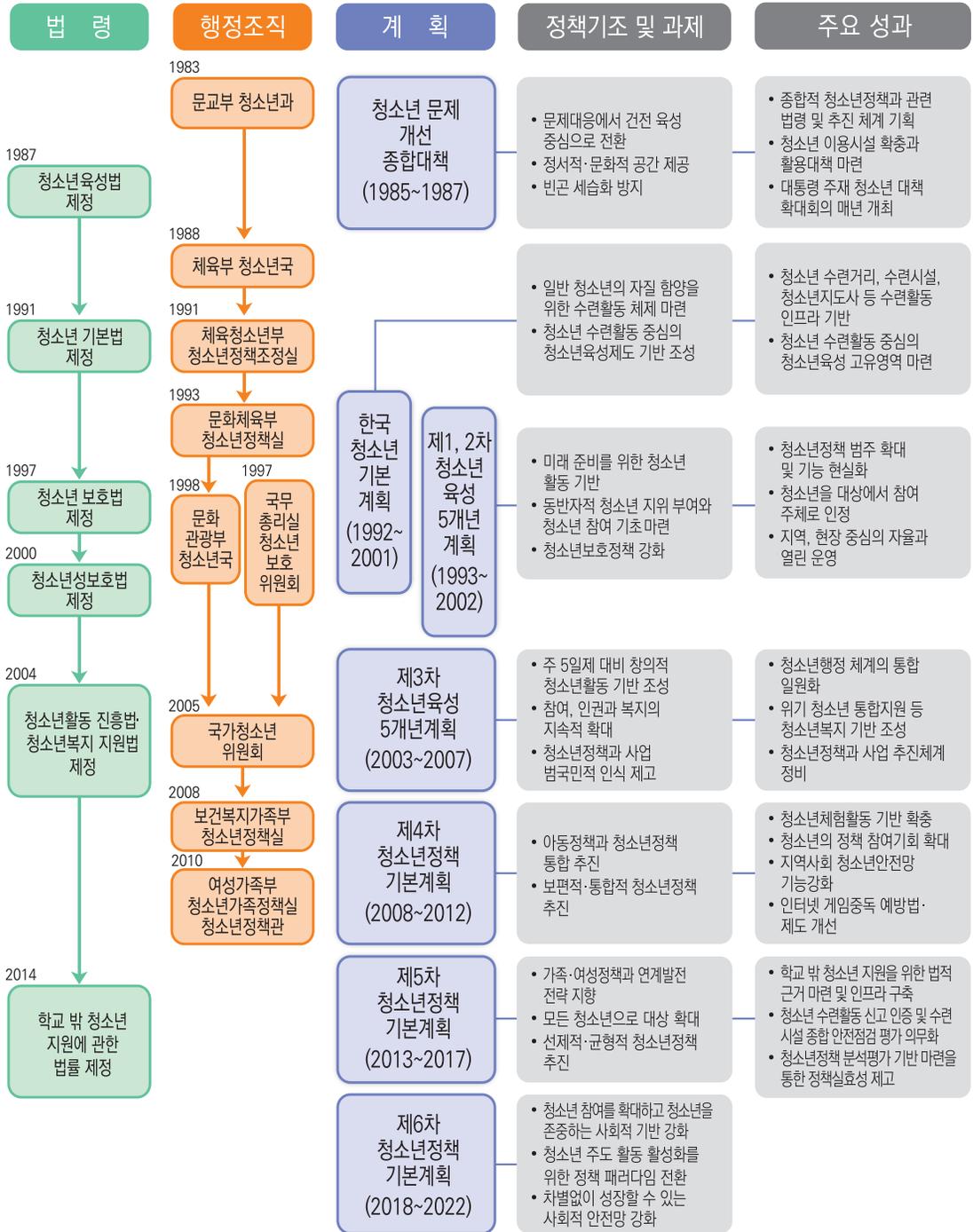
본 백서가 새로운 청소년정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정부부처, 지자체, 청소년 학계 및 시설·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이정표가 되어 자주 활용되고, 청소년 정책의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며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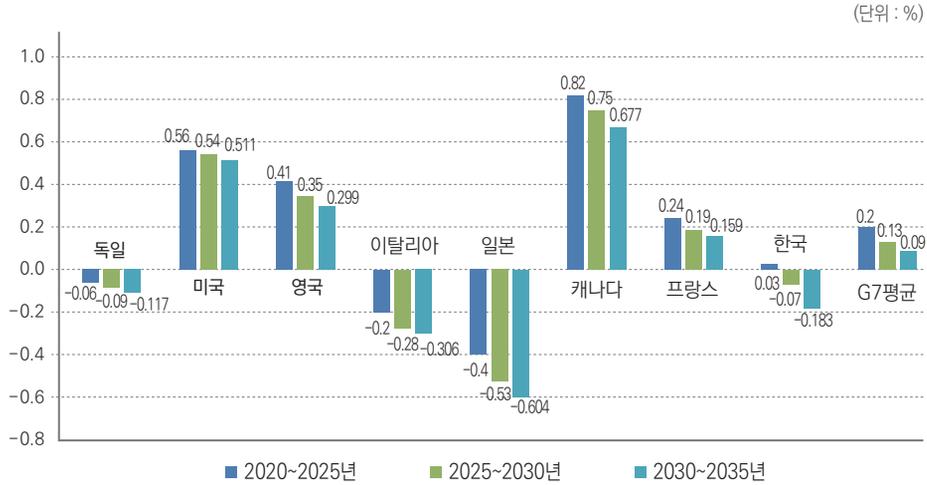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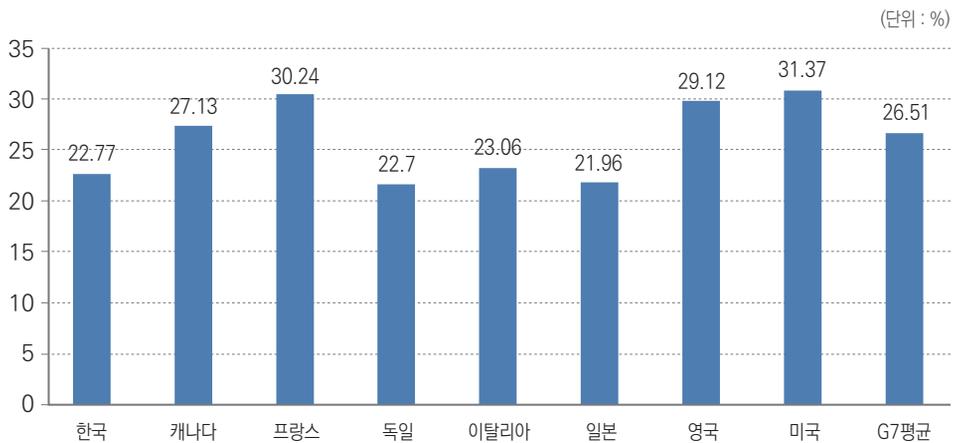


인구 성장률



주 : 인구 성장률(%)은 특정 연도간의 평균 인구 증가(감소)율을 의미하며, $\ln(P_t/P_0)/t$ 로 계산함.
 자료 : UN(2021), World Population Pro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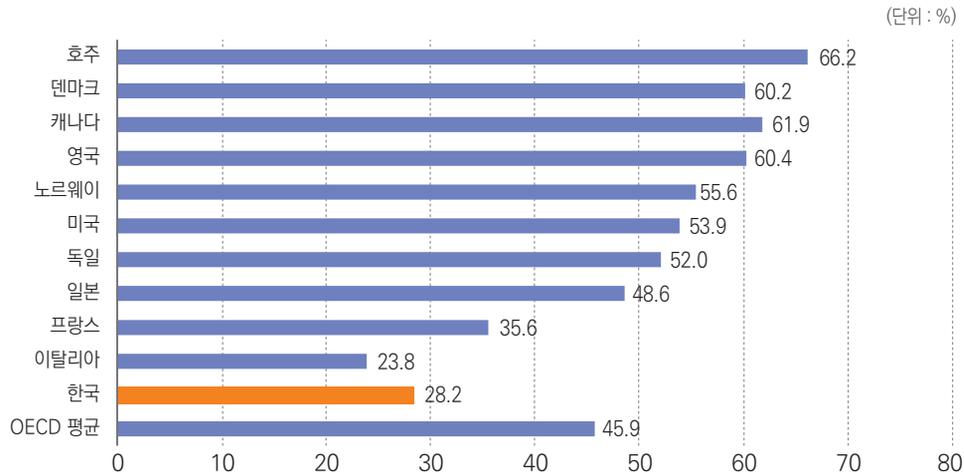
전체 인구 대비 아동·청소년(0~24세) 인구



주 : 2020년 기준.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age-structure/>에서 2022. 2. 7. 인출.
 자료 : CIA World Factbook(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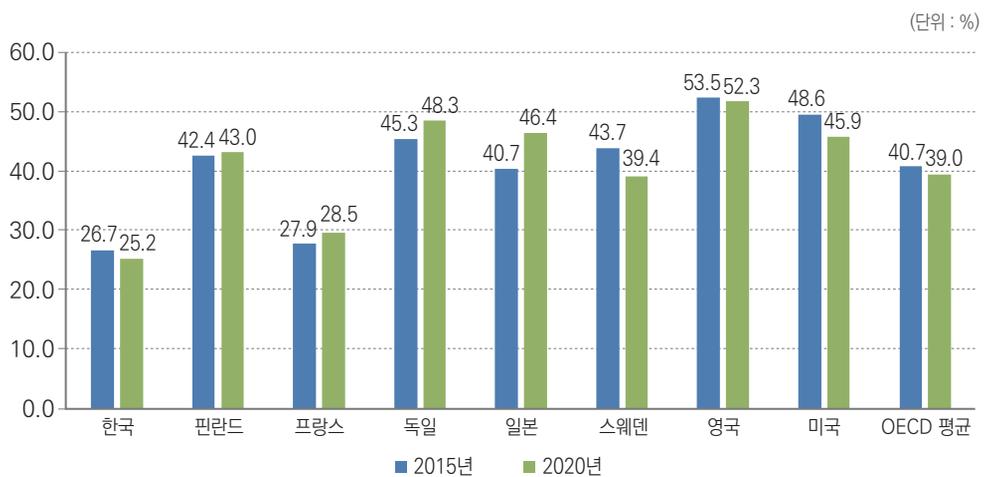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자료 : OECD(2021). 2020 OECD Labour Marke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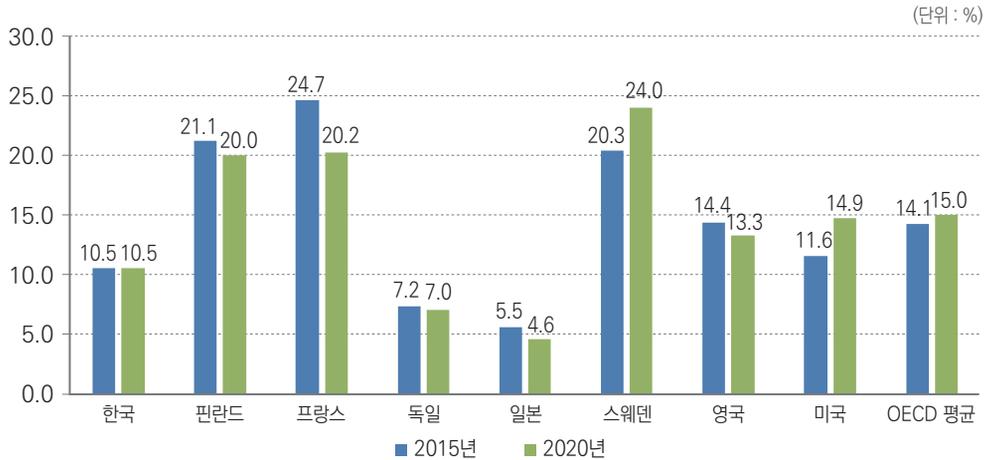
⚙️ 청소년(15~24세) 고용률(2015/2020)



자료 : OECD(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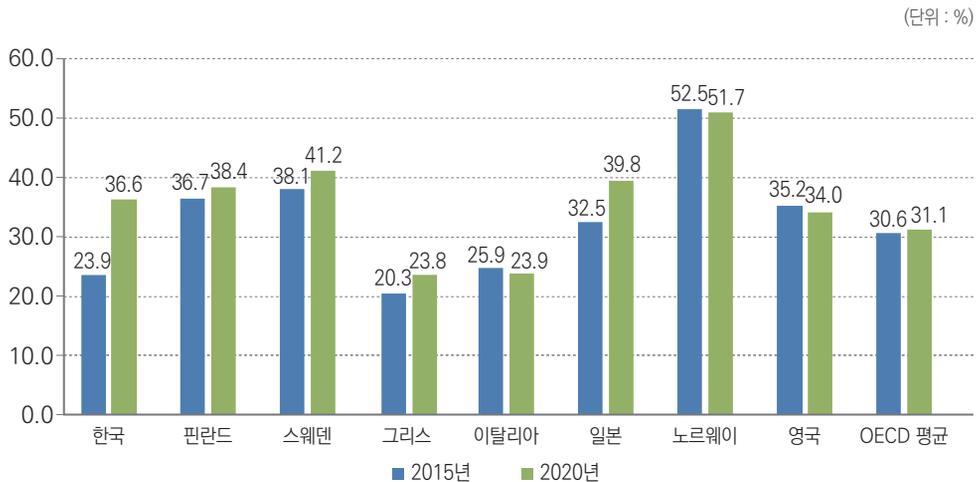


⚙️ 청소년(15~24세) 실업률(2015/2020)



자료 : OECD(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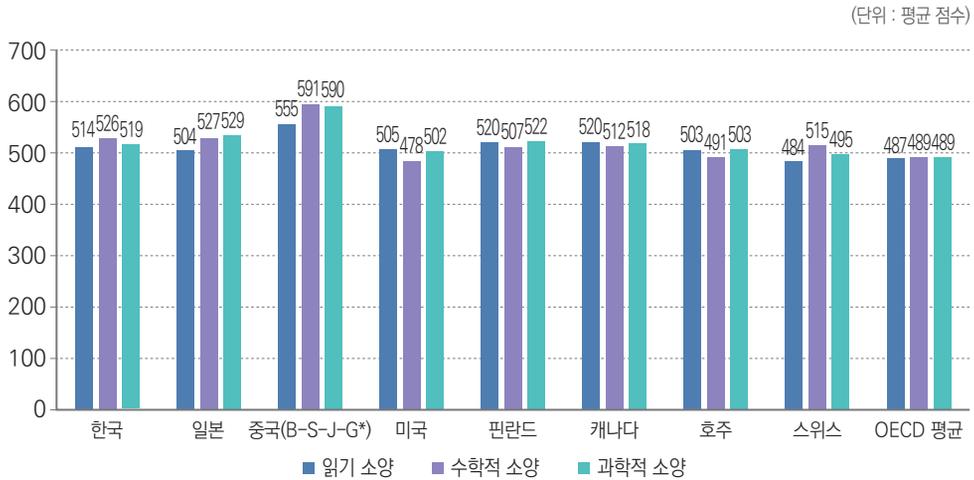
⚙️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5/2020)



자료 : OECD(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 PISA 결과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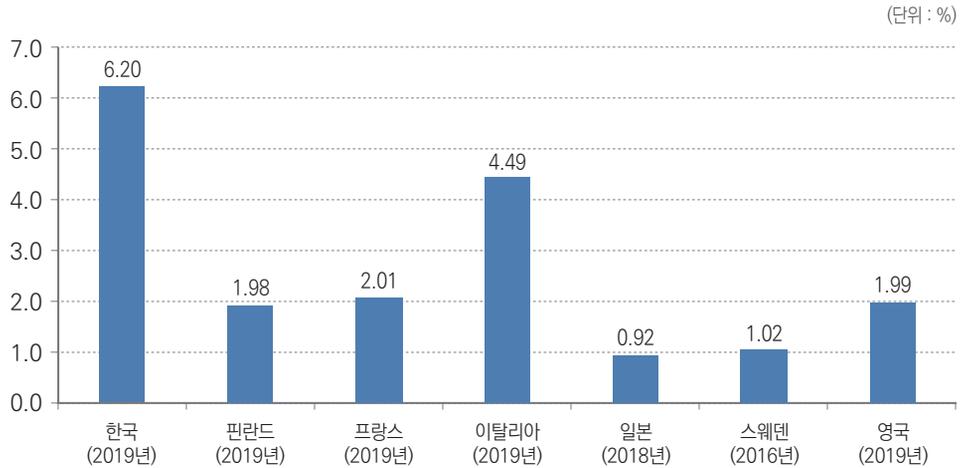


주 : 1)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는 3년 주기로 실시함.

2) B-S-J-G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광둥성 지역을 의미함.

자료 : OECD(2020). PISA 2018 Database.

⚙️ 중등교육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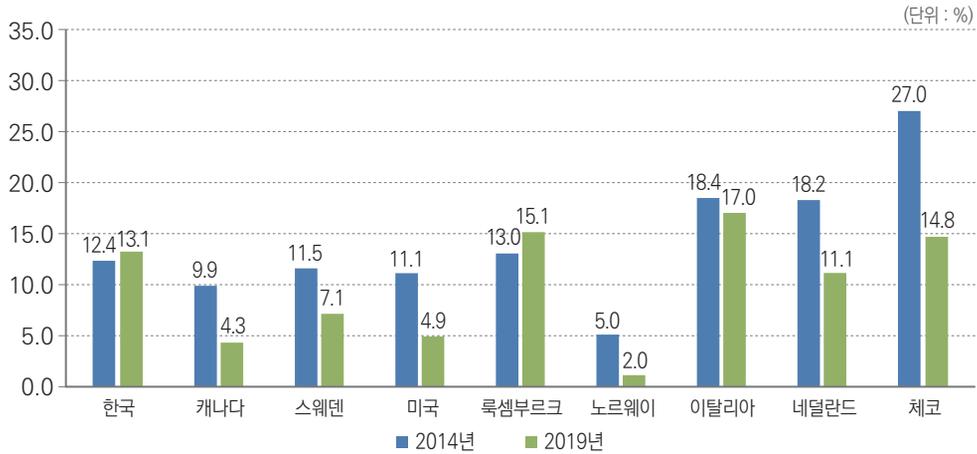


주 : 국가별 중등교육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을 산출하는 연령 대상에 대한 정보.

자료 : UNESCO(2021). UIS Statistics.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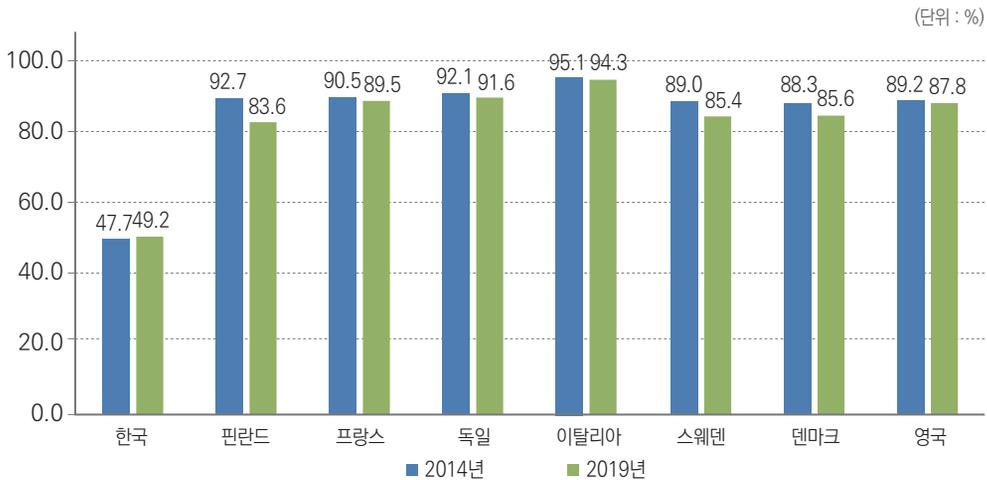


⚙️ 청소년(15~24세) 흡연율(2014/2019)



주 :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일 또는 30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자료 : OECD(2021).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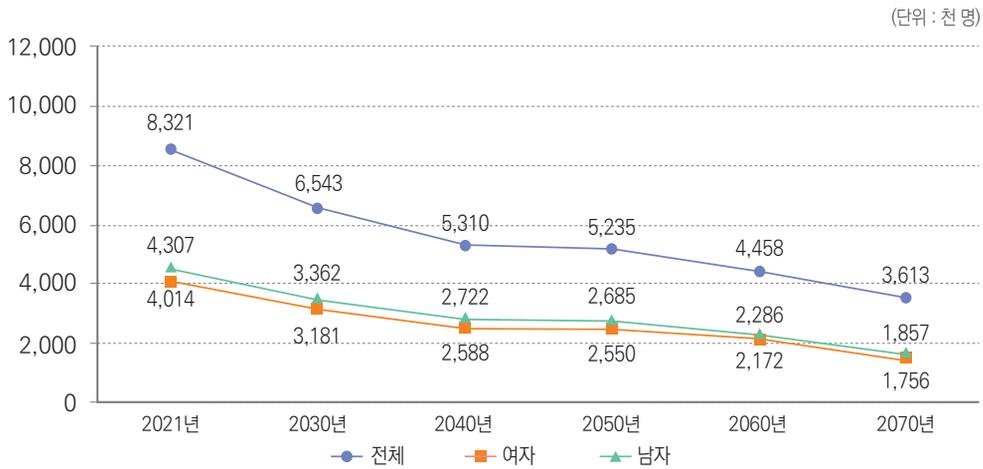
⚙️ 청소년(15~24세)의 주관적 건강상태(2014/2019)



주 :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 OECD(2021). Health Status. Morbidity. Perceived health status by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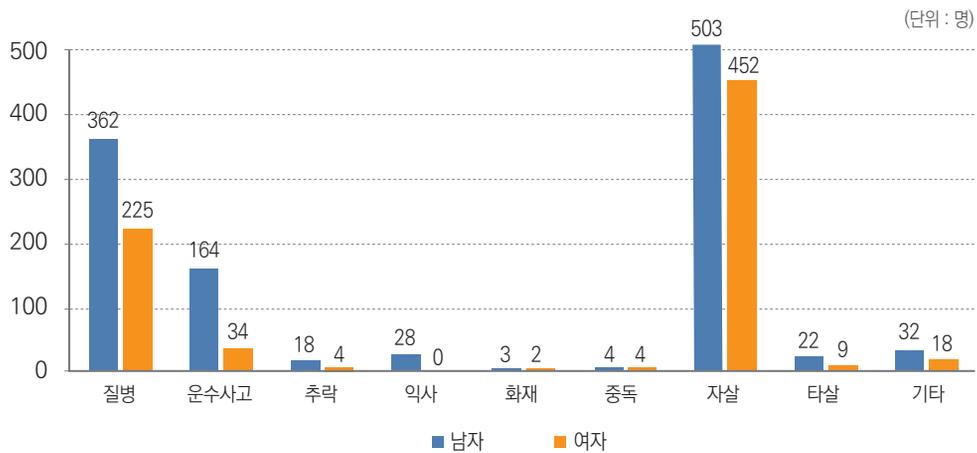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 청소년(9~24세) 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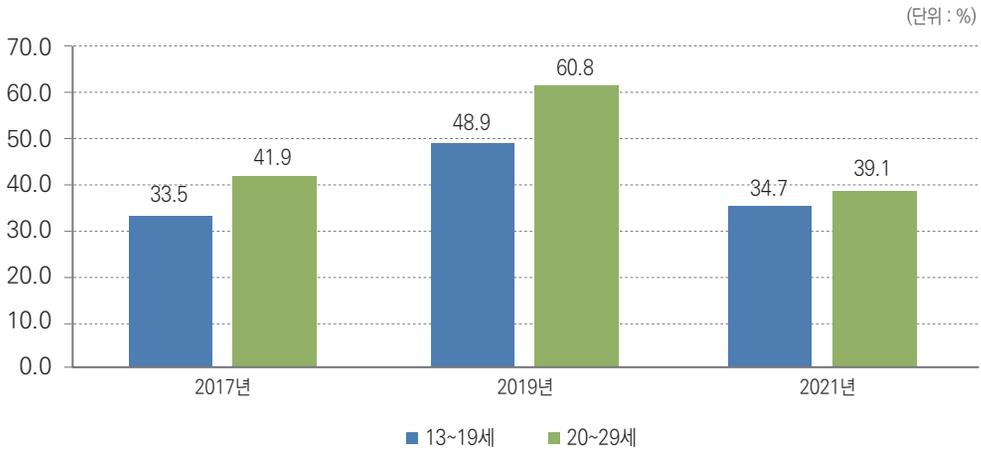
⚙️ 청소년(10~24세) 사망 원인



자료 : 통계청(2021). 2020년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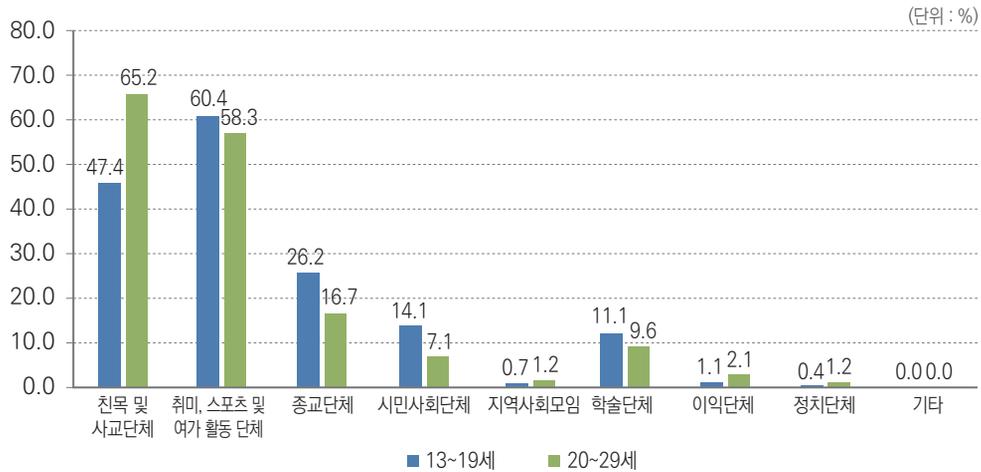


⚙️ 청소년(13~19세) 단체 참여 경험 유형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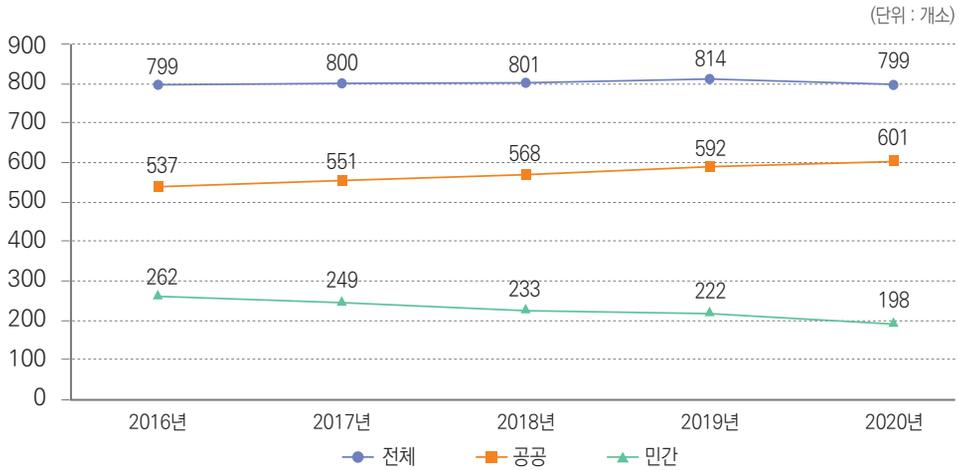
⚙️ 청소년(13~19세) 단체 참여 이유



자료 :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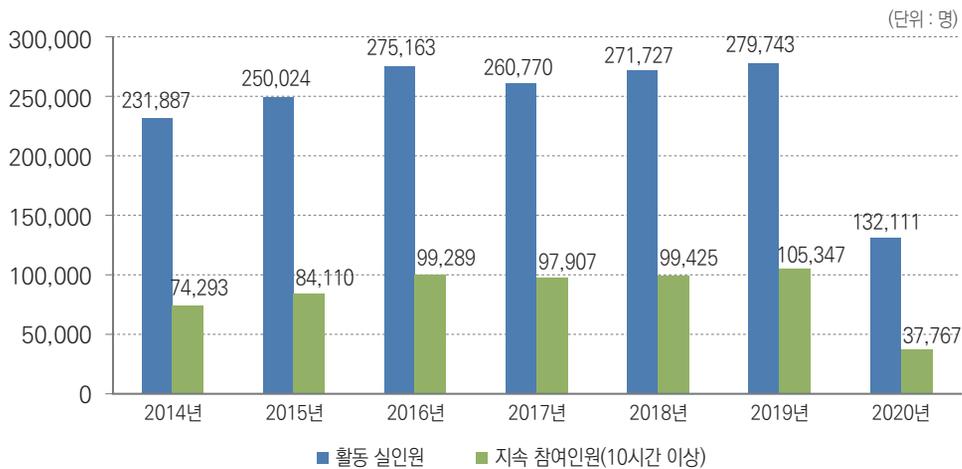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0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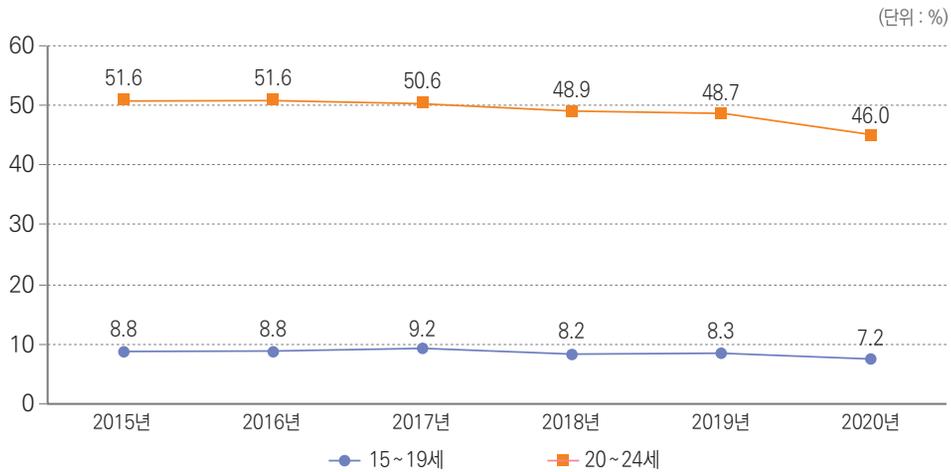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인원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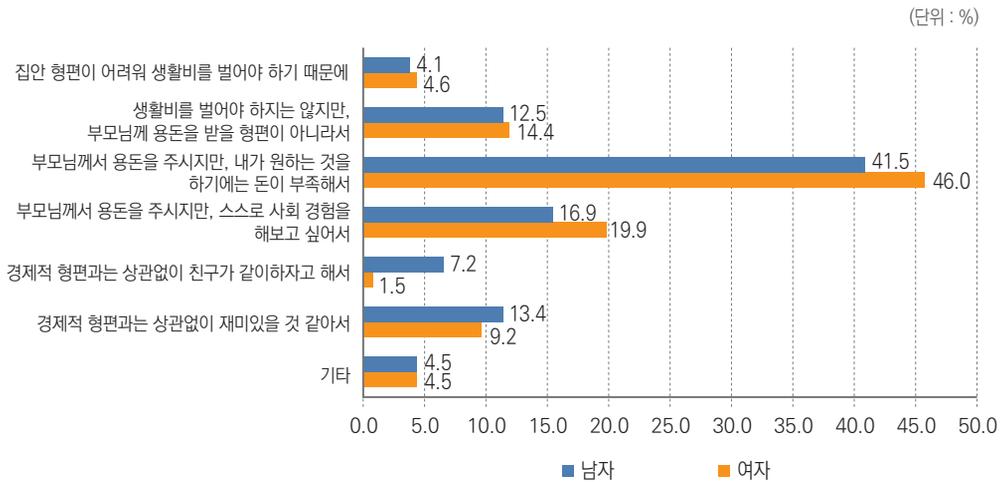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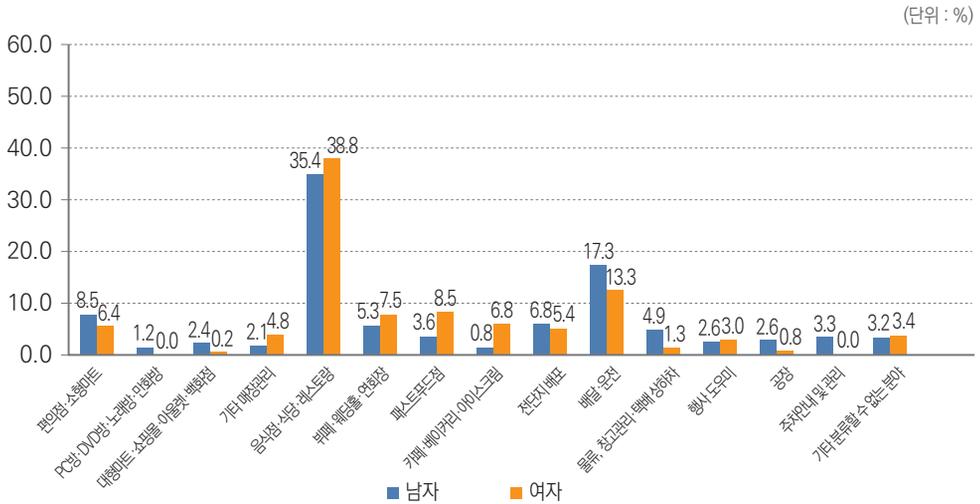
청소년(만 10~18세) 아르바이트 목적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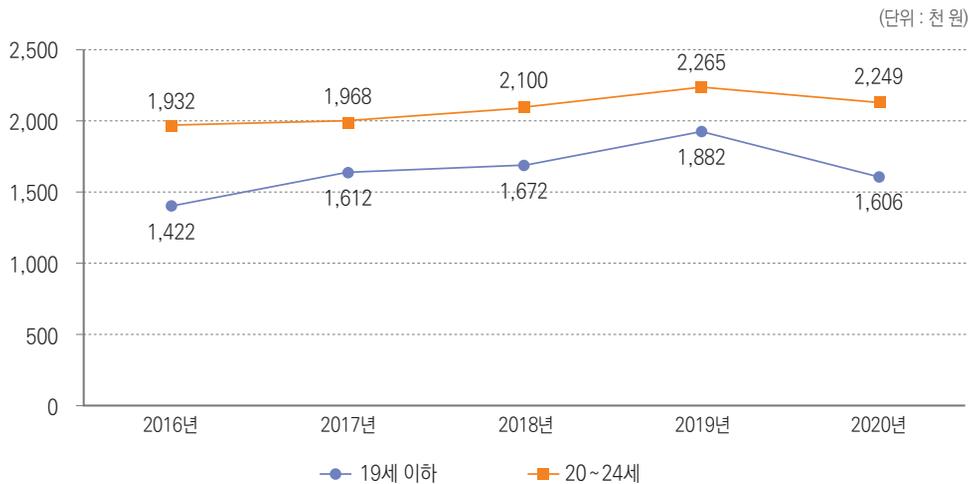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청소년(만 10~18세) 아르바이트 업종별 참여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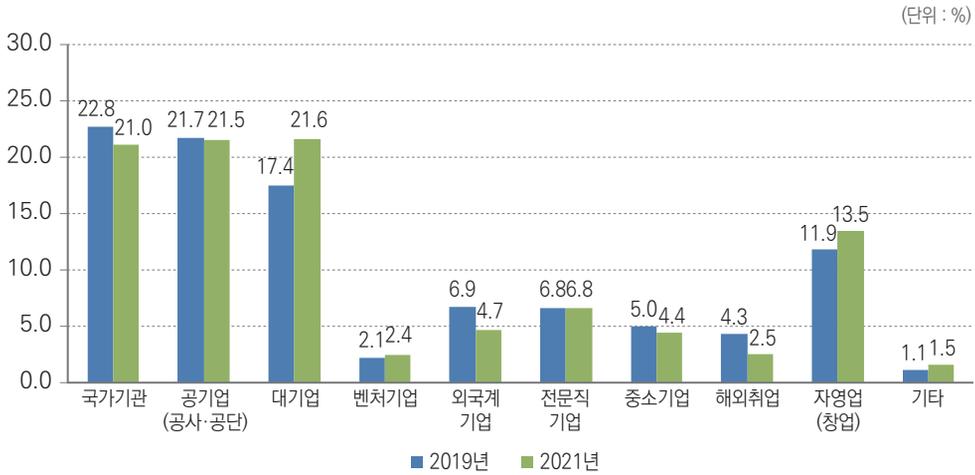


주 : 임금 수준은 월 임금 총액을 의미함.

자료 : 고용노동부(2021).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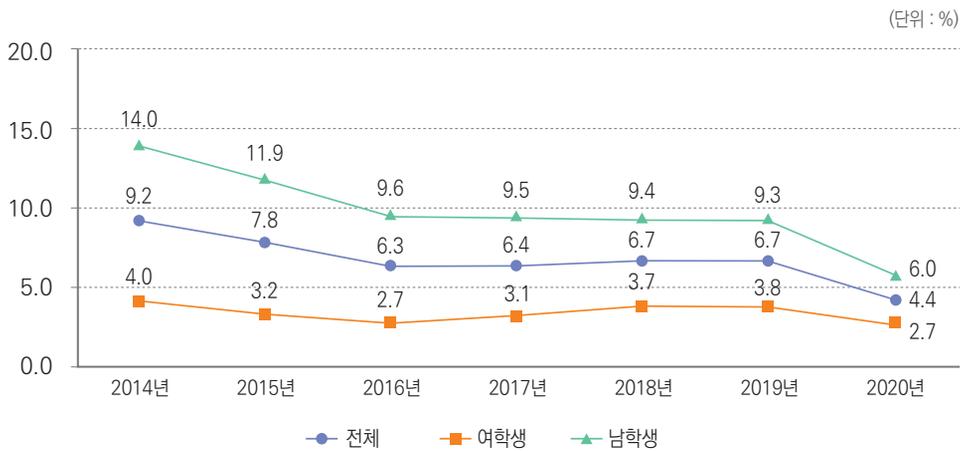


청소년(13~29세)이 선호하는 직장



주 : 2019년까지 조사 대상 연령은 13~29세였으나, 2021년 조사 대상 연령은 13~34세로 변경되었음.
 자료 : 통계청(2021).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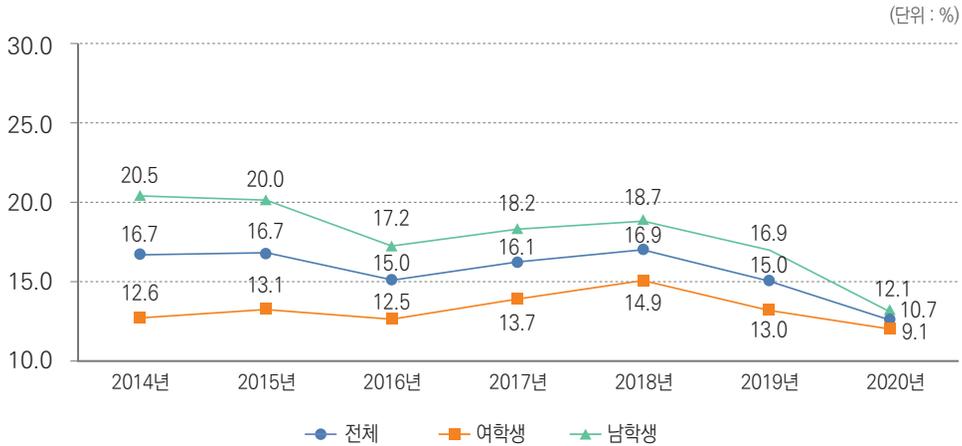
청소년(중·고생) 현재 흡연을 추이



주 : 청소년 현재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임.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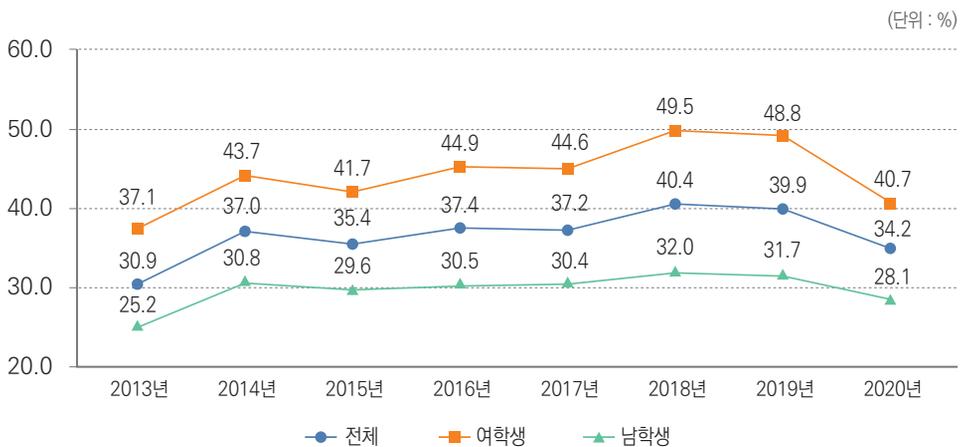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청소년(중·고생) 현재 음주율 추이



주 :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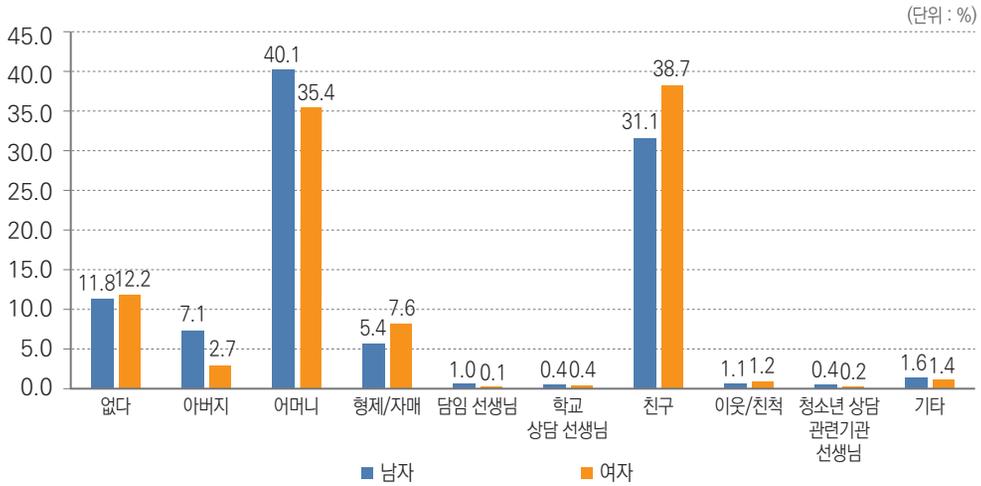
청소년(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



주 :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임.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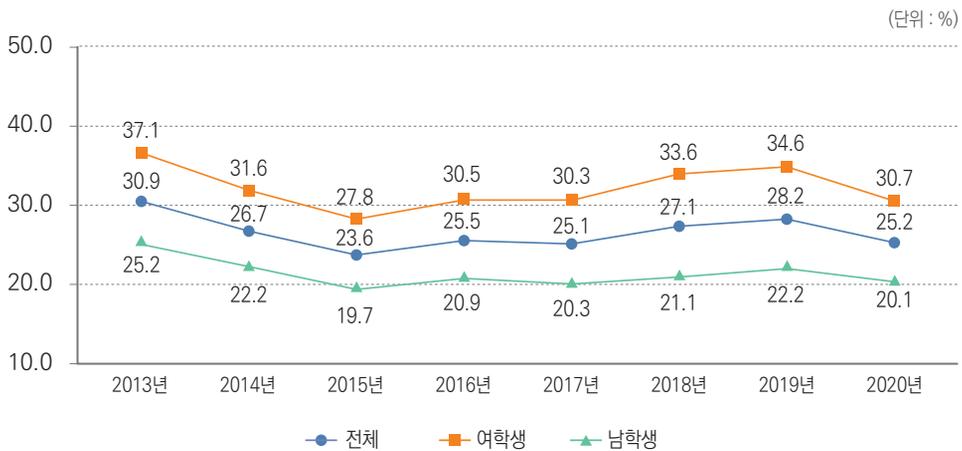


⚙️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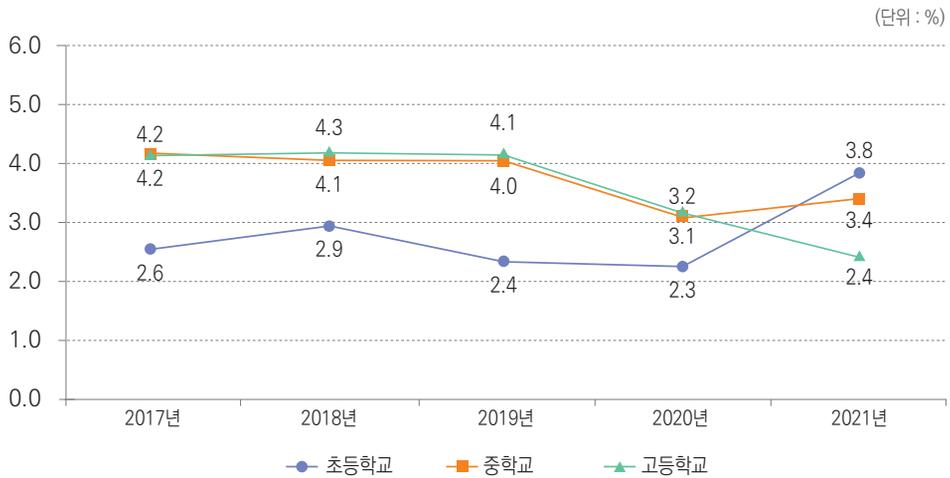
⚙️ 청소년(중·고생) 우울감 경험률



주 :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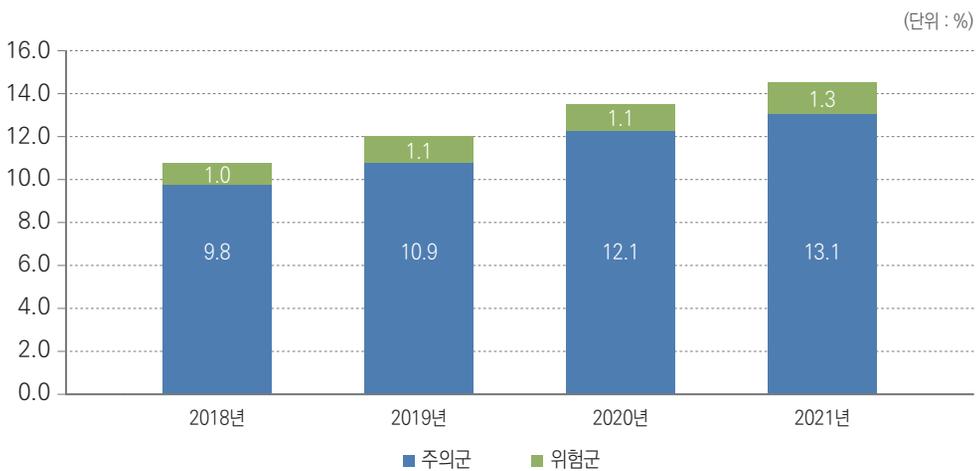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청소년 가출 경험률



주 : 청소년 가출 경험률은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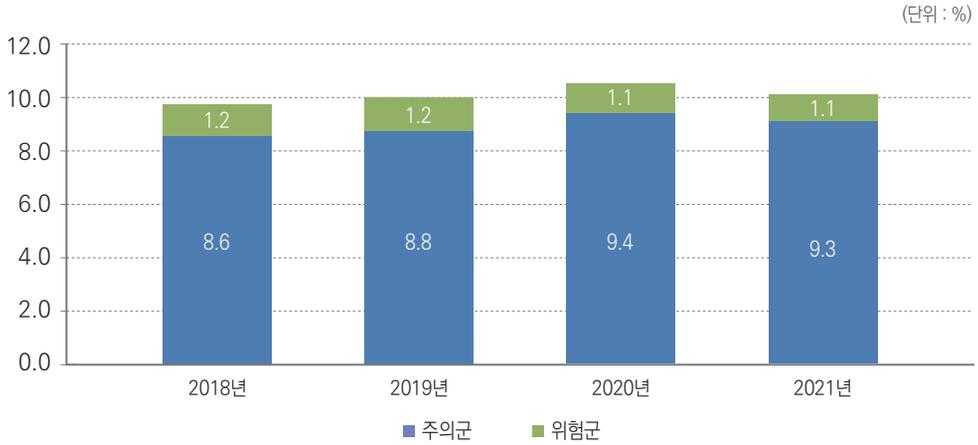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비율



주 : 설문대상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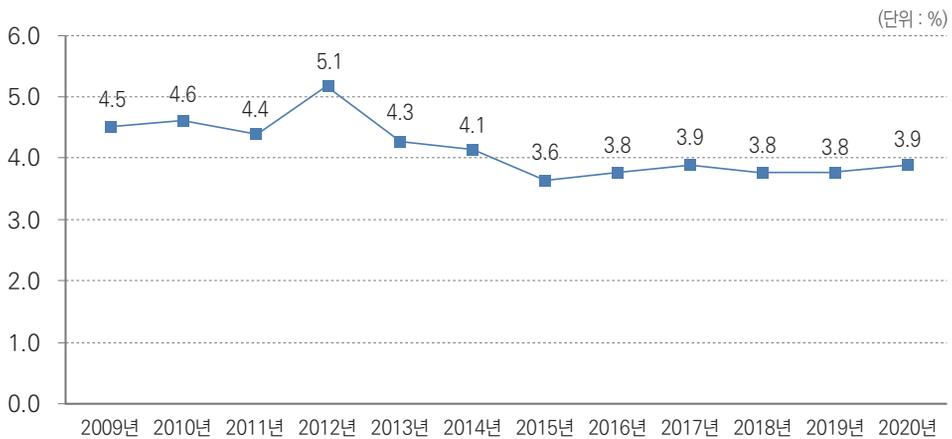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주 : 설문대상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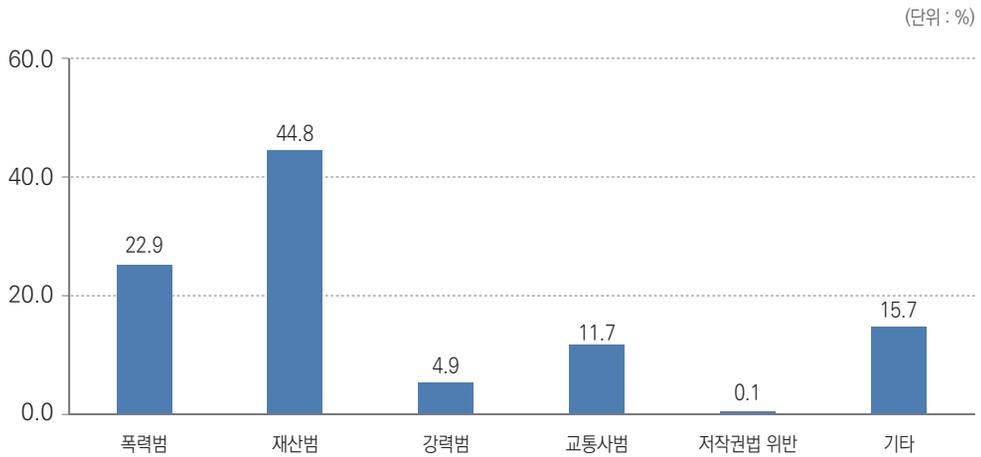
⚙️ 전체 범죄대비 청소년 범죄의 비율 추이



자료 : 대검찰청(2010~2021). 범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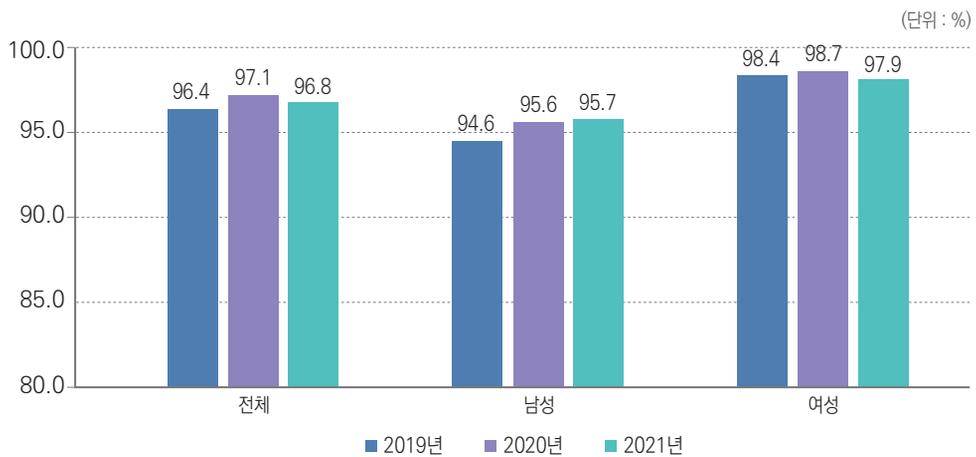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청소년 범죄 유형



주 : 2020년도 소년범죄자 유형별 현황임.
자료 : 대검찰청(2021). 범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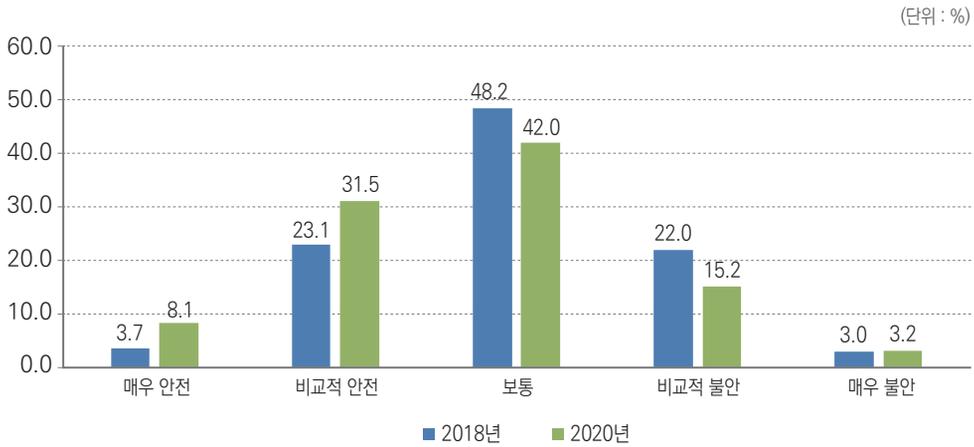
양성평등의식



주 : 양성평등의식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합계를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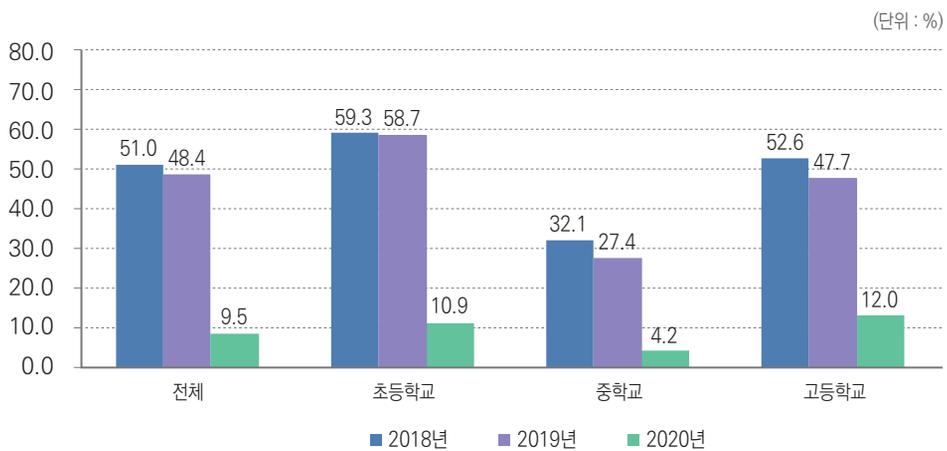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13~1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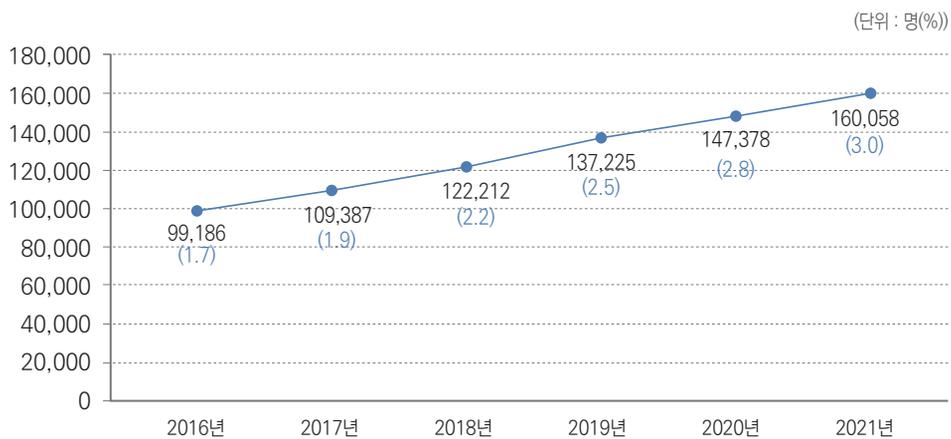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 방과후학교 참여율



주 :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유상' 및 '무상'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합한 값임.
 자료 : 통계청(2021), 2020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다문화가정 학생 수, 비율



자료 : 교육부(각 년도), 다문화지원계획.

CONTENTS

제1부 총론

제1장 청소년정책 연혁	02
1. 청소년정책의 범주	02
2.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03
제2장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07
1. 총괄	07
2. 추진방향 및 주요 실적	09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30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청소년 연령 현황	30
2. UN 청소년정책 현황	34
3. 주요 국가 청소년정책 현황	40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

제1장 청소년 인구	62
1. 청소년 인구 현황	62
2. 청소년 인구 전망	63
3. 청소년 인구 동태	66
제2장 청소년 생활환경	75
1. 가족환경	75
2. 학교환경	90
3. 미디어환경	100

CONTENTS

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12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12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113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113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117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126
1. 청소년의 달 행사	126
2.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131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	134

제4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140
1.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	140
2. 청소년문화활동	141
3. 청소년자원봉사활동	143
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145
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148
6.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150
제2장 청소년수련활동 제도	153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153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160



제5부
청소년 복지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164

- 1. 청소년 국제교류 164
-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171
- 3. 민간단체 주관 청소년국제행사 지원 172
- 4. 세계스카우트잼버리(2023) 개최 지원 172

제1장 대상별 청소년 현황 180

- 1. 아동빈곤율 현황 180
- 2. 한부모가구 현황 182
-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183
- 4. 보호대상아동 현황 186

제2장 대상별 청소년 지원 191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91
-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196
-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9
- 4. 청소년 특별지원 201
- 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202
-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05
- 7. 지역아동센터 운영 207
- 8.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12
- 9.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217
- 10.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218
- 11. 아동 급식 지원 226
- 12. 보호대상아동 조기 발견·지원(e아동행복지원시스템) 228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230
1. 상담서비스	230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239
3. 청소년상담1388	244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247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248
제4장 청소년의 건강	251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51
2. 청소년의 영양	259
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261
4. 청소년의 정신건강	264
제1장 청소년 안전	270
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270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73
3.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287
4.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301
5.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309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매체환경	318
1.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318
2.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333
3.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339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7부
청소년의
교육

제3장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344
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344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347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350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352
5.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356

제1장 학교교육 현황	360
1. 학령인구	360
2. 학생 인구 및 학교 수	362
3. 조기유학 현황	368
4. 대안교육 학교	369
5. 진학률	370
6. 학업중단을	372
7. 교육재정	373
8.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377
9.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384

제2장 교육복지정책	386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386
2. 방과후학교	393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397
4. 다문화학생 교육	407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413

제8부 청소년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426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426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430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431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434
5. 임금 및 노동시간	437
6. 청소년 아르바이트	441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446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446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447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448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상황	449
제3장 청소년의 고용·노동정책	452
1.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452
2. 청소년 창업지원 대책	457
3. 청소년 고용촉진 대책	461

제9부 청소년 범죄

제1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476
1. 청소년 범죄의 동향	476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481
3. 학생 범죄의 동향	482

제2장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484
1. 경찰의 예방활동	484
2. 검찰의 예방활동	493
3. 법무부의 예방활동	500
제3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504
1. 경찰단계의 사건처리	504
2. 검찰단계의 사건처리	505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진단 및 처우	507
4. 소년법원에서의 사건처리	511
5. 형사법원에서의 사건처리	515
제4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517
1. 소년원의 교정교육	517
2.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	524
<hr/>	
제1장 청소년시설	538
1. 청소년 활동시설	538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544
제2장 청소년지도자	549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549
2. 청소년지도사	550
3. 청소년상담사	556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CONTENTS

제3장 청소년 단체	562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562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564
제4장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566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566
2.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기관	571
3. 청소년 관련 시·도 행정조직	574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575
5. 정부 산하기관	575
제5장 청소년 관련 연구·개발기관	579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79
2. 청소년 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585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587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591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591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593

**부록**

[부록 1] 청소년 관련 학과(전공) 현황	598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602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606
[부록 4]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현황	631
[부록 5]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640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655
[부록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657
[부록 8] 청소년백서 용어집	670

〈표 1-1-1〉 청소년정책의 변천	03
〈표 1-3-1〉 UN 및 UN기구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30
〈표 1-3-2〉 미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31
〈표 1-3-3〉 영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31
〈표 1-3-4〉 독일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32
〈표 1-3-5〉 일본 청소년, 청년 연령 기준 및 근거 법률	33
〈표 1-3-6〉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9~2027)의 3개 분야	42
〈표 1-3-7〉 일본 아동·청년비전의 우선과제(priority issues)	56
〈표 2-1-1〉 2021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62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64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67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68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70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71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72
〈표 2-1-8〉 2020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74
〈표 2-2-1〉 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76
〈표 2-2-2〉 세대구성유형별 가구 수 현황	77
〈표 2-2-3〉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78
〈표 2-2-4〉 양육관련 만족도 :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79
〈표 2-2-5〉 양육관련 만족도 : 평소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하다	80
〈표 2-2-6〉 자녀양육책임의 범위(2012년, 2015년, 2018년)	81
〈표 2-2-7〉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82
〈표 2-2-8〉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83
〈표 2-2-9〉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84
〈표 2-2-10〉 부모님과 대화 여부 및 대화시간(1일 평균)	86

〈표 2-2-11〉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87
〈표 2-2-12〉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87
〈표 2-2-13〉 부모님으로부터의 비용 지원	88
〈표 2-2-14〉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	91
〈표 2-2-15〉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92
〈표 2-2-16〉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93
〈표 2-2-17〉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94
〈표 2-2-18〉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95
〈표 2-2-19〉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96
〈표 2-2-20〉 진로교육 경험 :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97
〈표 2-2-21〉 진로교육 경험 : 현장학습 및 견학	98
〈표 2-2-22〉 진로교육 경험 : 상담교사의 상담	99
〈표 2-2-23〉 진로교육 경험 : 진로관련 검사	100
〈표 2-2-24〉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당 평균 이용시간	101
〈표 2-2-25〉 인터넷 이용 용도(복수응답)	103
〈표 2-2-26〉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104
〈표 2-2-27〉 스마트폰 이용 빈도	105
〈표 2-2-28〉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음성통화 제외)	106
〈표 2-2-29〉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107
〈표 2-2-30〉 필수 매체 인식	107
〈표 2-2-31〉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률	108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국고 미지원 포함)	119
〈표 3-2-2〉 2021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중앙참여위원회 제외)	119
〈표 3-2-3〉 2021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120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121
〈표 3-2-5〉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125

〈표 3-3-1〉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현황	126
〈표 3-3-2〉 2021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126
〈표 3-3-3〉 2021년 ‘대한민국청소년 온라인 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128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129
〈표 3-3-5〉 유공자 포상 현황	131
〈표 3-3-6〉 역대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132
〈표 3-3-7〉 연도별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개최 현황	135
〈표 4-1-1〉 2021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140
〈표 4-1-2〉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141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현황(2011~2021)	142
〈표 4-1-4〉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145
〈표 4-1-5〉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	145
〈표 4-1-6〉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실인원 및 지속 참여인원	145
〈표 4-1-7〉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146
〈표 4-1-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현황	147
〈표 4-1-9〉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148
〈표 4-1-10〉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현황	149
〈표 4-1-11〉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150
〈표 4-1-1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요 기능	151
〈표 4-2-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157
〈표 4-2-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유형 구분	158
〈표 4-2-3〉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158
〈표 4-2-4〉 기관 유형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현황	159
〈표 4-2-5〉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별 운영 현황	159
〈표 4-2-6〉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160
〈표 4-2-7〉 지역별 신고 수리 현황	162

〈표 4-2-8〉 시설 유형별 신고 현황	163
〈표 4-3-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9개국)	164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165
〈표 4-3-3〉 한·중 청소년 교류 현황	167
〈표 4-3-4〉 국제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 프로그램 현황(2021년)	169
〈표 4-3-5〉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170
〈표 4-3-6〉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171
〈표 4-3-7〉 2021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172
〈표 4-3-8〉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역대 개최 현황	173
〈표 4-3-9〉 조직위 사무국 구성(2단계 : '21. 7.~)	176
〈표 4-3-10〉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요	177
〈표 5-1-1〉 연도별 아동빈곤율 현황	181
〈표 5-1-2〉 연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182
〈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 수 연령별 현황	184
〈표 5-1-4〉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185
〈표 5-1-5〉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186
〈표 5-1-6〉 2020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186
〈표 5-1-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187
〈표 5-1-8〉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189
〈표 5-1-9〉 2020년 보호대상아동 보호 세부 현황	190
〈표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혁	192
〈표 5-2-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운영 현황	193
〈표 5-2-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인원	194
〈표 5-2-4〉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196
〈표 5-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197
〈표 5-2-6〉 쉼터의 종류 및 기능	198

〈표 5-2-7〉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199
〈표 5-2-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내용	200
〈표 5-2-9〉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201
〈표 5-2-10〉 특별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202
〈표 5-2-1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203
〈표 5-2-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206
〈표 5-2-13〉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206
〈표 5-2-1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208
〈표 5-2-15〉 연도별·학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210
〈표 5-2-1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및 운영 현황	211
〈표 5-2-17〉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212
〈표 5-2-18〉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214
〈표 5-2-19〉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216
〈표 5-2-20〉 연도별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218
〈표 5-2-21〉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219
〈표 5-2-22〉 연도별 가정위탁 보호 현황	220
〈표 5-2-23〉 연도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23
〈표 5-2-24〉 국내·외 입양 현황	225
〈표 5-2-25〉 국내 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226
〈표 5-2-26〉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227
〈표 5-3-1〉 2020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232
〈표 5-3-2〉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234
〈표 5-3-3〉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235
〈표 5-3-4〉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236
〈표 5-3-5〉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237
〈표 5-3-6〉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238

〈표 5-3-7〉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이용인원	241
〈표 5-3-8〉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지원서비스 이용건수	242
〈표 5-3-9〉 2020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243
〈표 5-3-10〉 2021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243
〈표 5-3-11〉 청소년상담1388 주요 실적	245
〈표 5-3-12〉 연도별 청소년상담1388 호소문제 유형별 이용건수	245
〈표 5-3-13〉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247
〈표 5-3-14〉 2021년 또래상담 사업 실적	248
〈표 5-3-15〉 2021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학교폭력 대응역량 향상도)	249
〈표 5-3-16〉 2021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내담자 학교생활 만족도)	250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251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253
〈표 5-4-3〉 성별·연령별 50m 달리기의 추이	255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256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256
〈표 5-4-6〉 성별·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2011-윗몸말아올리기)	257
〈표 5-4-7〉 성별·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258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259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비율	260
〈표 5-4-10〉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	260
〈표 5-4-11〉 아침식사 결식률	261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263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264
〈표 6-1-1〉 분야별 점검등급 구분	271
〈표 6-1-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주요 내용	271
〈표 6-1-3〉 2021년 분야별 점검 결과	272

〈표 6-1-4〉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75
〈표 6-1-5〉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278
〈표 6-1-6〉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280
〈표 6-1-7〉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	280
〈표 6-1-8〉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281
〈표 6-1-9〉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84
〈표 6-1-10〉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285
〈표 6-1-11〉 지역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2020)	289
〈표 6-1-12〉 학대피해아동 발견율(2016~2020)	290
〈표 6-1-13〉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2016~2020)	290
〈표 6-1-14〉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6~2020)	291
〈표 6-1-15〉 아동학대 발생장소(2020)	292
〈표 6-1-16〉 피해아동 상황(2020)	293
〈표 6-1-17〉 아동학대 응급조치 현황(2020)	296
〈표 6-1-18〉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2021)	300
〈표 6-1-19〉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2011~2020)	302
〈표 6-1-20〉 장기실종아동 현황(2021)	303
〈표 6-1-21〉 실종아동등 유전정보 채취 현황(2019~2021)	303
〈표 6-1-22〉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한 실종아동등 발견 현황(2019~2021)	304
〈표 6-1-23〉 실종아동등 지문 사전등록 현황(2021)	304
〈표 6-1-24〉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307
〈표 6-1-25〉 실종아동등 보호 지원	308
〈표 6-1-26〉 14세 이하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 현황(2016~2020)	310
〈표 6-1-27〉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 유형별 사망자 현황(2015~2019)	311
〈표 6-1-28〉 아동(만 13세 미만) 교통사고 현황(2016~2020)	311
〈표 6-1-29〉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과제(2018)	314

〈표 6-1-30〉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2021)	316
〈표 6-2-1〉 청소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 연령	319
〈표 6-2-2〉 청소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319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322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323
〈표 6-2-5〉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324
〈표 6-2-6〉 2021년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325
〈표 6-2-7〉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326
〈표 6-2-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327
〈표 6-2-9〉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329
〈표 6-2-10〉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	330
〈표 6-2-1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332
〈표 6-2-12〉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334
〈표 6-2-13〉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335
〈표 6-2-14〉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337
〈표 6-3-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지원 현황	345
〈표 6-3-2〉 주요 프로그램 총괄 예시	346
〈표 6-3-3〉 상담 및 사례관리 인원	346
〈표 6-3-4〉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	354
〈표 6-3-5〉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354
〈표 6-3-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355
〈표 6-3-7〉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실적 현황	357
〈표 6-3-8〉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적 현황	357
〈표 7-1-1〉 연도별 학령인구	361
〈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363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365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 수	367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유학 현황	368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369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	371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372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373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375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8)	376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377
〈표 7-1-13〉 중학교 3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379
〈표 7-1-14〉 고등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380
〈표 7-1-15〉 중학교 3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382
〈표 7-1-16〉 고등학교 2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383
〈표 7-1-17〉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385
〈표 7-2-1〉 시·도별 교육복지안전망 수 및 교육지원청명	390
〈표 7-2-2〉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396
〈표 7-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396
〈표 7-2-4〉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397
〈표 7-2-5〉 2000년 이후 초·중등 학생 수 감소 추이	398
〈표 7-2-6〉 학교별 등교수업 시기	400
〈표 7-2-7〉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402
〈표 7-2-8〉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지원 현황	403
〈표 7-2-9〉 2019년 화상교실 운영학교 현황	404
〈표 7-2-10〉 화상교실의 교육적 효과 조사 결과	405
〈표 7-2-11〉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현황	407
〈표 7-2-12〉 다문화학생 유형별·학교급별 현황	408

〈표 7-2-13〉 탈북학생 출생지별 지원 비교	413
〈표 7-2-14〉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414
〈표 7-2-15〉 탈북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414
〈표 7-2-16〉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	415
〈표 7-2-17〉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출생지별 재학 현황	416
〈표 7-2-18〉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416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427
〈표 8-1-2〉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429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현황 추이	430
〈표 8-1-4〉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432
〈표 8-1-5〉 연도별 청소년 실업률 추이	434
〈표 8-1-6〉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436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 계층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438
〈표 8-1-8〉 20대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439
〈표 8-1-9〉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440
〈표 8-1-10〉 근로시간 형태별 청소년 근로자 수 현황	442
〈표 8-1-11〉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업종 및 근로조건 현황(2020년)	444
〈표 8-2-1〉 2021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446
〈표 8-2-2〉 2021년 비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447
〈표 8-2-3〉 2021년 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447
〈표 8-2-4〉 2021년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448
〈표 8-2-5〉 2020년 졸업자의 취업 상황과 취업률	449
〈표 8-2-6〉 2020년 성별·학제별 취업자 및 취업률	449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	467
〈표 8-3-2〉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직업심리검사 개요	467
〈표 9-1-1〉 연도별 청소년 범죄자 현황 및 구성비(2011~2020)	476

〈표 9-1-2〉 주요 범죄군별 청소년 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2020)	477
〈표 9-1-3〉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현황(2011~2020)	478
〈표 9-1-4〉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	479
〈표 9-1-5〉 청소년 범죄의 성별 현황	480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2011~2020)	481
〈표 9-1-7〉 청소년 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2009~2019)	482
〈표 9-1-8〉 연도별 학생 범죄 현황	483
〈표 9-2-1〉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2011~2020)	485
〈표 9-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2011~2020)	485
〈표 9-2-3〉 학교폭력 신고 추이(2018~2020)	486
〈표 9-2-4〉 연도별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2011~2020)	488
〈표 9-2-5〉 연도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현황(2015~2020)	489
〈표 9-2-6〉 연도별 청소년범죄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2011~2020)	490
〈표 9-2-7〉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2015~2020)	490
〈표 9-2-8〉 연도별 명예경찰소년소녀단 현황(2011~2020)	491
〈표 9-2-9〉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현황(2017~2020)	492
〈표 9-2-10〉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현황(2017~2020)	493
〈표 9-2-11〉 연도별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 실적(2011~2020)	494
〈표 9-2-12〉 연도별 학교담당감사제 활동 실적(2011~2020)	495
〈표 9-2-13〉 연도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2011~2020)	496
〈표 9-2-1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2013~2020)	497
〈표 9-2-1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2013~2020)	498
〈표 9-2-16〉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1~2020)	499
〈표 9-2-17〉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임무	500
〈표 9-2-1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502
〈표 9-2-19〉 연도별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현황(2011~2020)	502

〈표 9-2-20〉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자교육 현황(2014~2020)	503
〈표 9-3-1〉 청소년 범죄자 유형별 검거 현황(2011~2020)	504
〈표 9-3-2〉 연도별 청소년범죄 처리 현황(2011~2020)	506
〈표 9-3-3〉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2011~2020)	508
〈표 9-3-4〉 연도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1~2020)	509
〈표 9-3-5〉 연도별 청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2011~2020)	510
〈표 9-3-6〉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2011~2020)	512
〈표 9-3-7〉 연도별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현황(2011~2020)	513
〈표 9-3-8〉 소년보호처분의 유형별 현황(2013~2020)	514
〈표 9-3-9〉 연도별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2011~2020)	516
〈표 9-4-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519
〈표 9-4-2〉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2011~2020)	520
〈표 9-4-3〉 연도별 보호소년 수용 현황(2011~2020)	521
〈표 9-4-4〉 연도별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2011~2020)	522
〈표 9-4-5〉 연도별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2011~2020)	522
〈표 9-4-6〉 연도별 상급학교 진학 현황(2011~2020)	522
〈표 9-4-7〉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2011~2020)	524
〈표 9-4-8〉 연도별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2011~2020)	525
〈표 9-4-9〉 청소년 수형자 죄명별 인원(2011~2020)	526
〈표 9-4-10〉 청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11~2020)	527
〈표 9-4-11〉 청소년 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2011~2020)	528
〈표 9-4-12〉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2011~2020)	530
〈표 9-4-13〉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 현황(2011~2020)	530
〈표 9-4-14〉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2011~2020)	533
〈표 9-4-15〉 연도별 청소년 대상 판결(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 현황(2014~2020)	534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539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540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550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551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553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554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556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557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559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559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560
〈표 10-4-1〉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569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571
〈표 10-4-3〉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571
〈표 10-4-4〉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현황	574
〈표 10-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575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 현황	588
〈표 10-6-1〉 연도별 청소년 예산	591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594

[그림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비전, 목표 및 중점과제	08
[그림 2-1-1]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66
[그림 2-2-1] 주중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대화시간 포함)	85
[그림 3-2-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절차	121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절차	124
[그림 4-2-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156
[그림 4-2-2] 청소년수련활동신고 수리 절차	162
[그림 4-3-1]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엠블럼	176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2019년, 중위소득 50%)	181
[그림 5-1-2] 한부모가구비율 추이	183
[그림 5-1-3]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추이	188
[그림 5-2-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194
[그림 5-2-2]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195
[그림 5-2-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절차	201
[그림 5-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09
[그림 5-2-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09
[그림 5-2-6]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213
[그림 5-2-7] 최근 5개년('16~'20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215
[그림 5-2-8]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216
[그림 5-2-9]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추진 체계	228
[그림 5-3-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체계도	240
[그림 5-3-2]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244
[그림 5-3-3] 2020년 청소년상담1388 월별 이용실적	246
[그림 5-3-4] 2021년 청소년상담1388 월별 이용실적	246

[그림 5-4-1] 학년별 현재 흡연율	262
[그림 5-4-2] 학년별 현재 음주율	263
[그림 5-4-3]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265
[그림 5-4-4]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266
[그림 6-1-1]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2021)	298
[그림 6-1-2] 청소년(9~24세) 안전사고 현황(2010~2019)	312
[그림 6-2-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334
[그림 6-2-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337
[그림 6-2-3] 여성가족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340
[그림 7-1-1] 연도별 학령인구	360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366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370
[그림 7-2-1] 시·도별 교육복지안전망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유형	391
[그림 7-2-2] 방과후학교 비전·목표·전략	394
[그림 7-2-3] 농어촌 지역 학생 수 변화(본교기준)	398
[그림 7-2-4] 시·도별 폐교학교 수(2020년도)	399
[그림 7-2-5] 도서벽지 화상교실 운영 유형(단일형, 거점형)	404
[그림 7-2-6]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407
[그림 7-2-7]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및 일반학교 다문화 수용성 변화 비교	411
[그림 7-2-8] 탈북학생 단계별 교육지원 체계	418
[그림 7-2-9] 2020년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419
[그림 8-1-1] 2020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428
[그림 8-1-2] 2020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429
[그림 8-1-3]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	432
[그림 8-1-4] 청소년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433

[그림 8-1-5] 청소년 취업자의 취업경로	433
[그림 8-1-6] 2020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435
[그림 8-1-7] 2020년 청소년의 성별 실업률 국제 비교	437
[그림 8-1-8]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20년)	443
[그림 8-1-9]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2020년)	443
[그림 8-2-1]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취업률(2020 · 2019년 비교)	450
[그림 8-2-2]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취업률(2020 · 2019년 비교)	451
[그림 9-1-1]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1~2020)	478
[그림 10-1-1]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	538
[그림 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549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552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558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568
[그림 10-5-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 현황	582

제1부 요약

제1부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연혁 및 기본방향,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간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과 성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국가별 청소년 연령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12대 중점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12대 중점과제로는 첫 번째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혁신하고,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며,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위기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들은 각 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에서는 UN 등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청소년 연령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UN을 비롯해 유럽연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변화와 흐름, 청소년정책 담당 기구 및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UN은 2018년 9월에 발표한 '청소년 2030 전략(The Youth 2030 Strategy)'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에 주목하며, 5대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통해 청소년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역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여전히 주요 그룹으로 여겨지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해 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유럽 내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과 유럽연대봉사단(European Solidarity Corps)이 온라인 비대면 학습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모두 청소년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관련 법령을 구축·정비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주요 핵심 추진 기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1부 총론

제1장 청소년정책 연혁

제2장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01

제1장 청소년정책 연혁

1. 청소년정책의 범주

청소년정책은 그 개념 및 정의에 따라 크게 광의적 범주와 협의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정책으로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과 관계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1965년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펴낸 청소년백서는 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회교육 정책을 포함해 복지, 노동, 비행 및 농어촌 청소년지도 등 청소년과 관계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모두를 청소년정책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까지 발간된 청소년백서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 및 중앙정부 각 부처의 고유 기능과 연계한 정책영역별로 분류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정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은 「청소년 기본법(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다.

청소년정책을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안전과 보호, 청소년의 교육, 청소년과 노동,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청소년정책 추진체제 등 대체로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정책들을 말한다. 물론 청소년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청소년복지의 일부 업무)’, ‘교육부(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청소년의 교육 중 일부 업무)’, ‘고용노동부(청소년과 노동의 일부 업무)’ 등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업무 중 일부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정책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적 범주의 청소년정책은 대체로 「청소년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중장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한편, 정책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광의의 시각이 있는 반면,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근거 법률, 즉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0~18세 미만)과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른 청소년(9~24세)의 연령을 나누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정책대상으로 중복되는 만 9~17세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 각기 정책의 수립과 추진차이에 따라 아동정책 혹은 청소년정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백서에서는 청소년정책을 협의적 범주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유관된 아동정책¹⁾을 포함한 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위주로 삼고 있다.

2.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중앙정부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및 주요 관계 법령 제정과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 1-1-1>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1-1-1> 청소년정책의 변천

단계	시기	특성	명칭	주무부처(기구)	주요 관계 법령
1단계	1948. 8. ~ 1964. 9.	부처별 산발추진	부처별 관련업무 추진	각 부처	
2단계	1964. 10. ~ 1977. 8.	부처차원의 조정	청소년보호 대책위원회	내무부 무임소장관실	
3단계	1977. 8. ~ 1988. 6.	정부차원의 조정	청소년 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문교부	「청소년육성법」 제정
4단계	1988. 6. ~ 2005. 4.	정부차원의 조정, 부처차원의 총괄 집행	청소년 육성위원회	체육부/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정 「청소년 보호법」 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

1) 아동정책의 예로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디딤씨앗 통장사업,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아동급식사업 등이 있음.

단계	시기	특성	명칭	주무부처(기구)	주요 관계 법령
5단계	2005. 4. ~ 2008. 2.	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단일청소년 전담 조직 출범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무총리실	
6단계	2008. 3. ~ 2010. 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7단계	2010. 3. ~ 현재	여성가족부 개편 및 이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자료 : 여성가족부(2016).

1단계는 1948년 8월부터 1964년 9월까지로, 이 기간은 특별히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정부 행정 기구나 전담기구가 없던 시기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 8월까지 약 13년간의 시기로서 내무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주요 업무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위주 정책으로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차원의 조정과 규제·보호위주의 청소년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 6월까지 11년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차원의 청소년 관계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국무총리실에 ‘청소년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청소년정책이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되었다. 이 때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5~1987)」이 수립되었고, 1987년 11월 28일에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1988년 7월 1일에 동 법률이 시행되었다.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단계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과 청소년일탈 및 비행예방, 규제 등 청소년의 긍정적 개발보다는 청소년을 청소년 비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체이거나 피해대상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관점이 우세하였다.

4단계는 1988년 6월부터 2005년 4월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청소년육성법」의 시행과 함께 출발하였다. 「청소년육성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비로소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수립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소년육성법」의 시행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그쳐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이 시기는 청소년 관련 전담 조직의 설치·운영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즉 이 시기에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청소년정책 조정실로 확대·개편 되었으며, 「청소년헌장」(구)이 제정(1990. 5. 12.)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변경되면서 청소년업무의 영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이 수립(1991. 6.)되었고,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1993. 6.)되었으며,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는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1991. 12.)되었다. 이후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되면서 청소년정책조정실은 청소년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10월 25일 새로운 「청소년헌장」이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 전담기구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8년 2월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를 전담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청소년에 관한 주요 관계 법령의 제정과 시행이 이어졌고,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개발(참여와 권리존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5단계는 2005년 4월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과 단일 청소년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시기이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청소년 관련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의 곤란과 함께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였고, 나아가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성·운영 하였고,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 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시기에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청소년복지기반이 조성되었고, 청소년참여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6단계는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된 이후 2010년 2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하지만 아동 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추진은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다시 분리 되기에 이르렀다.

7단계는 2010년 1월 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2010. 3. 19.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는 시기다. 이 기간에 여성정책의 조정과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이 일층 강화되면서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정책과 연계하는 발전 전략을 지향하게 되었다.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5년 5월 동 법률이 시행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하여 모든 청소년으로 청소년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사실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참사 등의 안전사고들로 인해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있어 청소년의 안전이 무엇보다 강조됨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개정하여 제9조의2에 의거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2018년 12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추진단을 구성하여 잼버리 행사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과제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한다는 적극적인 정책 기조가 강조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제2장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1.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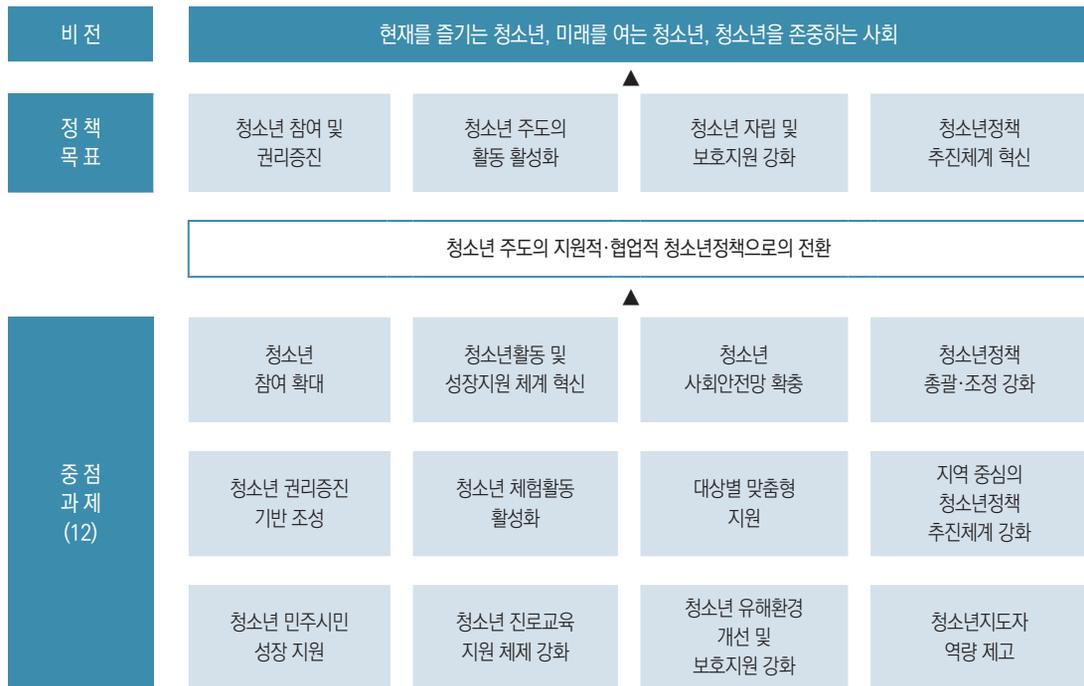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1993년부터 5년마다 법정부적 차원의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2017년까지 추진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5대 영역²⁾의 15대 중점과제와 7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그동안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구축을 통한 청소년활동 기반 강화, 청소년 체험활동의 다양화로 건강한 성장지원, 청소년정책참여의 기회 확대,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보호·치료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가족구조의 다양화와 가족 기능의 위축, 뉴미디어와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매체환경의 급변과 이로 인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위험 증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 및 고용 불안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청소년정책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관심의 부족, 공급자 중심의 수요 예측과 계획에 의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개, 위기 청소년의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지원의 부족, 지역 중심의 성과 지향적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미흡 등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5대 영역: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에 정부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학계, 시설, 단체, 청소년,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였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2대 중점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본 장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비전, 목표 및 중점과제



자료 : 여성가족부(2018).

2. 추진방향 및 주요 실적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은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현재 삶을 영위하는 존재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은 청소년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속에서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협력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한다.

아울러 사회적 격차와 빈곤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 아래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함한다.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지역과 현장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청소년 시설의 체질을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등의 4대 영역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중점과제 및 세부 과제들과 더불어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실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첫 번째 정책목표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및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이 중점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컨설팅, 운영모델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제공,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참여 및 자기개발 관점의 자기주도형 자원봉사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위원 구성 방법을 다원화하여 청소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실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참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의견 제안 등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며,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상의 청소년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에 청소년(19~24세) 위원의 위촉을 권고하며, 청소년특별회의가 제안하는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어울림마당 청소년기획단’을 기존 16개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정책 및 활동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와 MBC 특별생방송 및 청소년 유튜브 생중계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역대 최대규모의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약 16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2021년에도 온라인 방식의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형 가상 전시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면활동 중심의 청소년활동을 비대면·소규모 양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에 비대면 청소년활동 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 및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과 연계한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두볼, Dovol)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및 실적 관련 증빙을 교육부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학생회 법제화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지도강사를 파견하는 등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생 자치 역량을 배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233개 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2020~2021년), 청소년참여기구를 모든 청소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험적 민주시민의 장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을 43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발굴한 정책과제가 해당 부처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의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참여기구에 취약계층 청소년이나 청년 등을 포함하는 등 구성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제16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접 투표로 ‘청소년 자립’을 주제로 선정하여 취업·정보·보호·경제 등 5개 분야 33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였고, 이 가운데 부처 의견수렴 결과 32개 과제가 수용되었으며, 2021년에는 ‘공정’을 주제로 30개 과제를 발굴·제안하였고, 이 가운데 28개 과제가 수용되었다. 또한 2020년 6개, 2021년 10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별 기존 청소년참여 위원회와 연계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참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청소년참여포털³⁾ 시스템을 개편하여 누구나 정책 제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논의할 정책 제안과제로 연계하였다. 또한 온라인 영상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청소년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유 및 부처 간 정책연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추천한 청소년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6인을 선정하여 위촉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청소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의 권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권리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권리교육 활성화, 청소년

3)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수칙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통한 운동선수들의 인권 침해 사전 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채널을 통한 근로권익 상담, 근로감독관·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근로권익 침해 구제 지원 및 부당해고 구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처우 구제를 지원하며,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근로 동의 발급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식을 제고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을 위해 가정에서의 놀이문화 확산, 학교에서의 놀이·여가 시간 확보 권장, 지역사회, 가정, 학교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놀이·여가 필요성 홍보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놀이·여가 프로그램 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연계·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관심군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며, 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및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체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체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건강증진학교 운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방식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건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안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과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스포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스포츠인권센터(~'20년 7월)와 스포츠윤리센터('2020. 8.~)를 운영하고,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스포츠 인권향상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체육계 (성)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 선수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제를 확대 시행하고, e-school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권리보호에 대한 홍보 및 권리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의 신체 건강권 보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대상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의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실시간 상담 및 현장중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와 관련한 상담 및 현장 중재·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제공하고 597개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모바일 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근로현장도우미가 아르바이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상담 및 야간 전화상담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상담창구를 운영하였다. 학교,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의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확대·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교육부 및 서울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과서를 개발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지역사회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 놀이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선별된 자살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연계·협조·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자살위험군의 전문기관 연계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살이나 폭력 등 위기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였으며,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특화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이버 아웃리치의 신규 추진, 온라인 상담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코로나 블루로 인한 위기 상황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청소년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및 소년원 재원생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제공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검진대상자를 전산등록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체계를 현물지원에서 바우처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라디오 광고와 유튜브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및 대형마트, 편의점, 모바일 앱 등 가맹점을 확대함으로써 바우처 신청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셋째,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토론 능력과 정치참여 의식 증진을 위한 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의 운영을 확대하며,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보급 및 다문화중점학교 확대,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 및 일반 청소년과의 교류 촉진,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정 및 활용, 청소년 연령대별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청소년활동과 연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확산, 이성애에 대한 상호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평등 캠페인 실시 등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등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과 연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보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등 청소년의 언어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의 확대, 강사 양성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984명의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하여 19회에 걸친 입법체험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전국 8개교에 걸쳐 224명의 청소년법제관을 위촉하여 9회의 입법체험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특성화 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 상담 및 학과박람회 개최하여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진로·진학지도 및 장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 58개소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 과정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과정에 성평등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개설하였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과정에 철학과 윤리에 대한 특강을 포함하고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과정에는 인성함양을 위한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시민과 사회정서 등과 관련한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을 통하여 농어촌 마을·권역에 구축된 현장체험 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2020년에는 2개 국립청소년수련원에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된 주요 과제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이다.

첫째,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활동 인프라 재구조화가 제시되어 있다.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역량지표 개발을 통해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민주시민, 사회정서활동, STEAM·메이커 활동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창의적·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활동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하며, 역량기반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등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청소년이 기획하고 과제를 개발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활동을 연계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확산하며,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 활동 및 아이디어 창출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운영과목을 다양화하며, 청소년이 직접 선택해서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고,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집적하는 공유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계와 과학교육 간 연결고리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적 기술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며, 창의역량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혁신 및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적으로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 역량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핵심역량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역량지표 표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STEAM, SW교육,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이커 동아리, 청소년 비즈쿨, 발명교육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공모사업을 역량기반 활동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사전·사후 역량 변화도를 측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80여 곳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 및 과학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과학관이나 출연연구소 등과 연계한 체험중심 캠프 프로그램 운영,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창의 디자인 캠프 운영,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및 수업모델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과목 선이수제(공동AP), 첨단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교육(pre-URP) 등 고교-대학교육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안정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였다. 또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 비즈쿨을 통한 기업가정신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중·고·특수 학교급별 기업가정신 캠프를 개최하고, 도서·벽지·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즈쿨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다시 청소년이다' 프로그램과 청소년주도형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프로젝트활동 운영모형(KYWA형 PBL 운영모형)을 개발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34개 청소년시설·기관에 보급하여 운영을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에 온라인 비대면 형식을 도입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인 'e-청소년'에 비대면 청소년활동 페이지를 개설하여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를 제공하였고, 기존 대면 봉사활동을 전환하여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봉사활동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참여한 봉사활동 실적을 행정안전부의



1365 나눔포털과 연계하고, 교육부 학생생활기록부 나이스 전산시스템으로의 전송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수련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어울림마당 등을 통한 청소년문화 활동의 장려, 문화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청소년문화 활동 지원,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우대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운동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과 청소년에 적합한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며, 여성청소년의 신체활동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며, 청소년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함과 더불어 2023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 잼버리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통일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수련 활동의 신고·인증 활성화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과정에 안전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종사자 안전교육을 확대하며, 수련활동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활동 현장 배치 확대, 위험도 높은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적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문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을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등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 동아리 수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순화 및 문화감수성 함양을 도모하였으며,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 강사를 학교의 수요에 맞게 지원하여 학교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초·중·고등학교 방문교육을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인성 및 창의력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양질의 무형유산을 활용한 진로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재능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 학교, 지자체 등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증의 단체 발급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19. 8.)하여 대형서점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청소년증 우대 혜택 제공을 확대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증을 투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국민 안내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 지자체, 조폐공사 등과 협력하여 연중 청소년증을 단체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스포츠교실, 청소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i-League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신체 능력 및 특성을 반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여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여학생 특화 우수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지역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여학생 참여 종목을 5개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 여학생의 참여 확대를 위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학생스포츠교실, 청소년스포츠 보급, 유·청소년 축구클럽 리그 운영,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활동을 지도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체육 생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청년의 중국파견, 일본 대학생대표단 방한 초청 및 한국 대학생대표단의 일본 파견,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의 모국연수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지원하여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는 ‘통합과 포용’을 주제로 54개국 198명이 참여한 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하여 각국별 청소년활동 사례 등 사전 정책 조사 및 사후 공유를 통하여 쌍방향·참여형 청소년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소규모 온택트 방식의 국제교류를 발굴·추진하였다. 즉 11개국 110명이 참여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개최하였고 아시아 지역 최초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개최를 정례화하였으며, 30개국 5,200여 명이 참여한 세계디지털야영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제교류 활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일본 및 브루나이와 온택트 방식으로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육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하여 2020년 7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의 개최 및 법인을 설립하여 3개 본부 7개팀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구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4개 본부 18개팀으로 확대하였다. 청소년 대상 TV 광고, 유튜브채널, 전광판 광고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관련 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청소년 체험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안전체험시설 증대 및 생존수영 교육의 청소년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수련활동 신고제 및 인증제의 운영, 수련활동 현장 점검의 강화, 국가안전 대진단 등 수련시설 및 체험활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련시설별 안전 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를 전산화하여 안전 운영과 관련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지도자 직무별(운영대표자, 활동지도자, 시설관리자) 온·오프라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안전교육의 강화, 찾아가는 안전 교육 실시, 코로나19 대응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수련활동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활동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또한 2급 및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 과정에 안전과 관련한 사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의 확대 및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초·중·고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진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동아리 등 자율적 진로활동을 활성화하며, 진로 관련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확산할 예정이다. 진로탐색-개발-취업을 연계한 대학생 진로활동을 위해 지역 산업계·대학·고용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직업체험장을 구축하며, 찾아가는 진로 교육이나 원격진로 특강·상담·멘토링 등을 통하여 진로체험 기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작업장과 내일이룸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취·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동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강화를 통해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워크넷과 연계한 정보 제공, 청소년(청년) 특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소년(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 내실화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 내실화, 대학창업펀드 조성 등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청년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 확산 등을 통하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내·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실적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인 ‘꿈길’을 통해 체험처 활동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진로교육 연구학교 운영,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 진로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진로활동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 연계가 가능한 자기도전포상제의 신규 영역으로 진로개발을 신설하여 시범 운영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모델을 개발하였다. 현장체험, 찾아가는 멘토, 학교자체 수업 등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미래 성장 산업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학기제 관련 청소년의 관심이 높은 우수한 진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로체험버스를 통한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계층·지역 인프라의 불균형에 따른 진로체험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립지원과 더불어 검정고시반, 대입설명회 등 기초학습역량 제고 및 학력 취득, 상급학교 진학 지원을 포함한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직업훈련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학업 및 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진로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과학기술 잠재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R&D 역량이 부족한 ICT 기업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R&D 바우처 신규 지원을 통해 청소년(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청소년의 자립과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안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위기 유형별 청소년에 대한 상담, 회복, 자립지원까지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체계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CYS-Net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서비스 제공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촘촘한 청소년복지지원체계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위기 유형에 따른 필수연계 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기 청소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환경 구축, 위기청소년 평가 및 진단 도구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굴-진단-분석평가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거리 및 사이버)를 활성화하고,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청소년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상담서비스 질 제고,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 상담 지원 강화, 청소년 동반자를 통한 정서·심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주거 우선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비진학 또는 미취업 후기 청소년(19~24세)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CCTV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아동·청소년 실종 예방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 취약·위기 가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확대하며, 가족 사랑의 날, 가족친화인증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가해·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을 확대하며, 부모를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실적으로 현장 아웃리치 사업을 활성화하고,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통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에 청소년 안전망팀을 신설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발굴체계를 강화하며 자살이나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80개 지자체에 97명의 위기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신규 배치하였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 및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 요원을 확충 배치하였으며, 거리상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연합 아웃리치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연합아웃리치 방식보다는 철저한 방역조치 하여 지역별 소규모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후기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비진학, 미취업 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청소년사회안전망 연계·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안전망을 내실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20년에는 236개, 2021년에는 238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는 2020년 1,349명, 2021년 1,345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365일 24시간 전화, 문자, 사이버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위기 개입 체계를 확보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위기청소년 전담기구(청소년안전망팀) 설치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성을 향상하여 CCTV 관제기능 통합, 기반조성 등 자치단체 CCTV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연계를 위한 정보연계시스템을 전국 교육청 및 경찰관서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전담경찰관 활용,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업무 절차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업무협의,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협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로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위기 가정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발생 예방을 위해 실종예방강사를 양성하였으며,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 온라인 행사, 실종·유괴예방 포스터제작 및 배포, 실종 관련 홍보 공모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실종 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하였고, 실종정보 및 유전자등록 포스터 제작·배포, 실종찾기물품 지원,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의료비 및 심리검사·상담 지원, 실종가족 건강지원 등 실종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가정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등록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부처 다자간 협의체의 상설화 및 협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둘째,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시도하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하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존감 회복 및 관계형성 증진을 위한 전문 적응지원 상담프로그램 제공,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의 학습 및 학력인정 지원, 건강증진 지원, 직업체험 및 전문화된 직업훈련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이란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쉼터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청소년 쉼터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쉼터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한 주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의 회전문을 차단하고자 한다.

비행 청소년의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적 선도 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 기소유예자 및 조건부 기소유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비행 예방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비행 청소년의 조기 선도를 강화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및 사회적응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고 미혼모 시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며, 양육비 이행 신청 및 확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추진하며, 공동생활 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취업지원, 청소년 한부모 대상 특화형 내일 이룸학교훈련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 환경이 구비된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학생 미혼모 전담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교육비 및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취업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 취업 청소년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학업·취업·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연계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도모 하였으며,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연계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정보연계의 신속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경찰청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 시·군·구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2020년 9개소에서 2021년 10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운영, 멘토링, 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반 운영 및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학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개발하여 2021학년도 입시를 위해 전국 4개 대학에서,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6개 대학에서 시범 적용하였으며, 향후 16개 시·도별 1개 대학 이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일이룸학교의 훈련과정 확대 및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훈련 참여도를 제고함으로써 자격 및 학력 취득 인원이 증가하였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135개소로 확대(2020년)하였으며, 쉼터 퇴소 이후에도 자립 여건을 갖추지 못한 후기 청소년(19~24세)에게 주거지원·생활지원 등 종합 자립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0년 9개소에서 2021년 10개소로 확대하는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 하였다. 청소년쉼터 입소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보호자 연락 원칙'을 완화하여 청소년의 위기 정도에 따라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청년임대주택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하고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2021년에는 115명으로 확대 배치하였다. 특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의 전환을 위하여 보호기간 중심의 청소년복지시설 분류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 신규 지원, 자립지원실비 지원, 전세·매입 임대주택 및 청년 건설

임대주택까지 우선 입주가 가능한 주거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회적기업 특례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갈 곳이 없는 비행 경험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20개소로 확대(2020년)하였으며,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의 치유를 위한 상담, 학습지원, 자립지원, 생활·보호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확충하여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를 건립하였고, 호남권에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비 및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남한사회 정착 및 학습능력 향상, 재능개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통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6.7만개 기업, 37.5만 명의 청년에 대한 추가고용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387,587명의 청년과 97,511개소의 기업이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76,680명이 만기금을 수령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을 통해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우선 자립여건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월 소득 대비 주택임차료 비율이 높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자금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대학생 대상 행복공공기숙사를 확충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2020년 304개소, 2021년 332개소로 확충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을 실시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에게 급식과 상담, 학습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등 맞춤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서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학원밀집지역 내 유해업소 점검·단속 강화 등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술·담배 판매 업소의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약물에 대한 노출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유해약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재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종 유해·불법 정보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 웹툰, 인터넷신문 광고 등의 청소년 유해성 상시 모니터링, 음란정보 및 사이버도박 등 불법·음란정보 차단 및 유통사업자 처벌, 청소년 매체환경보호센터를 내실화하고자 한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미디어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체계적 발굴 및 기숙치유프로그램과 가족 치유클럽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고위험군의 적기 전문적 치유 서비스 제공 및 진단·발굴·치유지원·사후관리 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효과적인 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기관 합동 및 계기별 기획 점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신변종 유해업소와 매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확대하고, 동시에 학교 주변 유해환경의 이전이나 폐쇄를 유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신문 등의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을 위해 매체물 유통사업자 자율심의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사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광고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유해업소 홍보 사이트 및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의 및 차단 요청, 구글코리아와 협력하여 유튜브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음악파일) 및 홍보(성인용품 판매, 청소년유해업소 홍보사이트) 영상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 제한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인인증의무 등 청소년보호제도 이행 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를 강화하였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문적·시의적 대응을 위하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알려진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대상제공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신고기능, 대화저장 기능 등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채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인 사이버 안심존 운영 학교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유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안심존 사업을 2020년 전국 1,843개교로 확대하였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에 4만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착취 위험 보호를 위한 뭉캠퍼싱 방지 기능을 개발하였고, 2022년부터 섯다운제도가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협의하여 정하는 스마트폰 사용시간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였다. 특히 인터넷·스마트폰 치유클럽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인터넷 중독 개선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전수 대상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과의존 치유가 필요한 위험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의 운영,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통한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전문적·종합적 과의존 치유 서비스를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게임이해하기 교육 실시, 게임이용자 패널조사 실시,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 게임과몰입 실태조사 실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운영 등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업무를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증거기반 정책분석을 위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활동, 보호·복지·상담 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입 등 디지털화 작업을 기획·설계하는 청소년사업디지털화 기획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도 단위의 청소년 관련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편을 유도하여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며,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청소년 육성기금의 수입 재원 다각화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청소년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2019년)하였으며, 6명의 청소년을 청소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2020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과 관련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릴레이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의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청소년정책 역량 및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간 청소년정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사업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청소년정책 수립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견조사 및 전문가 자문, 빅데이터 활용 혁신서비스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7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6개소를 운영하고 분기별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청소년 성장·지원혁신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 홍보영상 제작, 전국 편의점 송출, 카카오톡 배너 광고, 고속도로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송사 및 포털 등과 협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 웹툰 광고 등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지정을 늘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공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터전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 인구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정책 전담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고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청소년생태센터(울속도)와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봉화)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5개 국립청소년수련원 내에 VR 기반 디지털 체험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였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배치지도사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2019년 147명에서 2021년에는 283명의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지방청소년육성 위원회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심의·의결 및 자문기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 자원을 종합·연계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청소년 업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학습 문화를 조성하며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다양화, 지역 내 협력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역량 확보에 부응하도록 청소년 분야 국가자격검정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실습을 연수 과정에 추가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기준표를 마련하는 등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향후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평가 도입 시 임금기준표 적용 여부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해가는 등 청소년 지도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제회 설립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정서·행동 장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스트레스나 무력감을 예방하는 등 정신건강 회복 및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자격연수와 보수교육 과정에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연수의 제약으로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시스템)가 도입되는 등 교육디지털화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청소년 연령 현황

유엔(United Nation)은 국제협약 및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청소년(youth)’을 15~24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등 UN 국제 기구들은 ‘청소년(youth)’ 통계를 산출할 때 15~2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동(child)’을 12세 미만으로, ‘청소년(youth)’을 12~24세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UN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CRC)」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역시 18세 미만으로 아동을 규정하고 있다.

〈표 1-3-1〉 UN 및 UN기구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기관	대상	연령구분
UN 세계청소년행동계획 (UN's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청소년(youth)	15~24세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청소년(youth)	15~24세
	청소년(adolescent)	10~19세
	청소년(young person)	10~24세
세계은행(World Bank)	아동(child)	12세 미만
	청소년(youth)	12~24세
UN아동권리협약(UNCRC)	아동(child)	18세 미만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미국은 「연방 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2009(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of 2009)」에 따라,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청소년 연령 기준에 대하여 법령 별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가출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은 21세 이하로,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에서 청소년은 14세 이상 21세 이하이다. 아동은 대체로 18세 미만인데,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의 아동은 13세 미만이다.

〈표 1-3-2〉 미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연방 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2009 (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of 2009)	청소년(Youth)	24세 이하
가출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청소년(Youth)	21세 이하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	청소년(Youth)	14세 이상 21세 이하
아동시민법(Child Citizenship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표준소년법(Uniform Juvenile Court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Child)	13세 미만
공정노동표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자료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2) 김정숙, 김기현, 황세영(2015).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3) 미국 연방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2009 <https://www.congress.gov/111/bills/hr2653/BILLS-111hr2653ih.pdf>.

영국은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에 근거하여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서는 아동을 13세 미만의 연령으로, 청소년(Young person)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3-3〉 영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아동 및 청소년(Child and Young person)	18세 미만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아동(Child)	13세 미만
	청소년(Young person)	18세 미만

자료 : 1) 김기현(2012).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기준 개정방향(안).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독일 연방정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와 독일 ‘연방청소년협의회(Deutscher Bundesjugendring)’가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은 12~26세이다. 기본적인 규정은 「8번째 사회법(Achtes Sozialgesetzbuch VIII: SGB)」이라 불리는 「아동·청소년 서비스관련 사회법」에 근거한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은 14세 미만 연령을 ‘아동(Kind)’으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을 ‘청소년(Jugendliche)’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에서 ‘청소년(Heranwachsende)’ 연령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며 「연소근로자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청소년(Jugendliche)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에서 아동은 14세 미만이고, 청소년(Heranwachsende)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다. 참고로 ‘청년(Junge Volljährige)’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다. 독일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이고, 자녀수당은 17세까지 지급되며, 18세부터 26세까지 자녀수당은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표 1-3-4〉 독일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연소근로자보호법 (Jugendarbeitsschutzgesetz)	아동(Kind)	15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und Jugendhilfe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청년(Junge Volljährige)	18세 이상 27세 미만

자료 : 1) 김기현(2012).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기준 개정방향(안).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3) 장주리(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일본은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未成年者)’, ‘소년(少年)’, ‘아동(兒童)’, ‘연소자(年少者)’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근거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정하고 있다. 「민법(民法)」의 미성년자와 「소년법(少年法)」상 소년,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 및 「미성년자흡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상의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刑法)」상 형사 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14세 미만이며,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등의 법률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본 내각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제정하고,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을 통해 아동과 청년(若者)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며, 영유아기, 학령기 및 사춘기 아동·청소년, 청년기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였고 대상 연령을 30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나아가 포스트 청년기(청년기를 지났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세 미만의 청년)에 놓인 연령대도 포함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표 1-3-5〉 일본 청소년, 청년 연령 기준 및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민법(民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형법(刑法)	형사미성년자 (刑事未成年者)	만 14세 미만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학령아동(學齡兒童)	6세 이상 12세 이하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연소자(年少者)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소년(少年)	소학교 취학시기에서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자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兒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兒童)	18세 미만
아동매춘·아동 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兒童買春・兒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 の処罰及び兒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兒童)	18세 미만

법률	호칭	연령구분
모자 및 과부 복지법(母子及び寡婦福祉法)	아동(児童)	13세 미만
소년법(少年法)	소년(少年)	20세 미만
청소년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청소년(青少年)	18세 미만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미성년자흡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아동과 청년(若者)	규정 없음 (지원시책은 30세 미만도 포함)

자료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2) 김정숙, 김기현, 황세영(2015).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2. UN 청소년정책 현황

UN의 청소년정책은 국제평화를 위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함께 청소년의 권리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정책의 방향은 1964년 ‘세계 청소년회의’와 1965년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 존중과 이해 증진에 관한 선언」, 그리고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 제정과 1995년 ‘세계 청소년의 해’ 10주년 기념을 맞아 발표한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청소년행동계획」, 1998년 「리송본 선언」, 그리고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와 2015년 ‘지속가능 발전목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4년 유엔 전문기구인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프랑스 그레노블(Grenoble)에서 개최한 ‘세계 청소년회의’는 학교교육의 보완책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교육의 필요성과 기능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제청소년위원회의 설립
- 청소년지도자와 전문가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이를 통한 정보문헌 조사 연구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센터의 설치
-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이러한 요소들의 통합 조정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활동의 활성화
- 이 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지역회의 형태나 혹은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심층 연구하는 연구모임 형태의 협의기구 설립
-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국 청소년지도자의 지역모임 혹은 국제모임의 소집
- 청소년문제를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문가의 파견
-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교육도 포함시킴으로써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들도 자신들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전문가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
-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

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원(1995), 프랑스 그레노블 세계청소년회의 자료집.

이어 UN은 1965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청소년의 평화이념과 국민 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을 채택하였다. UN은 이 선언문에서 청소년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청소년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모든 재능을 개발하고, 그들이 보다 높은 도덕적 자질을 획득하며 평화·자유·만인의 존엄과 평등의 고상한 이상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창조적 업적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고취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은 자신들이 관리 하도록 소명 받은 이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의식하여야 하며, 인류행복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고무되어야 한다.”

UN은 1985년을 ‘참여(participation)’,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를 주제로 하여 ‘세계청소년의 해’로 결의하면서 각 회원국이 청소년정책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 당시 UN은 청소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청소년을 ‘어른이 될 세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만이 아닌, 지금 현재 살아 있고 일을 하며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현 세대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인구, 교육, 고용, 보건 등에 관한 모든 발간물과 통계에서 이 연령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UN은 각국의 사정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의 연령 정의 역시 존중하고 있다. 청소년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사회적·문화적·심리적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3~19세의 십대와 20세부터 24세까지의 초기 성인기(early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adulthood)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UN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이념은 이후 1995년 '세계청소년의 해' 10주년을 맞아 채택한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청소년행동계획」, 1998년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과 동년에 개최된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 2000년 9월 '밀레니엄 정상회의(summit)'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 목표(MDGs)」, 2014년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서 채택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바쿠 선언」, 그리고 2015년 9월 25일 세계 123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개발정상 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으로 지속되었다.

청소년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한 실행지침은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청소년행동계획(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에서 구체화되었다. UN, 각 회원국 정부, 정부 간 혹은 비정부간 조직,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기관에 대해 향후 청소년분야가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채택되었다. 주요 목적은 '세계 청소년의 해'의 주제인 '참여·개발·평화'와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고, 의사결정 참여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청소년의 요구 및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사회·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과 청소년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평화의 이상과 상호 이해 및 존중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실행지침에서는 청소년을 단순한 인구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하위집단 즉, 도시와 비도시 청소년, 어린 여성, 인종차별을 받는 청소년, 어린 노동자, 학생, 어린 이주자와 난민, 장애청소년, 소년범죄자, 소아 약물중독자의 집합체로 청소년집단을 조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 분야를 교육, 고용, 기아 및 빈곤, 건강, 환경, 마약, 청소년비행, 여가활동, 여성 및 청소년,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참여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청소년의 삶에 대한 개입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8년 8월 세계 150개국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의 대표 등이 참석하고,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개최된 제3회 'UN 세계 청소년포럼'에서는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Braga Youth Action Plan)」이 채택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청소년정책(청소년정책 분야 간 통합, 국가 내 청소년 업무관련 NGO 간 협력, 빈곤추방 및 청소년 개발), ▲청소년참여(모든 청소년들의 참여, 청소년 조직과 UN기구,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사회개발을 위한 청소년 고용, 건강과 청소년 개발), ▲청소년인권(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청소년 권리 헌장과 청소년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동년 8월 158개국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리스본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은 국가수준의 ‘청소년정책’, ‘청소년 참여’, ‘청소년개발’, ‘청소년과 평화’, ‘청소년교육’, ‘청소년고용’, ‘청소년 건강’, ‘마약과 약물남용’ 등을 포함하면서 각 의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한편,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세계 빈곤퇴치 및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2000년 9월에 참여한 191개 UN회원 국가는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영아)사망률 감소 ▲산모건강의 증진 ▲환경지속성 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MDGs는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새로운 발전목표로 이어졌다.

2014년 10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Youth Policies)’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바쿠 선언(Baku Commitment to Youth Policies)」을 채택하고 청소년 권리증진에 청소년정책이 기반을 두어야하며, 모든 청소년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이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증거에 기반을 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2015년 9월 25일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난 2000년에 채택되어 이행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으로 종료되면서, 이를 대신하여 제시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새로운 발전 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역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주요 그룹으로 간주되어 왔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며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해 왔다. SDGs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계승되었다. SDGs의 우선순위 과제에는 ‘청소년의 권한 강화’, ‘참여’, ‘역량강화’, ‘교육’, ‘고용’, ‘기업가정신’, ‘성평등’, ‘건강권’, ‘기후변화’,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 ‘빈곤’, ‘이행 기제’ 등이 폭넓게 제시되었다. SDGs의 17개 목표는, ▲빈곤 퇴치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 ▲보건 증진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과 일자리 ▲인프라와 산업화 ▲불평등 해소 ▲도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자원 ▲육상 생태계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5. 성 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확립한다.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완전한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양식을 확립한다.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17.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UN은 2018년 9월 24일 뉴욕에서 ‘청소년 2030 전략(The Youth 2030 Strategy)’을 공식 발표하며 평화와 안전, 인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에 걸쳐 청소년의 역할에 주목하며 청소년 지원의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후에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청소년 2030(working with and for young people: YOUTH 2030)’으로 문서화 되었다. UN은 이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영향력 및 세계·국가·지역수준의 행동을 확대하며,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하고, 검토 및 후속 조치를 포함한 글로벌 의제 및 프레임워크에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empowerment), 개발 및 참여에 집중하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과정을 강조하여 청소년 중심의 유엔으로 거듭날 것을 표명하였다. UN은 청소년전략을 통해 청소년의 리더십 표본(Leadership Example)을 세우고 지식 및 혁신 선구자(Knowledge and Innovation Pioneer),

투자 및 솔루션 촉매자(Investment and Solution Catalyst), 책무성 리더(Accountability Leade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전략 5대 우선순위 및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대 우선순위 : 관계, 참여 및 옹호 -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확대
실행계획 주류화, 확대, 지원, 참여, 표준 수립, 연결, 강화, 증폭
- 2대 우선순위 : 교육 및 보건 기반 - 양질의 교육과 보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확대 지원
실행계획 양질의 교육 옹호, 비형식교육 증진, 접근가능한 청소년 대응 보건 서비스 및 환경 보장, 청소년 친화적 정신 보건 서비스 지원, 성·생식 보건 및 권리 지원
- 3대 우선순위 :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권한 강화 - 양질의 일자리 및 생산적인 고용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확대 지원
실행계획 글로벌 공약 이행, 균형 잡힌 접근법 옹호, 안내 및 지원, 서비스 및 생산 자산에 대한 접근 증진,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촉진
- 4대 우선순위 : 청소년과 인권 - 청소년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며 청소년의 시민 및 정치적 참여를 지원
실행계획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구체적인 청소년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증진, 인권 주류화,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촉진, 인권 교육 및 역량 강화
- 5대 우선순위 : 평화 및 탄력성 구축 - 평화와 안보 및 인도주의적 행동을 위한 촉매자로서 청소년을 지원
실행계획 가능한 환경 조성, 공식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청소년참여 추진, 안전한 공적 장소 제공, 파트너십 및 힘 실어주기, 지속적인 대화 촉진, 역량 강화, 기회 확대, 인도주의 환경의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9). 청소년 2030 UN 청소년전략.
 UN 홈페이지 : https://www.un.org/youthenvoy/wp-content/uploads/2018/09/18-00080_UN-Youth-Strategy_Web.pdf.

UN은 산하에 다양한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를 두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각 기구별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등이 있다. 유엔 각 기구별 청소년 관련 사업들은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 특사 사무국 (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s envoy on youth)’에서 협력 지원을 받고 있다.

3. 주요 국가 청소년정책 현황

가. 유럽연합(EU)

유럽 내 국가 연합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따라 출범하였다. 유럽연합의 정부형태는 국가연합이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각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회원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EU)', 각종 정책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 4개 기관이 유럽연합의 핵심기구를 형성한다. 이외에도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COR)',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유럽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료이사회'는 정책분야별로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관계 장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외교, 일반(general affairs), 경제·재무, 사법·내무, 고용·사회 정책·보건·소비, 경쟁력(competitiveness), 교통·통신·에너지, 농업·수산, 환경, 교육·청(소)년·문화·체육이사회 등 10개의 각료이사회로 구성된다.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을 비롯해 교육과 문화 등 유관 분야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경우 youth를 15~29세의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어 여기서는 청(소)년으로 표기하였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집행위원회 내 교육문화부서(Directorate-General Education and Culture: EAC)에서 담당한다. EAC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졌던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그동안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2007~2013)'과 '청(소)년 전략 2010~2018(Youth Strategy: 2010~2018)'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2018년 11월에 새로운 '청(소)년 전략 2019~2027(Youth Strategy : 2019~2027)'을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2007~2013)과 청(소)년 전략 2010~2018을 간략히 살펴보고, 새롭게 수립된 '청(소)년 전략 2019~2027'을 기술하였다.

우선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에서 유럽 내 청(소)년을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유럽 시민의식과 젊은 유럽인들 간의 연대감·관용을 고취하고, 유럽연합의 미래 형성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삼았다. 또한 청(소)년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상관 없이 모든 젊은 세대의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이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은 ▲유럽의 청(소)년(Youth for Europe) ▲유럽봉사활동서비스(European Voluntary System: EVS) ▲세계의 청(소)년(Youth in the World) ▲청(소)년 지원 시스템(Youth Support System) ▲청(소)년 분야에서 유럽협력을 위한 지원(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Youth) 등 5개의 행동주제로 구성되었다.

한편,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2010~2018)’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많은 평등한 기회제공과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시민이 되고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청년실업률이 점증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고용 및 취업·창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시민성 함양은 유럽공동체의 유지와 관련된 주제였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정책집행 기구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교육·문화부서(Directorate-General Education and Culture: EAC)’에서 담당한다. EAC는 2018년 11월 각료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청(소)년전략 2019~2027’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즉, 전략은 2018년 11월 26일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유럽연합 내 청(소)년 정책협력의 틀로서, 해당 전략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각 회원국가가 중점을 두고 펼쳐가야 할 핵심 정책 의제들이다. 본 청(소)년 전략은 ‘참여하다(Engage), 연결하다(Connect), 권한을 부여하다(Empower)’라는 세 가지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적인 삶에 대한 청(소)년 참여 강화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의 청(소)년 전략 2019~2027은 불확실성이 큰 미래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추도록 도우며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회복탄력성을 기르며, 유럽 사회의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긍정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며, 영역별 요구사항에 대해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정책결정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 청(소)년 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EU와 청(소)년의 연결, ▲모든 성의 평등, ▲포용적 사회, ▲정보와 건설적인 대화, ▲정신건강과 웰빙, ▲농촌 청년의 개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고용, ▲양질의 학습, ▲모두를 위한 공간(조성)과 참여, ▲지속 가능한 녹색 유럽, ▲청(소)년 조직 및 유럽 프로그램 등 11개의 유럽 청년 목표를 포함한다.

〈표 1-3-6〉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9~2027)의 3개 분야

분야	세부 정책
참여하다(Eng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EU 청(소)년 대화(EU Youth Dialogue) 출범 • EU에 참여 가능한 유럽 청(소)년 포털의 통합 • 청소년 민주생활 참여 강화 및 유럽과 기타 선거 참여 촉진 • Erasmus+를 통한 유럽 전역의 참여활동에 대한 학습 지원 및 관심 제고 등
연결하다(Conn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과 유럽 밖, 각지의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 정책협력 및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유럽 연대 조직 지원 • 국경 간 학습 이동 및 연대에 대한 참여 확대, 법적·행정적 장벽 제거 검토 등
권한을 부여하다(Emp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청(소)년 고용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노동의 인식, 혁신, 역량강화 등을 다루는 풀뿌리 활동 지원 • 디지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상호학습 지원 및 증거 구축 • 청(소)년 근로자 기술 및 청년업무 자금조달 등

자료 : EU (2018. 12. 1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456. volume 61.(2021. 12. 14. 인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C:2018:456:FULL&from=EN>.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유럽연합 정책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교육·문화부서(Directorate-General Education and Culture: EAC)’에서 담당한다. ‘EAC’는 ▲교육과 훈련 ▲문화와 미디어 ▲청(소)년 ▲스포츠 등 4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 교육과 훈련, 청소년, 스포츠분야의 유럽연합 예산지원 프로그램
-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프로그램
- SALTO-YOUTH : 유럽 청소년을 지원하고 배움과 훈련을 향상시키는(Support, Advanced Learning and Training) 프로그램으로 에라스무스 플러스와 연계하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을 위한 무형식 학습자원을 제공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프로그램(online tools for youth work and training)
- 청소년 포털(Youth portal) : 청소년 대상 유럽 내 사회적 포용, 봉사, 여행, 보건, 학습, 노동에 관한 포털 서비스 정보 지원
- 유럽봉사활동서비스
-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 일자리 구하기(Looking for work in another EU country)
- 지역·국가·유럽차원에서 선거에서 투표하기(Voting in local, national and European election)

자료 : https://ec.europa.eu/info/topics/youth_en에서 2021년 12월 12일 인출.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사회적 포용, 청소년의 고용과 기업가정신, 청소년의 보건과 웰빙, 시민사회에서의 참여, 봉사활동,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이란 주제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별 다양한 문화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종차별’과 ‘빈곤문제’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난민을 비롯한 새로운 이주문제 등의 과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의 유럽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유례없는 실업과 사회적 배제 및 빈곤의 위기를 안겨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영국의 탈퇴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의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정책을 따로 분리해 진행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고용, 교육, 훈련, 건강, 문화, 디지털미디어,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권, 스포츠와 같은 정책들과 협력하고 상호·보완하여야 함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난민, 니트(NEET)족, 장기 실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많은 청(소)년들이 유럽사회의 완벽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전망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향후 그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유럽사회가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유럽연합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선언하게 되는데 선행 조치 중 하나가 바로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임시 제한조치’(proposal for a temporary restriction on non-essential travel to the EU)였다. 이후,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The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는 유럽연합 각 회원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대한 위협평가, 공중보건 지침 및 조언을 제공하며 유럽 내 코로나19 모니터링을 하였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쉽게 호전되지 않으면서 각 회원국들의 국경폐쇄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모든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 회원국들의 이동은 사실상 봉쇄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의 발병과 감염사태는 유럽 내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과 유럽연대봉사단(European Solidarity Corps)에도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즉, 당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많은 프로그램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들의 이동 프로그램이 정지되었다.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취해진 모든 봉쇄 조치를 완전히 존중하되, 무엇보다도 에라스무스+ 및 유럽연대봉사단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이자 주요 목표로 삼았다. 에라스무스+ 및 유럽연대봉사단의 참여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EU에 포함되지 않은 북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터키, 세르비아 및 영국이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과정 중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자원 봉사자 및 기타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집행부서인 교육, 시청각 및 문화집행기구(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EACEA)는 이들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유럽학생연합(European Students' Union)과 에라스무스 학생 네트워크(Erasmus Student Net)는 유럽 전역에서 진행 중인 에라스무스+에 참여했다가 고립된 학생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에라스무스+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들은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거주지에서 온라인 비대면활동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현재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온라인 가상공간을 개발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어학 연습을 위한 주간 약정(주당 4~5시간) 방식의 가상 공간 학습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온라인 비대면 학습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나. 영국

영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재정 악화와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후 영국의 국가 채무는 2010년 78.5%까지 치솟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2010년에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부는 긴축 정책을 펼치며 정부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전체 지출예산의 15~17%를 차지하는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총액한도를 1,000억 파운드로 설정하고, 경찰, 보건, 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행정관리 비용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하였다. 'Big society'라고 불리는 당시 영국 정부의 정책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사회를 부각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를 국가에서 민간과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영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 기조 하에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적은 재원으로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하여 재구조화되었다. 그 특징으로, 첫째,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지속가능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술과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며, 둘째,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배경이나 생활환경에 관계없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기회를 얻도록 하고, 셋째,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와 그들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청소년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철저하게 성과 지향적으로 개편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한편, 참가청소년이 성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 과정은 물론 성취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 19일 영국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 13~19세의 청소년을 위한 범정부 정책의 새로운 접근(Positive for Youth: A new approach to cross-government policy for young



people aged 13 to 19)』(정책보고서는 2012년 2월 출판)이란 청소년정책을 선언하고, 청소년을 정책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는 가치 실현을 다짐하였다. 이어 2013년 7월 청소년정책은 이전의 교육부 중심에서,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이끌기 위해 수상 직속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로 이관 되었다. 국무조정실로의 이관은 정부부처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시민사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청소년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의 성공에 필요한 지지적 관계 구축 등의 청소년의제(youth agenda)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영국 정부가 청소년정책 입안과정에서 청소년과 청년그룹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정책 이관 이후 국무조정실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로 국가 시민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장과 청소년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캠페인 지원, 청년참여 증진, 지역 청소년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영국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Youth in Action'은 국가수준에서 운영 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으로 '영국문화원'이 참가자 선발과 파견, 평가의 역할을 한다. 당초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유럽사회의 통합과 유럽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Youth in Action'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하여 이를 통해 고용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취약계층 청소년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청소년대상 복지지원의 역할을 한다. 셋째, 참여청소년은 물론이고 청소년이 방문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에도 문화감수성을 높여 성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주요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Positive for Youth: PfY)', '국가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National Citizen Service)', '국제개발과 청소년(Putting young people at the heart of development)', '사회참여촉진 캠페인(I will campaign)'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PfY는 13~19세의 청소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청소년과 각종 협의회, 자선단체와 기업 등 사회의 모든 부문들이 PfY의 비전을 개발·지원하는데 참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정부, 청소년기관, 지역사회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PfY는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예산 지원: 청소년들에 의한 국가정책 감시조직 설립 등 ▶헬프 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지방정부 법령에 근거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서비스 운영 ▶청년 취업지원(교육훈련, 인턴제도, 고용주 교육 등) ▶청소년 봉사활동 장려 ▶청소년 문제 조기개입 촉진을 통해 취약 계층 지원 ▶보건서비스 제도 개혁 ▶청소년 노숙자 예방 및 개입 ▶청소년 폭력 예방 ▶청소년 실천그룹(Youth Action

Group)을 통한 9개 부처 간 협력 등이 그것이다.

‘국가시민성 함양 프로그램(NCS)’은 15~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책임 하에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에 운영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리더십, 팀워크,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기술을 습득하며 자기개발 및 사회성 개발을 장려한다. NCS는 3~4주 동안 네 단계(adventure-discovery-social action-celebration)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웹사이트인 NCS Opportunity Hub를 통해 교육, 워크숍, 자원봉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NCS 청소년위원회에 가입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인턴십은 물론 학위취득까지 제공하는 ‘Get my First job’ 프로젝트 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제개발과 청소년’은 영국 정부부처 중 하나인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에서 2016년에 발표한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을 국제개발의 중심에 세우자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목에서부터 밝히고 있다. 국제개발부에서 시행 중인 영국의 해외원조 전략(British Aids Strategy)은 일찍이 ‘세계평화 거버넌스의 강화’, ‘위기대응력 강화’, ‘개발도상국의 번영’, ‘취약 계층 지원’ 등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해 왔다. 하지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각국의 분쟁과 난민 문제,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실업문제, 빈곤과 문명을 겪고 있는 세계 청소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세계 청소년 문제해결이야말로 영국 원조전략의 목표와 직결되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중심에 청소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조전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국제개발부는 국제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면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참여를 보장·지원하고 있다. 실행전략으로는 첫째, 청소년팀을 조직해 연구를 위탁하여 정책개발에 반영하고, 둘째, UN과의 파트너십으로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셋째, 청소년들을 지역, 국가, 국제수준에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참여촉진 캠페인’은 ‘step up to serve’로도 불렸는데, 10~20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I will campaign’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청소년들의 사회행동이 그들의 성격과 기술(skill)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을 입증하고 전달할 것 ▶학교 정규교육과 기타 청소년활동(유소년 클럽, 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 예술 및 문화활동)을 통해 10~20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에게 사회행동을 전파할 것 ▶영국 전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우수한 청소년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캠페인을 대표하는 50명의 청소년 대사를 선출하여 온라인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을 멘토링 하거나 지역 청소년행사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00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 교육, 건강 등의 영역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조직으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영국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등이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영국의 청소년활동을 조직·지원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를 연결하는 역할과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 자격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비록 민간단체이지만 정부 정책과 사업을 전달·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단위 청소년사업의 파트너로서 ‘NCS’, ‘I will campaign’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단체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영국문화원’은 1934년에 설립되었고, 1940년에는 ‘영국왕실인가(Royal Charter)’를 제정하여 현재 영국을 포함하여 110개의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영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유럽연합의 ‘Youth In Action Programme’의 영국지부로서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는 등 민간차원의 청소년교육과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처음 설립될 당시만 해도 영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세계적인 협력 구축을 위한 역할 수행이 목적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198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교육, 흔히 ‘무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의 주요한 청소년기구라 할 수 있다.

‘영국청소년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외교부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1963년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오늘날까지 영국 청소년의 대표적인 자치조직이자 청소년지원 단체가 되었다. 25세 이하의 청소년 스스로에게 자신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삶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방,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민주적 사회건설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활동가, 핵심 의사결정자 및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월 단행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연합과의 관계변화에 따라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변화될 수도 있다.

다. 독일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다. 이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내외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사회화,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여러 대책들과 노력들, 그에 따르는 협력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원이라는 큰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독일은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청소년지원의 법적 토대는 1922년 제정된 제국청소년복지법(Das Reichsjugendwohlfahrtsgesetz : RJWG)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과 신체, 그리고 직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들의 교육권과 책임의 관계, 민간 청소년지원과 공적지원 간의 관계 확정,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 청소년청(Jugendamt)을 설치하여 청소년복지를 위한 공공 담당기관을 확대·배치하는 등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수급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이들 취약계층의 물질적 박탈 및 빈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법은 1961년 청소년복지법(Das Jugendwohlfahrtsgesetz: JWG)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복지법은 수급대상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보완하기 위한 법령이 1991년 1월 1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 KJHG)」이다. 청소년복지법에서 수급대상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반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수급대상을 수행 주체로 바라봄으로써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단순한 빈곤 구제 이상의 폭넓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청소년은 교육과 발달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청소년청에 묻고 자문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긴급 상황이나 갈등상황에서 이들에게 신뢰 있는 자문을 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발달 상태에 따라 청소년청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개정될 당시, 청소년이 사회에 편입될 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 발달의 주체가 된다는 청소년지원이라는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이후 독일사회는 통일이란 급변을 맞이하였고 그에 따른 시대적인 요구 또한 변화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원이란 개념과 사회적 지원 방안들을 발전시켰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아동·청소년강화법(Kinder-und Jugendstärkungsgesetz)은 더욱 강한 공적 조정기구와 포괄적인 공적 책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는 아동

보호, 장애 아동·청소년 보호, 청소년 참여, 요보호아동 등과 관련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또 다른 법적 근거는 2002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으로 최근 독일의 「청소년 보호법」이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서 청소년의 권리침해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의 추진, 조기개입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 관계망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추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법적 보장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추진, 지원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추진 등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지원구조와 관련해 우선 연방공화국인 독일의 국가 최고 행정기구로서 연방정부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독일 연방정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각 주(州)정부의 청소년지원정책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독일 연방정부는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청소년 자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지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을 받는다. 셋째, 각 주 정부는 임기 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 청소년지원조직의 기본 골격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한 사항들은 각 주의 관련 법규에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들은 주 자치단체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 정책 업무에서 실질적인 실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청(Jugendamt)’과 ‘청소년 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의 과제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청소년지원 특별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 전국에 청소년청이 구성되도록 정하여 자치단체 행정관청의 다른 영역들과 구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보고서’는 매년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청소년들의 현황 및 청소년지원의 노력과 시행들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따로 ‘청소년보고위원회(Jugendberichtsk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고, 실질적인 부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하위부서인 ‘청소년실(국)’이며, 지역차원에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다. 즉, 연방정부에서는 ‘청소년실’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지역차원에서는 실무기관인 ‘청소년청’이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 아동·청소년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가족 및 노인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독일은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과 연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크게 ‘세계아동권리’, ‘아동·청소년보호’, ‘통합(integration)’, ‘관용과 민주주의’, ‘참여’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정책영역은 다시 ‘청소년복지’, ‘범죄·극우주의·외국인 적대행위 예방’, ‘아동·청소년보호와 폭력보호’, ‘사회통합’, ‘연방아동·청소년 계획’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활동’, ‘사교(邪交) 집단과 사이코집단 관리’, ‘아동·청소년지원’, ‘아동보육관리’, ‘중앙과 지방연계 전국 청소년정책 공동사업’,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청소년지원’, 유럽청소년정책들과 같은 관련 청소년정책들로 나뉘어 있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세부적인 사업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보육센터의 질을 높이고 확장을 지원
- 2013년 8월 1일 이후 1세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 수립
-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아동보호 및 약자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 성적 폭력과 착취, 미디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아동포르노 예방)
- 아동과 청소년의 극단적 경향에 대한 예방과 민주주의 프로젝트 추진
-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구현에 대한 국가적 책무
-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권리 구현
- 교육, 건강, 노동시장, 청소년 복지 등 모든 정책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연방정부청소년위원회 설립
- 지원 및 가치의 방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체제 구축
- 청소년과 청년 이민자에 대한 노동 조건 불이익의 개선
- 유럽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협력 및 개발
- 독립적인 청소년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보고서의 제공 등

자료 : 장주리(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독일에서 청소년지원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복지, 보호 등을 모두 묶는 총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젝트는 작게는 사회적·교육적 취약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사회적 배제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복지관련 프로젝트로 볼 수 있고, 크게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원하는 포괄적인 청소년지원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청소년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아동·청소년강화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수행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별 자치권이 인정되므로, 각 주 별로 내용들이 상이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청소년사업으로는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과 바이에른 주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 드레스덴의 ‘청소년 사회통합사업’ 등이 있다.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집단들이 마을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지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청의 전문 인력이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돌보는 일과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적 워크숍과 강연, 코스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은 ‘클릭(Klick)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게 워크숍이나 부모강연, 교사 보수교육, 체험 교육적 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중독이나 폭력, 인종차별, 유해매체 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예방차원의 프로젝트이다. 드레스덴은 베를린, 라이프찌히 등과 함께 과거 동독의 핵심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동서독 성장세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다.

라. 미국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업청소년 대상 정책을 다루는 교육부는 법제상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정부(State Government)’에 귀속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 및 서비스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집행은 시나 ‘카운티(County)’ 등과 같은 지방정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정책은 소속 차관보조직인 ‘아동가족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아동가족실은 미국 전역에 10개의 지역 사무소(the office of regional operation: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시카고, 달라스, 캔자스시, 덴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아동가족실은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보존에서 난민 재정착, 아동보육 및 돌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가족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간 서비스(human service)’를 제공하며, 특히 그들 스스로를 돕기 위한 주요한

정부기관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대표적인 부서이다. 아동가족실 내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는 아동청소년가족부(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YF), 아동국(Children's Bureau: CB), 가족·청소년 서비스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FYSB) 등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외의 부처에서도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청소년고용 및 실업대책」, 「미성년자 고용의 안전대책」,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제공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 근로자의 고용 및 학대를 제한·보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농촌청소년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교정국, 청소년사법과 비행예방사무국 등을 두어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치유역량을 제고하고 있고, 미성년 재판 및 미성년 비행예방활동 등을 주 활동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청소년 단체 등의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도시청소년 프로그램인 'Youth Build'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각 단위별로 독자적인 청소년정책과 다양한 제도들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행정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주정부 산하에 '청소년 서비스국' 및 '복지국' 등을 두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카운티에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규모가 거대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협력(National Collaboration for Youth: NCY)'과 '미국 학생협회(US Student Association)'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의 운영예산은 대부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NCY는 미국사회에서 청소년 관련 비영리 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체의 하나로, "공정과 정의를 토대로 하여 미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지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스토리텔링 및 공유, 내러티브 확장, 청소년의 권리 옹호 및 관련 정책의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인 스파크 액션(Spark Action)의 주요 파트너기관이다.

청소년 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소년 관련법은 각 부처의 청소년사업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 관련법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 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청소년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하월에 소개되었고,

2006년 법률로서 서명된 「연방 청소년정책조정제에 관한 법률(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FYCA, 2009년 개정)」은 ‘Federal Youth Department Council’에 의해 제정되었다. FYCA는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2001년 의회에서 통과된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과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NCLB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된 연방초중등교육법이다. NCLB의 담당국은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국’이다. 그러나 NCLB는 교육부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본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NCLB는 보편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으면서 낮은 교육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소외계층의 학생, 소수민족 학생,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각 주에서 정한 학업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빈부격차에 의한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즉, NCLB 프로그램을 통한 소외계층의 학력수준 향상은 고질적인 교육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 전체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NCLB의 4대 원리는 ‘책무성(accountability)’, ‘자유성(freedom)’, ‘방법론(methods)’, ‘선택권(choice)’이다. 4대 원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직결되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교원들의 자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NCLB가 제정된 이래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2015년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이 제정되었다. ESSA는 NCLB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방식, 시기 등을 각 주에서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고 공통중핵 성취기준의 채택, 책무성, 구제방안 등에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을 주정부에 일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밖에 2003년 개정된 「가출·노숙 청소년 법(the Run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은 ‘집이 없는 소년(homeless young people)’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설립된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은 광범위한 청년취업 및 고용과 관련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동부’에 의해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FLSA)」은 청소년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급과 추가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서비스 증진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유지와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 및 가족 안전유지법(The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은 「아동학대 방지 및 관리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2003년에 개정된 것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호 교육문화교류법(The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e Exchange Act)」은 미국 국제청소년 교류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미국 정부가 교육 및 문화 교류를 통해 미국 국민과 다른 국가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의 구성원들 간의 교육적, 문화적 관심과 발전, 성취를 보여주고 전 세계 사람들의 평화롭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국가와 미국사회를 결합시키는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즉 교육 및 문화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미국과 세계의 다른 국가 간의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관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동법의 제정 목적이 있다.

미국 청소년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과 치료, 교정중심의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진단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소외 청소년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 확실한 책임, 청소년과 가족의 연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대두되고 있는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은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조력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청소년 개발은 오늘날 미국 청소년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 개발은 청소년 보호처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청소년육성이나 지도처럼 성인을 청소년이 이끈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 스스로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 개발은 청소년들이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직업적, 도덕적, 정서적으로 유능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긍정적인 활동을 제공하고 경험들을 통해서 당면할 생애주기를 청소년 스스로가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핵심 주제(topics)들을 29개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는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정책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단서라 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당초 28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s),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청소년(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Youth), 따돌림 예방(Bullying Prevention), 투옥된 부모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데이트 폭력 예방(Dating Violence Prevention), 장애(Disabilities), 운전자의 안전(Driver Safety), 고용(Employment), 출산을 앞두고나 현재 양육중인 청소년 부모(Expectant and Parenting Young Families), 가족의 관여(Family Engagement), 재정 능력 및 문해력(Financial Capability & Literacy), 갱단 참여 예방(Gang Involvement Prevention), 노숙과 가출/Homelessness and Runaway), 청소년 사법(Juvenile Justice),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LGBT), 정신건강(Mental Health), 멘토링(Mentoring), 청소년 기회 제공(Opportunity Youth),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 임신 예방(Pregnancy Prevention), 재해 대비와 복구(Preparedness & Recovery), 학교 분위기(School Climate), 약물사용과 오용(Substance use/misuse), 자살 예방(Suicide Prevention), 인신매매 방지(Trafficking Prevention), 성인기로의 진입(Transition & Aging Out), 폭력 예방(Violence Prevention) 등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청소년 건강(Adolescent Health)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미국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청소년활동 및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WHO의 세계적 대유행 확산에 따른 경고가 잇따르면서 청소년포털을 구축해 코로나19가 청소년의 발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실태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유행기간 동안 제한적이 되다시피 한 청소년 참여전략을 새롭게 개발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기반 전략 등을 수립하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 일본

일본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5년 청소년비행 등 다양한 청소년문제들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1965년 11월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운동’ 등이 시작되면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육성을 국가 정책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광범위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청소년과 관계되는 시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중장기 계획·관계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3년 6월,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내각 부(副)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대신)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 육성추진본부’(이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 의해 아동·청년육성지원 추진본부로 변경)를 설치한 바 있다.

‘청소년육성추진본부’ 산하에는 부(副) 본부장(관방장관, 문부과학성대신, 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등)으로 구성된 회의, 청소년 관련부서의 과장급 회의, 청소년국제교류관련 연락회의, 청소년비행대책을 위한 과장급회의, 커리어교육 추진회의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 계획마련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수립하였고, 이어 2008년 12월에 새로운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수립하였다. 2006년 6월에는 청소년들을 비행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안전 및 안심 추진계획-비행,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2006년 12월에는 청소년들의 커리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리어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 특명담당대신을 본부장으로 각 부처의 각료가 참가하는 커리어 교육 등의 추진회의를 설치하였다. 오늘날 일본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법률 제71호, 2010년 4월 1일 시행)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아동·청년육성지원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와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곤란을 겪는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정비 등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아동·청년비전(vi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을 수립(2010. 6.)하여 모든 아동과 청년의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의 영위 지원, 취약 아동·청년 및 가정 지원,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정비 등의 3가지 우선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표 1-3-7〉 일본 아동·청년비전의 우선과제(priority issues)

구분	세부우선과제
모든 아동·청년의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의 영위 지원	1. 아동·청년의 자아형성 지원 2. 아동·청년의 사회형성 및 사회참여 지원 3. 아동·청년의 건강 및 안전 확보 4. 청년의 직업적 자립 및 취업 지원
취약 아동·청년 및 가정 지원	5. 취약 상황별 대응 6. 아동·청년의 피해방지 및 보호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정비	7. 환경 정비 8. 성인 사회구조의 재검토

자료 : 일본 내각부(2010). 아동·청년비전 <http://www8.cao.go.jp/youth/wakugumi.html>(영문판)에서 2019년 11월 25일 인출.

일본 정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 근거하여 아동·청년육성지원 추진본부(본부장 : 총리)를

구성하고, 여기서 아동·청년육성추진대강을 수립하면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를 추진하는 노력의 의무를 갖는다. 2016년 2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 본부에서 결정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의 5대 중점과제는 아래와 같다.

- ① 모든 아동·청년의 건강한 육성
 -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 학력과 체력의 향상, 규범이나 리(원리, 이치)의 마음(りの心)의 함양
 -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육성
 -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아동·청년 육성지원에 관한 상담창구 정비 촉진
- ②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 연령으로 단절되지 않는 새로운 네트워크 및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횡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
 -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아웃리치(방문지원)의 충실
 - 아동의 빈곤대책, 아동학대 방지대책 강화
- ③ 아동·청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의 정비
 - 지역 등에서 실시되는 각종 체험, 교류활동의 충실
 -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이용
- ④ 아동·청년의 성장을 돕는 담당자의 양성
 - 관과 민의 제휴와 협력을 통한 지역에서의 공조기능 충실
 - 종합적인 지식을 가진 코디네이터의 양성
- ⑤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아동·청년 지원
 - 글로벌 인재, 과학기술 인재 육성
 -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에 적응하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지원

자료 :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taikou_gaiyou.pdf에서 2019년 11월 25일 인출.

둘째,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유아기에서 성인기 이전 청년기의 단계까지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을 보호, 지원, 육성, 개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연계하여 수상 직속 ‘국무조정실(내각부)’과 ‘문부과학성’ 등 별도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법적 근거로 2010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청소년 기획, 지원, 환경정비, 국제교류 등 아동·청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관계 부처 사무의 연락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문부과학성’은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로서 청소년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의 지원, 유해환경 대책 및 각종 청소년교육활동과 환경·시설 등을 관장한다. 특히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 제정되면서 영유아기, 학령기 및 사춘기 아동·청소년, 청년기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약 18~30세 미만)와 포스트 청년기(청년기를 지났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세 미만의 청년)에 놓인 청년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가 정책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최소한 0~30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셋째, 청소년정책을 문제 상황별로 설정함으로써 정책과제 및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는 먼저, ‘학습장애(LD)’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장학금제도의 확충, 생활보호,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행소년들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원조교제, 집단따돌림(이지메)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장애, 비행 및 학교중도 탈락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있다.

넷째, 청소년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에 관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인력의 배치(의료, 복지, 심리상담, 진로상담분야 전문가 등), 청소년지원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학교 내 상담체제의 구축,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 학교재량권의 확대, 선택제 수업의 확충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의 조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정보사회, 소비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회 및 제도적 장치로 ‘타운홀 미팅’, ‘모니터링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회 계몽활동, 사회성 함양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제2부 요약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현황과 동태, 청소년 인구 규모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환경의 현황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1982년 1,421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약 83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70년대에는 총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의 비율이 9.6%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의 생활환경 현황을 가족·학교(2020년 기준), 미디어환경(2020년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양육자의 만족도는 약 90.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의 양육자가 높은 연령대의 양육자보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 10점 중 8.0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환경에 대해서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학업성취도는 보통(49.6%), 우수한 편(4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7%였다. 한편, 청소년이 수업시간에 재미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였으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73.7%의 청소년이 진로와 직업 수업을 경험하였으며, 진로와 직업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62.2%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환경에서 10대 청소년은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98.5%이고, 1주일간 평균 27.6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용도에 대해 중복으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은 교육학습(99.9%), 여가활동(99.1%), 커뮤니케이션(98.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2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99.3%였고, 주당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9.5시간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용도는 자료정보검색이 100%, 커뮤니케이션이 99.9%, 여가활동이 99.8%를 차지하였다.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

제1장 청소년 인구

제2장 청소년 생활환경

02

제1장 청소년 인구

1. 청소년 인구 현황

가. 연령별 청소년 인구

2021년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약 83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82만여 명 중 약 16.2%를 차지하는 수치다. 9~24세 청소년 인구 중 24세 인구가 각각 8.4%로 가장 많은 반면, 15세 인구는 5.1%로 청소년 인구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자 1백 명당 남자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는 2021년 기준 9~24세 청소년 인구의 경우 107.8명으로 청소년의 남녀 간 인구 규모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세 인구의 성비는 1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세의 인구 성비는 104.7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1-1〉 2021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단위 : 천 명, %,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자	여자	성비
0세	273	-	2.3	139	133	104.5
1세	291	-	2.5	149	141	105.7
2세	319	-	2.7	164	155	105.8
3세	347	-	3.0	178	169	105.3
4세	385	-	3.3	197	187	105.3
5세	428	-	3.6	219	209	104.8
6세	440	-	3.7	225	215	104.7
7세	432	-	3.7	221	210	105.2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자	여자	성비
8세	459	-	3.9	235	224	104.9
9세	468	5.6	4.0	240	227	105.7
10세	476	5.7	4.0	244	231	105.6
11세	440	5.2	3.7	227	213	106.6
12세	447	5.3	3.8	230	216	106.5
13세	480	5.7	4.1	247	232	106.5
14세	452	5.4	3.8	233	219	106.4
15세	431	5.1	3.7	223	208	107.2
16세	439	5.2	3.7	227	212	107.1
17세	472	5.6	4.0	245	227	107.9
18세	479	5.7	4.1	249	230	108.3
19세	522	6.2	4.4	271	250	108.4
20세	613	7.3	5.2	318	294	108.2
21세	643	7.7	5.5	335	308	108.8
22세	640	7.6	5.4	335	305	109.8
23세	680	8.1	5.8	354	325	108.9
24세	701	8.4	6.0	367	333	110.2
계(9~24세)	8,383	100	-	4,345	4,030	107.8
계(0~24세)	11,757	-	100	6,072	5,673	107.0

주 :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 값임.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 청소년 인구 전망

우리나라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960년 796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에는 1,401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출산율의 감소로 청소년 인구도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2000년에는 1,150만 명, 2020년에는 854만여 명까지 감소하였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 수는 2030년에 654만 명, 2040년에 531만 명, 2050년에는 52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2060년에는 446만 명, 2070년에는 36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에 전체 인구의 31.8%에서 1980년에 36.8%까지 계속 증가하다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0년에는 24.5%, 2020년에는 16.5%까지 낮아졌다. 이후에도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12.6%, 2060년에는 10.4%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1960년대에 연평균 2%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90~1995년에는 1.01%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1%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2030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이 나타나고, 이는 207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인구성장률은 1965년 3.72%로 총인구 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80년에는 1.15%, 1985년에는 -0.95%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 인구성장률은 2030년에 -2.41%, 2050년에 -0.55%, 그리고 2070년에 -2.37%로 향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	연평균 성장률	청소년 인구				
			전체	남성	여성	구성비	연평균 성장률
1960	25,012,374	-	7,956,903	4,072,726	3,884,177	31.8	-
1965	28,704,674	2.54	9,120,576	4,699,931	4,420,645	31.8	3.72
1970	32,240,827	2.18	11,329,714	5,848,491	5,481,223	35.1	4.42
1975	35,280,725	1.68	12,885,563	6,651,771	6,233,792	36.5	2.25
1980	38,123,775	1.56	14,014,932	7,216,195	6,798,737	36.8	1.15
1985	40,805,744	0.98	13,974,697	7,187,699	6,786,998	34.2	-0.95
1990	42,869,283	0.99	13,553,357	6,990,839	6,562,518	31.6	-0.06



연도	총인구	연평균 성장률	청소년 인구				
			전체	남성	여성	구성비	연평균 성장률
1995	45,092,991	1.01	12,751,383	6,581,311	6,170,072	28.3	-2.28
2000	47,008,111	0.84	11,501,436	5,987,274	5,514,162	24.5	-1.36
2005	48,184,561	0.21	11,022,283	5,799,481	5,222,802	22.9	-1.51
2010	49,554,112	0.50	10,370,213	5,468,113	4,902,100	20.9	-0.48
2015	51,014,947	0.53	9,653,802	5,080,852	4,572,950	18.9	-2.04
2020	51,780,579	0.14	8,541,708	4,447,614	4,094,094	16.5	-2.58
2025	51,905,126	0.03	7,449,812	3,846,561	3,603,251	14.4	-2.73
2030	51,926,953	-0.03	6,543,356	3,362,034	3,181,322	12.6	-2.41
2035	51,629,895	-0.18	5,822,383	2,986,050	2,836,333	11.3	-1.86
2040	50,855,376	-0.38	5,309,633	2,721,856	2,587,777	10.4	-1.59
2045	49,574,038	-0.60	5,224,223	2,678,649	2,545,574	10.5	0.35
2050	47,744,500	-0.86	5,235,101	2,685,091	2,550,010	11.0	-0.55
2055	45,405,902	-1.09	4,902,818	2,514,390	2,388,428	10.8	-1.66
2060	42,837,900	-1.20	4,458,075	2,285,661	2,172,414	10.4	-2.04
2065	40,293,293	-1.24	4,007,214	2,053,967	1,953,247	9.9	-2.13
2070	37,655,867	-1.24	3,612,695	1,857,005	1,755,690	9.6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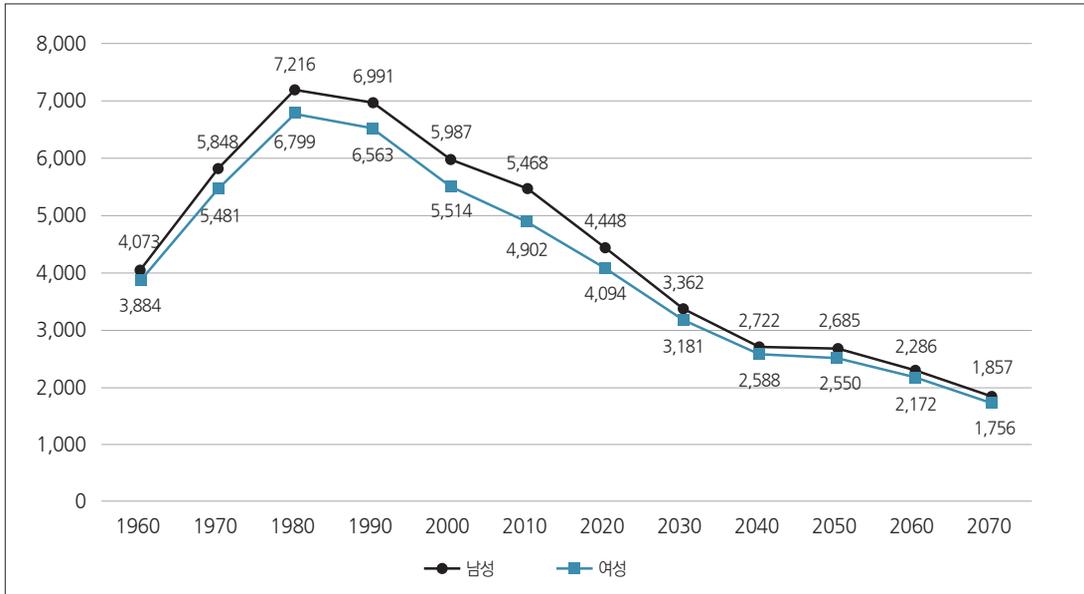
주 : 1) 연평균 인구 성장률 = $\ln(Pt/Po)/T \times 100$ (Po : 기준연도 인구, Pt : 비교연도 인구, T : 비교기간).

2) 인구 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그림 2-1-1]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3. 청소년 인구 동태

인구동태 통계(Vital statistics)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본적인 인구변동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통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등 다양한 인구동태 지표가 작성되고 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2천여 명, 사망자 수는 약 30만 5천 명이었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자연증가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약 3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셈이다.

출생아 수는 1970년 약 1백만 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절반 이하의 수준인 약 43만 5천 명까지 감소했다. 2010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다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사망자 수는 1970년 약 25만 8천 명에서 증가한 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약 24만 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25만 5천 명, 2015년에는 약 27만 5천 명, 2018년에는 약 29만 8천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약 29만 5천 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약 30만 5천 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2020년 연간 혼인 건수는 약 21만 건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만 5천 건이 감소하였고, 2020년의 이혼 건수는 약 10만 건으로 2019년에 비해 4천 3백 건 감소했다. 혼인은 1980년 약 40만 3천 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05년 약 31만 4천 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2007년에는 약 34만 4천 건까지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다시 약 30만 9천 건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약 21만 3천 건까지 감소했다. 반면 이혼은 1970년 약 1만 2천 건에서 2005년 약 12만 8천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약 10만 8천 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9년 약 11만 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약 10만 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단위 : 명, 건수)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혼인	이혼
1970	1,006,645	258,589	748,056	295,137	11,615
1975	874,030	270,657	603,373	283,226	16,453
1980	862,835	277,284	585,551	403,031	23,662
1985	655,489	240,418	415,071	384,686	38,187
1990	649,738	241,616	408,122	399,312	45,694
1995	715,020	242,838	472,182	398,484	68,279
2000	634,501	246,163	388,338	332,090	119,455
2005	435,031	243,883	191,148	314,304	128,035
2006	448,153	242,266	205,887	330,634	124,524
2007	493,189	244,874	248,315	343,559	124,072
2008	465,892	246,113	219,779	327,715	116,535
2009	444,849	246,942	197,907	309,759	123,999
2010	470,171	255,405	214,766	326,104	116,858
2011	471,265	257,396	213,869	329,087	114,284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혼인	이혼
2012	484,550	267,221	217,329	327,073	114,316
2013	436,455	266,257	170,198	322,807	115,292
2014	435,435	267,692	167,743	305,507	115,510
2015	438,420	275,895	162,525	302,828	109,153
2016	406,243	280,827	125,416	281,635	107,328
2017	357,771	285,534	72,237	264,455	106,032
2018	326,822	298,820	28,002	257,622	108,684
2019	302,676	295,110	7,566	239,159	110,831
2020	272,337	304,948	-32,611	213,502	106,5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2020년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5.3명으로 전년(5.9명)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시점인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조사망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5.9명으로 전년(5.7명)보다 0.2명 증가하였다.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차감한 자연증가율은 2020년 기준 -0.6명이었다.

2020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4.2건으로 2019년보다 0.5건 감소했고,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2.1건으로 2018년보다 0.1건 감소하였다.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을 추이

(단위 : 건(명), 1천 명당)

연도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1970	31.2	8.0	23.2	9.2	0.4
1975	24.8	7.7	17.1	8.0	0.5
1980	22.6	7.3	15.4	10.6	0.6
1985	16.1	5.9	10.2	9.4	0.9
1990	15.2	5.6	9.5	9.3	1.1
1995	15.7	5.3	10.3	8.7	1.5
2000	13.3	5.2	8.2	7.0	2.5

연도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05	8.9	5.0	3.9	6.5	2.6
2010	9.4	5.1	4.3	6.5	2.3
2011	9.4	5.1	4.3	6.6	2.3
2012	9.6	5.3	4.3	6.5	2.3
2013	8.6	5.3	3.4	6.4	2.3
2014	8.6	5.3	3.3	6.0	2.3
2015	8.6	5.4	3.2	5.9	2.1
2016	7.9	5.5	2.5	5.5	2.1
2017	7.0	5.6	1.4	5.2	2.1
2018	6.4	5.8	0.5	5.0	2.1
2019	5.9	5.7	0.1	4.7	2.2
2020	5.3	5.9	-0.6	4.2	2.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가. 출생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여 명,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는 5.3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 및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30대의 미혼자 비중이 늘고 초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2007년 출생아 수가 49만 3천여 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년과 2009년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 이후에는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15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6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단위 : 명, %, 인구 1천 명당)

연도	출생아 수	증감		1일 평균	조출생률
		증감	증감률		
1995	715,020	-	-	1,959	15.7
1996	691,226	-23,794	-3.3	1,894	15.0
1997	668,344	-22,882	-3.3	1,831	14.4
1998	634,790	-33,554	-5.0	1,739	13.6
1999	614,233	-20,557	-3.2	1,683	13.0
2000	634,501	20,268	3.3	1,738	13.3
2001	554,895	-79,606	-12.5	1,520	11.6
2002	492,111	-62,784	-11.3	1,348	10.2
2003	490,543	-1,568	-0.3	1,344	10.2
2004	472,761	-17,782	-3.6	1,295	9.8
2005	435,031	-37,730	-8.0	1,192	8.9
2006	448,153	13,122	3.0	1,228	9.2
2007	493,189	45,036	10.0	1,351	10.0
2008	465,892	-27,297	-5.5	1,276	9.4
2009	444,849	-21,043	-4.5	1,219	9.0
2010	470,171	25,322	5.7	1,288	9.4
2011	471,265	1,094	0.2	1,291	9.4
2012	484,550	13,285	2.8	1,328	9.6
2013	436,455	-48,095	-9.9	1,196	8.6
2014	435,435	-1,020	-0.2	1,193	8.6
2015	438,420	2,985	0.7	1,201	8.6
2016	406,243	-32,177	-7.3	1,113	7.9
2017	357,771	-48,472	-11.9	980	7.0
2018	326,822	-30,949	-8.7	895	6.4
2019	302,676	-24,146	-7.4	829	5.9
2020	272,337	-30,339	-10.0	746	5.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2019년 0.918명에 비해 약 0.081명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지속적으로 1.3명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18년 이후로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집계되었다.

2020년 출생아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이 78.9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의 출산율이 42.3명, 20대 후반(25~29세)의 출산율이 30.6명 순으로 높았다. 미혼과 만혼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출산 연령층이 높아져 2007년에 처음으로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더 높아졌다. 20대 후반(25~29세)의 출산율은 2000년 149.6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30.6명까지 급감했다.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은 2000년 83.5명에서 2016년 110.1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97.7명)부터 2020년(78.9명)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대 후반(35~39세)의 출산율도 2000년 17.2명에서 2016년 48.7명으로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47.2명)부터 2020년 42.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출산율
2000	2.5	38.8	149.6	83.5	17.2	2.5	0.2	1.467
2001	2.2	31.4	129.2	77.5	17.0	2.4	0.2	1.297
2002	2.6	26.5	110.9	74.5	16.6	2.4	0.2	1.166
2003	2.5	23.6	111.7	79.1	17.1	2.4	0.2	1.180
2004	2.3	20.6	104.5	83.2	18.2	2.4	0.2	1.154
2005	2.1	17.8	91.7	81.5	18.7	2.4	0.2	1.076
2006	2.2	17.6	89.4	89.4	21.2	2.6	0.2	1.123
2007	2.2	19.5	95.5	101.3	25.6	3.1	0.2	1.250
2008	1.7	18.2	85.6	101.5	26.5	3.2	0.2	1.192
2009	1.7	16.5	80.4	100.8	27.3	3.4	0.2	1.149
2010	1.8	16.5	79.7	112.4	32.6	4.1	0.2	1.226
2011	1.8	16.4	78.4	114.4	35.4	4.6	0.2	1.244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출산율
2012	1.8	16.0	77.4	121.9	39.0	4.9	0.2	1.297
2013	1.7	14.0	65.9	111.4	39.5	4.8	0.1	1.187
2014	1.6	13.1	63.4	113.8	43.2	5.2	0.1	1.205
2015	1.4	12.5	63.1	116.7	48.3	5.6	0.2	1.239
2016	1.3	11.5	56.4	110.1	48.7	5.9	0.2	1.172
2017	1.0	9.6	47.9	97.7	47.2	6.0	0.2	1.052
2018	0.9	8.2	41.0	91.4	46.1	6.4	0.2	0.977
2019	0.8	7.1	35.7	86.2	45.0	7.0	0.2	0.918
2020	0.7	6.2	30.6	78.9	42.3	7.1	0.2	0.837

주 :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가임여자 1명당 명)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2020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4.8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생성비는 105를 기준으로 ± 2 (103~107) 수준을 의미한다. 출생성비는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4년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강화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 정상 성비 범위인 106.2 수준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정상 성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의 출산순위별로도 출생성비는 모두 정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첫째 아와 둘째 아의 성비는 각각 104.8과 104.7로, 첫째 아와 둘째 아의 성비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06.6으로 2019년 103.2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 여아 1백 명당 남아 수)

연도	총출생성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2000	110.2	106.3	107.4	144.2
2001	109.1	105.5	106.4	141.5
2002	110.0	106.5	107.3	141.4
2003	108.7	104.9	107.0	136.9



연도	총출생성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2004	108.2	105.1	106.2	133.0
2005	107.8	104.8	106.5	128.5
2006	107.5	105.7	106.0	121.9
2007	106.2	104.5	106.0	115.7
2008	106.4	104.9	105.6	116.7
2009	106.4	105.1	105.8	114.3
2010	106.9	106.4	105.8	110.9
2011	105.7	105.0	105.3	109.5
2012	105.7	105.3	104.9	109.2
2013	105.3	105.4	104.5	108.0
2014	105.3	105.6	104.6	106.7
2015	105.3	105.9	104.5	105.6
2016	105.0	104.4	105.2	107.4
2017	106.3	106.5	106.1	106.4
2018	105.4	105.2	105.8	106.0
2019	105.5	106.2	105.3	103.2
2020	104.8	104.8	104.7	106.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나. 사망

2020년 총 사망자 약 30만 5천 명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1,88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0.6%를 차지한다. 청소년 사망자 중 10~14세는 10.8%(203명), 15~19세는 29.9%(563명), 20~24세는 59.3%(1,118명)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전체 사망자에 비해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운수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높다. 청소년 사망의 68.8%인 1,297명은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었고,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211명(11.2%), 순환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87명(4.6%)의 순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연령의 사망원인은 신생물이 27.5%,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20.4%, 호흡계통의 질환 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및 징후 10.4%,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 8.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8〉 2020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단위 : 명, %)

사망원인	총 사망		청소년 사망						
	계	구성비	사망자 수			연령별 구성비			
			남녀 전체	남자	여자	10~24세	10~14세	15~19세	20~24세
전체	304,948	100.0	1,884	1,136	748	100.0	100.0	100.0	100.0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0,419	3.4	15	5	10	0.8	0.5	0.7	0.9
신생물	83,776	27.5	211	138	73	11.2	24.1	11.4	8.8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과 면역 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880	0.3	17	9	8	0.9	2.0	1.1	0.6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0,052	3.3	22	12	10	1.2	2.5	0.9	1.1
정신 및 행동장애	4,348	1.4	6	2	4	0.3	1.0	0.2	0.3
신경계통의 질환	13,790	4.5	80	55	25	4.2	7.9	3.7	3.8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1	0.0	0	0	0	0.0	0.0	0.0	0.0
귀 및 유도의 질환	5	0.0	0	0	0	0.0	0.0	0.0	0.0
순환계통의 질환	62,196	20.4	87	61	26	4.6	9.4	3.9	4.1
호흡계통의 질환	36,368	11.9	31	17	14	1.6	1.0	2.3	1.4
소화계통의 질환	12,870	4.2	14	9	5	0.7	1.5	0.5	0.7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568	0.2	1	1	0	0.1	0.0	0.2	0.0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1,413	0.5	9	1	8	0.5	1.5	0.5	0.3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9,343	3.1	6	3	3	0.3	0.0	0.5	0.3
임신, 출산 및 산후기	36	0.0	1	0	1	0.1	0.0	0.2	0.0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331	0.1	1	0	1	0.1	0.0	0.2	0.0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09	0.1	26	15	11	1.4	2.5	1.2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31,801	10.4	60	34	26	3.2	3.9	1.8	3.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26,442	8.7	1,297	774	523	68.8	42.4	70.7	72.7

자료 : 통계청(2021). 사망원인통계.

제2장 청소년 생활환경

청소년의 생활환경은 가족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미디어환경이 중심이 되므로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가족환경

가족환경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청소년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족구성 현황, 가구의 세대구성, 자녀가치관, 부모와 청소년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사회조사,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청소년 친화적 가족활동 요구조사를 근거로 하였다.

가. 가족구성 현황

가구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단위이다.

1975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해체, 친족가구의 비율 감소, 핵가족 비율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감소했다. 2020년 총 가구 수는 약 2,148만 가구로, 2015년에 비해 약 192만여 가구가 증가했고, 1975년에 비해서는 약 1,473만 가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평균 가구원 수는 2020년 2.3명으로 2015년보다 0.3명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75년 5.0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 이후 부터는 3명 이하로 줄었고,

2020년에는 2.3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단위 : 가구, 명)

연도	총 가구 수	일반가구 ¹⁾ 수	집단가구 ²⁾ 수	평균 가구원 수
1975	6,754,257	6,647,778	106,479	5.0
1980	7,992,968	7,969,201	23,767	4.5
1985	9,598,796	9,571,361	27,435	4.1
1990	11,370,160	11,354,540	15,620	3.7
1995	12,974,194	12,958,181	16,013	3.3
2000	14,326,224	14,311,807	14,417	3.1
2005	15,903,679	15,887,128	16,551	2.9
2010	17,574,067	17,339,422	20,727	2.7
2015	19,560,603	19,111,030	16,464	2.6
2018	20,499,543	19,979,188	17,209	2.4
2019	20,891,348	20,343,188	16,729	2.4
2020	21,484,785	20,926,710	16,388	2.3

주 : 1) 외국인 가구 제외.

2) 1970년대에는 1인 단독가구를 추정하여 일반가구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나. 가구의 세대구성

2020년의 세대구성 유형별 가구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총 가구(일반가구 기준)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44.1%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31.7%, 1세대 가구 18.6%, 3세대 가구 3.6%, 비혈연가구 2.0%, 4세대 이상 가구 0.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2세대 가구 비율은 4.7%p 감소한 반면, 1세대 가구는 1.2%p, 1인 가구는 4.5%p, 비혈연가구는 0.9%p 증가했다.

2세대 가구의 비중은 동지역이 45.6%, 읍면지역은 37.1%로 읍면지역의 2세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1세대 가구 비중은 동지역이 17.4%, 읍면지역이 23.3%로 읍면지역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읍면지역에서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부 및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2-2〉 세대구성유형별 가구 수 현황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0년		2015년		2019년		2020년	
	가구 수	구성비						
전국	17,339	100.0	19,111	100.0	20,343	100.0	20,927	100.0
1세대 가구	3,027	17.5	3,324	17.4	3,752	18.5	3,893	18.6
2세대 가구	8,892	51.3	9,328	48.8	9,210	45.3	9,202	44.1
3세대 가구	1,063	6.1	1,029	5.4	840	4.1	760	3.6
4세대 이상 가구	13	0.1	11	0.1	6.9	0.0	5.4	0.0
1인 가구	4,142	23.9	5,203	27.2	6,148	30.2	6,643	31.7
비혈연 가구	202	1.2	214	1.1	387	1.9	423	2.0
동지역	14,031	100.0	15,488	100.0	16,437	100.0	16,897	100.0
1세대 가구	2,182	15.6	2,504	16.2	2,844	17.3	2,953	17.4
2세대 가구	7,599	54.2	7,879	50.9	7,727	47.0	7,709	45.6
3세대 가구	842	6.0	810	5.2	663	4.0	600	3.6
4세대 이상 가구	9	0.1	8	0.1	5	0.0	4	0.0
1인 가구	3,244	23.1	4,125	26.6	4,899	29.9	5,300	31.4
비혈연 가구	156	1.1	163	1.1	300	1.8	331	2.0
읍면지역	3,308	100.0	3,623	100.0	3,906	100.0	4,030	100.0
1세대 가구	846	25.6	821	22.7	908	23.2	9,403	23.3
2세대 가구	1,294	39.1	1,449	40.0	1,482	38.0	1,493	37.1
3세대 가구	221	6.7	220	6.1	176	4.5	160	4.0
4세대 이상 가구	4	0.1	4	0.1	2	0.1	1	0.0
1인 가구	898	27.1	1,078	29.8	1,250	32.0	1,343	33.3
비혈연 가구	46	1.4	52	1.4	87	2.2	93	2.3

자료 : 통계청(2010, 2015, 2019, 202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다. 자녀가치관

부모에게 자녀의 의미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치관은 <표 2-2-3>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견해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9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91.5%,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8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24.8%로 나타나 자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기대감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21.1%로 이는 과거 자녀의 중요한 가치였던 '가문계승' 역할의 중요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에서 25세 미만은 45.5%, 25~29세는 31.6%의 비율을 보인 반면, 30세 이상은 22.6%~25.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를 통해 20대의 경우 결혼생활 초기에 직업이나 소득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노후에 대한 자녀의 의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견해 역시 20대에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연령층에 결혼 직후 자녀 출산을 앞둔 기혼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가문계승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2-3>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단위 : %)

구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전체	96.8	91.5	81.7	24.8	21.1	
연령	25세 미만	97.2	89.9	83.1	45.5	33.6
	25~29세	95.6	90.2	83.1	31.6	29.5
	30~34세	96.9	91.6	81.4	24.7	21.8
	35~39세	97.4	91.7	81.2	22.6	19.0
	40~44세	96.2	91.7	82.1	23.7	19.9
	45~49세	96.9	91.5	81.6	25.9	22.0

주 : 기혼여성 15-49세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2-2-4>와 같다. 2020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90.7%로 2014년 90.5%, 2017년 90.2%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91.5%로 40대 91.0%, 50대 이상 87.4%에 비해 30대 이하 양육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이는 양육자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성별로 여자양육자는 91.0%로 남자 양육자 87.1%보다 긍정응답률(그런 편 및 매우 그러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대도시가 92.6%로 농산어촌 91.2%, 중소도시 88.4%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자 양육자와 대도시 양육자가 다른 양육자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2-4> 양육관련 만족도 :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4년	0.9	8.6	59.6	30.9	
	2017년	0.3	9.5	59.3	30.9	
	2020년	0.2	9.1	62.7	28.0	
2020년	연령	30대 이하	-	8.5	58.3	33.2
		40대	0.2	8.8	63.8	27.2
		50대 이상	0.8	11.7	62.8	24.6
	성별	남자	-	12.9	67.6	19.5
		여자	0.3	8.7	62.1	28.9
	지역별	대도시	0.2	7.2	64.3	28.3
		중소도시	0.4	11.2	62.2	26.2
		농산어촌	-	8.9	60.4	30.8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에 대한 견해는 <표 2-2-5>와 같다. 평소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한 편이라는 긍정응답률이 2014년 79.6%에서 2017년 75.5%로 감소하다가 2020년 81.1%로 2017년 대비 5.6%p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86.9%로 40대 80.8%, 50대 이상 74.4%보다 30대 이하 양육자의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 여자 양육자는 82.0%로 남자 양육자 72.8% 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농산어촌, 대도시가 각각 83.1%로 중소도시 78.1%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자 양육자와 농산어촌, 대도시 양육자가 다른 양육자에 비해 자녀와 충분하게 대화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2-5〉 양육관련 만족도 : 평소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하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4년	1.1	19.3	59.3	20.3	
	2017년	0.7	23.8	53.5	22.0	
	2020년	0.5	18.4	61.3	19.8	
2020년	연령	30대 이하	-	13.1	64.4	22.5
		40대	0.5	18.7	61.1	19.7
		50대 이상	1.2	24.4	58.2	16.2
	성별	남자	1.2	26.0	60.5	12.3
		여자	0.4	17.5	61.4	20.6
	지역별	대도시	0.4	16.5	60.8	22.3
		중소도시	0.6	21.2	61.0	17.1
		농산어촌	0.4	16.5	63.1	20.0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는 〈표 2-2-6〉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로 2012년에는 자녀가 대학졸업까지가 49.6%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20.4%,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5.7%, 고등학교 졸업까지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 6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7.2%,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10.4%,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8년에는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가 5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7.4%,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14.7%,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62.4%로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를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에는 59.2%로 3.2%p 감소하였다. 유사하게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이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8.8%에서 2018년 7.1%로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에 자녀양육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는 약간 증가하였고,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10.4%에서 2018년 14.7%로 4.3%p 증가하였다. 자녀양육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소 증가한 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은 자녀양육책임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6〉 자녀양육책임의 범위(2012년, 2015년, 2018년)

(단위 : %)

구분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 모르겠음	계
2012년	8.9	49.6	15.7	20.4	4.6	-	0.8	100.0
2015년	10.4	62.4	17.2	8.8	1.2	-	-	100.0
2018년	14.7	59.2	17.4	7.1	1.6	-	-	100.0

자료 : 1)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표 2-2-7〉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는 2017년 71.9%에서 2020년 83.7%로 11.8%p 증가하였다. 자녀 사교육비에 대해 80% 이상의 양육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40대에서 그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 40대에서는 84.9%, 30대 이하에서는 83.2%가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데 반해 50대 이상에서는 77.8%만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이상에서는 학령기 자녀가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성별로 여자 84.6%가 남자 75.4%보다 사교육비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중소도시 85.4%, 대도시 82.3%, 농산어촌 83.0%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양육자가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양육자의 경우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양육자의 연령이나 성별, 거주 지역에 따라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경우이건 10명 중 최소 7~8명 이상이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7년	8.3	19.9	53.5	18.4	
	2020년	0.8	15.5	65.0	18.7	
2020년	연령	30대 이하	1.3	15.6	64.7	18.5
		40대	0.5	14.5	65.7	19.2
		50대 이상	1.9	20.4	61.3	16.5
	성별	남자	0.7	23.9	62.6	12.8
		여자	0.8	14.5	65.2	19.4
	지역별	대도시	0.8	16.9	65.6	16.7
		중소도시	1.0	13.6	62.6	22.8
		농산어촌	0.6	16.4	68.4	14.6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라. 부모와 청소년 자녀관계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및 대화시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부모님과 대화시간,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자,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은 〈표 2-2-8〉과 같다. 2017년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중 저녁식사가 가장 많았다. 매일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이 27.0%, 주 4~6회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 24.0%, 주 1~3회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 32.9%,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 4.5%이었다. 저녁식사 이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0%의 청소년은 부모와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7년도와 유사하게 2020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부모와 같이하는 활동은 저녁식사가 가장 많았다. 매일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는 청소년은 31.4%, 주 4~6회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 26.1%, 주 1~3회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 28.1%,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 3.4%이었다. 2017년보다 매일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은 증가하였고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 감소했다. 2017년보다 2020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는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이 소폭 감소하였다. 즉,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를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은 2017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모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2017년 19.2%에서 2020년 19.8%로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이 소폭 증가하였다.

〈표 2-2-8〉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단위 : %)

구분		거의 안함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해당 없음	계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2017년	25.9	38.8	24.2	5.9	5.3	-	100.0
	2020년	18.9	44.9	25.3	5.9	5.0	-	100.0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2017년	16.3	29.8	28.1	9.2	9.1	7.3	100.0
	2020년	12.7	31.6	30.0	11.0	6.7	8.0	100.0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2017년	27.0	36.4	24.8	6.8	5.0	-	100.0
	2020년	23.3	35.9	27.9	8.5	4.5	-	100.0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	2017년	62.0	25.0	9.3	2.1	1.5	-	100.0
	2020년	60.1	23.6	10.8	3.7	1.7	-	100.0
여가활동 (영화, 운동, 외식, 여행 등)	2017년	19.2	41.4	26.5	7.9	5.0	-	100.0
	2020년	19.8	37.9	27.9	9.9	4.5	-	100.0
저녁식사	2017년	4.5	11.6	32.9	24.0	27.0	-	100.0
	2020년	3.4	11.0	28.1	26.1	31.4	-	100.0

주 : 1) 해당 없음은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계시지 않는 경우, 조부모 등과 사는 경우를 의미함.

2) 2017년에는 부모님 외에 양육자를 포함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항목만 '해당 없음' 있음.

자료 : 1)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부모와 청소년 관점에서 최근 1년간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유형을 보면 〈표 2-2-9〉와 같다. 지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1순위로 학부모는 외식 88.2%, 청소년은 TV보기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부모와 청소년이 인식한 여가문화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학부모는 영화보기 82.5%, TV보기 81.2%,

쇼핑 78.3%, 국내여행 72.1%,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41.6%, 캠핑, 자연학습 34.2%, 스포츠 관람 27.5%, 해외여행 27.3%, 종교 활동, 사회봉사 27.2%, 등산, 트레킹 27.1%, 스포츠 참여 17.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은 외식 79.0%, 영화보기 68.9%, 쇼핑 67.3%, 국내여행 49.1%, 스포츠 관람 17.3%, 해외여행 16.5%, 캠핑, 자연학습 16.4%, 등산, 트레킹 15.7%, 종교 활동, 사회봉사 15.4%,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13.6%, 스포츠 참여 7.7%,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활동이 없음 2.8% 순이었다.

성별로 학부모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 모두 외식이 86.3%와 9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남자는 TV보기 81.5%, 영화보기 79.7%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자는 영화보기 85.2%, 쇼핑 83.3% 순으로 높았다.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남자는 국내여행 73.9%, 쇼핑 73.2%,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38.8% 순이었지만 여자는 TV보기 80.9%, 국내여행 70.3%,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4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은 남녀 청소년 모두 TV보기가 77.1%와 8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은 외식 70.3%, 영화보기 62.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은 외식 83.3%, 쇼핑 75.0%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은 쇼핑 52.0%, 국내여행 41.0%, 스포츠 관람 17.1%, 등산, 트레킹 15.1% 순이었던 반면, 여자 청소년은 영화보기 72.0%, 국내여행 53.2%, 캠핑, 자연학습 18.1%, 해외여행 18.0%, 스포츠 관람 1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9〉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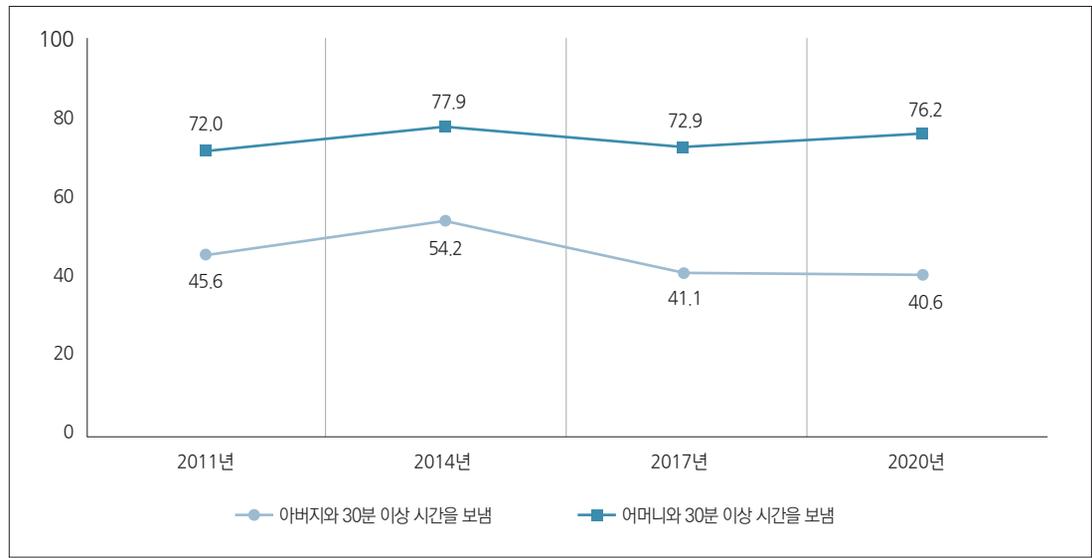
구분	TV 보기	영화 보기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등산, 트레킹	캠핑, 자연 학습	종교 활동, 사회 봉사	외식	쇼핑	없음	
학부모	전체	81.2	82.5	41.6	27.5	17.0	72.1	27.3	27.1	34.2	27.2	88.2	78.3	0.7
	남자	81.5	79.7	38.8	32.3	22.8	73.9	26.4	29.9	34.8	26.8	86.3	73.2	0.8
	여자	80.9	85.2	44.4	22.7	11.2	70.3	28.3	24.3	33.6	27.6	90.1	83.3	0.7
청소년	전체	84.5	68.9	13.6	17.3	7.7	49.1	16.5	15.7	16.4	15.4	79.0	67.3	2.8
	남자	77.1	62.7	8.2	17.1	7.4	41.0	13.7	15.1	13.1	13.3	70.3	52.0	5.4
	여자	88.2	72.0	16.3	17.4	7.8	53.2	18.0	16.1	18.1	16.5	83.3	75.0	1.5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대화시간을 포함하여 주중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림 2-2-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가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는 비율은 2011년 45.6%에서 2014년 54.2%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41.1%, 2020년 40.6%로 감소하였다. 어머니와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는 비율은 2011년에 72.0%에서 2014년 77.9%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72.9%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76.2%로 다시 증가하였다. 2017년과 비교하여 3년간 아버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시간은 0.5%p 줄어든 반면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3.3%p 증가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와 함께하면서 대화하고 돌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낸다.

[그림 2-2-1] 주중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대화시간 포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조사를 중심으로 자녀의 연령별로 부모님과과의 대화 여부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표 2-2-10>과 같다. 만 9~12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94.4%로 전체 88.3%보다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2.4%로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72.5%, 1시간 이상 21.9%로 전체 1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 14.4%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만 13~18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90.9%,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5.9%로 대화하는 비율은 만 9~12세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76.3%, 1시간 이상 14.6%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보다 낮았다. 만 19~24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83.7%,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1.3%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 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72.9%,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1시간 이상 10.8%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 및 만 13~18세보다 낮았다. 이는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낮은 연령대보다 아버지와의 대화 비율과 1일 평균 대화시간이 적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에서 만 9~12세는 98.2%로 전체 96.0%보다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0.2%로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43.5%, 1시간 이상 54.7%로 전체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 39.1%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만 13~18세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이 97.3%,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0.9%로 대화하는 비율은 만 9~12세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55.5%, 1시간 이상 41.8%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보다 낮았다. 만 19~24세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이 93.9%,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3.5%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64.1%, 1시간 이상 29.8%로 1시간 이상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보다 낮았다.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어머니와의 대화비율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이 적었으며, 이는 아버지와의 대화 비율과 유사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2-10〉 부모님과 대화 여부 및 대화시간(1일 평균)

(단위 : %)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없음	계
아버지	전체	7.6	47.7	26.2	8.9	5.5	4.0	100.0
	만 9~12세	2.4	40.0	32.5	11.9	10.0	3.2	100.0
	만 13~18세	5.9	49.5	26.8	9.3	5.3	3.2	100.0
	만 19~24세	11.3	50.2	22.7	7.3	3.5	5.0	100.0
어머니	전체	1.9	19.8	37.1	23.6	15.5	2.1	100.0
	만 9~12세	0.2	9.6	33.9	28.6	26.1	1.6	100.0
	만 13~18세	0.9	18.1	37.4	26.1	15.7	1.8	100.0
	만 19~24세	3.5	25.7	38.4	19.5	10.3	2.6	100.0

주 : 해당없음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에서 부모와의 질적인 관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표 2-2-11〉에 의하면, 2012년 청소년의 상담대상은 친구동료가 44.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부모, 스스로 해결, 형제자매 순으로 많았다.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에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부모와 고민상담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부터 증감을

반복하였다. 또한, 형제자매, 친구동료, 스스로 해결이라는 응답도 증감을 반복하였다. 2012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부모 및 형제자매와 고민상담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거나 친구동료와 고민상담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중 1/4 이상은 부모와 어느 정도 신뢰감을 형성하여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11〉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단위: %)

구분	부모	형제자매	친구동료	스스로 해결	인터넷(SNS)	기타	계
2012년	24.0	5.2	44.5	21.9	-	4.5	100.0
2014년	26.1	5.5	46.2	17.6	-	4.7	100.0
2016년	24.1	5.1	44.4	21.8	-	4.5	100.0
2018년	28.0	5.1	49.1	13.8	-	4.0	100.0
2020년	27.2	6.1	43.4	19.1	1.4	2.7	100.0

주: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 포함. 2020년부터 '인터넷(SNS 등)'을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

자료: 통계청(2012, 2014, 2016, 2018, 2020). 사회조사.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표 2-2-12〉에 제시되어 있다. 2020년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전체 8.05점이었다.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9~12세 청소년은 8.33점, 13~18세 청소년은 8.10점, 19~24세 청소년은 7.88점으로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학생은 8.09점으로 남학생 8.01점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8.24점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7.88점과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 7.94점보다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표 2-2-12〉 청소년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만족	평균		
												구분	
연령별	9~12세	-	0.0	0.0	0.1	0.2	1.8	5.5	14.0	30.7	30.1	17.5	8.33
	13~18세	-	0.0	0.0	0.1	0.6	3.4	7.1	17.9	30.4	26.4	14.1	8.10
	19~24세	0.0	0.0	0.0	0.2	0.4	4.2	9.4	19.1	34.6	22.3	9.7	7.88

구분		⑩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만족	평균
성별	남	-	0.0	0.0	0.2	0.4	4.0	8.5	17.2	32.8	24.4	12.5	8.01
	여	0.0	0.0	0.0	0.1	0.5	2.8	7.1	18.1	32.0	26.3	13.1	8.09
지역별	대도시	0.0	0.0	0.0	0.1	0.3	2.2	5.7	14.9	32.3	29.9	14.6	8.24
	중소도시	-	0.0	0.0	0.2	0.7	4.2	9.4	20.2	33.1	20.9	11.3	7.88
	농산어촌	-	0.0	0.0	0.2	0.2	4.7	9.5	18.5	31.4	23.9	11.7	7.94
전체		8.05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기준 부모님의 비용 지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2-2-13>과 같다. 모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학졸업까지는 60.7%, 그 이후 취업할 때까지 21.1%, 결혼할 때까지 5.4%로 2017년 대학졸업까지 52.0%, 취업할 때까지 18.6%보다 증가하였으며, 결혼할 때까지 5.7%보다 감소하였다. 특히 대학졸업까지는 3년 사이에 8.7%p나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목별 차이에서 대학졸업까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는 반면, 취업할 때까지와 결혼할 때까지의 비율이 낮고, 결혼할 때까지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32.2%인 것으로 볼 때, 대학졸업 후 취업 이후에는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결혼할 때까지의 비율이 높고,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대학졸업까지와 취업할 때까지 부모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도시는 대학졸업까지, 농산어촌은 취업할 때까지와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2-2-13> 부모님으로부터의 비용 지원

(단위 : %)

구분		전혀 부담할 필요 없음	일부만 부담	모든 비용 부담
대학졸업까지	2010년	8.1	76.4	15.4
	2012년	6.8	77.6	15.6
	2017년	3.4	44.6	52.0
	2020년	1.9	37.4	60.7



구분			전혀 부담할 필요 없음	일부만 부담	모든 비용 부담	
대학졸업까지	2020	연령	13~18세	1.6	33.4	65.0
			19~24세	2.1	40.2	57.6
		성별	남자	2.3	37.2	60.5
			여자	1.5	37.6	60.9
		지역별	대도시	1.2	37.0	61.8
			중소도시	2.6	36.3	61.1
농산어촌	2.2		40.8	57.0		
취업할 때까지	연도별	2010년	57.5	39.7	2.7	
		2012년	50.3	45.6	4.1	
		2017년	17.0	64.4	18.6	
		2020년	9.4	69.5	21.1	
	연령	13~18세	7.9	66.5	25.6	
		19~24세	10.4	71.6	18.0	
	성별	남자	10.3	69.3	20.4	
		여자	8.4	69.7	21.9	
	지역별	대도시	8.3	71.6	20.1	
		중소도시	10.4	68.0	21.6	
농산어촌		9.8	67.7	22.5		
결혼할 때까지	연도별	2010년	65.3	32.8	1.9	
		2012년	60.9	35.4	3.7	
		2017년	40.5	53.8	5.7	
		2020년	32.2	62.4	5.4	
	연령	13~18세	30.8	61.9	7.3	
		19~24세	33.2	62.8	4.1	
	성별	남자	33.5	60.9	5.6	
		여자	30.8	64.0	5.2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구분			전혀 부담할 필요 없음	일부만 부담	모든 비용 부담	
결혼할 때까지	2020	지역별	대도시	35.4	60.1	4.6
		중소도시	30.5	63.5	6.0	
		농산어촌	28.1	65.8	6.1	

주 : 1) 무응답(2012년 무응답률(0.6%))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청소년가치관조사 문항으로 2010~2012년은 중·고등학생, 2017년은 13~24세 청소년의 응답률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학교환경

학교환경은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각된 학업성취도, 학교에 대한 느낌, 진로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가. 지각된 학업성취도

2020년 청소년들이 지각한 학업성취도는 ‘보통’이 4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우수한 편’ 40.2%, ‘못하는 편’ 6.2%, ‘매우 우수’ 3.5%, ‘매우 못함’ 0.5%의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2014년과 2017년도 청소년들이 지각한 학업성취도의 순서와 동일하다. 연도별로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자신이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이 2014년 36.9%, 2017년 42.2%, 2020년 43.7%로 계속 증가한 반면, ‘못하는 편’ 혹은 ‘매우 못함’이라고 하는 청소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성취도에 대해 청소년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주요 고민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8세 청소년은 40.5%가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9~12세 청소년은 49.1%가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46.0%로 남자 청소년 41.6%보다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14〉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

(단위 : %)

구분		매우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우수한 편	매우 우수	
전체	2014년	2.5	15.7	44.9	28.0	8.9	
	2017년	1.2	8.6	48.0	38.2	4.0	
	2020년	0.5	6.2	49.6	40.2	3.5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 (9~12세)	0.4	5.8	44.7	44.5	4.6
		중·고생 (13~18세)	0.5	6.5	52.5	37.6	2.9
	성별	남	0.6	7.2	50.5	38.8	2.8
		여	0.3	5.2	48.5	41.7	4.3
	지역별	대도시	0.5	4.9	46.9	44.5	3.2
		중소도시	0.3	6.8	52.7	36.2	4.1
		농산어촌	0.7	7.8	48.5	39.8	3.2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나. 학교에 대한 느낌

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2020년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의 경우, ‘그런 편이다’가 6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2%, ‘매우 그렇다’ 7.1%, ‘전혀 그렇지 않다’ 1.2%의 순이었다. 2017년의 경우에도 ‘그런 편이다’ 6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6%, ‘매우 그렇다’ 9.1%, ‘전혀 그렇지 않다’ 1.6%의 순이었다.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2014년 69.5%에 이어 2017년 71.8%, 2020년 76.6%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연령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83.4%, 13~18세 청소년은 72.2%로 9~12세 청소년이 11.2%p 더 높았다. 이것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대도시 청소년이 78.9%, 중소도시 75.8%, 농산어촌 73.4%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이 79.2%로 남자 청소년 74.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2-15〉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4년	6.7	23.8	56.0	13.5	
	2017년	1.6	26.6	62.7	9.1	
	2020년	1.2	22.2	69.5	7.1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6	16.0	73.2	10.2
		중·고생(13~18세)	1.5	26.2	67.0	5.2
	성별	남	1.2	24.7	67.8	6.3
		여	1.2	19.6	71.2	8.0
	지역별	대도시	0.6	20.4	72.6	6.3
		중소도시	1.4	22.9	67.3	8.5
		농산어촌	1.8	24.8	67.4	6.0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의 경우, 2020년 ‘그런 편이다’가 6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8%, ‘매우 그렇다’ 14.2%, ‘전혀 그렇지 않다’ 1.0%의 순이었다. 2014년 긍정응답률은 56.3%, 2017년 71.6%, 2020년 7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과거보다 학생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학교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77.4%, 13~18세 청소년은 72.3%로 9~12세 청소년이 5.1%p 더 높았다. 한편 성별과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2-16〉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4년	11.2	32.5	46.9	9.4	
	2017년	1.9	26.4	57.1	14.5	
	2020년	1.0	24.8	60.0	14.2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7	21.9	61.5	15.9
		중·고생(13~18세)	1.3	26.4	59.2	13.1
	성별	남	1.1	25.5	60.0	13.4
		여	1.0	24.0	60.0	15.0
	지역별	대도시	1.0	24.3	58.7	16.0
		중소도시	1.0	25.6	59.6	13.8
농산어촌		1.0	23.8	63.6	11.3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라는 설문에 대하여 2020년에는 ‘그런 편이다’가 6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4%, ‘매우 그렇다’ 15.7%, ‘전혀 그렇지 않다’ 0.9%의 순이었다. 2017년에는 ‘그런 편이다’ 63.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2%, ‘매우 그렇다’ 15.9%, ‘전혀 그렇지 않다’ 1.7%로 나타났다.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긍정응답률은 2014년 65.6%, 2017년에는 79.1%에 이어 2020년에는 80.6%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학교가 좋은 분위기라고 느끼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가 점차적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85.2%, 13~18세 청소년은 78.3%로 9~12세 청소년이 6.9%p 더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7〉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4년	10.0	24.4	53.7	11.9
		2017년	1.7	19.2	63.2	15.9
		2020년	0.9	18.4	64.9	15.7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5	14.3	66.2	19.0
		중·고생(13~18세)	1.3	20.4	64.2	14.1
	성별	남	1.2	19.1	64.4	15.3
		여	0.7	17.6	65.5	16.2
	지역별	대도시	0.8	15.1	68.5	15.6
		중소도시	0.8	20.2	62.7	16.3
농산어촌		1.7	21.4	62.1	14.9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2020년에는 ‘그런 편이다’가 5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1%, ‘매우 그렇다’ 10.6%, ‘전혀 그렇지 않다’ 1.9%의 순이었다. 2017년에는 ‘그런 편이다’ 52.8%,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5%, ‘매우 그렇다’ 11.4%, ‘전혀 그렇지 않다’ 3.3%로 나타났다. 학교교칙이 엄격하다는 응답률은 2014년 53.5%, 2017년 64.2%, 2020년 66.1%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이것은 학교교칙이 엄격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가 점차적으로 교칙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학교교칙이 엄격하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64.7%, 13~18세 청소년은 67.2%로 13~18세 청소년이 2.5%p 더 높았다. 지역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72.6%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61.6%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 61.7%보다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18〉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4년	10.0	36.5	41.3	12.2	
	2017년	3.3	32.5	52.8	11.4	
	2020년	1.9	32.1	55.5	10.6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2.5	32.7	54.1	10.6
		중·고생(13~18세)	1.4	31.4	56.8	10.4
	성별	남	1.7	32.3	55.5	10.5
		여	2.1	31.8	55.5	10.6
	지역별	대도시	1.2	26.2	61.3	11.3
		중소도시	2.5	35.9	52.2	9.4
농산어촌		2.1	36.3	50.1	11.6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의 경우, 2020년 ‘그런 편이다’ 7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6%, ‘매우 그렇다’ 9.5%, ‘전혀 그렇지 않다’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그런 편이다’ 75.0%, ‘매우 그렇다’ 1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1%, ‘전혀 그렇지 않다’ 0.6%로 나타났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긍정응답률은 2014년 85.9%, 2017년 88.3%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83.0%로 5.3%p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과거보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2020년 학교생활 만족이 다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연령별로 보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9~12세 청소년이 86.4%, 13~18세 청소년은 81.3%로 9~12세 청소년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86.9%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81.7%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 77.7%보다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로 여자 청소년이 84.8%로 남자 청소년 81.3%보다 학교생활 만족이 다소 높았다.

〈표 2-2-19〉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4년	3.7	10.4	61.7	24.2	
	2017년	0.6	11.1	75.0	13.3	
	2020년	0.4	16.6	73.5	9.5	
2020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2	13.5	74.7	11.7
		중·고생(13~18세)	0.6	18.2	73.0	8.3
	성별	남	0.5	18.2	72.6	8.7
		여	0.3	14.9	74.5	10.3
	지역별	대도시	0.1	13.0	78.4	8.5
		중소도시	0.4	18.0	70.5	11.2
농산어촌		1.0	21.3	69.9	7.8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다. 진로교육 경험

1)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에 대한 경험의 경우, 2020년 ‘경험 있음’이 73.7%로 2017년 63.5%보다는 10.2%p 증가하였다. 진로와 직업 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수업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률은 2014년 58.3%에서 2017년 65.0%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62.2%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이 청소년들의 요구나 흥미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18세 청소년이 63.9%로 19~24세 청소년 61.1%보다 2.8%p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연령에 따른 관심과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영역의 진로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서 남자 청소년은 64.9%로 여자 청소년 60.0%보다 긍정응답률이 약간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64.9%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59.0%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 62.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2-20〉 진로교육 경험: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단위: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4년	19.0	81.0	9.8	31.8	50.0	8.3	
	2017년	36.5	63.5	4.1	31.0	59.9	5.1	
	2020년	26.3	73.7	5.0	32.8	58.5	3.7	
2020년	연령별	13~18세	32.5	67.5	5.5	30.6	60.2	3.7
		19~24세	21.9	78.1	4.7	34.2	57.4	3.7
	성별	남	26.1	73.9	4.5	31.9	59.9	3.7
		여	26.4	73.6	5.6	33.8	56.8	3.2
	지역별	대도시	32.5	67.5	4.1	36.9	55.8	3.2
		중소도시	22.1	77.9	5.4	29.7	60.2	4.7
농산어촌		19.8	80.2	6.1	31.1	60.2	2.6	

주: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현장학습 및 견학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현장학습 및 견학' 경험의 경우, 2020년 '경험 있음'이 66.7%로 2017년 57.3%보다 9.4%p 증가하였다. 현장학습 및 견학을 경험한 학생 중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14년 60.5%에서 2017년 62.4%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57.4%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장학습 및 견학 중심의 진로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2020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다소 감소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 현장학습 및 견학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18세 청소년이 60.4%로 19~24세 청소년 55.6%보다 높게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현장학습 및 견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라 현장학습 및 견학에 대한 긍정응답률에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별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2-21〉 진로교육 경험 : 현장학습 및 견학

(단위 :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4년	30.6	69.4	8.4	31.2	49.3	11.2	
	2017년	42.7	57.3	5.8	31.8	54.4	8.0	
	2020년	33.3	66.7	7.1	35.6	49.0	8.4	
2020년	연령별	13~18세	39.5	60.5	7.3	32.3	51.7	8.7
		19~24세	28.9	71.1	6.9	37.5	47.3	8.3
	성별	남	32.6	67.4	6.9	35.7	48.4	9.1
		여	34.0	66.0	7.2	35.4	49.6	7.7
	지역별	대도시	39.2	60.8	7.8	39.2	44.9	8.2
		중소도시	29.8	70.2	7.0	32.7	50.7	9.6
농산어촌		26.4	73.6	5.8	34.2	53.6	6.4	

주 :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 상담교사의 상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상담교사의 상담' 경험의 경우, 2020년 '경험 있음'이 75.9%로 2014년 67.0%, 2017년 67.4%보다 증가하였다. '상담교사의 상담'을 경험한 학생 중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60.2%에서 2020년 59.1%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진로교육에서 상담교사의 상담은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상담교사의 상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18세 청소년이 61.6%로 19~24세 청소년 57.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상담교사의 상담 경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22) 진로교육 경험 : 상담교사의 상담

(단위 :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4년	33.0	67.0	9.5	30.4	49.9	10.3	
	2017년	32.6	67.4	4.9	34.9	53.3	6.9	
	2020년	24.1	75.9	7.3	33.7	51.2	7.9	
2020년	연령별	13~18세	30.6	69.4	7.1	31.4	53.3	8.3
		19~24세	19.6	80.4	7.4	35.1	49.9	7.7
	성별	남	23.5	76.5	7.0	33.3	51.4	8.3
		여	24.9	75.1	7.5	34.1	50.9	7.4
	지역별	대도시	26.6	73.4	6.6	36.1	50.5	6.8
		중소도시	23.3	76.7	8.2	29.9	52.5	9.4
농산어촌		19.6	80.4	6.9	36.1	49.8	7.2	

주 :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 진로관련 검사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진로관련 검사' 경험의 경우, 2020년 '경험 있음'이 75.7%로 2017년 67.0%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진로관련 검사'를 경험한 학생 중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14년 60.5%에서 2017년 59.1%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20년 59.3%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진로관련 검사가 청소년들에게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진로관련 검사의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은 13~18세 청소년이 60.8%로 19~24세 청소년 58.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진로관련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진로관련 검사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은 남자 청소년이 60.1%로 여자 청소년 58.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나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2-23〉 진로교육 경험 : 진로관련 검사

(단위 :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4년	19.2	80.8	8.8	30.7	50.1	10.4	
	2017년	33.0	67.0	6.3	34.5	52.8	6.3	
	2020년	24.3	75.7	7.5	33.1	51.8	7.5	
2020년	연령별	13~18세	30.1	69.9	7.1	32.1	53.1	7.7
		19~24세	20.3	79.7	7.8	33.7	51.1	7.4
	성별	남	24.2	75.8	6.7	33.1	51.8	8.3
		여	24.4	75.6	8.4	33.1	51.8	6.6
	지역별	대도시	28.4	71.6	7.4	34.2	52.3	6.1
		중소도시	22.8	77.2	8.0	30.5	52.5	9.0
농산어촌		17.4	82.6	6.7	36.2	49.5	7.5	

주 :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4, 2017,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 미디어환경

미디어환경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 스마트폰, 매체별 중요도,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활용된 자료는 '방송매체이용 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이다.

가. 인터넷

1) 인터넷 이용 빈도

2020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의 98.5%는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의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의 경우, 2015년,

2017년, 2020년에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20대의 경우, 2020년 99.3%가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소년의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는 증감을 반복하였다. 인터넷 이용 빈도를 집계한 모든 연도에서 20대의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가 10대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2-24〉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당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인터넷 이용 빈도				주 평균 이용시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2012년	10대	97.6	2.4	0.0	0.0	14.1
	20대	98.5	1.4	0.0	0.0	21.7
2013년	10대	95.8	4.1	0.0	0.0	14.1
	20대	99.3	0.7	0.0	-	20.3
2014년	10대	95.2	4.7	0.1	-	14.4
	20대	99.3	0.7	0.0	-	20.5
2015년	10대	96.6	3.3	0.1	0.1	14.5
	20대	99.8	0.2	-	-	21.0
2016년	10대	93.9	5.6	0.3	0.2	15.4
	20대	99.6	0.4	0.0	-	22.8
2017년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0.0	-	23.6
2018년	10대	98.1	1.2	0.7	-	17.8
	20대	99.9	0.1	0.0	-	24.2
2019년	10대	96.9	2.6	0.5	0.0	17.6
	20대	98.6	0.9	0.4	0.0	24.3
2020년	10대	98.5	1.5	0.0	0.0	27.6
	20대	99.3	0.6	0.1	0.0	29.5

자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8, 2019,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4, 2015,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인터넷의 주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2020년 10대 청소년은 27.6시간으로, 2012년과 2013년 14.1시간, 2014년 14.4시간, 2015년 14.5시간, 2016년 15.4시간, 2017년 16.9시간, 2018년 17.8시간, 2019년 17.6시간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과 비교하면 주 평균 이용시간이 13.5시간이나 증가한 것이다. 20대도 2012년 21.7시간, 2013년 20.3시간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가 2014년 20.5시간, 2015년 21.0시간, 2016년 22.8시간, 2017년 23.6시간, 2018년 24.2시간, 2019년 24.3시간, 2020년 29.5시간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주 평균 이용시간은 10대 청소년보다 20대가 1.9시간이 더 많았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 인터넷 이용 용도

2020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용도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의 경우, 교육학습이 99.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여가활동 99.1%, 커뮤니케이션 98.5%, 자료정보검색 95.2%, 홈페이지 운영 64.8% 등의 순이었다. 반면, 20대 청소년의 경우, 자료정보검색이 1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99.9%, 여가활동 99.8%, 홈페이지 운영 87.4%, 교육학습 82.6%, 구직활동 51.5% 등의 순이었다. 10대와 20대 청소년은 인터넷 이용 용도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이 20대보다 교육학습을 위하여 인터넷을 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대가 10대 청소년보다 인터넷을 다양한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대는 홈페이지 운영과 직업직장과 같은 구직활동을 10대 청소년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10대와 20대 모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넷 이용 용도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특히 20대는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100%였다. 홈페이지 운영은 10대와 20대 모두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10대는 2019년부터 20대는 2020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목할 것은 교육학습의 경우, 2012년에는 이용 비율이 높다가 2013년에는 급감했으며,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16년에 급증하였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0대의 경우에는 2019년보다 2020년에 16.4%p 증가하였으며, 20대는 2019년보다 2020년에 12.4%p 증가하였다. 이는 인터넷을 교육학습용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25〉 인터넷 이용 용도(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자료정보 검색	여가 활동	커뮤니 케이션	거래 활동	교육 학습	커뮤니티	SW 다운로드/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운영	구직 활동 (직업직장)	파일공유 서비스	기타	
2012년	10대	91.4	98.0	96.3	58.5	91.2	55.0	9.4	71.3	2.9	25.2	-
	20대	99.8	98.3	99.6	91.1	75.9	71.7	20.7	74.7	28.2	48.0	-
2013년	10대	93.7	97.2	91.9	28.6	56.9	18.1	11.6	45.2	4.3	7.0	-
	20대	99.8	97.6	81.4	62.1	28.7	30.8	22.1	67.3	27.0	14.1	-
2014년	10대	91.0	93.3	94.4	32.0	59.2	-	14.0	-	4.2	8.6	-
	20대	99.8	95.0	99.8	86.2	43.0	-	22.6	-	29.3	18.7	-
2015년	10대	85.3	96.7	95.7	-	58.7	-	-	48.5	6.5	-	-
	20대	99.6	97.4	100.0	-	50.6	-	-	70.3	33.8	-	-
2016년	10대	88.4	97.5	95.1	-	72.4	-	-	51.5	7.9	-	-
	20대	99.8	98.5	99.9	-	60.4	-	-	74.7	42.2	-	-
2017년	10대	92.6	98.9	97.1	-	73.6	-	-	53.8	7.8	-	-
	20대	100.0	99.4	100.0	-	64.3	-	-	78.2	51.3	-	-
2018년	10대	95.6	99.5	98.2	-	83.8	-	-	70.1	7.7	-	-
	20대	100.0	99.7	100.0	-	65.5	-	-	90.9	59.8	-	-
2019년	10대	96.0	99.5	98.6	-	83.5	-	-	69.9	8.9	-	27.3
	20대	100.0	99.7	100.0	-	70.2	-	-	91.8	60.8	-	91.0
2020년	10대	95.2	99.1	98.5	-	99.9	-	-	64.8	9.4	-	37.7
	20대	100.0	99.8	99.9	-	82.6	-	-	87.4	51.5	-	96.2

자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8, 2019,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4, 2015,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청소년의 2020년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메일은 대학생 94.3%, 고등학생 65.1%, 중학생 52.0%, 초등학생 21.1%이었다. 인스턴트 메신저는 대학생 99.8%, 고등학생 99.2%, 중학생 98.7%, 초등학생 83.8%이었으며, SNS 이용은 대학생 90.8%, 고등학생 81.4%, 중학생 74.2%, 초등

학생 36.0%로 집계되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것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서비스 중 인스턴트 메신저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경우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83.8%에 달하며 중학생부터는 98%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의 차이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수준보다는 낮지만, SNS도 초등학생이 36.0%를 이용하며, 중학생부터는 70%를 넘는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6〉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¹⁾(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²⁾	SNS 이용 ³⁾	인터넷 쇼핑 ⁴⁾	인터넷 뱅킹 ⁴⁾
초등학생	21.1	83.8	36.0	28.6	11.6
중 학생	52.0	98.7	74.2	45.7	18.2
고등학생	65.1	99.2	81.4	63.1	39.6
대 학생	94.3	99.8	90.8	92.8	88.5

주 : 1) 최근 1년 이용자.

2)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페이스북 메신저, 구글 행아웃 등이 포함.

3) 나이, 학력 등 개인정보 및 사진, 친구목록 등이 프로필 페이지에 제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인맥형성, 교류하는 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4)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뱅킹은 12세 이상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다. 스마트폰

1) 스마트폰 이용 빈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빈도를 보면, 2020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매일’이 9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주일에 5~6일’이 2.9%였다. 20대는 ‘매일’이 9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혀 안 봄/이용 안함’ 2.1%였다. 이것은 대부분 청소년이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청소년의 경우 10대보다는 20대에서 더 많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지만 2020년에는 20대보다는 10대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10대 청소년은 2016년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87.6%에서 2018년에는 91.4%로 3.8%p 증가하였지만 2019년에 88.6%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에 95.3%로 전년대비

다시 증가하였다. 반면, 20대는 2016년 94.0%에서 2019년 97.7%로 3.7%p 증가하였지만 2020년 96.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스마트폰을 전혀 안 보거나 이용 안 한다는 비율의 경우 10대 청소년은 2016년 6.7%에서 2020년 1.6%로 5.1%p 감소한 반면, 20대는 2016년 1.5%에서 2020년 2.1%로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7〉 스마트폰 이용 빈도

(단위: %)

구분		매일	1주일에 5~6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한 달에 1~3일	2~3달에 1~2일 이하	전혀 안 봄/ 이용 안함
2016년	10대	87.6	4.4	1.2	0.0	0.0	0.0	6.7
	20대	94.0	2.4	1.9	0.2	0.0	0.0	1.5
2017년	10대	89.2	1.8	1.1	1.2	3.6	0.0	3.2
	20대	95.2	1.8	0.5	1.6	0.4	0.2	0.2
2018년	10대	91.4	4.7	0.1	1.0	0.1	0.1	3.7
	20대	94.2	2.6	0.2	1.2	0.2	0.0	1.6
2019년	10대	88.6	7.6	1.1	1.1	0.0	0.0	1.7
	20대	97.7	1.1	1.0	0.0	0.1	0.1	0.0
2020년	10대	95.3	2.9	0.0	0.2	0.0	0.0	1.6
	20대	96.8	0.7	0.2	0.3	0.0	0.0	2.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6, 2017, 2018, 2019, 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음성통화 제외)

음성통화를 제외한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020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2시간 이상'이 7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시간 미만' 16.4%, '1시간 미만' 6.5%의 순이었다. 20대의 경우, '2시간 이상'이 7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시간' 21.7%, '1시간 미만' 5.6%의 순이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10대의 경우 2015년 46.6%에서 2020년 77.1%로 30.5%p가 증가했으며, 증가폭이 20대에 비하면 크다. 20대도 2015년 49.7%에서 2020년 72.8%로 23.1%p 증가했다.

음성통화를 제외한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020년 10대 청소년은 190.8분이고, 20대는

174.4분으로 나타나 20대보다 10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16.4분 더 사용했다.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대가 10대 청소년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2015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124.4분, 2016년 132.5분, 2017년 132.4분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8년 140.8분, 2019년 154.7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보다 36.1분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대는 2015년 128.6분, 2016년 149.7분, 2017년에는 141.1분, 2018년 156.3분, 2019년 176.9분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20년에는 전년보다 2.5분 감소했다.

〈표 2-2-28〉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음성통화 제외)

(단위 : %)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평균(분)
2015년	10대	28.2	25.1	46.6	124.4
	20대	23.2	27.0	49.7	128.6
2016년	10대	20.6	25.9	53.5	132.5
	20대	15.9	25.8	58.3	149.7
2017년	10대	13.9	31.7	54.5	132.4
	20대	9.4	28.7	61.9	141.1
2018년	10대	13.1	24.5	62.2	140.8
	20대	9.8	25.1	65.2	156.3
2019년	10대	9.8	22.5	67.7	154.7
	20대	9.6	21.1	69.4	176.9
2020년	10대	6.5	16.4	77.1	190.8
	20대	5.6	21.7	72.8	174.4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3)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2020년 청소년이 생각하는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를 보면, 10대 청소년은 미디어 콘텐츠 시청이 89.0%(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합함)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86.4%, 정보검색 정보전달이 82.7%의 순이었다. 20대는 10대와 달리 정보검색 정보전달이 93.3%(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합함)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90.8%, 미디어 콘텐츠 시청 88.6%의 순이었다. 이것은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대에게는 미디어

콘텐츠 시청의 기능이 중요한 반면에 20대에게는 정보검색 정보전달의 기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9〉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단위 :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정보검색 정보전달	10대	1.4	0.4	15.6	30.5	52.2	-
	20대	0.3	0.7	5.7	34.4	58.9	-
미디어 콘텐츠 시청	10대	1.2	0.7	9.1	33.1	55.9	-
	20대	0.6	0.8	10.0	35.4	53.2	-
커뮤니케이션	10대	1.5	2.3	9.9	23.6	62.8	-
	20대	0.7	0.5	8.0	30.9	59.9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라. 매체 중요도

2020년 청소년의 매체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10대는 스마트폰을 96.2%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그 다음 PC/노트북 2.7%, TV 0.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0대 역시 스마트폰이 91.6%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그 다음 TV 4.8%, PC/노트북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재난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10대는 89.0%가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그 다음으로 TV 4.7%, 라디오 4.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20대는 스마트폰이 87.4%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고, TV 6.7%, 태블릿PC 3.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신문, 서적은 0.0~0.6%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비상상황 발생 시 청소년들에게 활자매체는 덜 중요한 반면에 전자매체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2-30〉 필수 매체 인식

(단위 : %)

구분		TV	라디오	신문	잡지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서적	기타
일상생활시	10대	0.6	0.0	0.3	0.0	2.7	0.0	96.2	0.2	0.0
	20대	4.8	0.0	0.0	0.1	3.2	0.3	91.6	0.0	0.1

구분		TV	라디오	신문	잡지	PC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서적	기타
비상상황 발생시	10대	4.7	4.1	0.0	-	1.2	1.1	89.0	-	0.0
	20대	6.7	0.6	0.6	-	1.2	3.5	87.4	-	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마.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2020년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6~19세는 2020년 영화 관람이 8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문 읽기 63.6%, TV 시청 49.1%, 잡지·서적 읽기 21.6%, 라디오 청취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2020년 영화 관람이 0.4%p 감소하였지만 다른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이 1.3~11.9%p 증가하였고, 특히 TV 시청은 11.9%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20대는 2020년 영화 관람이 9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문 읽기 94.4%, TV 시청 76.9%, 잡지·서적 읽기 36.3%, 라디오 청취 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볼 때, 라디오 청취는 1.3%p, 잡지·서적 읽기 1.9%p 감소하였지만 다른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이 1.4~19.6%p 증가하였고, 특히 TV 시청이 19.6%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표 2-2-31〉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률

(단위 : %)

구분		TV 시청	신문 읽기	라디오 청취	잡지·서적 읽기	영화 관람	
연령	6~19세	2017년	47.9	66.8	14.2	26.2	81.5
		2018년	56.7	71.3	12.7	25.4	78.7
		2019년	37.2	62.2	10.3	19.2	84.9
		2020년	49.1	63.6	11.6	21.6	84.5
	20대	2017년	71.2	99.2	32.2	50.6	92.6
		2018년	68.2	93.6	26.1	41.4	89.5
		2019년	57.3	93.0	24.3	38.2	92.9
		2020년	76.9	94.4	23.0	36.3	96.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제3부 요약

제3부에서는 ‘청소년 권리·참여’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권리 및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국내에서 개최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관련 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개소한 청소년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로서, 청소년 권리교육 실시,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UN이나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청소년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지원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234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331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583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고, 이 중 89.4%인 521건의 정책과제가 수용되었다. 2021년에는 청소년참여포탈을 통한 정책제안공모를 추진하여 관심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책제안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청소년 관련 대표적인 행사로는 ‘청소년의 달 기념식’,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국내 청소년정책은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협약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확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위원회 도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년)」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2003~2007년)」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가 주요 정책이념이 되는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정책 참여기구가 만들어 지고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다음으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시민역량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중점과제 내의 세부추진 과제로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이 추진되었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중점과제를 추진 하였다.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과제들을 설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청소년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을 활성화 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아동·청소년의 기본 생활보장은 물론 청소년의 권리·참여, 안전·보호, 교육 및 여가 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아동권리협약, 2004년 9월에 2개의 선택의정서(①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②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를 비준하였다. 동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돌봄과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국제연합의 선언을 상기하며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지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이념은 차별의 금지(제2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3조, 생명 존중(제6조), 아동의견 존중(제12조) 등이다.

동 협약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5년마다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1차 및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1994. 8월, 2000. 5월)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각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을 공표(1996. 2월, 2003. 5월)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자체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3·4차부터 통합국가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2008. 12월)하였고, 협약 제44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가정보 요청에 대해 제3·4차 추가보고서를 제출(2011. 7월)하였으며 위원회는 권고문을 공표(2012년)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제3·4차 권고사항 이행결과를 협약 조항별로 작성하여 제출(2017. 12월)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권고)가 2019년 9월에 진행되었다.

제1차 최초 국가보고서 심의(1996년)에서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92~1996년)」에

아동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비준 시 유보한 조항에 대한 철회 및 협약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권고하였다.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2003년)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1997년), 「청소년 보호법」 제정(199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2001년) 등 아동권리의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 일부조항 유보 유지,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되는 아동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조정할 상설중앙기구 미설치, 정책수립단계에서의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미흡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정부는 「어린이보호·육성 종합계획(2002년)», 「아동안전 종합대책(2003년)»,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2003~2007년)」 등 아동 관련 종합대책 수립, 청소년 복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 「아동복지법」 개정(2004~2007년)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한편,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실질적 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보건복지부, 2006~2014년)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재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아동복지법」 개정(2004년)을 통해 ‘어린이주간(5. 1.~5. 7.)’을 제정·선포하고, ‘대한민국아동총회’ 및 ‘아동권리 포럼’을 개최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심의(2012년)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를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2011년),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및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06년, 2008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0년) 등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노력, 교과 과정 내 아동권리 및 인권 관련 교육 확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2002년 유엔총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및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함에 따라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2003년)에서 제1 및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9월에 두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제1선택의정서 제8조제1항

및 제2선택의정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2007. 4월), 심의(2008. 6월) 받았다.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현역병 지원 입대 연령을 기존의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병역법」 개정(2004년)과 18세 미만의 아동을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 공군규정 개정(2005년)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무력분쟁 지역으로부터 온 망명 및 난민 아동을 접하는 자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모든 전문가 대상 협약 및 선택의 정서 인식 제고 및 교육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는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性)착취와 성범죄 행위로부터 아동보호 수준을 제고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년) 등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 개정,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추진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경찰·판사·검사 등 선택의정서 이행 관련 국내 모든 전문가를 위한 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지원, 아동권리협약의 입양허가제 유보조항 철회 및 헤이그 협약(1993년) 비준 등을 권고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자 제3·4차 추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성과와 진전 상황 등을 포함하여 2017년 12월에 제출되었다.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입양특례법」 전부개정(2011. 8월), 입양허가 절차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2012. 2월) 등 입양제도를 보완하여 2017년 8월에 입양허가제 유보조항을 철회하였다. 또한, 협약의 기본원칙인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1. 7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월) 등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포스터 및 소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에 배포(2016년)하였으며, 협약의 정신을 반영한 ‘아동권리헌장’을 제정(2016년)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 심의 전 협약 제4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및 조항별 변경 사항 및 추가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추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9월에 진행된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진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아동예산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체벌 금지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가 제기되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온라인 성매매 아동보호, 청소년 건강권·

근로권·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질의가 이루어졌다. 2020년 2월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국·영문본을 소관 부처에 배포하였으며, 2021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들의 참여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버전을 제작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아동과 민간, 정부관계자들의 소통 장을 마련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24년에 제출 예정인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대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제5·6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를 지정하여 이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21~) 이후 제출 시기에 맞추어 2023년에는 보고서 집필진 지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부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5

나. 청소년희망센터 운영

1) 추진배경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2008년 정부는 지역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여 운영모델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5월 중앙 차원의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로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차 위탁을 결정하였다. 이후 2012년 1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2차 위탁, 2013년 1월, 2013~2014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차 위탁, 2015년 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차 위탁, 2016년 1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차 위탁을 결정하였다. 청소년 권리침해 및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청소년의 권리 수준이 국제사회에 비해 낮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희망센터는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을 홍보·교육하였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기반 조성, 권리 보호강화 등의 중점과제를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 증대로 2017년 1월 청소년희망센터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사업근거(법령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8조의2(교육 및 홍보)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중이다.

3) 사업목적

청소년 권리보호·증진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수행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청소년 권리교육,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신규 권리교육 매뉴얼 개발·보급 등의 체계적 추진, 청소년 권리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주요 사업내용

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7가지로,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권리교육, ② 학교 밖·가출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③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양성과정(기초·심화·보수교육) 운영, ④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⑤ 청소년 권리교육 신청기관과 권리강사 매칭 시스템을 활용한 연계지원, ⑥ 권리침해 유형별 검색 DB시스템 운영, ⑦ 청소년 권리교육 사업 홍보이다. 더불어 2020년부터 청소년 인권증진 및 보호의 일환으로 기관 유형별 청소년 인권친화 선도기관 사업을 운영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10개의 청소년 기관 내 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하고 협력하여 청소년 주도형 인권친화 활동을 운영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093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를 운영·지원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및 내실화 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에 관한 UN총회 특별세션’과 ‘UN 세계 청소년포럼’, 그리고 ‘UN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선언’ 등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UN에서는 각 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격려하고자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 UN PSA)'을 시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실에 따라 2012년 6월 '공공행정상'의 정책결정 참여부문에서 한국은 청소년참여기구 중심의 청소년 정책으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이 체계화·활성화 되는 가운데, 기관·단체·학계 등 현장의 지지와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청소년정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12년 2월에는 기본적 권리로서 청소년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청소년 기본법」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운영 현황

2021년 10월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240개가 운영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청소년자치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 내외이며, 공개모집,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된 4,100여 명의 청소년이 2021년 현재 활동하고 있다. 2021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예산은 17개 시·도에서 각 1천만 원(국비 5백만 원, 지방비 5백만 원), 216개 시·군·구에서 각 2백 80만 원(국비 1백 40만 원, 지방비 1백 4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국고 미지원 포함)

(단위: 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운영 개소	197	204	216	221	230	239	239	240

자료: 여성가족부(2021).

〈표 3-2-2〉 2021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중앙참여위원회 제외)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	17	9	10	6	6	6	1	32	19	9	16	15	23	24	20	1

자료: 여성가족부(2021).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8년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0년도부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 지침 권장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후 「청소년활동 진흥법」(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확대 설치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운영 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2021년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331개소에서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의 전용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 제안·참여·평가, 홍보활동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매년 5개소씩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발하고, 그 운영 결과와 성과를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공유하고 있다.

〈표 3-2-3〉 2021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5	15	10	13	7	11	8	2	64	34	17	15	18	16	15	17	24	331

자료: 여성가족부(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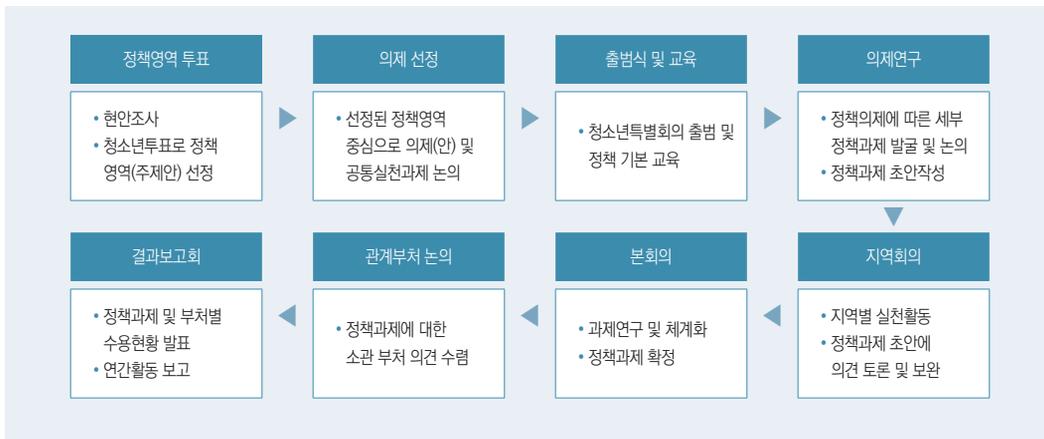
다. 청소년특별회의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2004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5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청소년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한 후 결과보고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제안한다.

[그림 3-2-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운영 현황

2021년에는 청소년위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5~10월까지 예비회의, 본회의를 통한 논의 및 온라인 정책제안 활동을 거쳐 선정된 5개 영역 30개의 정책과제를 결과보고회에서 보고하였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583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한 결과 약 89.4%인 521건의 정책과제가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연도	정책의제 및 과제	비고
2004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권·참여(13개 과제 제안)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 1회 개최 정례화 	-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31개 수용 88.6%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 	33개 수용 89.2%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청소년자원봉사·체험활동의 다양화 등 18개 과제 제안 	15개 수용 83.3%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82.9%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14개 수용 70.0%

연도	정책의제 및 과제	비고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3개 영역 53개 과제 제안 	49개 수용 92.5%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6%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6%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90.9%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양성평등, 학교밖청소년 지원, 안전, 경제활동 - 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89.9%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 '자립' 정책영역의 취업, 정보, 보호, 경제 등 5개 분야 33개 과제 제안 	32개 수용 96.9%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 - 청소년쉼터 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3.3%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021년에는 청소년참여포털¹⁾을 통한 온라인 정책제안공모를 추진하여 관심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책제안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활동 관련 온라인 기반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 www.youth.go.kr/ywwith.

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참여분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참여분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구성원 관계 개선, 지역사회 변화·개선, 청소년 권익 개선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제안 받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2년부터 참여·활동·보호 분야별로 운영되던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내 ‘참여분야’로 운영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하여 46개 참여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6, 6233, 6232

마.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제도는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을 통해 수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2004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2021년 현재,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사진 1매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발급기간은 4주 정도 소요된다.

2008년부터는 이용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수 및 배송 직후에 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고 있다. 2011년에는 청소년증 재발급 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2014년에는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청소년증을 등기우편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대중교통 시설 및 편의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에는 온라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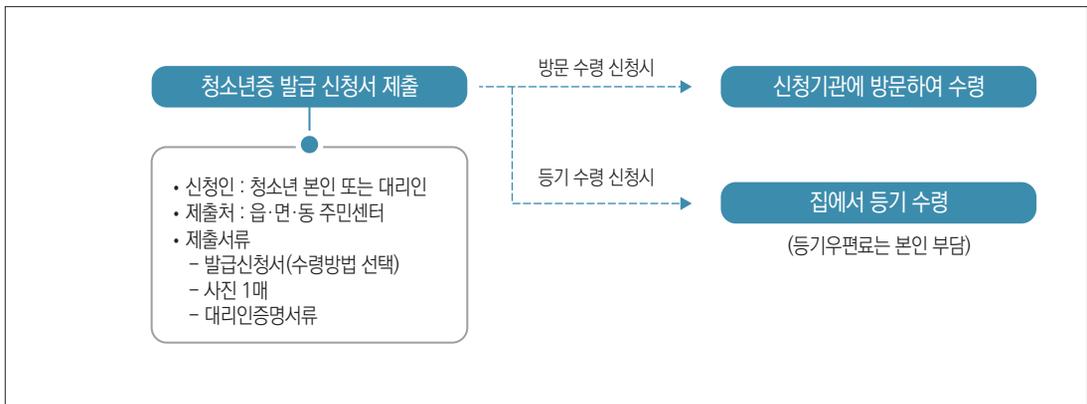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청소년증의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와 더불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였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증은 위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 병원, 투표소 등에서 신분확인 시 활용이 가능하다.

* 공직선거법 개정(2020. 1. 14.)에 따른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 가능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3-2-5〉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3 (시범)	515	436	-	-	-	-	66	-	-	-	13	-	-	-	-	-	-	-
2004	11,848	1,515	381	181	751	282	103	86	-	4,381	148	648	311	1,266	244	521	983	47
2005	14,120	1,781	672	214	353	61	287	105	-	1,966	85	995	4,275	450	175	1,597	677	427
2006	12,478	4,355	971	580	640	110	304	220	-	2,894	341	350	368	164	141	486	418	136
2007	24,455	6,975	1,724	1,754	1,676	318	607	640	-	6,243	428	479	855	498	390	810	893	165
2008	30,265	8,251	2,198	1,905	2,464	416	853	844	-	7,477	566	614	720	1,027	499	1,048	1,165	218
2009	33,656	8,480	2,492	2,212	2,216	509	917	897	-	8,863	835	845	765	1,066	616	1,229	1,440	274
2010	36,244	8,949	2,399	2,069	2,527	576	944	950	-	9,892	908	913	889	1,226	624	1,369	1,738	271
2011	40,898	9,992	2,868	2,304	2,642	813	885	1,060	-	11,007	1,071	1,129	1,205	1,437	718	1,438	2,008	321
2012	43,543	10,633	2,944	2,216	2,916	1,025	1,044	1,180	32	11,232	1,173	1,206	1,244	1,506	896	1,663	2,326	307
2013	49,438	10,624	3,202	2,573	3,012	1,215	1,446	1,590	110	12,555	1,773	1,362	1,733	1,776	1,130	1,935	2,906	496
2014	50,663	9,779	3,174	3,006	3,126	1,561	1,447	1,243	99	12,737	1,704	1,306	1,701	1,942	1,362	2,334	3,640	502
2015	93,536	9,619	3,899	3,406	3,828	1,899	2,403	2,490	473	24,187	3,585	2,519	3,488	3,407	4,143	14,179	8,253	1,758
2016	104,391	8,037	5,746	2,515	2,822	1,539	1,439	1,130	1,402	36,829	5,531	1,385	4,736	4,229	5,453	10,283	10,034	1,281
2017	188,562	13,609	11,890	8,616	5,180	6,037	4,646	3,791	2,460	63,327	9,626	3,631	9,181	9,203	7,248	12,676	14,134	3,307
2018	165,408	11,395	6,432	9,225	4,001	8,891	5,913	4,125	3,381	34,855	8,921	2,648	6,290	11,406	11,769	17,885	15,475	2,796
2019	142,502	13,122	11,704	10,514	4,683	4,399	4,887	1,964	2,918	38,722	4,840	3,276	4,808	8,428	5,272	12,220	8,781	1,964
2020	182,644	15,155	9,332	6,291	7,801	5,487	6,779	2,071	3,798	60,701	6,572	6,646	8,617	8,280	8,963	10,494	13,621	2,036
2021	141,169	13,856	9,798	4,820	5,261	4,521	6,448	1,666	3,160	47,601	3,824	5,728	8,100	5,571	5,238	6,259	7,652	2,116

자료 : 1) 한국조폐공사(2016).

2) 여성가족부(2021).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1.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16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달 주제와 관련된 행사를 5월 중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한 제도 형성에 기여한 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표 3-3-1〉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현황

(단위: 명)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계
2	3	7	11	70	93

자료: 여성가족부(2021).

가. 청소년의 달 기념식

‘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청소년의 달의 의미를 공유하고 청소년정책 발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표 3-3-2〉 2021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청소년의 달 기념식	5. 27.(목), 대전컨벤션센터	- 청소년 육성 및 보호유공자 포상

자료: 여성가족부(2021).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미래 청소년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4

나.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005년부터 개최된 박람회는 2008년부터 행사 장소를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 광주, 2009년 대구, 2010년 부산, 2011년 대전, 2012년 서울, 2013년 인천, 2014년 경기, 2015년 경북, 2016년 경남, 2017년 전남, 2018년 전북, 2019년 경기에서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부산에서 최초로 온라인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2021년 박람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청소년이 그리는 Green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 체험, 대회, 전시, 지역특화 프로그램과 환경을 키워드로 한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구성된 메타버스 및 3D 전시관 운영,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쉽게 관람 가능한 UI 적용,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유튜브,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인 비대면 박람회를 통해 정식 개최기간 동안 약 52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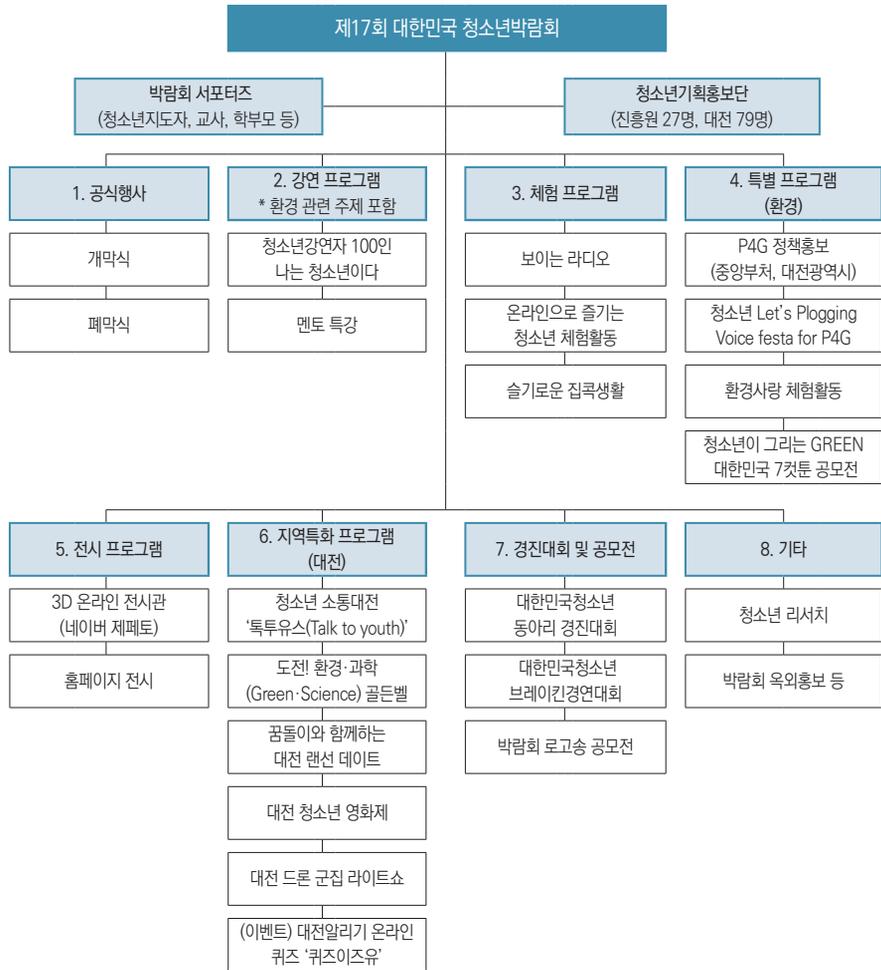
부 록

〈표 3-3-3〉 2021년 ‘대한민국청소년 온라인 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구분	내 용
일시	2021년 5월 27일(목) ~ 5월 29일(토), 3일간
장소	대전 컨벤션센터
주제	청소년이 그리는 Green 대한민국
주최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주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후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 개막식 : 5. 27.(목) 14:00, 대전 DCC
- * 박람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

행사
구성
(세부 내용)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회	2005. 5. 21. ~ 5. 22.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청소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제2회	2006. 5. 19. ~ 5. 21.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제3회	2007. 6. 1. ~ 6. 3.	코엑스 컨벤션홀 (서울)	“청소년 미래비전”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산업자원부, 노동부, KTF, LG전자, 내셔널지오그래픽, 알파
제4회	2008. 5. 29. ~ 6. 1.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희망/기회/ 성취의 빛”	보건복지 가족부, 광주광역시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5회	2009. 5. 28. ~ 5. 31.	EXCO전시 컨벤션센터 (대구)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디자인하다.”	보건복지 가족부, 대구광역시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제6회	2010. 5. 27. ~ 5. 31.	부산 BEXCO (부산)	“청소년의 꿈을 찾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교육청
제7회	2011. 5. 26. ~ 5. 28.	대전 컨벤션센터 (대전)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아!”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제8회	2012. 5. 24. ~ 5. 26.	SETEC (서울)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제9회	2013. 5. 23. ~ 5. 25.	송도컨벤시아 (인천)	“건강한 청소년, 함께 하는 열린 세상”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에너지관리공단
제10회	2014. 10. 23. ~ 10. 25.	KINTEX (경기)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	여성가족부, 경기도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기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1회	2015. 5. 21. ~ 5. 23.	구미코 (경북)	"나는 국가대표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회	2016. 5. 12. ~ 5. 14.	창원 CECO (경남)	"꿈꾸는대로 미래를 디자인 하라"	여성가족부, 경상남도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상남도 청소년 종합 지원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제13회	2017. 5. 25. ~ 5. 27.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전남)	"꿈꾸는대로 미래를 디자인 하라"	여성가족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청소년 활동 진흥원, 전라남도 미래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제14회	2018. 5. 24. ~ 5. 26.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 (전북)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전라북도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제15회	2019. 5. 23. ~ 5. 25.	수원 컨벤션센터 (경기)	"2019 다시 청소년이다!"	여성가족부, 경기도, 수원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기도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수원시 청소년재단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6회	2020. 12. 10. ~ 12. 12.	부산 벡스코 (부산)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부산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제17회	2021. 5. 27. ~ 5. 29.	대전 컨벤션센터 (대전)	청소년이 그리는 Green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대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는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 실시 이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21년에는 ‘청소년과의 푸른 약속, 청소년지도자가 미래를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12월 1일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수상자 포함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고,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은 SNS를 통한 생중계와 실시간 채팅 화면을 통해 올해의 청소년지도자 시상 및 교류의 시간 등을 함께하였다.

〈표 3-3-5〉유공자 포상 현황

(단위 : 명)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계
1	2	10	13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3-3-6〉 역대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회	2005. 9. 26. ~ 27.	올림픽파크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000여 명	청소년지도자의 삶과 도전 그리고 희망	기념식, 위원장과 대화, 콜로키움, 청소년지도자의 밤 등
제2회	2006. 12. 8. ~ 9.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00여 명	청소년지도자! 희망을 이끄는 사람들	개회식, 배워봅시다, 청소년지도자의 밤 및 교류회, 한마음 체육대회
제3회	2007. 9. 16. ~ 17.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 등 4개 협의기구 공동주관)	1,500여 명	꿈과 희망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의 날 전야제 (축하공연, 기념식, 지도자 경연대회), 교류회, 청소년지도자 체육대회(대동제)
제4회	2008. 12. 19. ~ 20.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000여 명	아동·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소통의 장(단합, 민속 공연), 만남의 장(지도자 비전 공유), 화합의 장(지도자 친선 교류), 도약의 장(명랑 운동회 등)
제5회	2009. 8. 28. ~ 29.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750여 명	꿈 + 미래, 행복 공감 지도자대회	주제발표 및 토론, 아동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발전방안 기념식, 우수 운영사례 경진 대회, 단합대회
제6회	2010. 10. 19.	올림픽파크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여 명	만남+소통+공감 = 청소년지도자의 행복	창의적 체험활동 발표,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 제4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소개, 기념식, 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결의문 낭독 등
제7회	2011. 9. 27.	서울교육 문화회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1,000여 명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에 대한 주제 강연, 기념식(주제영상, 비전선언, 지도자의 다짐, CI 선포), 열린토론회, 상호교류의 밤 등
제8회	2012. 9. 21. ~ 22.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꿈의 날개! 열정의 비상! 함께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	우수사례 발표, 주제 강연, 기념식(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축하영상) 지도자 상호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마당 등
제9회	2013. 9. 27. ~ 28.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청소년의 꿈과 행복!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힐링페스티벌, 정책강연, 기념식 (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 축하영상), 축하공연, 화합 및 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마당 등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0회	2014. 9. 2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꿈과 희망을 이끄는 청소년지도자들의 비상(飛上)	소통의 장(포토존, 기 수상자와의 만남, 정책강연), 격려의 장(올해의 청소년 지도자 상 시상, 기념 퍼포먼스, 구호제창), 화합의 장 등
제11회	2015. 9. 2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대한민국 청소년의 꿈과 끼! 청소년지도자가 함께 합니다.	식전행사(청소년활동 전시, 토크콘서트 등), 본행사(오프닝 공연, 주제영상 상영, 시상식, 축하공연 등), 식후행사(특강, 교류 및 화합의 시간, 만찬 등)
제12회	2016. 11. 17. ~ 18.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청소년 희망의 별! 빛나는 청소년 지도자!	식전행사(포토존 히스토리전시), 본행사(오프닝공연, 주제영상, 시상식, 축하공연 등), 식후행사(생생토크, 만찬)
제13회	2017. 9. 14. ~ 15.	천안상록리조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지도자의 행복! 청소년의 희망으로~	식전행사(사랑의 책 나눔), 본행사(오프닝공연, 축하영상, 시상식, 퍼포먼스 등), 식후행사(교류 및 화합의 시간 등)
제14회	2018. 9. 1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530여 명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미래	식전행사(포토존, 감동계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존), 본행사(오프닝 공연, 청소년지도사 윤리헌장 선언, 청소년 유공 지도자 시상식, 청소년이 말하다, 청소년지도자 답변, 청소년 지도자 발언대, 퀴즈대회, 만찬)
제15회	2019. 10. 11.	AW 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510여 명	청소년에게 용기를, 청소년지도자에게 보람을! (부제 : 다시 청소년이다!)	식전행사(참여형 포토존 "컬러링 Wall", 플라워 포토존, 디지털 캐리커처, 캘리그래피, 사전영상공모전 유튜브 부스, 지도자 소통존&힐링존)본 행사 (오프닝 공연, 디지털 식수 세리머니, 올해의 청소년지도자상 시상식), 식후행사(공감토크쇼, 퀴즈&FUN, 만찬 및 교류의 시간)
제16회	2020. 9. 24.	AW 컨벤션 센터 (SNS 생중계 및 실시간 채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현장: 20명 온라인: 380여 명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도자, 청소년이 희망이다!	사전행사(SNS 릴레이 챌린지 응원 영상 업로드, 엽서 공모전, 퀴즈 이벤트, 방방곡곡 이벤트) 본 행사(사전 온라인 이벤트 영상 상영, 올해의 청소년 지도자상 시상식, 엽서 공모전 선정작 낭독, 재즈밴드 공연)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7회	2021. 12. 1.	국제청소년센터 (SNS 생중계 및 실시간 채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현장: 50명 온라인: 250여 명	청소년과의 푸른 약속, 청소년 지도자가 미래를 응원합니다!	사전행사(SNS 릴레이 챌린지 응원 영상 업로드, 청소년의 푸른 미소 사진 공모전), 본 행사(사전 온라인 이벤트 영상 상영, 올해의 청소년 지도자상 시상식, 푸른미소 사진 공모전 수상작 소개, 사물놀이 축하 공연)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단체 및 바른 성장으로 또래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청소년동아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성인 부문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저한 업적을 5년 이상 쌓은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추천하며, 청소년 부문은 1년 6개월 이상 능동적 활동으로 역량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청소년 개인 또는 동아리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총 5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2021년에는 성인 개인 500만 원, 성인 단체 1,000만 원, 청소년 개인 100만 원, 청소년동아리 2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기관·단체 및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및 청소년동아리 누구나 수상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다.

〈표 3-3-7〉 연도별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개최 현황

연도	주최	주관	시상 부문	상금	위원장	시상식		
						일자	장소	참석자
2009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5개 부문 (활동, 복지, 정책, 학술, 미디어)	각 10백만 원	박완서 (서울대 명예 문학 박사)	11. 30. (월) 16:00	대한상공 회의소	250여 명
2010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4개 부문 (활동, 복지, 보호, 청소년)	개인 10백만 원, 단체 15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2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2. 3. (금) 15: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2011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5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유인촌 (극단 유시어터 대표)	11. 25. (금) 15: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2012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최불암 (어린이재단 전국 후원회 회장)	11. 16. (금) 14: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2013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이월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12. 6. (금) 14:00	MBC 드림 센터 공개홀	250여 명
2014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나승일 (서울대 교수)	12. 18. (목) 14:00	MBC 상암동 공개홀	250여 명
2015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나승일 (서울대 교수)	12. 3. (목) 14:00	MBC 상암동 공개홀	250여 명
2016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 원, 단체 5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150만 원	배규한 (백석대 교수)	12. 15. (목) 14:00	MBC 골든 마우스홀	250여 명
2017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150만 원	최영희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사장)	12. 15. (금) 14:00	AW컨벤션 센터	200여 명

연도	주최	주관	시상 부문	상금	위원장	시상식		
						일자	장소	참석자
2018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5백만 원, 단체 20백만 원, 청소년 150만 원, 동아리 150만 원	최영희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사장)	12. 12. (수) 15:00	대림미술관 디라운지	100여 명
2019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2백만 원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	12. 4. (수) 14:00	AW컨벤션 센터	100여 명
2020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2백만 원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	12. 14. (월)	홈페이지 안내	-
2021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2백만 원	-	12. 16. (목)	홈페이지 안내	-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42

제4부 요약

제4부 '청소년활동'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청소년의 국제교류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청소년의 여유시간 활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활동·참여·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청소년 젠더프로그램, 사회정서 역량 개발 등 91개 활동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 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과 '청소년어울림마당'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편,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 현재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11,026건에 이르며, 3,265건의 인증 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제도를 통해 수련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 요소를 점검할 수 있고, 범죄 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청소년교류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 등을 고민해 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봉사활동을 스스로 기획하여 실행하는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을 4개 시·도에서 운영하였고, 2018년에는 17개 시·도로 전국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2,109명의 청소년이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청소년 교류활동의 경우,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지속으로 해외 파견·초청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의 경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지 청소년과 우리 청소년 간 온라인 교류를 실시하였고, 해외자원봉사의 경우 국내에서 해외 청소년을 위해 교육봉사활동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였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한 국내 기반 국제교류를 위하여 총 15개 대학의 국내체류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민간 청소년단체가 개최하는 국제청소년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제4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제2장 청소년수련활동 제도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1.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발굴·확산을 통하여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역량 개발, 민주시민의식 제고, 문화·예술체험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2012년부터 활동·참여·보호 분야별로 운영되던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내 ‘활동분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청소년 센터프로그램, 사회정서 역량 개발 등 44개 활동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4-1-1〉 2021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분야	소주제	선정 프로그램 수	지원 금액
활동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17	215.3
	청소년 센터프로그램	5	50.4
	사회정서 역량 개발	22	173.2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나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입시위주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동아리활동’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이 있다.

가.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스포츠·과학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시설 및 각급 학교(초·중·고 등)의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해 우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2,50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표 4-1-2〉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단위 : 개)

구분	동아리 지원 수	구분	동아리 지원 수
서울	440	강원	158
부산	140	충북	77
대구	122	충남	98
인천	94	전북	115
광주	70	전남	75
대전	117	경북	162
울산	50	경남	146
세종	16	제주	84
경기	536	합계	2,500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진행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2004년과 2005년에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었으나, 2006년부터 11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5개 시·도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 90개 시·군·구로 청소년어울림마당이 확대·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16개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과 110개 시·군·구 어울림마당이 지원·운영되고 있다.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현황(2011~2021)

(단위: 개)

구분	어울림마당 지원 수		구분	어울림마당 지원 수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서울	1	11	강원	1	6
부산	1	6	충북	1	6
대구	1	7	충남	1	6
인천	1	4	전북	1	7
광주	1	4	전남	1	6
대전	1	4	경북	1	8
울산	1	2	경남	1	11
세종	-	1	제주	1	1
경기	1	20	합계	16	110

자료 : 여성가족부(2021).

3.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치열한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1)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http://dovol.youth.go.kr>) 개발·운영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CS버전)은 2005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 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실적 등을 보다 쉽게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 또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봉사활동 신청 및 경력 관리,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등의 기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에는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역별로 운영·관리되었던 시스템(CS버전)에서 통합 시스템(WEB버전)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기존 청소년 봉사활동 관리시스템에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로 발전시켜 청소년 봉사활동관리의 안정성, 편리성, 정보 제공 확대 등을 도모하였다. 2012년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작업을 추진하여 기존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youth.go.kr)를 개편하였으며,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대하자는 정부3.0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통합관리시스템(1365 나눔포털)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Dovol-1365나눔포털 간의 자원봉사 실적 연계는 물론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를 통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youth.go.kr)와 통합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국제교류,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활동 등 타 청소년 활동 정보와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청소년이 비대면 봉사활동¹⁾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1) 봉사자와 수혜자가 대면하지 않고 참여하는 봉사활동.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있도록 비대면 및 혼합형 봉사활동²⁾ 정보 제공, 신청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2)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현황

청소년자원봉사는 개인, 가족, 동아리·단체 등의 유형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일손 돕기·환경미화·취약계층 활동 보조 등의 노력봉사, 학습 지도·멘토링·공부방 운영 지원 등의 교육봉사, 지역행사 운영·보조, 캠페인 활동 등의 문화봉사,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재능봉사 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인증터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터전'이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에 봉사활동 실적을 등록·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인증한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활동 인증터전으로는 청소년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체육·관광시설 및 단체, 의료보호시설 및 단체, 기업체(사회공헌재단 등) 등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청소년자원봉사의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보장과 자발적 봉사참여 촉진을 위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자원봉사 포털(1365나눔포털, VMS) 간 종합보험 통합 제공 추진을 통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수혜 대상자를 크게 확대³⁾하였다.

한편, 2017년부터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나 변화가 필요한 주제를 스스로 조사·분석하고,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기존 봉사활동이 봉사시설 및 기관의 담당자(성인)가 계획한 봉사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의 목적과 수단, 실행 방법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17년에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으로 4개 시·도(대전, 경기, 광주, 전남)에서 27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매뉴얼(청소년용, 지도자용)이 개발·보급되었다. 2018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운영하여 총 930명, 2019년에는 총 1,393명, 2020년에는 총 2,064명, 2021년에는 2,109명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2) 대면과 비대면 봉사활동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봉사활동.

3) Dovol 회원 중 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가한 청소년(약 9만 명)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체 회원(약 27만 명).

〈표 4-1-4〉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단위 : 개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가입 터전 수	8,620	9,014	9,541	9,249	8,336	8,464	8,509	8,544	8,661	8,391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표 4-1-5〉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

(단위 : 개)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프로그램 수	171,032	185,429	281,847	303,408	313,387	447,905	506,822	419,119	362,144	171,476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표 4-1-6〉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실인원 및 지속 참여인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인원(명)	275,981	277,908	241,287	231,887	250,024	275,163	260,770	271,727	279,743	132,111
10시간(명)	86,529	91,223	73,936	74,293	84,110	99,289	97,907	99,425	105,347	37,767
비율(%)	31.35	32.82	30.64	32.04	33.64	36.08	37.55	36.59	37.65	28.58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8

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가. 제도 안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이하 국제포상제)는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군인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13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제포상제를 총괄하는 ‘국제포상재단(International Award Foundation)’에는 ‘국가사무국(National Award Operator)’과 ‘독립운영기관 (Independent Award

Center)’이 속해 있다.

국제포상제는 비경쟁성, 개별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자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국제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4세까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각 활동별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금장 활동의 경우 4가지 활동과 더불어 추가로 합숙 활동을 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6개월), 은장(6~12개월), 금장(12~18개월)으로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표 4-1-7〉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구분	봉 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 험	합 숙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회 이상	12개월 48회 이상	12개월 48회 이상	3박 4일 (1일 8시간)	4박 5일 ※ 금장 단계에 한함
	은장 미보유 청소년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회 이상	6개월 24회 이상	6개월 24회 이상	2박 3일 (1일 7시간)	-
	동장 미보유 청소년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회 이상	3개월 12회 이상	3개월 12회 이상	1박 2일 (1일 6시간)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나. 포상제 추진 현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이하 “국제포상제”)는 2008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국제포상협회(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에서 국제포상제 독립운영기관 라이선스를 취득(2008. 5.)하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상제 운영을 확대한 결과 2009년 호주에서 개최된 총회를 통해 임시회원(Provisional Membership) 자격을 획득하였다(2009. 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12년 정회원 자격 승급을 앞두고 국제포상재단(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Foundation)의 신규 라이선스 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사업에 참여하여 2013년 개정된 정관에 의한 세계 최초 정식라이선스(Full Licence/Full Membership)체결 국가가 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사무국으로서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2013. 6.). 또한 2014년 국제금장총회 및 국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동 제도의 국내 참가자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사무국의 위상을 고취시켰다.

국제포상제는 포상 자체보다는 포상활동 과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상 활동에서 도전에 대한 실패는 없으며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여 도전가능하고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참여 청소년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표 4-1-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참가청소년	포상청소년	포상담당관	포상센터
2010년	3,942	110	1,830	192
2011년	3,467	567	1,569	289
2012년	3,545	572	1,787	370
2013년	3,463	607	1,048	462
2014년	2,257	492	1,197	552
2015년	2,046	416	567	632
2016년	1,832	622	528	696
2017년	1,960	795	778	775
2018년	1,959	834	336	820
2019년	1,283	431	290	876
2020년	577	256	417	919
2021년	643	156	454	946
누적 계	26,974	5,858	10,801	-

주 : 1) '21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정보시스템 데이터 전면 현행화 결과를 반영한 현황임.

2) 포상담당관은 매년 신규 위촉자 현황임.

3) 포상센터는 매년 취소·철회한 기관 수가 반영된 누적계 수치임.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가. 제도 현황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Korea Achievement Award)’는 2008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를 모태로 2010년부터 연구되었으며, 2011년부터 3년 간 현장적용을 위한 단계별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2014년부터 정식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17개 전국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13개의 청소년단체 및 종교단체로 구성된 포상운영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성취 지향적 활동, 단계적 활동, 스스로 하는 활동, 다양한 활동, 재능의 발견 및 개발의 기회, 경쟁이 없는 활동,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활동,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는 8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만 7~15세 청소년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4개월), 은장(4~8개월), 금장(8~16개월)으로 4가지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표 4-1-9〉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구분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동장 만 7세 이상	8주(회) 이상	8주(회) 이상	8주(회) 이상	1일(5시간)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8주(회) 이상 수행			
은장 만 7세 이상	16주(회) 이상	16주(회) 이상	16주(회) 이상	1박 2일(10시간)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16주(회) 이상 수행			
금장 만 10세 이상	24주(회) 이상	24주(회) 이상	24주(회) 이상	2박 3일(15시간)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24주(회) 이상 수행			

-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은 각 1주에 1회 4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단계별로 4가지 활동 영역 모두 이수해야 함.
- 탐험활동은 사전 기본교육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나. 포상제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한국의 저연령 청소년(만 7~15세)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성취포상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2011년 11개 기관에서 시범운영하였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21년 현재 포상운영사무국 31개, 포상센터 600개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포상사무국은 2014년 정식 운영 이후 가족형 포상제, 챌린지형 포상제, 자유학기제·학년제 연계 운영 등 신규 포상제 모형을 개발하여 저연령 청소년의 포상제 활동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상지도자의 불필요한 업무 소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청소년이 포상제 4가지 활동 영역에 모두 참여하고 각 단계에 맞는 활동 횟수를 충족하면 일련의 심사를 통해 포상활동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포상심사는 청소년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높고 낮음,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청소년이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였는지, 계획을 세운대로 활동하였는지 등 활동 과정으로 청소년의 포상 여부를 판단한다.

〈표 4-1-10〉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현황

(기준 : '21. 12. 31., 단위 : 명, 개소)

구분	참가청소년	포상청소년	포상담당관	운영기관(누적)
2014년	1,291	551	450	117
2015년	1,422	901	405	180
2016년	2,510	1,595	646	264
2017년	3,263	2,019	868	360
2018년	3,092	1,850	443	442
2019년	3,562	1,747	213	501
2020년	1,719	1,252	542	557
2021년	2,196	1,468	497	597
연도별 누적계	19,055	11,383	4,064	-

주 : 1) 운영기관은 매년 취소·철회한 기관 수가 반영된 누적계 수치임.

2) 참가청소년 및 포상청소년은 자유학기·년제 연계 운영, 신규 영역 모형 참가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6.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가. 운영 현황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국가 정책에 따라 1996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출범하였으며, 당시 학교 교육정책에 자원봉사활동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자원봉사의 지원과 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단일하고 명확한 과업을 수행하였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가 마련되었으며, 2006년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과 각 지방에서 ‘청소년활동의 진흥’이라는 포괄적인 과업이 강조되었고, 국가(중앙)-지방(시·도)-지역(시·군·구)으로 이어지는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기구로서의 조직과 기능도 확대되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게 규정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표 4-1-11〉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센터명칭	운영기관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연맹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흥사단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울산흥사단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지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건청소년회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센터명칭	운영기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청북도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전라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성지문화재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주요 기능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상의 정책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청소년활동 현장역량 증진 지원,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청소년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등이다.

〈표 4-1-1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요 기능

업무영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개요	사업 예시
1.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 증진 지원	1-1.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	교육훈련 등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직무교육 및 정책사업 직무교육 • 현장 학습활동 지원 등
	1-2. 청소년활동 기관운영 지원	현장의 청소년활동 운영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예산 등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기관 컨설팅 운영 • 수련시설 평가 지원(설명회,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등)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2-1. 정책개발 및 제도화 지원	국가 및 지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방안 개발 및 정책수립지원 •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활용 등

업무영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개요	사업 예시
2.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2-2. 국가 정책사업 실행 지원	국가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 국가 정책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비교과활동, 수련활동 인증제·신고제, 포상제 활성화 청소년활동 안전 지원 청소년참여 및 권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참정권 등
	2-3. 시·도 정책사업 실행지원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청소년정책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축제, 국내·외 청소년 교류 등
3. 청소년 정보 자원 관리 및 서비스	3-1.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분석·수집 관리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 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제공 등
	3-2.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 홍보 청소년활동 인지도 개선
4.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4-1.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전문화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획(중장기 및 연간사업기획 등) 센터 성과관리
	4-2.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중앙-시·도-시·군·구의 정책네트워크와 현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네트워크 구축(학교, 교과 연계 포함) 네트워크 협력사업 운영(프로그램, 예산 등 지원) 청소년지도자 대회, 신년인사회, 사업설명회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6260

제2장 청소년수련활동 제도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기반 확립과 학교 교육과 연계한 활동 지원의 확대 요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4년 2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증으로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용성’, ‘공공성’, ‘안정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증 받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인증제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2006년 3월부터 시작되어 당해 연도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 15인을 위촉하고, 인증심사원 192명을 선발하여 5월 인증접수를 시작으로 79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다.

2007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인증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증기준과 인증심사 절차의 간소화,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의 효율적 연계 운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283명의 인증심사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증심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을 통합·개정하여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인증 받은 활동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기획과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 홍보와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단(32명)을 구성하여 시범·운영 하였다.

2009년에는 제2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등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 교육정책과 인증제도와와의 연계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소년 관련 학과를 설치한 9개 대학과 대입 시 가산점 반영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학부모참관단(107명)을 운영하고,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활동영역별 효과성 측정 연구를 통해 인증수련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에는 참여 청소년의 확대를 위한 중·단기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입학 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MOU 체결 대학 : 15개교). 인증심의 317건 중 250건이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70건의 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인증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제도개선연구와 함께 정부부처 주관 활동프로그램 인증이추진되었으며 인증심사원 연수와 인증제 담당자 직무연수를 연계 운영하여 인증제 담당자의 역량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지표 추가 개발 연구(건강보건활동, 자기개발 활동 영역)를 통한 각 영역별 역량 강화와 2개 지방자치단체(도청, 교육청) 및 11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결과, 인증수련활동기록을 이용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나타나 인증제가 내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인증심사원 41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전문심사원을 활용한 지역별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을 운영하고,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홍보하는 청소년·학부모 모니터단(216명)을 구성·운영하고 인증제 홍보동영상 제작, SNS 개설, 웹메일 발송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행여부 자체 점검(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제3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가제도로서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참여대상의 확대·다변화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담당자 교육이 시작되었고, 인증기준을 공통기준 14개에서 6개로 통·폐합하여 인증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여 심사대상을 현실화 하였으며 수시점검 도입, 변경항목 세분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2014. 7. 2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모든 인증 신청 프로그램에는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 등 제도 수혜자의 인지도 개선을 위하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 인증제 설명회를 통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인증제도의 참여 대상자별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안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2015. 2. 3.)시 신설되어 신규로 안전전문가 2인, 법조인 1인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의무인증)에 대한 현장심사 및 이행확인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의 인증제 지원 및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근심사원 20명을 선발하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배치하였다.

2016년에는 인증제도의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규정을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으로 분리하였다. 이는 심사원 전문성 강화, 사후관리체계 명확화, 현장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9개 분야에 걸친 자문위원을 위촉(10명)하였고, 인증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인증마크를 선포하였으며, 2015년 5,000호 인증에 이어 1년 만에 6,000호 인증을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도 성장하였다.

2017년에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유형을 신설, 별도의 인증기준과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개별단위 프로그램의 인증 도입, 지도자 배치기준의 현실화, 수시 점검 확대 운영 등 안전한 활동 환경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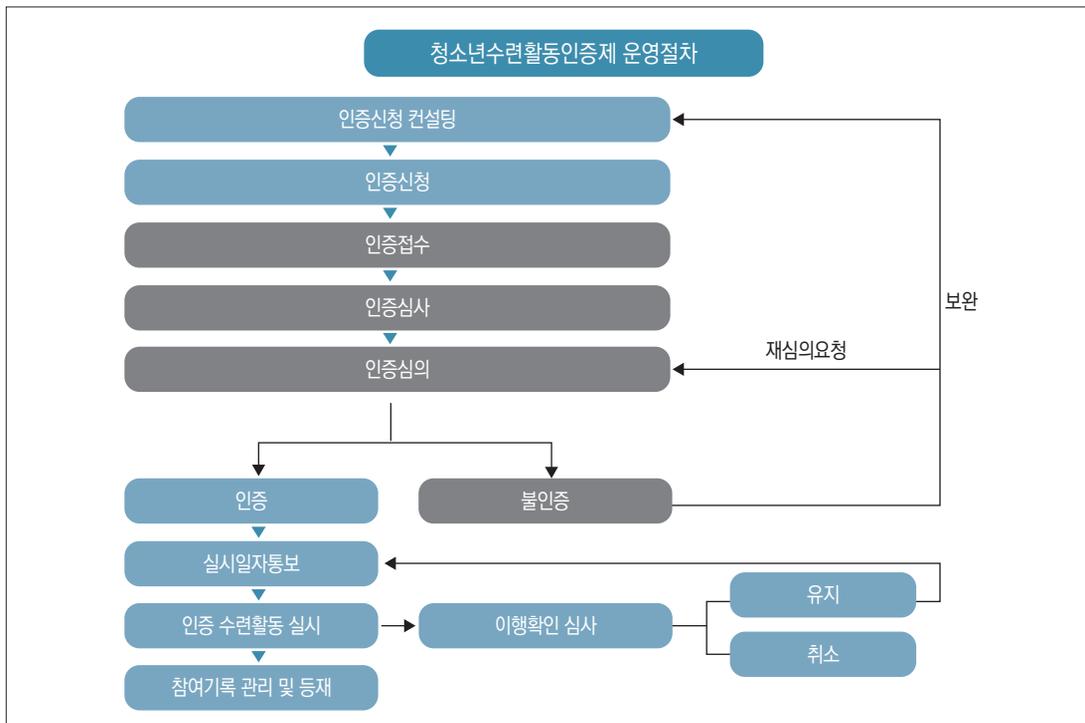
2018년에는 하강레포츠, 래프팅 등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과 드론 등 안전 고려 활동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인증신청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간편 인증신청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제출되는 중복 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제출하였던 31개의 증빙서류를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반영 및 같음 등을 통해 19개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였다.

2019년에는 참여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수요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보급형 프로그램을 현장에 개발 및 보급하고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인증신청자가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청소년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시대 변화에 맞게 청소년활동의 혁신을 도모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인증수련활동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기관에 대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2021년에는 기본형 활동의 운영시간 기준 완화(3시간 → 2시간), 기본형 회기별 최소시간 폐지를 통해 인증수련활동 구성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적극행정을 통한 인증제도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약 3~7일이 소요되었던 인증접수 형식요건검사 단계를 폐지하고, 자동 정합성검사 시스템 기능 개발, 인증심사 보완단계 신설 등 제도와 운영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 운영 시 감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그림 4-2-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다. 인증기준 및 인증수련활동 현황

수련활동 인증신청은 상시적으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된 청소년수련 활동은 1개 프로그램 당 2명의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하고, 인증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하게 된다. 인증 기준은 국내 청소년활동과 국제 청소년활동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인증기준은 공통 기준과 개별기준 및 특별기준을 갖는다. 공통기준은 활동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등 3가지 영역, 개별기준은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과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비대면방식 청소년 활동은 특별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표 4-2-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영역/유형		인증기준	확인요소	
공통 기준	① 활동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9	
		2. 프로그램 자원운영		
	② 지도력	3. 지도자 전문성 확보계획	8	
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③ 활동환경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6. 안전관리 계획	7	
개별 기준	활동 유형	숙박형	1. 숙박관리 2. 안전관리인력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5
		이동형	1. 숙박관리 2. 안전관리인력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4. 휴식관리 5. 이동관리	7
특별 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1. 전문지도자의 배치 2. 공간과 설비, 안전관리	4
	학교단체 숙박형		1.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관리	3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1.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및 관리	5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		1.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6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1.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5

주 : 1) 프로그램 :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기획 여부와 내용 구성, 평가·환류체계의 포함 유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
 2) 지도력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 프로그램 내용 및 청소년 참여 인원 수 대비 지도자 배치 수의 적정성, 안전 고려활동 운영 시 유자격자 등 배치 여부를 확인.
 3) 활동환경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활동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가를 공간과 설비, 사용여건, 보험 가입 등으로 확인.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표 4-2-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유형 구분

활동유형	내용
기본형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또는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단체 숙박형	학교의장이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개별 단위프로그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현재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11,026건이며, 이 중 27건은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통해 취소되고, 7,686건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며, 48건은 철회되어 2021년 12월 말까지 총 3,265건의 인증 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표 4-2-3〉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인증신청	132	352	508	348	340	329	276	1,291	2,895	2,026	1,317	1,517	2,095	1,555	1,494	739	17,214
인증	79	284	443	255	265	242	212	778	1,558	1,301	824	764	1,299	1,056	1,110	556	11,026
유지	79	359	802	1,057	1,297	1,382	1,314	1,702	2,971	3,743	4,146	4,159	3,725	3,113	3,299	3,265	3,265
종료	-	-	-	-	52	191	339	231	277	527	406	764	1,733	1,652	924	590	7,686
철회	-	5	4	12	3	-	3	11	10	-	-	-	-	-	-	-	48
취소	4	-	-	-	-	-	-	1	3	2	-	1	-	16	-	-	27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표 4-2-4〉 기관 유형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	1	3	1	1	1	3	-	1	8	23	6	5	1	1	-	55
공공기관	5	17	13	4	6	4	2	8	31	27	22	28	51	26	22	22	288
학교/교육청	-	-	-	3	2	3	2	4	14	38	7	3	7	1	3	15	102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	20	165	273	139	175	120	85	127	215	185	149	128	162	160	319	170	2,592
청소년수련원	24	33	37	31	18	56	29	337	499	461	206	279	586	533	454	167	3,750
청소년문화의집	9	44	76	38	38	33	66	40	86	75	113	98	124	182	207	131	1,360
야영장, 유스호스텔	-	2	1	7	1	6	6	94	147	31	21	47	59	32	29	-	483
청소년보호 복지시설	1	16	20	17	9	6	3	8	11	5	14	11	4	4	5	2	136
청소년단체	11	4	13	10	6	4	2	14	44	7	4	4	0	3	1	-	127
일반	9	2	7	5	9	9	14	146	510	464	265	160	301	105	65	43	2,114
컨소시엄	-	-	-	-	-	-	-	-	-	-	-	-	-	9	4	6	19
합계	79	284	443	255	265	242	212	778	1,558	1,301	824	764	1,299	1,056	1,110	556	11,026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표 4-2-5〉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별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건)

구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교육청	청소년수련시설						복지 시설	청소년 단체	일반	컨소 시엄	합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 의집	야영장	특화 시설	유스 호스텔					
보유기관	34	7	156	105	207	6	6	15	7	3	106	8	660
유지건수	86	23	656	1,491	488	24	11	79	12	4	381	10	3,265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 11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로 도입되어 2014년 7월부터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로 신고 대상과 활동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신고제도를 통해 수련활동의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에 관한 안전 요소를 점검하게 되고 범죄 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참여를 막을 수 있으며,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⁴⁾ 등에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학부모 등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수련활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활동 선택과 참여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나.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서류를 갖추어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4-2-6〉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

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www.youth.go.kr.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 단체) 	
신고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미만의 청소년(9~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하고, 모집 예정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해당 활동)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다.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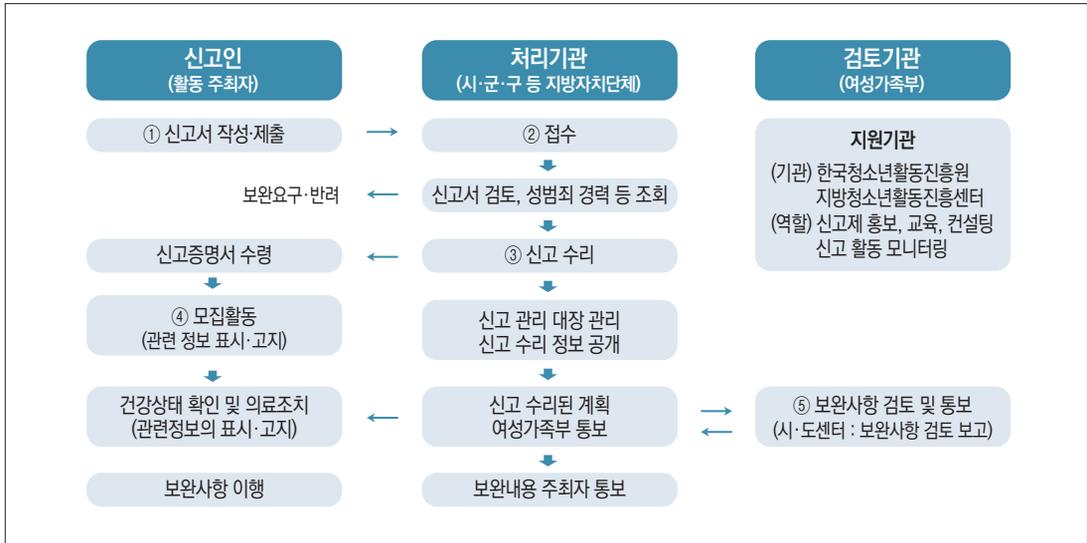
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운영계획서,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세부 내역서,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주최자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소관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는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⁵⁾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처리기관에서 구비서류의 요건을 점검하고, 주최자 등의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반려한다. 신고 수리 후 처리기관 관할 지자체에서는 신고 수리된 계획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계획을 검토한 여성가족부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기관에 보완사항을 통보하며, 처리기관은 주최기관에 지적된 보완사항을 통보한다.

활동 주최자는 신고 수리 사항 중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모집 활동 및 계약 시 인쇄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고지하여야 하고,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www.youth.go.kr.

[그림 4-2-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수리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라. 신고 현황

2021년 12월 말까지 신고 수리된 청소년수련활동은 경기도가 5,00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강원도가 2,441건으로 집계되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순으로 수련 활동 신고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및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의 운영중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신고 현황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다.

〈표 4-2-7〉 지역별 신고 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서울	42	357	308	409	405	396	363	33	18	2,331
부산	5	123	132	236	300	308	294	48	18	1,464
대구	4	54	37	53	63	79	80	9	7	386
인천	8	128	175	144	136	156	160	66	-	973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광주	3	29	36	45	57	86	82	47	31	416
대전	4	84	84	98	112	114	97	1	-	594
울산	4	29	28	24	32	22	22	2	1	164
세종	-	2	5	2	4	5	3	-	1	22
경기	40	540	782	814	979	927	844	72	5	5,003
강원	15	130	283	378	479	490	491	116	59	2,441
충북	1	57	243	340	339	324	423	102	-	1,829
충남	25	184	306	289	329	344	346	71	38	1,932
전북	10	233	343	384	326	311	230	114	78	2,029
전남	6	86	162	212	284	358	361	110	87	1,666
경북	3	185	233	220	192	175	223	87	55	1,373
경남	7	233	444	344	300	299	183	15	6	1,831
제주	3	25	87	61	67	76	81	19	12	431
전체	180	2,479	3,688	4,053	4,404	4,470	4,283	912	416	24,885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4-2-8〉 시설 유형별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청소년수련관	61	654	742	853	859	863	788	129	35	4,984
청소년수련원	33	970	2,080	2,237	2,539	2,598	2,482	675	326	13,940
청소년문화의집	21	237	249	257	298	333	357	52	27	1,831
청소년특화시설	-	25	30	29	38	40	40	7	4	213
청소년야영장	1	11	22	36	38	13	24	-	2	147
유스호스텔	14	173	216	270	288	239	238	25	1	1,464
기타(영리법인, 단체 등)	50	409	349	371	344	384	354	24	21	2,306
전체	180	2,479	3,688	4,053	4,404	4,470	4,283	912	416	24,885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1. 청소년 국제교류

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상대국 청소년 담당 부처와의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간의 토론, 가정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파견 및 초청이 불가능하여 일본, 브루나이 현지 청소년과 비대면 교류를 실시하여 온라인을 통한 각국 문화소개 및 공동 과제 수행, 토론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온라인 교류 규모를 확대하여 9개국과 온라인 교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캄보디아, 싱가포르(재체결),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와 청소년 교류 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4-3-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9개국)

구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동북아시아(3개국)	중국, 일본, 몽골
남아시아·태평양(9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유럽(14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중남미(4개국)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중동·아프리카(9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튀니지, 카메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연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21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온라인	총인원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문화협정('65) 한말 청 교류 약정('92. 4.) 지도자 15명 추가-공공행정처	'79	30명, 10일간 (15명씩 2회, 각 10일간)	768명	765명	20명	1,553명
사우디 (체육청)	양국정부합동위원회 합의('81)	'81	10명, 10일간	344명	333명	21명	698명
일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30명, 15일간	952명	1,044명	60명	2,056명
중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98)	'93	40명, 10일간	714명	751명	-	1,465명
헝가리 (인적자원부)	청소년협력약정서('92)	'93	10명, 10일간	25명	57명	-	82명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계획서('95)	'94	20명, 10일간	235명	225명	-	460명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 협력계획서('95)	'96	10명, 10일간	140명	171명	-	311명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94)	'96	16명, 10일간	233명	263명	-	496명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협약각서('96) ('05 갱신)	'96	3명, 6일간	58명	87명	-	145명
칠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약정서('96)	'98	20명, 10일간	43명	72명	-	115명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약정서('99) 재약정 체결('04), ('17)	'99	파견 20명 10일간, 초청 30명 10일간	592명	416명	23명	1,031명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사전합의 의거 교류시행('00) 청소년분야 협력약정서('01)	'00	10명, 10일간	214명	204명	19명	437명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약정서('00) 재약정 체결('08)	'01	12명, 10일간	182명	197명	-	379명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약정서('02)	'02	10명, 10일간	148명	157명	-	305명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2)	-	10명, 10일간	2명	0명	-	2명
체코 (교육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3)	'03	10명, 10일간	40명	40명	-	80명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연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21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온라인	총인원
수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협력약정서('04)	'05	10명, 10일간	82명	106명	-	188명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양해각서('04)	'05	10명, 10일간	90명	90명	-	180명
인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05)	'06	35명, 10일간	285명	238명	-	523명
파키스탄 (경제부)	문화교류계획서('05)	'06	10명, 10일간	39명	9명	-	48명
이집트 (청소년부)	청소년교류 양해각서('05)	'06	10명, 10일간	87명	100명	-	187명
그리스 (교육종교부)	청소년 분야 양해각서('06)	'06	3명, 6일간	10명	8명	-	18명
터키 (청소년체육부)	2005~2008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계획서('05)	'07	20명, 10일간	168명	142명	-	310명
스페인 (청소년청)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07)	'07	3명, 10~15일간	3명	3명	-	6명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양해각서('07)	'07	10명, 10일간	116명	117명	-	233명
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청)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07)	'07	6명, 7일간	57명	76명	-	133명
튀니지 (청소년체육부)	정부간문화협정근거('69)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09)	'10	10명, 10일간	76명	55명	-	131명
싱가폴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분야 양해각서('09) 청소년 분야 양해각서('21)	'09	10명, 7일간 (격년제)	30명	30명	43명	103명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문화협정근거('00)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09)	'10	35명, 10일간	198명	176명	39명	413명
브루나이 (문화청소년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10)	'11	10명, 10일간	89명	90명	38명	217명
카메룬 (외교부)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11)	-	10명, 10일간	0명	0명	-	0명
콜롬비아 (교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13)	'13	10명, 10일간	0명	20명	-	20명
UAE (청소년체육청)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14)	'15	10명, 기간 명시 없음	39명	41명	-	80명
카타르 (문화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14)	'15	12명 이내, 7일 이내	22명	47명	-	69명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연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21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온라인	총인원
슬로바키아 (교육연구과학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17)	'18	10명, 10일간	6명	7명	-	13명
아르헨티나 (사회개발부)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17)	-	10명, 10일간	0명	0명	-	0명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21)	'21	20명, 10일간	-	-	20명	20명
오스트리아 (여성가족청소년통합부)	청소년교류 이행약정서('21)	-	10명, 10일간	-	-	-	0명
아르메니아 (교육과학문화체육부)	청소년 분야 협력 양해각서('21)	-	공동협약	-	-	-	0명
39개국				6,087명	6,137명	283명	12,507명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한·중 청소년 교류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한·중 청소년교류가 시작되었다. 2012년부터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 청소년 500명씩 교류하였다. 2016년 하반기 중국 측 사정으로 한·중 청소년 교류는 중단되었으나, 2018년 8월 한·중 청소년교류 재개를 위한 협력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초청·파견 사업을 재개하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입국 제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표 4-3-3〉 한·중 청소년 교류 현황

구분	초청				파견			총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2004년	198명 (7. 21.~7. 30.)	189명 (11. 1.~11. 10.)	100명 (11. 17.~11. 26.)	487명	-	-	-	487명
2005년	192명 (7. 6.~7. 15.)	100명 (9. 7.~9. 16.)	191명 (11. 15.~11. 24.)	483명	-	-	-	483명
2006년	96명 (5. 24.~6. 2.)	193명 (7. 5.~7. 14.)	200명 (11. 1.~11. 10.)	489명	98명 (4. 12.~4. 21.)	-	98명	587명
2007년	200명 (4. 7.~4. 16.)	100명 (6. 13.~6. 22.)	191명 (11. 1.~11. 10.)	491명	97명 (7. 3.~7. 12.)	-	97명	588명

구분	초청				파견			총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2008년	154명 (8. 18.~8. 27.)	100명 (10. 29.~11. 7.)	150명 (11. 5.~11. 14.)	404명	95명 (7. 22.~7. 31.)		95명	499명
2009년	196명 (7. 8.~7. 17.)	99명 (9. 16.~9. 25.)	185명 (11. 11.~11. 20.)	480명	96명 (5. 13.~5. 22.)	99명 (8. 3.~8. 12.)	195명	675명
2010년	192명 (6. 2.~6. 11.)	100명 (10. 13.~10. 22.)	187명 (11. 11.~11. 20.)	479명	192명 (5. 11.~5. 20.)	190명 (9. 7.~9. 16.)	382명	861명
2011년	191명 (6. 15.~6. 24.)	98명 (9. 21.~9. 30.)	193명 (10. 26.~11. 4.)	482명	197명 (5. 17.~5. 26.)		197명	679명
2012년	94명 (5. 9.~5. 16.)	200명 (6. 13.~6. 20.)	190명 (10. 21.~10. 28.)	484명	199명 (4. 13.~4. 20.)	293명 (8. 8.~8. 15.)	492명	976명
2013년	195명 (5. 21.~5. 28.)	100명 (7. 17.~7. 24.)	189명 (10. 23.~10. 30.)	484명	198명 (6. 13.~6. 20.)	287명 (9. 4.~9. 11.)	485명	969명
2014년	192명 (5. 8.~5. 15.)	99명 (9. 22.~9. 29.)	188명 (10. 22.~10. 29.)	479명	197명 (6. 4.~6. 11.)	297명 (9. 11.~9. 18.)	494명	973명
2015년	191명 (5. 14.~5. 21.)	98명 (9. 8.~9. 15.)	185명 (10. 22.~10. 29.)	474명	197명 (6. 4.~6. 11.)	294명 (9. 10.~9. 17.)	491명	965명
2016년	184명 (6. 23.~6. 30.)	-	-	184명	199명 (5. 25.~6.1.)	-	199명	383명
2018년	97명 (10. 23.~10. 27.)	-	-	97명	100명 (11. 20.~11. 24.)	-	100명	197명
2019년	98명 (7. 1.~7. 6.)	-	-	98명	99명 (9. 1.~9. 6.)	-	99명	197명

자료 : 여성가족부(2020).

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2017년에는 한·중 청소년 교류의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효과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발전 모델 개발 및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내체류 중국유학생과 한국청소년 간 교류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대학과 민관협력을 통하여 국내 총 10개 대학 내 1,000여 명의 한·중 청소년 상호교류 활동을 지원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주제를 선택하여 오리엔테이션, 특강, 멘토링, 교류 활동, 지역, 문화, 역사, 스포츠, 생태 등 탐방, 팀별 결과 발표 등 다양한 청소년교류활동을 실시 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대학별로 전문가 컨설팅, 현장 방문, 사업성과 정리, 결과 보고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지원 대상을 다국가 유학생으로 확대하여 34개국 유학생, 2019년에는 41개국 유학생이 한국 청소년과 교류하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규모 팀별 활동을 통해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실질적, 심층적 교류 효과를 추구하고, 참여 대학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교류 발전 모델을 개발 및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표 4-3-4〉 국제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 프로그램 현황(2021년)

구분	대학명	주제	주요 프로그램
1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 융합 UCC 프로젝트	문화 교류 및 문화 융합 관련 팀별 UCC 제작 및 공모전(Contest) 시상
2	강원대학교	정의의 관점에서 '빈곤·사회문화·환경문제' 토크보기	세계문제(빈곤, 사회문화, 환경)에 대한 학습 후 그룹토의를 통해 TED 강연 기획 & Contest 시상
3	건양대학교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공동체 '논산'	논산과 각국의 문화비교를 통한 다문화의 이해 교류활동 및 콘텐츠 제작, 다문화 인식 개선(지식나눔활동) 활동
4	계명문화대학교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청소년 환경의식 고취프로그램	지역 내 생태보전 지역 탐방을 통한 환경생태 학습, 국제 청소년 대상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 지역 내 유기농 로컬식자재를 활용한 세계 전통 건강 밥상 차리기 체험 등
5	광운대학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액션플랜 : Better than Today - 변화된 일상의 공유(온오프)를 통해 글로벌 역량 성장 지원	일상 속 환경문제 발견 및 개선 실천 인증 영상 제작, 조별 액션플랜 수립 및 공유
6	대구가톨릭대학교	초·중·고 학생 대상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인식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팀별 자기주도적 SDGs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콘텐츠 개발,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실시
7	대구대학교	다민족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팀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출신국가의 문화 비교연구 및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팀별 자기주도적 프로젝트(자유주제, SDGs 주제) 기획 및 결과 공유
8	동서대학교	아시아의 HUB 부산, 부산을 디자인하다	창의적인 지역 기념품 등 아이템 개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도시 공공디자인 기획, 지역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9	백석대학교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KoInB(Korea culture In Baekseok)	팀별 문화(음식, K-Pop) 교류 활동, 한국의 특화상품 체험 및 기획
10	상명대학교	한국-베트남 미래의 주역 SDGs 구현 역량을 키우다.	SDGs 관련 이해 도모를 위한 특강, 한국과 베트남의 SDGs 구현 상황 토의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 종합 워크숍을 통한 팀별 활동 결과물 공유(영상 등)

구분	대학명	주제	주요 프로그램
11	신한대학교	We are Equal(인종차별주의 타파를 위한 청소년들의 광고 캠페인)	인종차별 문제를 주제로 한 팀 프로젝트 활동 및 영상 제작, K-Culture, K-Beauty, K-martial Arts 체험
12	우석대학교	WOW! 행복가득, 기쁨가득, 웃음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 공동체	팀별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기획 및 결과 공유(멘토 협력), 문화 체험 프로그램(전통문화, 태권도, 역사), 전복 홍보 콘텐츠 제작
13	조선대학교	지역 내 산업과 연계를 통한 국제적 진로 탐색	각 국가별 비즈니스 특성 공유 및 지역 내 산업과 연계를 통하여 차세대 유망직종 탐색,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 제작 및 시상
14	호산대학교	나누는 글로벌 리더! Share your talent!	교내 특화전공(간호, 물리치료, 뷰티디자인, 호텔외식조리, 글로벌융합) 관련 재능기부 미션 수행
15	호서대학교	지구촌 예코먼 푸러리	친환경·업사이클링 교육 및 지역 전문기업인 특강 운영 당일체험형 활동교류, 한·중 문화교류, 실내 스포츠 활동 온라인 체험키트를 활용한 개별활동, 메타버스 결과보고회 및 전시회 운영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라.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2021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은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청소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청소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기간 동안 각국 청소년들은 온택트 방식으로 한·아세안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는 등 한·아세안의 협력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2021년 개최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에는 총 100명(10개국 각 10명)이 국가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표 4-3-5〉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행사명	일시	행사 취지	참석인원	주관기관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8. 10.~8. 13. (온라인)	아세안 국가와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아세안 협력 공감대 형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한·아세안 청소년 100명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과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실시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 참가단’과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 등 2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3-6〉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1	국제회의 참가단 (2008~)	주제 :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다양한 국제회의·행사 등에 청소년들을 파견 * UN총회 제3위원회 파견 등
2	해외자원봉사단 (2005~)	주제 :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가.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 참가단

청소년들이 국제회의 및 행사 등 다양한 해외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파견대상자를 선발한다. 2021년에는 UN ECOSOC 청소년 포럼과 UN 총회 제3위원회 관련 비공식 온라인 토의에 청소년 대표 6명이 참가하였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그 외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취소되었다.

나.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방학 기간을 활용해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어 국내에서 해외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시아 5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필리핀) 청소년을 위해 교육봉사활동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국내 청소년 122명이 현지 청소년과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4, 6256

3. 민간단체 주관 청소년국제행사 지원

민간에서 개최하는 국제청소년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걸스카우트 e-국제야영’ 프로그램 개최를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한국걸스카우트 연맹은 기존 야영대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4-3-7〉 2021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행사명	일시	행사 취지	참석인원	주관기관
걸스카우트 e-국제야영	8. 1. ~ 8. 20. (온라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 지원 및 전세계 청소년과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국내외 참가자 약 8,000명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4, 6257

4.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25th World Scout Jamboree)」개최 지원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세계 청소년 야영 행사다. 1920년 영국 런던 올림픽아 스타디움에서 34개국 8,000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한 “제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시초가 되어 이후 4년마다 개최하는

정규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잼버리(Jamboree)는 북미 인디언의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경’이 제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Jamboree’라고 명명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올림픽과 같이 4년마다 개최국을 결정하며, 대회를 유치한 국가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스카우트 회원국(1개국당 6표 투표)의 투표로 선정된다. 2019년까지 24회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되었으며, 2023년에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표 4-3-8〉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역대 개최 현황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가	주제	비고
1회		'20. 07. 30.~08. 08.	영국 런던	34	8,000명	Develop world peace	실내에서 실시
2회		'24. 08. 10.~08. 17.	덴마크 코펜하겐	32	4,549명	World citizenship	첫 야외잼버리
3회		'29. 07. 31.~08.13.	영국 버킨헤드	69	32,000명	Coming of age	
4회		'33. 08. 02.~08. 15.	헝가리 고들로	33	25,792명	Face new adventures	
5회		'37. 07. 30.~08. 14.	네덜란드 보겔란쟁	54	28,750명	Lead happy lives	
6회		'47. 08. 09.~08. 18.	프랑스 무와송	71	24,152명	Jamboree of peace	프랑스 대통령 참가
7회		'51. 08. 03.~08.14.	오스트리아 베드이쉴	61	12,884명	Jamboree of simplicity	
8회		'55. 08. 18.~08. 28.	캐나다 나이아가라	71	11,139명	New horizons	비유럽 최초 잼버리
9회		'57. 08. 01.~08. 12.	영국 서튼파크	80	30,000명	50th anniversary of scouting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 가	주제	비 고
10회		'59. 07. 17.~07. 27.	필리핀 마킬링	44	12,203명	Building Tomorrow Today	아시아 최초
11회		'63. 07. 31.~08. 10.	그리스 마라톤	89	14,000명	Higher and wider	
12회		'67. 08. 01.~08. 09.	미국 아이다호	105	12,011명	For Friendship	
13회		'71. 08. 04.~08. 14.	일본 아사기리	87	23,758명	For Understanding	
14회		'75. 07. 24.~08. 07.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91	17,259명	Five Fingers, One Hand	
15회		'83. 07. 04.~07. 16.	캐나다 알버타	106	14,752명	The Spirit Lives On	
16회		'87. 12. 28.~'88. 01. 08.	호주 남웨일즈	84	14,434명	Bringing the World Together	
17회		'91. 08. 08.~08. 16.	대한민국 강원도	133	19,081명	Many Lands, One World	지구촌개발 프로그램 시작
18회		'95. 08. 01.~08. 11.	네덜란드 드론티	166	28,960명	Future is Now	
19회		'98. 12. 26.~'99. 01. 08.	칠레 피카킨	157	31,000명	Building Peace Together	
20회		'02. 12. 27.~'03. 01. 11.	태국 사타힙	147	24,000명	Share our world, Share our culture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작
21회		'07. 07. 27.~08. 08.	영국 챔스포드	162	37,868명	One World, One Promise	영국연맹 창립 100주년
22회		'11. 07. 27.~08. 08.	스웨덴	146	40,061명	Simply Scouting	
23회		'15. 07. 28.~08. 07.	일본 야마구치	155	33,628명	和(화 : A spirit of unity)	평화프로그램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 가	주제	비 고
24회		'19. 07. 22.~08. 02.	미국 버지니아	124	41,559명	Unlock a new world	미국연맹 창립 100주년
25회		'23. 08. 01.~08. 12.	대한민국 새만금	171	5만여 명	Draw your Dream	준비 중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우리나라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창립 100주년(2022년)을 기념하여 2016년 1월 세계스카우트 연맹 사무국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뒤 세계 6개 대륙 145개 국가를 돌며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폴란드(그단스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7월 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세계스카우트잼버리(2023년)에 대한 국제행사 정부 지원 결정을 받고, 외교부와 협력하여 재외공관 등을 통해 160여 개 회원국 대상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였다. 2017년 2월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와 민간기업, 청소년정책 관계자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위원회'(위원장 이주영, 前국회부의장)가 만들어져 회원국 방문 등 유치활동, 온라인 홍보, 지역별 스카우트총회 대표단 구성·파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에 큰 기여를 했다.

여성가족부, 외교부 및 재외공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성공적인 민관 협력으로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2017년 8월 16일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바쿠, 아제르바이잔)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대한민국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잼버리를 2회 이상 개최하는 세계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Draw your Dream!'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잼버리를 만들어가고, 잼버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엠블럼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 함께 모여 즐겁게 축제의 캠프를 벌이는 모습을 한국의 기와와 텐트의 모양으로 형상화하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즐거운 축제의 모습을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4-3-1]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엠블럼



여성가족부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8년에 조직위원회 설립 등 추진체계 구축·정부 차원의 예산 및 행정 지원 등을 담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에는 관련 시설, 안전, 기금 등 필요사항을 규정한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또한, 2020년 7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김윤덕 국회의원)가 공식출범하였다. 이후 조직위원회는 2020년 7월 13일 재단법인 설립 등기 완료를 거쳐 실질적 사무집행기관인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2020년 7월 20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무국은 시기별로 단계적 조직 개편 및 인력 확대 등 탄력적 직제 개편을 통해 차질 없이 행사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2020년 7월부터 운영된 조직 1단계는 3본부 7팀 28명이었고, 2021년 7월부터 운영된 조직 2단계는 4본부 18팀 106명으로 전년대비 조직이 확대되었다.

〈표 4-3-9〉 조직위 사무국 구성(2단계 : '21. 7.-)



한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코로나19 이후 실시하는 지구촌 청소년 축제이자 간척지인 새만금에서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정부는 2021년 4월 국무총리(위원장), 각 부처 장관,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을 위원으로 한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1년 11월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반 시설 구축’, ‘청소년 참여활성화’, ‘안전사고 예방’ 등 부처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계 청소년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 세계 5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청소년)과 지도자의 한국 방문은 국내 관광자원 및 문화자원 등과 연계되어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개최지인 새만금 지역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4-3-10〉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요

• 기 간	: 2023년 8월 1일~12일
• 장 소	: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부지(전북 부안군 일원)
• 주 제	: Draw your Dream
• 참가대상	: 만 14~17세 스카우트 청소년
• 참가규모	: 170여 개국 5만여 명(국외 4만여 명, 국내 1만여 명)
• 주요내용	: 개·폐영식, 과정활동(야영, 수상활동, 문화체험 등), 한국의 밤, 국제의 밤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468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제5부 청소년 복지

제5부에서는 '청소년 복지'에 대해 다룬다.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상담·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상대아동 빈곤율)은 2020년 9.8%로 최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아동 빈곤율에 따른 2020년 빈곤아동 수는 전 가구 기준으로는 약 7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한부모가구 비중은 2020년 7.1%로, 한부모가구 수는 약 15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266,321명으로 나타났다.

대상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 22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를 지정·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등의 영역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돌봄취약계층가정 청소년들에게는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종합적인 학습·복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아동 보호, 학습지도,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디딤씨앗 통장(CDA)' 사업 등이 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을 보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위험에 대처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설치하고, 2021년 기준으로 17개 시·도와 214개 시·군·구에 238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예방 및 문제발생 이후 대응 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 청소년 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상담138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또래상담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5부 청소년 복지

제1장 대상별 청소년 현황

제2장 대상별 청소년 지원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제4장 청소년의 건강

제1장 대상별 청소년 현황

1. 아동빈곤율 현황

본 백서에서 2016년까지는 아동빈곤율¹⁾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존 절대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하던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선’은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2015년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산정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상대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에서 국가비교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체 아동 수 대비 중위소득의 40%, 50%, 6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한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는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2020년 청소년 백서부터 아동빈곤율과 관련하여 절대빈곤율은 제외하고, 상대아동빈곤율만 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상대아동빈곤율의 출처였던 ‘가계동향조사’가 2017년도부터 연간 자료가 아닌 분기별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따르게 되었다. 가계동향조사는 1인 가구와 전 가구를 나누어 제시하고, 농어가(농업 및 어업 종사 가구) 가구를 제외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 가구 대상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이 포함되어 있어 가계동향조사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본 장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아동빈곤율은 2011년 16.4%에서 2014년 16.5%까지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16.0%, 2016년 15.2%, 2017년 14.2%, 2018년 12.3%, 2019년 10.6%, 2020년 9.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대아동빈곤율에 따른 빈곤아동 수는 아동 인구 수 감소 및 빈곤율 감소로 인하여 2011년 162만 명에서 2020년 약 76만 명으로 약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동빈곤율 계측에서 아동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정의하였음.

〈표 5-1-1〉 연도별 아동빈곤율 현황

(단위 : %, 명)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동의 상대빈곤율	16.4	16.8	16.4	16.5	16.0	15.2	14.2	12.3	10.6	9.8
아동 인구 수	9,921,012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8,480,447	8,176,335	7,928,907	7,710,946
빈곤 아동 수	1,627,046	1,628,235	1,546,799	1,515,829	1,433,889	1,327,880	1,204,223	1,005,689	840,464	755,673

주 : 빈곤 아동 수는 아동빈곤율을 이용하여 추계함(상대빈곤: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 가구 포함.

*** 아동 인구 수는 만 0 ~ 17세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 포함함.

자료 : 1) 통계청(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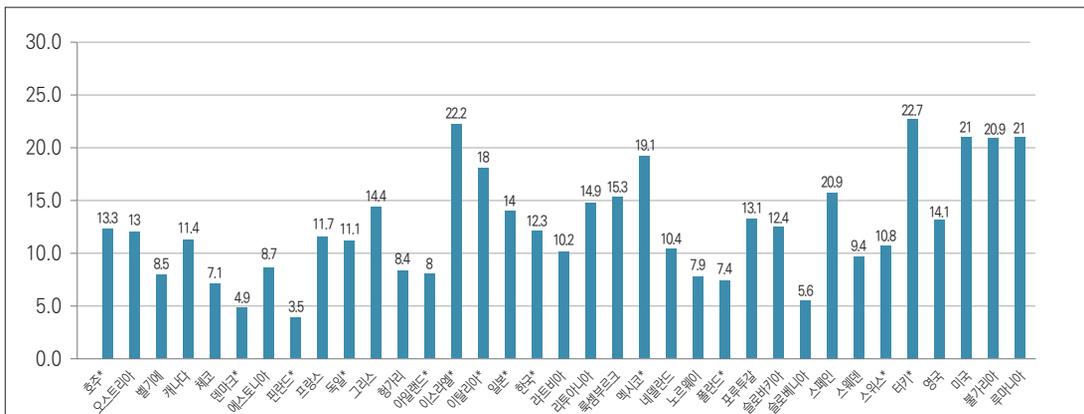
2) 아동 인구 현황. e-나라지표.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53)에서 2021년 12월 22일에 인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빈곤수준을 국제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 및 신흥국들과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상대빈곤기준은 중위소득의 50%로 상대적 빈곤 기준이 사용되었으며, 국가별로 아동인구의 빈곤수준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도 수치 기준, 아동 상대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3.5%였고, 그 다음은 덴마크로 4.9%였다. 한국은 12.3%로 프랑스(11.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계된 국가 중 아동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7.3%)였으며, 터키(22.7%), 이스라엘(22.2%), 루마니아(21%), 미국(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아동 5명 중 1명은 빈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2019년, 중위소득 50%)

(단위 : %)



주 : 국가별 아동 상대빈곤율은 동일가구 가처분 소득을 적용. 빈곤임계값은 각 국가에서 평균 가처분 소득은 50%로 설정(수치는 기본적으로 2019년 수치이며, *로 표시한 호주,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 터키는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음. 최근 연도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나라들은 제시되지 않음.

자료 : OECD(n.d.).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670#>)에서 2021년 12월 22일에 인출함.

2. 한부모가구 현황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에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2008년에는 9.0%, 약 151만 가구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9.3%, 약 160만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0.5%, 약 197만 가구로 확인되었다. 2015년부터는 당해년도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별거가구 등을 제외하고 혼인관계가 없는 한부모가구 수를 보다 정확히 집계하기 시작하며, 2015년의 한부모가구 수는 전체가구 중 8.2%에 해당하는 약 161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이후 한부모가구의 수와 비율은 2016년 7.8%로 약 154만 가구, 2017년 7.6%로 약 153만 가구, 2018년 7.6% 약 154만 가구, 2019년에는 7.5% 약 153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7.1%에 해당하는 약 153만 가구가 한부모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자립,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표 5-1-2〉 연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천 가구, %)

연도	전체가구(A)	한부모가구(B)	한부모가구비율(B/A×100)
2008	16,791	1,509	9.0
2009	17,052	1,551	9.1
2010	17,339	1,594	9.2
2011	17,687	1,639	9.3
2012	18,119	1,796	9.9
2013	18,388	1,880	10.2
2014	18,705	1,970	10.5
2015	19,561	1,608	8.2
2016	19,838	1,540	7.8
2017	20,168	1,533	7.6
2018	20,500	1,539	7.5
2019	20,891	1,529	7.3
2020	21,485	1,533	7.1

자료 : 통계청(2021). 장래가구추계/인구총조사.

[그림 5-1-2] 한부모가구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2021). 장래가구추계/인구총조사.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형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만을 의미한다.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07년에는 44,258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07,689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121,935명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197,550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다시 2017년부터 222,455명, 2018년 237,705명, 2019년 264,626명, 2020년 266,32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만 6세 이하는 105,939명(39.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 7~12세 이하는 107,265명(40.3%)이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34,440명(12.9%)이며,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6~18세 이하 아동은 18,677명(7.0%)으로 만 6세 이하에 속하는 자녀 수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만 7세 이상 18세 범위에 있는 자녀 수의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 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07	44,258(100.0)	26,445(59.8)	14,392(32.5)	2,080(4.7)	1,341(3.0)
2008	58,007(100.0)	33,140(57.1)	18,691(32.2)	3,672(6.3)	2,504(4.3)
2009	107,689(100.0)	64,040(59.5)	28,922(26.9)	8,082(7.5)	6,645(6.2)
2010	121,935(100.0)	75,776(62.1)	30,587(25.1)	8,688(7.1)	6,884(5.6)
2011	151,154(100.0)	93,537(61.9)	37,590(24.9)	12,392(8.2)	7,635(5.1)
2012	168,583(100.0)	104,694(62.1)	40,235(23.9)	15,038(8.9)	8,616(5.1)
2013	191,328(100.0)	116,696(61.0)	45,156(23.6)	18,395(9.6)	1,1081(5.8)
2014	204,204(100.0)	121,310(59.4)	49,929(24.5)	19,499(9.5)	1,3466(6.6)
2015	197,550(100.0)	116,068(58.8)	61,625(31.2)	12,567(6.4)	7,290(3.7)
2016	201,333(100.0)	113,506(56.4)	56,768(28.2)	17,453(8.7)	13,606(6.8)
2017	222,455(100.0)	115,085(51.7)	81,826(36.8)	15,753(7.1)	9,791(4.4)
2018	237,705(100.0)	114,125(48.1)	92,368(38.9)	19,164(8.1)	11,849(4.9)
2019	264,626(100.0)	117,045(44.2)	104,064(39.3)	26,524(10.0)	16,993(6.4)
2020	266,321(100.0)	105,939(39.8)	107,265(40.3)	34,440(12.9)	18,677(7.0)

자료 : 행정안전부(2021).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를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부모의 자녀가 89,056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 출신 부모의 자녀가 49,680명(18.7%)이었다. 중국 출신 한국계 부모의 자녀는 세 번째로 많은 40,877명(15.3%), 필리핀 출신 부모의 자녀는 23,520명(8.8%)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이들 네 국가 출신 부모의 자녀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76.2%를 차지하였다.



〈표 5-1-4〉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단위 : 명, %)

연도	합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러시아	대만	기타
2008	58,007 (100.0)	16,681 (28.8)	10,889 (18.8)	8,194 (14.1)	6,378 (11.0)	6,508 (11.2)	-	816 (1.4)	870 (1.5)	2,406 (4.1)	303 (0.5)	1,515 (2.6)	3,447 (5.9)
2009	107,689 (100.0)	18,669 (17.3)	35,932 (33.4)	22,491 (20.9)	10,687 (9.9)	6,838 (6.3)	-	1,681 (1.6)	1,563 (1.5)	683 (0.6)	736 (0.7)	770 (0.7)	7,639 (7.1)
2010	121,935 (100.0)	31,404 (25.8)	29,800 (24.4)	27,517 (22.6)	11,926 (9.8)	5,734 (4.7)	2,554 (2.1)	1,807 (1.5)	1,711 (1.4)	821 (0.7)	766 (0.6)	1,129 (0.9)	6,766 (5.5)
2011	151,154 (100.0)	33,186 (22.0)	34,852 (23.1)	34,256 (22.7)	13,937 (9.2)	14,510 (9.6)	3,565 (2.4)	2,250 (1.5)	2,082 (1.4)	1,207 (0.8)	1,090 (0.7)	1,191 (0.8)	9,028 (6.0)
2012	168,583 (100.0)	39,278 (23.3)	33,231 (19.7)	41,238 (24.5)	15,820 (9.4)	16,237 (9.6)	4,690 (2.8)	2,468 (1.5)	2,427 (1.4)	1,422 (0.8)	1,139 (0.7)	1,615 (1.0)	9,018 (5.3)
2013	191,328 (100.0)	42,294 (22.1)	37,084 (19.4)	49,458 (25.8)	18,020 (9.4)	17,806 (9.3)	5,961 (3.1)	2,802 (1.5)	2,663 (1.4)	1,697 (0.9)	1,289 (0.7)	1,758 (0.9)	10,496 (5.5)
2014	204,204 (100.0)	43,890 (21.5)	38,824 (19.0)	54,737 (26.8)	19,568 (9.6)	18,185 (8.9)	6,777 (3.3)	2,952 (1.4)	2,767 (1.4)	1,855 (0.9)	1,319 (0.6)	1,892 (0.9)	11,438 (5.6)
2015	197,550 (100.0)	35,439 (17.9)	40,351 (20.4)	57,464 (29.1)	19,918 (10.1)	7,773 (3.9)	7,016 (3.6)	2,771 (1.4)	2,254 (1.1)	6,140 (3.1)	1,017 (0.5)	2,877 (1.5)	14,530 (7.4)
2016	201,333 (100.0)	36,610 (18.2)	37,963 (18.9)	56,468 (28.0)	20,146 (10.0)	9,485 (4.7)	6,909 (3.4)	2,719 (1.4)	2,543 (1.3)	5,874 (2.9)	1,058 (0.5)	2,522 (1.3)	19,036 (9.5)
2017	222,455 (100.0)	38,090 (17.1)	43,197 (19.4)	71,864 (32.3)	22,270 (10.0)	6,886 (3.1)	9,448 (4.2)	3,132 (1.4)	2,609 (1.2)	4,899 (2.2)	997 (0.4)	2,995 (1.3)	16,068 (7.2)
2018	237,506 (100.0)	39,642 (16.7)	44,016 (18.5)	77,218 (32.5)	22,873 (9.6)	6,930 (2.9)	10,037 (4.2)	3,212 (1.4)	2,875 (1.2)	5,581 (2.3)	1,034 (0.4)	3,081 (1.3)	21,007 (8.8)
2019	264,626 (100.0)	41,149 (15.5)	49,286 (18.6)	88,476 (33.4)	24,502 (9.3)	7,858 (3.0)	10,850 (4.1)	3,607 (1.4)	3,944 (1.5)	8,417 (3.2)	1,304 (0.5)	3,543 (1.3)	21,690 (8.2)
2020	266,321 (100.0)	40,877 (15.3)	49,680 (18.7)	89,056 (33.4)	23,520 (8.8)	7,487 (2.8)	10,867 (4.1)	3,589 (1.3)	3,939 (1.5)	9,477 (3.6)	1,289 (0.5)	3,483 (1.3)	23,057 (8.7)

주 : 캄보디아는 20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되었지만 2010년부터 별도로 분류되었음.

자료 : 행정안전부(2021).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다문화 초·중·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다문화 학생 수는 총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5,355,832명)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 별로는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의 아동 비율은 2.0%, 중학생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의 아동 비율은 0.5%, 고등학생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의 아동 비율은 0.2%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다문화학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5〉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 수							
다문화학생(A)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147,378
전체 학생 수(B)	6,333,570	6,137,374	5,931,646	5,773,998	5,633,725	5,461,614	5,355,832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1.07	1.34	1.67	1.89	2.17	2.51	2.75

자료 :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표 5-1-6〉 2020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계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학교급	초	85,101	5,088	17,581	107,770 (73.1)
	중	19,556	2,488	4,791	26,835 (18.2)
	고	9,117	1,575	2,081	12,773 (8.7)
합계		113,774	9,151	24,453	147,378 (100.0)

자료 :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4.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권익을 증진시킬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아동 수는 2009년까지는 한국사회의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였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인원은 2002년에 22,34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점차 감소하였고, 2010년이래로 1만 명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4,538명으로 199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가, 2020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한 5,053명으로 확인되었다. 보호대상아동 수의 감소는 아동 인구 수 감소의 영향과도 연관이 있다.

2020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총 5,053명이었고, 이 중 933명은 귀가 및 연고자에 인도되었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원인은 학대(1,767명), 부모의 이혼 등(539명), 비행·가출·부랑 아동(46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20년 미아로 인한 발생 수는 전년(8명) 대비 증가하여 11명으로 나타났다.

〈표 5-1-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단위 : 명)

연도	총 아동 발생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계	유기 ¹⁾	미혼 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1998년	15,499	4,699	10,800	1,654	5,451	286	3,409					
1999년	16,247	7,247	9,000	1,432	4,284	216	3,068					
2000년	15,936	6,851	9,085	1,270	4,190	152	1,757	1,716				
2001년	21,816	11,230	10,586	717	4,897	98	728	4,146				
2002년	22,341	12,284	10,057	634	4,337	74	749	4,263				
2003년	21,882	11,660	10,222	628	4,457	79	595	4,463				
2004년	20,357	10,964	9,393	481	4,004	62	581	4,265				
2005년	18,468	9,048	9,420	429	2,638	63	1,413	4,877				
2006년	16,008	6,974	9,034	230	3,022	55	802	4,925				
2007년	11,394	2,533	8,861	305	2,417	37	748	5,354				
2008년	11,672	2,388	9,284	202	2,349	151	706	891	1,036	732	274	2,943
2009년	10,500	1,472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2010년	9,960	1,370	8,59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2011년	8,436	953	7,483	218	2,515	81	741	1,125	418	536	154	1,695
2012년	8,003	1,077	6,926	235	1,989	50	708	1,122	448	533	166	1,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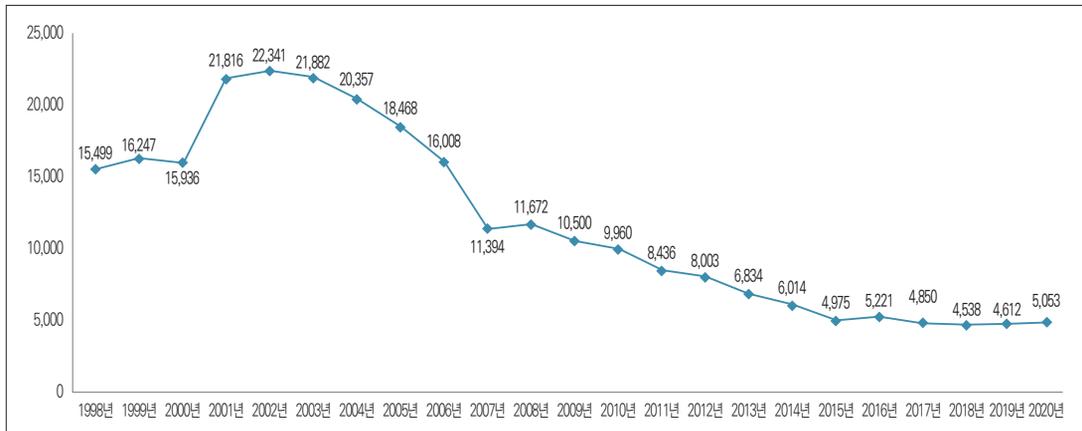
연도	총 아동 발생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계	유기 ¹⁾	미혼 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 빈곤·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2013년	6,834	814	6,020	285	1,534	21	512	1,117	338	545	133	1,535
2014년	6,014	1,020	4,994	282	1,226	13	508	1,105	308	450	65	1,037
2015년	4,975	472	4,503	321	930	26	360	1,094	279	301	122	1,070
2016년	5,221	638	4,583	264	855	11	314	1,532	290	286	126	905
2017년	4,850	725	4,125	261	847	12	227	1,442	223	279	87	747
2018년	4,538	620	3,918	320	623	18	231	1,415	198	284	92	737
2019년	4,612	565	4,047	237	464	8	473	1,484	265	297	83	736
2020년	5,053	933	4,120	172	463	11	468	1,767	181	279	74	539

주 : 1) 2017년부터 '기아'가 '유기'로 변경되었음.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그림 5-1-3]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추이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19년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보호대상아동의 보호형태는 크게 시설입소와 가정보호로 구분된다. 2019년까지 시설입소에는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가 포함되어 있었고, 가정보호는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 위탁’ 보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2020년에는 보호대상아동의 현황 조사 지표가 변경되었다.

〈표 5-1-8〉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단위 : 명)

연도	조치내용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1998년	10,800	5,141	4,948		132	61	5,659	518	1,741	3,400	-
1999년	9,000	4,702	4,579		78	45	4,298	572	1,776	1,950	-
2000년	9,085	4,481	4,332		64	85	4,604	564	1,755	2,285	-
2001년	10,586	4,774	4,671		41	62	5,812	874	1,848	3,090	-
2002년	10,057	4,663	4,547		57	59	5,394	673	2,544	2,177	-
2003년	10,222	4,824	4,747		42	35	5,398	500	2,506	2,392	-
2004년	9,393	4,782	4,680		38	64	4,611	299	2,100	2,212	-
2005년	9,420	4,818	4,769		48	1	4,602	407	1,873	2,322	-
2006년	9,034	4,366	4,313		53	-	4,668	308	1,259	3,101	-
2007년	8,861	3,245	3,189		39	17	5,616	247	1,991	3,378	-
2008년	9,284	4,964	2,997	1,261	39	667	4,320	178	1,304	2,838	-
2009년	9,028	4,767	2,406	1,640	35	686	4,261	213	1,314	2,734	-
2010년	8,590	4,842	2,445	1,751	23	623	3,748	231	1,393	2,124	-
2011년	7,483	3,752	2,246	862	32	612	3,731	128	1,253	2,350	-
2012년	6,926	3,748	2,272	676	25	775	3,178	117	772	2,289	-
2013년	6,020	3,257	1,731	801	39	686	2,763	20	478	1,749	516
2014년	4,994	2,900	1,818	566	10	506	2,094	13	393	1,300	388
2015년	4,503	2,682	1,412	799	13	458	1,821	-	239	1,206	376
2016년	4,583	2,887	1,736	548	11	592	1,696	6	243	1,022	425
2017년	4,125	2,421	1,467	310	19	625	1,704	2	285	994	423
2018년	3,918	2,449	1,300	494	7	648	1,469	1	174	937	357
2019년	4,047	2,739	1,707	401	6	625	1,308	5	104	1,003	196
2020년	4,120	2,727	1,603	342	68	714	1,393	0	88	1,068	237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2020년에는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의 조사 지표가 바뀌어 시설입소에 ‘자립지원시설’과 ‘보호치료 시설’, ‘기타’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시설입소와 가정보호의 각 세부 항목이 ‘비장애’와 ‘장애’로 구분 되었다.

〈표 5-1-9〉 2020년 보호대상아동 보호 세부 현황

(단위: 명)

년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시설		일시보호 시설		자립지원 시설		보호치료 시설		공동생활 가정		기타	소계	소년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2020	4,120	2,727	1,085	48	336	7	18	2	443	8	665	47	54	14	1,393	0	0	86	2	1,037	31	224	13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2020년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입소 중에서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비장애 1,085명, 장애 4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동생활 가정은 비장애 665명과 장애 47명, 일시보호시설은 비장애 336명과 장애 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는 가정위탁이 비장애 1,037명과 장애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입양전 위탁은 비장애 224명과 장애 13명, 입양은 비장애 86명과 장애 2명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과거의 주된 아동보호 형태 역시 변화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국가가 원가정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원가정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대안 양육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가정과 유사한형태의 가정위탁이나, 시설에서 보호하더라도 대규모 시설에서의 보호가 아닌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소규모 보호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로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의 절차와 결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내·외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도 법 개정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

제2장 대상별 청소년 지원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가. 추진배경 및 연혁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2020년 기준 2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스스로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 사회적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동기 강화, 기초적인 자립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프로그램(두드림)이 운영되었고, 특히, 검정고시 지원 및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해밀)을 2009년부터 운영하였다. 2014년 5월 28일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5년 5월 29일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현재 전국 22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²⁾)’가 지정·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법정(法定) 명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나, 꿈드림은 ‘꿈=드림(Dream)’, ‘꿈을 드림’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표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혁

연도	추진내용
2007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201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숙려제 연계, 숙려제 상담 및 자퇴 후 학업복귀 서비스 지원
2013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교육부 공동, 2013. 11.)
201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 5. 28.)
201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 5. 29.)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2015. 5. 12.) • 전국 199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016	• 전국 202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마련(2016. 6. 14.)
2017	•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훈련 기관 '내일이룸학교' 운영(구 취업사관학교)
2018	• 전국 206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019	• 전국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2019. 11. 21.)
2020	• 전국 219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2021	• 전국 220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 3. 23.) - 의무교육단계 학교밖청소년의 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가능 •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개요

1)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

2021년 꿈드림센터는 전국 220개소(시·도 센터 16개소, 시·군·구 센터 20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시·도 센터에 5명씩, 시·군·구 센터에 2~4명씩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5-2-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20	26	17	9	9	6	3	5	1	31	12	13	16	10	23	15	21	3
시·도	16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04	25	16	8	8	5	2	4	1	30	11	12	15	9	22	14	20	2

자료 : 여성가족부(2021).

2) 사업목표 및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초·중학교 및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및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연계

꿈드림센터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2015. 8. 27.)」을 토대로 학교, 경찰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연계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연계하고 있으며, '21. 9. 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 절차 없이도 꿈드림센터로 정보연계가 가능하도록 연계제도가 강화되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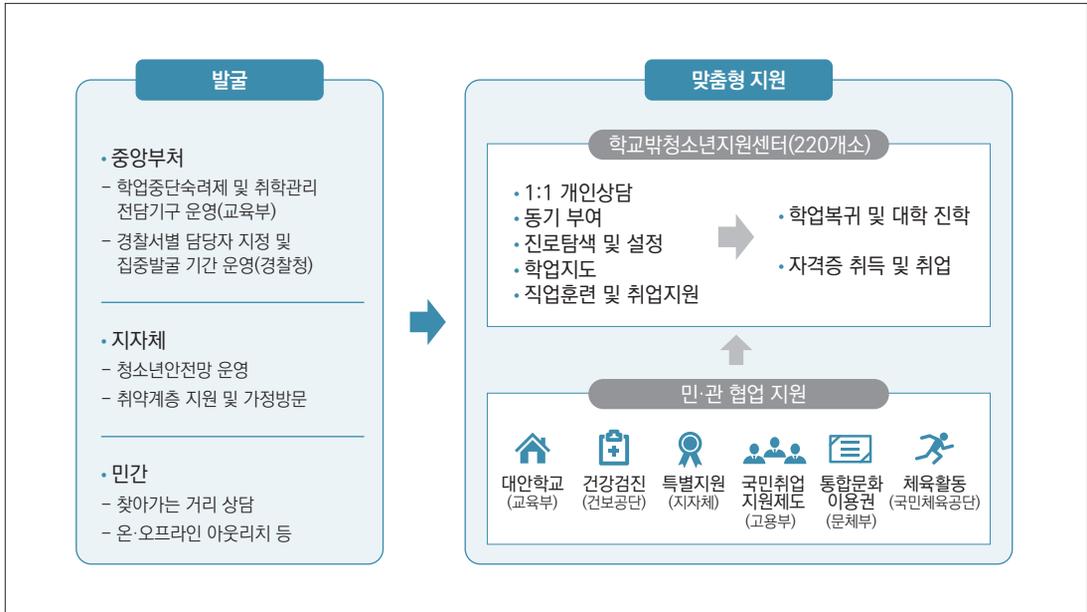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그림 5-2-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표 5-2-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인원

(단위 :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계 인원	68,459	70,684	47,358	31,622	32,267

자료 : 여성가족부(2021).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꿈드림센터에서는 연계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의 종류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이 있다.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형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형 청소년에게는 ‘직업역량강화사업’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장 체험’ 등을 통해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직업훈련기관인 ‘내일이룸학교’에 연계하거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한다. 내일이룸학교에서는

전문직업훈련과 함께 상담,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자격증 준비, 인성·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문화 활동 지원’, ‘봉사 기회 제공’ 등 자립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을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영·유아, 일반, 생애, 암 검진 등) 체계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생애전환기 연령(10대)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다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림 5-2-2]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영·유아(0~5세)	학동기(6~18세)	성인기(19~64세)	노년기(65세~)
영유아 건강검진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학 학동기 ※ 초1, 초4, 중1, 고1 학생 건강검사 비취학 학동기 (9~18세 학교 밖 청소년) (19세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검진 가능)	일반검진 및 암검진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만 66세 이상))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검진항목으로는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B형 및 C형), 결핵검진, 구강검사 등이 있으며,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메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된다.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폭행·성매매 등의 범죄 및 비행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가출과 반복적인 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 정책의 변화

1991년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쉼터 확대’가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영되다가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 및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표 5-2-4〉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구분	내용
1. 도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1993. 1. 1. 시행) • 1992년 최초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 1998년 5개 광역시별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2. 확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2005. 2. 10. 시행) • 2004년 일시쉼터(드롭인센터) 설치·운영 • 2005년 중장기쉼터 설치·운영

구분	내용
3. 성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부터 정체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 • 2012년 청소년쉼터 신고제 도입 •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2012. 8. 2. 시행),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항 정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사업내용 및 규모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 활동 프로그램 기회제공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로서 쉼터의 활동범위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 보호 및 숙식제공,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청소년쉼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전국 청소년쉼터 134개소의 운영을 지원한다.

〈표 5-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일시			단기			중장기			총계
	고정형	이동형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10년	8	2	10	24	25	49	10	14	24	83
2011년	8	2	10	24	24	48	10	15	25	83
2012년	8	5	13	25	24	49	11	19	30	92
2013년	15	6	21	26	24	50	11	21	32	103
2014년	16	6	22	26	24	50	16	21	37	109
2015년	18	8	26	26	26	52	17	24	41	119
2016년	18	10	28	26	25	51	18	22	40	119

구분	일시			단기			중장기			총계
	고정형	이동형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17년	20	10	30	27	26	53	18	22	40	123
2018년	19	11	30	30	32	62	18	20	38	130
2019년	18	13	31	30	33	63	19	21	40	134
2020년	19	13	32	30	31	61	19	21	40	133
2021년	19	13	32	30	33	63	18	21	39	134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다. 청소년쉼터 종류 및 유형별 기능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가 있고 그 유형별 기능은 아래 <표 5-2-6>과 같다. 청소년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1992년 설립된 ‘서울YMCA 쉼터’이고, 2004년에 가정 밖 청소년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21년 현재 일시쉼터 32개소, 단기쉼터 63개소, 중장기쉼터 3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5-2-6> 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32개소)	단기쉼터(63개소)	중장기쉼터(39개소)
기간	24시간 ~ 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이용대상	가정 밖·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밖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연결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밖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내실화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쉼터를 일시-단기-중장기 유형으로 특성화하고, 쉼터 유형별로 운영모형 및 목표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부터는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2017. 2. 4. 시행)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안전관리 인력 확보 등 시설안전 의무를 강화하였다.

청소년쉼터 시설 운영인력 외에도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긴급구조·초기개입을 통한 신속한 가정 및 사회복지귀를 돕기 위해 거리상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15명이 거리상담 전문요원으로 활동하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쉼터로 연계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이 24시간 생활하는 청소년쉼터의 특성상 야간 시간대 연계 의뢰 및 자해 등 응급상황발생이 잦아 야간 보호상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31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5-2-7〉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소청소년	9,350	11,657	11,764	15,242	24,079	25,012	30,329	31,197	32,109	32,402	20,401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8-9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가. 추진배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생리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대신 인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6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한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현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군·구를 통해 생리용품 지원을 지속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여성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용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방식을 도입하였다.

〈표 5-2-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2016년 9월 ~ 2017년	2018년 ~ 2021년 현재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원자격	-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 의료 급여 수급 자),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연령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앱·어플
지원방법	- 2016 ~ 2017년 : 현물 지급	- 2018년 : 현물 지급 - 2019년 ~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	- 2019년 : 연 최대 126천 원 - 2020년 : 연 최대 132천 원 - 2021년 : 연 최대 138천 원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개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³⁾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원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림 5-2-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

4.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시·군·구를 통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소득 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표 5-2-9>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자 (단,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사업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지원 등 (월 10만 원 이내 ~ 연 350만 원 이내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21).

3) 국민행복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카드임.

〈표 5-2-10〉 특별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비용 지원	월 55만 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지원	연 200만 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월 15만 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 원 이내(검정고시, 학원비)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지원	월 36만 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연 350만 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3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월 30만 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3

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남북 분단이라는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으로 이주배경청소년(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전부 개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표 5-2-1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단위 : 명)

북한이탈청소년 ¹⁾	중도입국청소년 ²⁾	외국인주민 자녀 ³⁾
815	3,240	266,321
통일부('21. 12월)	법무부('21. 12월)	행정안전부('20. 11월)

주 : 1) 북한이탈청소년 : 거주자 연령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자.
 2) 중도입국청소년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외국인등록·귀화한 미성년자.
 3) 외국인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상흔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입국초기부터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학습 공백, 동급생보다 많은 나이, 교육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족부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육생에게 ‘비교문화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하나원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성·인권·진로·건강 등 다각적 교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대면·집단·찾아가는 상담 등 통합 상담 및 사례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및 중도입국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 상담통역지원사를 양성하여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다수의 다문화 청소년이 외모의 차이, 한국어 소통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주자로서의 어려움과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란 등을 동시에 겪게 되며,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청소년은 신분상의 불안정(미등록, 단기비자 등)으로 정규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진로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서적·환경적 요인이 취약한 경향이 있어, 낮은 학업 성취도 및 진로설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입국초기 적응과 후기 청소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레인보우스쿨’에서는 한국어 교육, 사회문화 체험, 특기적성 활동, 생활정보(편·입학) 등을 제공하며, 2021년 기준 전국 12개 시·도에서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과정은 진로기초과정 ‘무지개 잡(job)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아라'와 진로심화과정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각각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 인력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및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일반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과 각계각층의 청소년 교육 전문가를 위한 다문화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은 초등, 중등 프로그램으로 각각 13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4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청소년 지도인력 양성을 위하여 예비 청소년지도사(대학생)와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식, 다문화 사회의 지도자로서 태도·인식,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역량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연간 300명을 목표로 연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건강한 정책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소개 계간지 '이주배경924'와 정책관심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인 '이슈브리핑'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출생, 국제결혼·외국인가정, 탈북배경 등 다양한 그룹의 이주배경청소년을 포괄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외에 지역기반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 내의 청소년 관련 자원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은 이주민 밀집지역인 안산시, 화성시를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민·관·학 협의체 구성·운영, 한국어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급식 지원 등을 관련 자원을 지원하여 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를 추진하였다. 안산시, 화성시에서는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의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및 관련 자원을 조사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어교육 등 수요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연계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을 제시하였다.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및 특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홀로 방치되기 쉬운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돌봄취약 계층 청소년(초 4학년~중 3학년)에게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및 체험활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더불어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방학 기간 포함 연중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4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100개소) 전국 단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특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농산어촌형을, 2011년에는 장애형과 다문화형 등 신규 운영모형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2016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었던 기존의 참여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였고, 2020년에는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사업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하여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하였다.

최근에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의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2018년 10개소 시범운영, 2019년 전국 확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정보 연계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를 개발하여 운영(2019년 9개소 시범운영, 2020년 전국 확대)하였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 휴교 등 돌봄 공백이 있는 청소년 대상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신규 유형 모형(주말형)을 추가하여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5-2-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돌봄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보충학습·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 지원,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완화									
사업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초4~중2(2015년까지), 초4~중3(2016년부터)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소 수(개소)	200	200	244	250	250	260	280	304	332
	인원(명)	8,200	8,091	9,490	9,745	9,773	10,742	11,584	12,341	13,145
시행주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운영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시설 등									
사업기간	2021. 1. ~ 12월(1일 4시간, 방학 포함 연중 실시)									
사업규모	332개소 운영(2021년 12월 말 기준)									
지원 예산	개소 당 평균 1.6억 원(국비지원율 : 서울 30%, 지방 50%)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3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13〉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 수)

시도	이용대상			운영 개소 수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계	초	중	초+중
서울	895	600	295	23	13	5	5
부산	740	410	330	19	9	7	3
대구	710	510	200	19	12	4	3
인천	440	160	280	11	4	7	0
광주	420	290	130	11	7	3	1

시도	이용대상			운영 개소 수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계	초	중	초+중
대전	275	195	80	8	5	2	1
울산	240	0	240	6	0	6	0
세종	120	40	80	3	1	2	0
경기	2,325	1,370	955	58	25	14	19
강원	845	410	515	26	9	11	6
충북	520	460	60	13	9	0	4
충남	865	240	625	24	6	15	3
전북	920	370	550	24	6	11	7
전남	1,290	555	735	34	11	18	5
경북	740	460	280	18	8	4	6
경남	955	655	300	25	12	2	11
제주	400	240	160	10	4	2	4
계	12,700	6,965	5,815	332	141	113	78

주 : 332개소의 2021년 계획인원 기준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0

7. 지역아동센터 운영

가. 지역아동센터 일반 현황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하여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이용시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지역 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인지·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안전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프로그램은 아동에게 기초학습지도, 학교생활관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에는 공연관람, 견학, 캠프 등이 포함된다. 정서지원프로그램으로는 아동과 부모상담 등을 통해 아동정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기능을 수행한다.

〈표 5-2-1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서비스 영역	세부 프로그램
보호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등
교육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적성교육,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등
문화	관람·견학, 캠프·여행, 행사 등
정서지원	상담(연고자, 아동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가족지원(보호자 교육,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홍보,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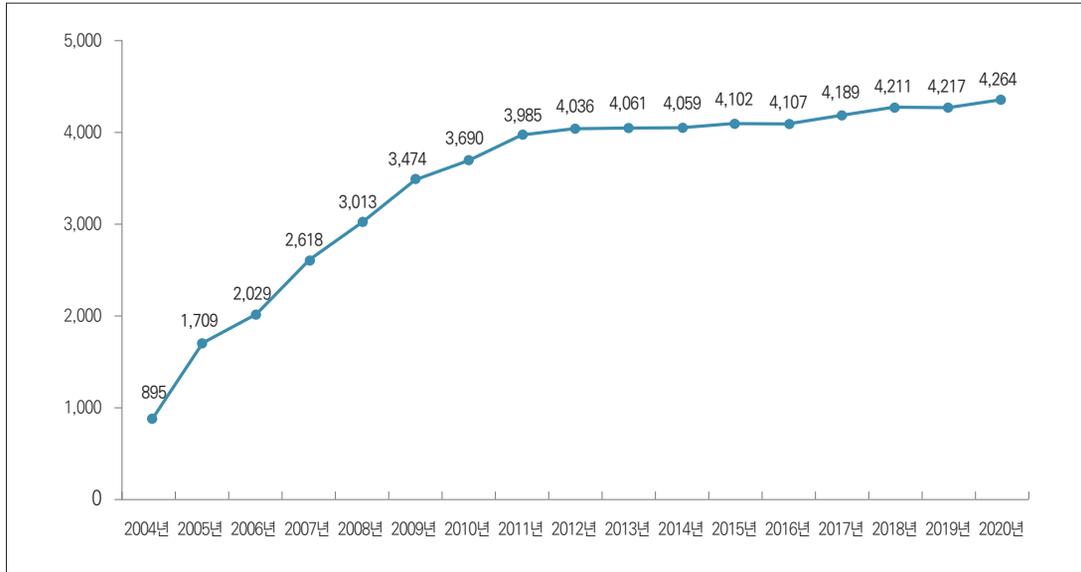
3)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이용 현황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보호, 학습지도,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1년 3,985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20년 4,264개소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00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468개소, 전남 390개소 순이다.



[그림 5-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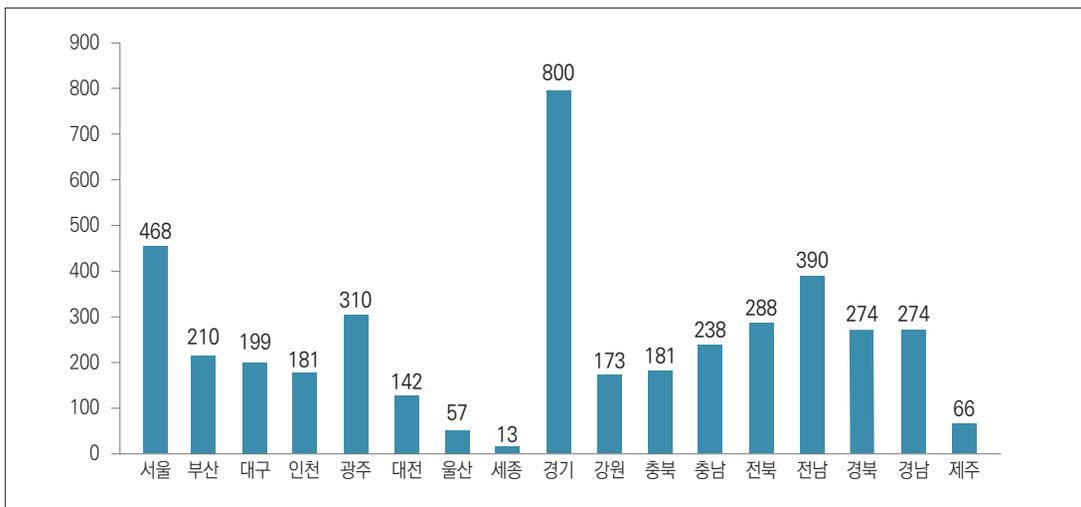
(단위 : 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5-2-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단위 : 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4)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증가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 아동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2004년 법제화 당시 23,34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06,510명으로 5배 가량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학년별 이용 아동 현황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40,199명,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43,492명, 중학생 17,207명, 고등학생 3,578명, 미취학 아동 1,900명, 학교 밖 청소년 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15〉 연도별·학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소계	106,668	108,578	109,610	108,971	106,510	
	남	55,328	54,733	55,873	55,770	54,483	
	여	51,340	53,845	53,737	53,201	52,027	
미취학 아동	소계	1,872	1,111	1,798	2,146	1,900	
	남	929	527	852	1,050	962	
	여	943	584	946	1,096	938	
초등학생	전체	82,140	84,706	87,501	87,775	83,691	
	저학년	소계	41,750	41,970	43,438	44,094	40,199
		남	21,767	21,469	22,214	22,516	20,422
		여	19,983	20,501	21,224	21,578	19,777
	고학년	소계	40,390	42,736	44,063	43,681	43,492
		남	20,595	21,427	22,427	22,350	22,236
		여	19,795	21,309	21,636	21,331	21,256
	중학생	소계	18,156	17,563	16,321	15,531	17,207
		남	9,568	8,971	8,260	8,010	8,895
여		8,588	8,592	8,061	7,521	8,312	
고등학생	소계	4,377	4,185	3,902	3,443	3,578	
	남	2,401	2,209	2,079	1,802	1,906	
	여	1,976	1,976	1,823	1,641	1,672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학교밖	소계	123	117	88	76	134
	남	68	64	41	42	62
	여	55	53	47	34	72
기타	소계	-	896	-	-	-
	남	-	66	-	-	-
	여	-	830	-	-	-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나.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시설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4,148개 시설에 대해 월평균 569만 원의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표 5-2-1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및 운영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편성 개소(개소)	2,088	2,788	2,946	3,260	3,500	3,742	3,989	4,113	4,113	4,113	4,124	4,135	4,148
지원 단가 (만 원/월, 개소)	220	상:220 하:320	320	370	395	420	433	443	458	473	516	529	569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보건복지백서.

2007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운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아동 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지역사회복지사 분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심화평가 및 운영컨설팅을 시작하였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심화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컨설팅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8.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지도,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기능 회복, 양육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지원 대상은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복지 욕구조사와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서 대상 아동을 선정한다. 단, 만 12세 이상의 아동이라도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 가정을 기본대상으로 지원하며,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 지역)에 한하여 특화대상으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 발달수준 및 양육환경 사정을 실시하여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 등급으로 판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드림스타트 수행체계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전반적 삶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별·가구별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생활 전반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특징이다.

〈표 5-2-17〉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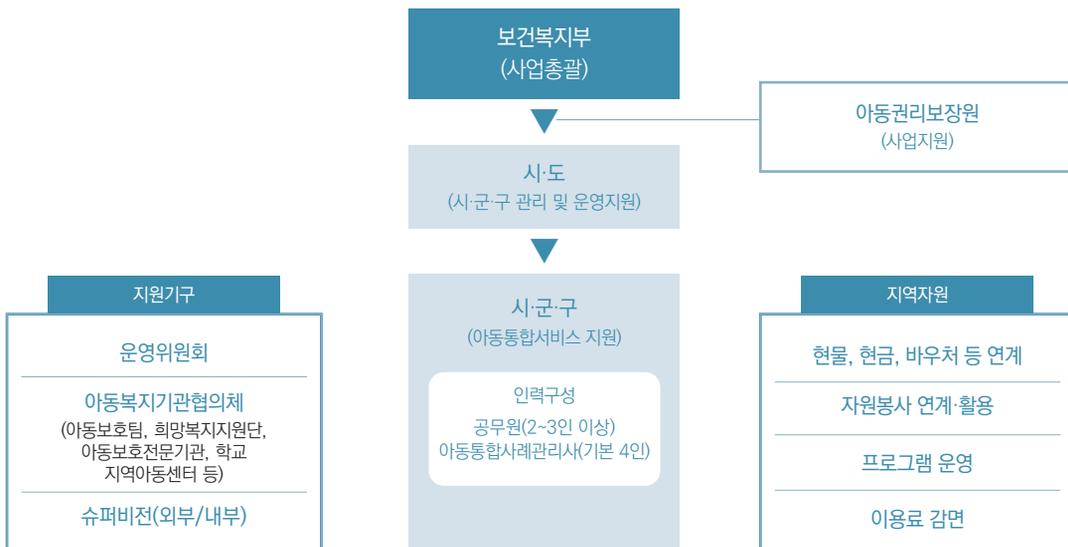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검진 및 예방(신체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검진 및 관련 교육, 건강교육, 클리닉, 응급처치 및 영양 관련 교육 등) 건강관리(질병 관련 치료지원 등)
인지/언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학습(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독서지도, 경제교육 등) 학습지원(교구재활용학습, 공부방, 도서관운영, 보충학습, 예체능, 학습지 지원 등)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정서/행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서(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 교육, 진로지도 등) • 심리행동(심리상담 및 치료,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치료) • 보호(돌봄기관 연계, 야간 보호 및 교육 등), 문화체험
부모 및 가족, 임신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상담 및 교육, 자녀발달, 양육, 자조모임 등) • 양육지원(다문화가정지원, 취미, 여가, 안전 및 건강지원 등) 및 산전산후관리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이러한 제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 재정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드림스타트 수행기구를 만들어 3인의 전담 공무원과 4~7인 이상의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을 배치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이나 서비스는 기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지원, 전담인력 교육, 운영모델 연구·개발, 사업평가, 후원 개발 및 홍보 등의 아동 통합서비스 실무 지원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운영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5-2-6]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나.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2008년부터 본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2007년 16개에서 2008년에는 32개, 2009년에는 75개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1개, 2011년에는 131개, 2012년에는 181개, 2013년에는 211개, 2014년에는 220개, 그리고 2015년에는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서비스 수혜 아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2007년 3,700여 명에서 2020년에는 16만 50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5-2-18〉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단위 : 개소, 억 원,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설치지역	16	32	75	101	131	181	211	220	229	229	229	229	229	229
증가수	-	16	43	26	30	50	30	9	9	-	-	-	-	-
사업예산	50	98	225	301	372	462	576	632	658	668	668	668	677	551
아동 수	3,769	9,901	26,208	32,641	44,651	65,724	95,133	107,127	125,562	134,853	144,289	150,052	156,439	160,501
가구 수	2,465	6,516	17,141	21,699	29,332	42,387	61,630	66,551	80,102	86,681	93,298	97,739	102,459	105,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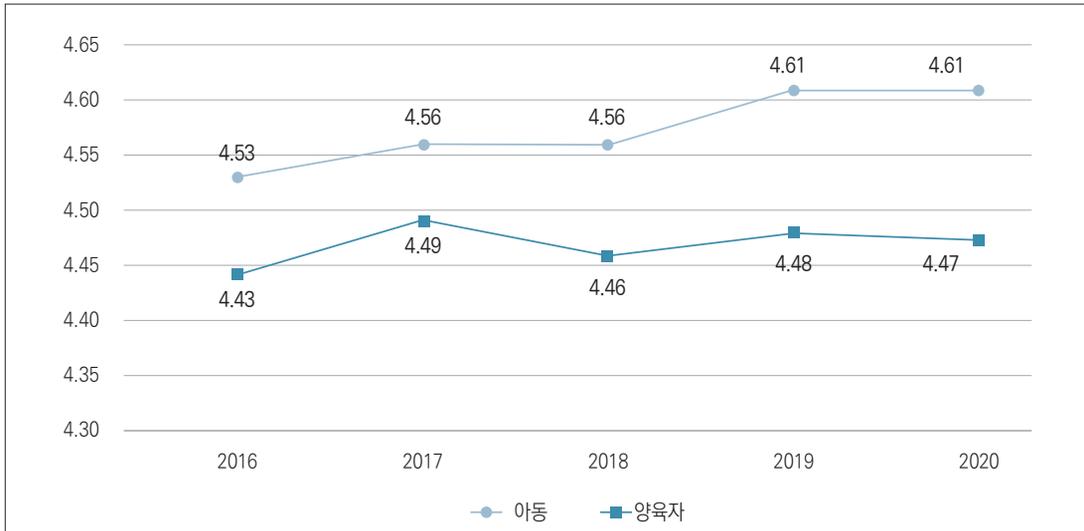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화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러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의 핵심기능인 사례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아동 및 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드림스타트 사업만족도 조사(10~11월)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5개년간 아동 및 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아동 및 양육자 모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만족도 조사) 2020년 229개 드림스타트 아동 2,945명, 양육자 3,175명 대상으로 고객만족, 성과, 서비스 충성도, 서비스 만족 등 양육자 21문항, 아동 20문항

[그림 5-2-7] 최근 5개년('16~'20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21). 드림스타트 사업만족도 조사.

통합형 사례관리란 서비스의 통합과 전달체계의 통합을 뜻한다. 먼저 서비스의 통합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의 총 3개 영역에 대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달체계의 통합이란,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민간 전문인력(아동통합사례관리사/보건, 복지, 보육 전문가)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적인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개별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 및 전문성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맞춤형 사례관리란 단순히 서비스를 모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수혜적 복지 개념을 지양하고, 아동 및 가정의 상태에 따라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대상 아동과 가정을 선정할 때, 우선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시점에서부터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 관리, 비사례관리 대상으로 사례관리 등급을 구분하여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동 등급에 따라 재사정 주기 및 사례회의(사례점검) 주기를 정하여 대상자의 양육환경, 제공되는 서비스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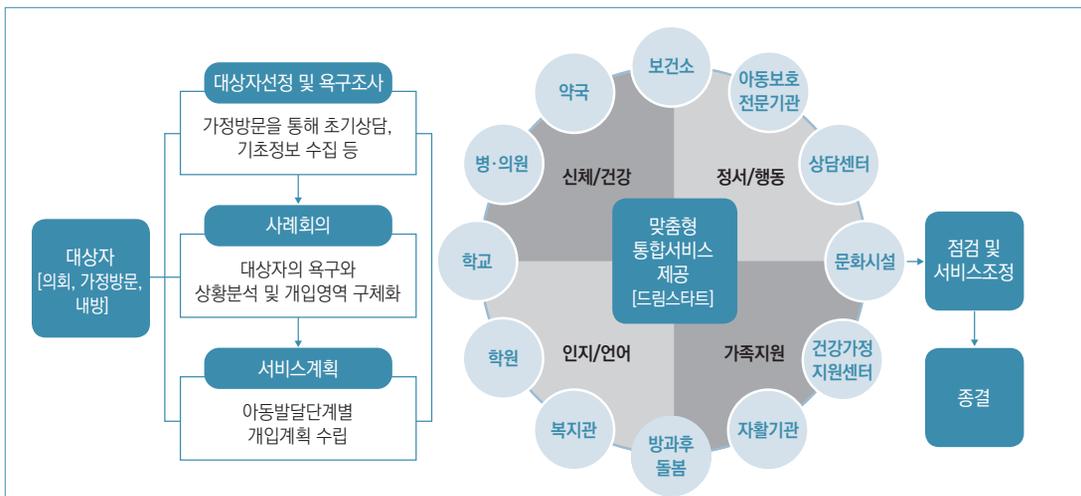
〈표 5-2-19〉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특징	내용
예방적 사례관리	• 문제가 심각해진 뒤의 사후치료와 개입보다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예방과 보호의 사례관리를 지향
통합적 사례관리	• 서비스의 통합 :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서비스 • 방법론의 통합 : 개별실천, 집단실천, 가족실천, 지역 사회실천 • 민간과 공공의 전달체계의 통합
맞춤형 사례관리	•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아동 및 가족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드림스타트 사업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되었다. 시·군·구에 드림스타트가 설치되면,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육구와 인프라 조사, 가정방문 인테이크(가정방문 인테이크는 통합서비스 제공 전 단계로서 개별아동과 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조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육·복지 등 세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치료,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방과 후 교실을 연계하거나 지역 학원들과 연계하여 학력 보충 기회 등을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 드림스타트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 복지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학원 등을 자원기관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5-2-8〕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자료 : 보건복지부(2021).

9.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최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들에게까지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 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갖도록 2009년 1월부터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대국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디딤씨앗 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들에게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초기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이다. 보호대상 아동은 만 0~17세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만 12~17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의 저축액 만큼 정부가 매칭금액을 적립하여 저축액이 두 배가 되도록 한다. 정부지원금액은 2016년까지 월 최대 3만 원 한도였으나 2017년부터 4만 원, 2020년에는 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1년부터 저소득 가구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디딤씨앗 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디딤씨앗 통장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것은 일반 후원자의 나눔 실천에 국가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후원자가 아동의 디딤씨앗 통장에 매월 5만 원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5만 원을 적립하여 총 10만 원이 아이들의 디딤씨앗 통장에 적립된다. 즉, 기부한 후원금이 두 배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디딤씨앗 통장은 단순히 자립을 위해 저축액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들에게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제교육 효과도 있으며, 아동 스스로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사회 진출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경제적 자립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아동이 매월 10만 원(아동 5만 원, 국가 5만 원)을 만 0~17세까지 적립 시 2,16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2월 말 기준, 월평균 10만 5천 원을 저축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5-2-20〉 연도별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연도	지원아동 수* (명)	월평균 적립금(원)	월평균 매칭금(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10	34,608	29,416	22,535	377	308	685
2011	41,180	30,903	23,175	510	409	919
2012	46,703	31,792	24,057	670	527	1,197
2013	51,670	35,172	25,356	854	660	1,514
2014	56,479	36,601	26,006	1,063	808	1,871
2015	61,000	38,247	26,559	1,297	970	2,267
2016	70,417	39,196	26,485	1,564	1,151	2,715
2017	71,457	42,416	31,224	1,876	1,381	3,257
2018	81,412	46,970	32,538	2,244	1,636	3,880
2019	80,770	52,515	33,688	2,665	1,906	4,570
2020	74,685	65,013	39,632	3,179	2,219	5,397

주 : *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연도 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6

10.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후된 아동 시설부터 기능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동시설의 다기능화와 함께 가정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여 가정 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2012. 8. 5.)을 통해 보육사 배치기준을 아동의 연령에 따른 기준으로 강화하여 보육사 배치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 양육을 위해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의 배치기준도

강화하였고, 자격증 기준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동 1인당 공간을 넓히고 (3.3㎡ → 6.6㎡), 침실 1개의 정원도 현행 6인에서 3인 이하로 축소하였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사회부적응이나 정서불안 장애가 있는 아동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 개선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6억 원, 약 600명) 하였으며, 2020년에는 문제아동과 아동의 원가족 및 주양육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16억 원)하였다.

〈표 5-2-21〉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계(현원)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2008	285	17,992	242	16,706	2	69	10	477	12	257	14	341	5	142
2009	280	17,586	239	16,239	2	65	11	514	12	262	13	368	3	138
2010	280	17,119	238	15,787	2	69	11	495	12	235	14	402	3	131
2011	280	16,275	242	15,313	1	32	10	455	12	249	12	113	3	113
2012	281	15,916	243	14,700	-	-	11	497	12	256	12	335	3	128
2013	281	15,239	243	14,038	-	-	11	486	13	250	11	359	3	106
2014	278	14,630	242	13,437	-	-	10	481	12	252	11	336	3	124
2015	281	14,001	243	12,821	-	-	11	447	12	243	12	350	3	140
2016	281	13,689	243	12,448	-	-	11	485	12	230	12	356	3	170
2017	280	12,789	242	11,665	-	-	11	497	12	221	12	279	3	127
2018	279	12,193	241	11,100	-	-	11	447	12	227	12	272	3	147
2019	281	11,665	240	10,585	-	-	12	469	13	218	13	275	3	118
2020	274	11,356	236	10,351	-	-	12	436	15	253	10	315	-	-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아동복지시설 현황.

시설아동을 중심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의지·자립기술 능력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퇴소 후 실제적인 지원과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2008~2010년 3년간 전국 13개 시설(양육시설 11개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개소)에서 4~24세의 자립연장 아동까지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전체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그 대상을 그룹홈,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2012. 8. 5. 시행)에 자립지원 및 아동자립지원계획 수립, 전담기구설치, 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의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생활(퇴소) 아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서비스에는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전세자금우선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분양, 자립지원시설 거주, 폴리텍 대학 입학 우선기회 부여, 뉴스타트 프로젝트/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7

나. 가정위탁 지원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200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2012. 8. 5. 시행)하여 가정위탁 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시·군·구에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위탁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20년 말 8,001세대, 9,923명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표 5-2-22〉 연도별 가정위탁 보호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2008	11,914	16,454	7,488	10,709	3,436	4,519	990	1,226
2009	12,170	16,608	7,809	10,947	3,438	4,503	923	1,158
2010	12,120	16,359	7,849	10,865	3,365	4,371	906	1,123
2011	11,630	15,486	7,463	10,205	3,351	4,260	816	1,021
2012	11,030	14,502	7,230	9,732	3,037	3,831	763	939
2013	11,173	14,584	7,352	9,829	3,068	3,803	753	952
2014	11,077	14,385	7,162	9,550	3,089	3,816	826	1,019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2015	10,706	13,728	6,944	9,127	2,927	3,556	835	1,045
2016	10,197	12,896	6,642	8,578	2,773	3,348	782	970
2017	9,575	11,983	6,207	7,950	2,605	3,100	763	933
2018	8,955	11,141	5,831	7,426	2,357	2,801	767	914
2019	8,359	10,384	5,442	6,905	2,167	2,572	750	907
2020	8,001	9,923	5,155	6,542	2,069	2,447	777	934

자료 : 보건복지부(2021).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었고, 2020년 10월 1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현재 총 18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다가, 2020년 1월 중앙가정위탁센터가 폐지되고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해당 업무가 이관되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연령별 월 30~50만 원 이상 권고)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부터 위탁이 종결될 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준하여 자립정착금, 대학진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 및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위탁가정에 대해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위탁아동 1인당 150만 원의 과세공제 혜택을 위탁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당시 1인당 기준 100,000원의 상해 보험료가 2020년에는 68,500원으로 단가는 낮아졌지만, 담보내용은 확대(15개)되어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 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심리정서 검사·치료비를 월 20만 원 이내(심리 검사비 20만 원)로 증액하였다. 진료비 청구 부분에서 심리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월 2만 원 이내,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 이용 시 월 4만 원 이내)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가정을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3세대, 6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보조금(월 20만 원 이상 권고)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아동 관련 전문가, 공무원, 대학생 멘토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후견인, 결연 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한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6

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5~7인의 아동으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형태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었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의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과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우선 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공동생활가정 수는 2019년 578개에서 2020년 591개로 확대되었고, 보호아동의 수도 2019년 2,949명에서 2020년 3,126명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5-2-23〉 연도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시 설		보호인원
	신고시설	지원시설	
2009	397	290	1,993
2010	416	348	2,127
2011	460	348	2,241
2012	489	416	2,438
2013	480	416	2,481
2014	476	416	2,588
2015	480	448	2,636
2016	510	448	2,758
2017	533	448	2,811
2018	558	464	2,872
2019	578	482	2,949
2020	591	491	3,126

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19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7

마. 입양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입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1년 8월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 「입양특례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여,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 후 일주일 이후부터 입양동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양부모 자격 심사 강화와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성인이 된 입양자들이 친가족 찾기 등을 위해 본인의 입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양정보공개청구권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입양특례법」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1) 입양제도의 개선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된다. 이에 따라 입양 성립요건이 입양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이주허가)에서 법원의 입양허가로 강화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는 양부모 자격을 제한하고, 양부모가 될 자는 입양 성립 전 입양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부모 자격심사를 강화하였다.

2021년 4월부터는 입양기관에 외부위원 2인 이상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입양기관 종사자 개인이 아닌, 아동복지분야의 전문가와 입양기관 종사자 다수가 함께 논의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양부모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친생부모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숙려기간을 두었다. 한편, 2021년 6월 30일부터 입양을 보내려는 친생부모는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아동을 직접 양육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세심히 상담받은 후 입양을 숙고하여 입양 동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접근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친생부모가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해 온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의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는데,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아동이 입양 의뢰된 때부터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6개월 → 1년) 하였으며 입양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 관찰, 아동양육 정보 제공, 입양가정에 수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6개월 간 4회 이상의 대면 상담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이후 6개월 간 2번의 추가 상담 및 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입양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아동 및 그 친생부모, 양부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2) 국내 입양 활성화

요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 국외 입양조치 되도록 2007년부터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앞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입양 중 장애아동 입양비율이 매우 낮으며, 장애아동 양육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6년부터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2003. 2. 9.)을 통해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입양절차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18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표 5-2-24〉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내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260 (52.9)
국외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17 (45.0)	232 (47.1)
계	2,439 (100.0)	2,475 (100.0)	2,464 (100.0)	1,880 (100.0)	922 (100.0)	1,172 (100.0)	1,057 (100.0)	880 (100.0)	863 (100.0)	681 (100.0)	704 (100.0)	492 (100.0)

자료 : 1) 보건복지부(2021).

2) e-나라지표(<http://index.go.kr>).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기존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 1인당 월 55만 1천 원을 지원 하였으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차등지원제도 도입으로 2010년 중증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이 월 57만 원으로, 2011년 중증 장애아동의 입양양육수당이 월 62만 7천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는 기존 연 252만 원에서 2011년 26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2012년부터 정부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심리 치료 지원한도를 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3세 미만 입양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2021년 18세 미만까지 확대되었다.

〈표 5-2-25〉 국내 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지원 내용		지원액
입양비용 지원(2007년~)		100~270만 원
양육수당(2007년~)		(만 18세 전까지) 월 15만 원/월
의료급여(2005년~)		(만 18세 전까지) 의료급여 1종
심리치료지원(2010년~)		(만 18세 전까지) 월 20만 원 한도/월
장애아동(만 18세 전까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1996년~)	월 627천 원, 월 551천 원
	의료비(1996년~)	연간 260만 원 한도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이밖에도 정부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2의 출산’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공개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1월부터 입양한 공무원에 대해 20일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 근로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서부터 국내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국내가정 보호, 입양 후 사후관리 및 국민인식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요보호아동 입양 관련 국내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복지과 044-202-3412

11. 아동 급식 지원

정부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여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급식은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2001년 11월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급식지원 확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취약아동에 대해 조·석식,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2000년 사업 시작 이후 1만 5천여 명의 결식 또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방학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급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여름방학에는 3만 9천 명에 대하여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였다.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 대상을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대하는 적극적 급식지원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학기 중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7만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지원되었다.

결식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에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2009년에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조사 및 선정 주체를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2005년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비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방법, 급식단가, 소요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급식지원 대상자는 연중 조사하되,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실시하고 급식지원 대상자 조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지리적 여건 및 방문신청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온라인(복지로)으로 아동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아동 급식 전달 방법은 지역 실정에 따라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소 급식과 인근지역의 일반음식점 급식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였고, 지역의 도시락업체를 통해 도시락 배달이 불가하고, 지역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식지원과 식품만 교환이 가능한 식품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급식 전달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지원 대상의 확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인적자원과 종교·시민단체 등의 급식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물적 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2021년에는 아동 급식 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표 5-2-26〉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대상자	235,202	214,009	257,276	271,606	415,519	476,444	485,811	471,961	438,042	416,092	381,838	350,109	332,865	317,234	357,127	330,014	308,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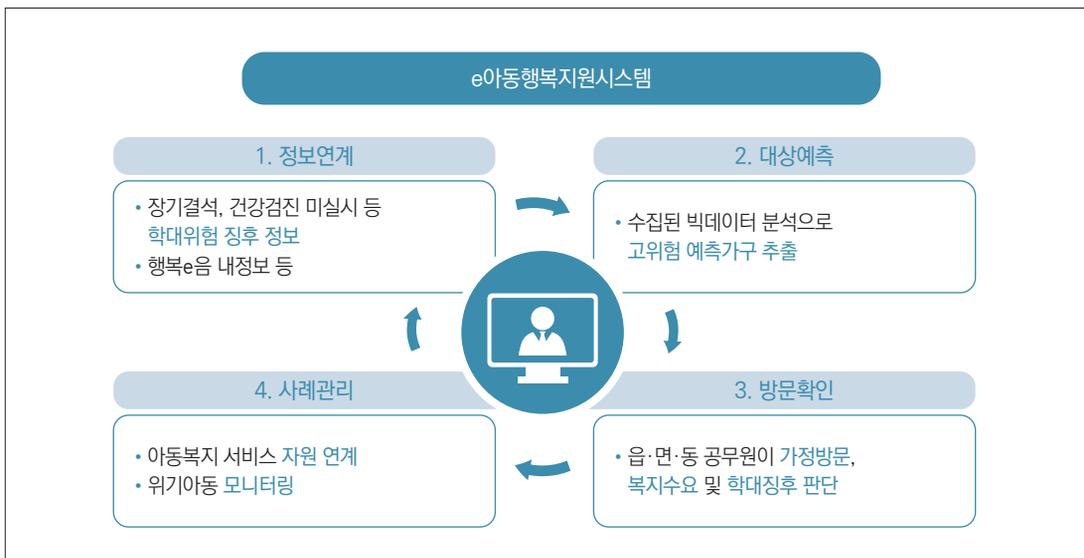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1).

12. 보호대상아동 조기 발견·지원(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각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선제적으로 예측 및 발굴하기 위하여 2018년 3월부터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들을 활용 및 가공하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 또한 가능하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여부’,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여부’,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읍·면·동으로 확인이 요구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면, 읍·면·동 공무원은 해당 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하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 조치하고 있다.

[그림 5-2-9]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추진 체계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2018).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총 274,367명의 아동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9년 4분기부터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가정양육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발굴해오고 있다.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부
록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1. 상담서비스

가. 청소년상담서비스 배경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빈번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과 문제를 방지할 경우 성인기에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 내 청소년들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어려움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및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당시 체육부)’가 청소년상담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청소년종합상담실(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2021년 현재 17개 시·도와 214개 시·군·구에 238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설치된 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은 1993년에 ‘청소년대화의 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법인화됨으로써 중앙지도 차원의 상담시설과 지역 중심의 상담지원을 위한 기관설치 및 운영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과 학부모 및 지도자 대상의 제반 상담 서비스 제공과 각종 교육 및 연수, 학술 및 연구 활동, 각종 매체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이러한 서비스의 직·간접 제공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의 보호 업무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 육성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청소년정책 환경의 일대 변혁이 단행되면서, 기존 청소년상담 기관의 위상과 역할 및 조직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2일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원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업중단·취약계층·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급속한 문화적 변동,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기능의 붕괴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심화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문제(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폭력피해(성·가정·학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교 밖 청소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위기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상담 활동에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 활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기존 활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해결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교육 연수 및 상담 실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영역별 보수교육을 통해 실제 청소년 상담업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선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밖에 지속적인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과 활성화 대회를 개최하여 또래상담자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였으며, 품성계발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고품질의 양성교육을 지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도를 위한

꿈드림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업은 전문상담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체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청소년상담 중추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상담복지 전문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상담복지 전문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5-3-1〉 2020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단위 : 명)

구분		수료인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3,463
또래상담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3,280
품성개발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21
부모교육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17
센터직원 직무연수		779
센터직원 이리닝 직무연수		24,239
사업별 직무 연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1,437
	꿈드림센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868
	자살예방교육 지도자	510
총 계		34,614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다. 시·도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과 실적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8월 2일 전부개정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전화1388’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찾아가는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심리상담 및 놀이치료, 또래상담사업, 학부모상담자원봉사회 운영, 청소년상담관련 심리교육, 지도자 양성,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0년에 대구, 광주에 최초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도에 부산(현재 진구), 대전(현재 동구), 충북(청주), 1992년도에 인천(현재 동구), 전북(전주), 1993년도에 경기(수원), 강원(춘천), 경남(창원), 1994년도에 충남(천안), 전남(현재 무안), 경북(안동), 1995년도에는 제주(제주), 1997년도에 서울(중구), 1999년 울산(중구)에 설치되었다. 이후 2006년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8월부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1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2021년 기준 21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로 운영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초자치단체수 대비 설치비율은 전국 94.3%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 활용 등의 통합적이고 문제영역별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제 10
부

부
록

(표 5-3-2)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개),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21	24	15	8	9	5	2	5	0	32	13	12	15	14	22	22	21	2
계	238	25	16	9	10	6	3	6	1	33	14	13	16	15	23	23	22	3
설치율	94.3	96.2	94.1	100.0	81.8	100.0	50.0	83.3	100.0	100.0	73.7	100.0	100.0	100.0	100.0	95.8	100.0	100.0

주 : 설치율은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비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활동

2020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안전망 서비스지원 실적은 4,692,127건으로 2019년 이용건수(6,456,858건)보다 27.3%p만큼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2,124,353건(45.3%), 여자 2,567,774건(54.7%)으로 남자 이용자보다 여자 이용자가 더 많았다.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유형별 추세를 살펴보면, ‘개별지원서비스’가 42.5%(1,994,639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집단프로그램’ 16.9%(793,599건), ‘그룹지원서비스’ 15.3%(719,074건), ‘개인상담’ 10.0%(467,67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이용자를 비교하면 ‘청소년’이 76.8%(3,601,370건), ‘성인’이 23.2%(1,090,757건)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 중 ‘초등학생’ 22.0%(1,034,545건), ‘중학생’ 24.5%(1,148,299건), ‘고등학생’ 21.0%(985,412건), ‘대학생’ 4.1%(194,504건), ‘근로청소년’ 0.4%(19,902건), ‘무직청소년’ 4.7%(218,708건)로 중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성인 이용자는 ‘학부모’가 13.3%(623,7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자’가 7.3%(343,845건), ‘기타’가 2.6%(123,154건)이었다.

2021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안전망 서비스지원 실적은 6,082,537건으로 2020년 이용건수(4,692,127건)보다 29.6%p만큼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2,766,467건(45.5%), 여자 3,316,070건(54.5%)으로 남자 이용자보다 여자 이용자가 더 많았다.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유형별 추세를 살펴보면, ‘개별지원서비스’가 37.8%(2,298,995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집단프로그램’ 21.1%(1,285,484건), ‘그룹지원서비스’ 16.2%(984,405건), ‘개인상담’ 11.4%(692,2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이용자를 비교하면 ‘청소년’이 79.6%(4,842,923건), ‘성인’이 20.4%(1,239,614건)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 중 ‘초등학생’ 26.2%(1,591,162건), ‘중학생’ 25.8%(1,569,540건), ‘고등학생’ 19.9%(1,209,064건), ‘대학생’ 3.8%(229,754건), ‘근로청소년’ 0.4%(24,819건), ‘무직청소년’ 3.6%(218,584건)로 초등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성인 이용자는 ‘학부모’가 11.5%(700,547건)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자’가 6.8%(416,436건), ‘기타’가 2.0%(122,631건)이었다.

〈표 5-3-3〉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별										
	초	중	고	대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기타	소계	
개인상담	126,419	130,078	106,896	20,254	2,396	25,137	45,341	10,187	964	467,672	
집단프로그램	316,347	253,594	139,485	10,248	235	5,278	42,658	21,977	3,777	793,599	
전화상담	15,203	34,720	61,271	37,872	2,417	23,539	80,391	98,682	71,591	425,686	
심리 검사	개별	19,760	23,420	17,821	2,497	331	2,807	5,754	1,060	269	73,719
	집단	16,502	33,082	13,828	803	10	462	2,652	917	296	68,552
사이버 상담	메일	3,193	11,877	11,916	3,136	49	1,768	1,248	205	2,046	35,438
	채팅	2,804	12,148	25,803	16,795	831	6,952	1,868	603	5,184	72,988
사업수행 프로그램	14,444	10,330	7,435	486	79	636	1,595	2,104	2,412	39,521	
지원 서비스	개별	359,739	475,011	424,464	93,500	12,567	143,033	337,676	134,304	14,345	1,994,639
	그룹	159,997	163,840	176,198	8,882	981	9,016	104,422	73,590	22,148	719,074
기타상담	137	199	295	31	6	80	153	216	122	1,239	
합계	1,034,545	1,148,299	985,412	194,504	19,902	218,708	623,758	343,845	123,154	4,692,127	

주 : 기타는 부모 및 가족을 제외한 교사, 지역사회 보호자 등을 의미함.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0).

〈표 5-3-4〉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별										
	초	중	고	대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기타	소계	
개인상담	192,575	195,306	153,187	32,292	3,379	31,135	69,400	13,552	1,462	692,288	
집단프로그램	585,443	412,269	199,191	12,829	722	6,203	39,519	26,328	2,980	1,285,484	
전화상담	20,285	43,592	63,947	44,112	2,022	26,642	100,497	108,157	71,484	480,738	
심리 검사	개별	29,366	31,190	21,501	3,546	347	3,485	9,821	684	286	100,226
	집단	21,968	33,594	19,893	1,974	13	674	3,401	698	486	82,701
사이버 상담	메일	3,454	13,699	11,588	2,737	42	1,733	693	422	1,608	35,976
	채팅	2,139	11,821	23,081	17,462	766	6,335	2,160	1,183	4,360	69,307
사업수행 프로그램	24,661	12,052	10,382	624	115	537	1,469	683	458	50,981	
지원 서비스	개별	453,724	550,009	464,230	96,520	13,624	129,315	397,288	178,240	16,045	2,298,995
	그룹	257,384	265,736	241,850	17,621	3,784	12,456	76,130	86,241	23,203	984,405
기타상담	163	272	214	37	5	69	169	248	259	1,436	
합 계	1,591,162	1,569,540	1,209,064	229,754	24,819	218,584	700,547	416,436	122,631	6,082,537	

주 : 기타는 부모 및 가족을 제외한 교사, 지역사회 보호자 등을 의미함.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2020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대인관계’ 21.5%(854,287건)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신건강’ 19.9%(788,782건), ‘학업·진로 문제’ 12.9%(513,842건), ‘가족’ 10.5%(416,755건), ‘일탈·비행’ 10.2%(405,338건), ‘컴퓨터·인터넷 사용’ 8.2%(240,489건)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전년도 27.4%)’, ‘정신건강(전년도 16.1%)’, ‘학업·진로 문제(전년도 13.4%)’에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81.1%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왕따’ 7.1%, ‘이성교제’ 2.1%, ‘어른과의 관계’ 1.5%, ‘교사와의 관계’ 1.3% 순이었다. 정신건강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우울·위축 문제’가 40.4%로 가장 많았고, ‘강박·불안 문제’가 17.6%, ‘자살관련 문제’가 12.4%, ‘자해 문제’



5.9%, '충동(분노) 조절 문제' 5.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겪는 학업 및 진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진로정보탐색' 38.2%, '학업흥미·학업 동기 부족' 15.7%, '학교생활부적응' 12.5%,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8.0%, '진로의식부족' 7.2%, '학습능력 부족' 5.6% 순이었다. 그 밖에 일탈 및 비행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31.8%, '금품갈취·절도·도벽' 21.7%, '음주·흡연·약물오남용' 8.8%, '가출' 8.3%, '비행친구와 어울림' 7.5%, '학교 외의 폭력' 5.4%, '늦은 귀가·잡은 외박' 1.8% 순이었다.

2021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정신건강' 22.2%(1,130,526건)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21.9%(1,116,861건), '학업·진로 문제' 12.1%(615,546건), '가족' 9.5%(485,261건), '일탈·비행' 9.0%(460,653건), '컴퓨터·인터넷 사용' 9.0%(459,028건)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전년도 21.5%)', '정신건강(전년도 19.9%)', '학업·진로 문제(전년도 12.9%)'에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83.6%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왕따' 5.2%, '이성교제' 1.8%, '어른과의 관계' 1.3%, '교사와의 관계' 1.0% 순이었다. 정신건강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우울·위축 문제'가 34.5%로 가장 많았고, '자살관련 문제'가 18.3%, '강박·불안 문제'가 17.4%, '자해 문제' 6.6%, '충동(분노) 조절 문제' 5.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겪는 학업 및 진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진로정보탐색' 37.9%, '학업흥미·학업 동기 부족' 15.9%, '학교생활부적응' 12.4%,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8.9%, '학습능력 부족' 6.6%, '진로의식부족' 4.8% 순이었다. 그밖에 일탈 및 비행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35.4%, '금품갈취·절도·도벽' 20.3%, '음주·흡연·약물오남용' 9.3%, '비행친구와 어울림' 6.5%, '가출' 6.4%, '학교 외의 폭력' 5.8%, '늦은 귀가·잡은 외박' 1.8% 순이었다.

〈표 5-3-5〉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외모	컴퓨터/ 정보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계
개인 상담	56,768	52,731	62,460	9,283	39,874	89,971	102,310	5,446	43,419	3,940	69	1,267	134	467,672
집단 상담	36,165	109,425	108,234	9,589	25,713	282,183	99,237	885	98,172	9,429	663	13,904	0	793,599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외모	컴퓨터/정보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계	
전화 상담	35,100	25,729	29,818	10,657	14,610	48,142	60,338	4,001	16,972	148,759	685	4,623	26,252	425,686	
심리 검사	개별	7,096	6,318	10,683	1,013	6,405	10,477	16,327	495	13,959	516	11	359	60	73,719
	집단	1,897	736	25,229	133	12,720	6,459	9,326	29	5,006	6,916	0	94	7	68,552
사이버 상담	메일	3,761	436	6,566	1,685	1,556	9,577	7,737	1,355	366	2,150	74	60	115	35,438
	채팅	10,409	1,133	8,869	2,308	3,590	13,079	21,835	1,496	902	2,983	190	294	5,900	72,988
사업수행 프로그램	2,255	4,566	4,848	177	1,371	9,650	3,403	254	7,000	3,582	101	2,314	0	39,521	
지원서비스 (개별)	263,165	204,173	257,003	34,757	140,431	384,584	468,055	24,477	139,060	61,935	724	15,912	363	1,994,639	
기타 상담	139	91	132	10	59	165	214	6	75	279	7	55	7	1,239	
총합계	416,755	405,338	513,842	69,612	246,329	854,287	788,782	38,444	324,931	240,489	2,524	38,882	32,838	3,973,053	

주 : 집단지원서비스의 경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음.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0).

〈표 5-3-6〉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외모	컴퓨터/정보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계	
개인 상담	87,791	62,356	85,387	12,931	65,406	128,601	172,500	7,364	63,668	3,819	209	2,187	69	692,288	
집단 상담	35,636	147,902	152,689	14,438	44,131	465,896	230,446	1,727	140,693	16,064	6,876	28,986	-	1,285,484	
전화 상담	39,293	26,778	35,074	10,588	17,614	54,681	79,773	3,708	18,291	162,703	1,074	5,557	25,604	480,738	
심리 검사	개별	10,735	7,168	14,901	1,528	10,131	13,647	23,381	656	17,392	490	35	40	122	100,226
	집단	2,798	1,244	29,764	748	18,210	12,468	9,897	151	5,899	248	-	1,274	-	82,701
사이버 상담	메일	3,517	527	6,856	1,318	1,875	9,914	7,776	1,455	296	2,065	78	173	126	35,976
	채팅	8,229	1,215	7,921	1,225	2,968	10,578	23,256	1,125	790	6,524	120	387	4,969	69,307
사업수행 프로그램	2,320	5,155	7,689	445	1,519	15,036	4,847	259	12,181	835	130	565	-	50,981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외모	컴퓨터/정보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계
지원서비스 (개별)	294,823	208,209	275,157	39,033	179,998	405,857	578,343	27,670	199,743	75,243	1,062	13,583	274	2,298,995
기타 상담	119	99	108	20	58	183	307	8	75	332	4	104	19	1,436
총합계	485,261	460,653	615,546	82,274	341,910	1,116,861	1,130,526	44,123	459,028	268,323	9,588	52,856	31,183	5,098,132

주 : 집단지원서비스의 경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음.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3, 6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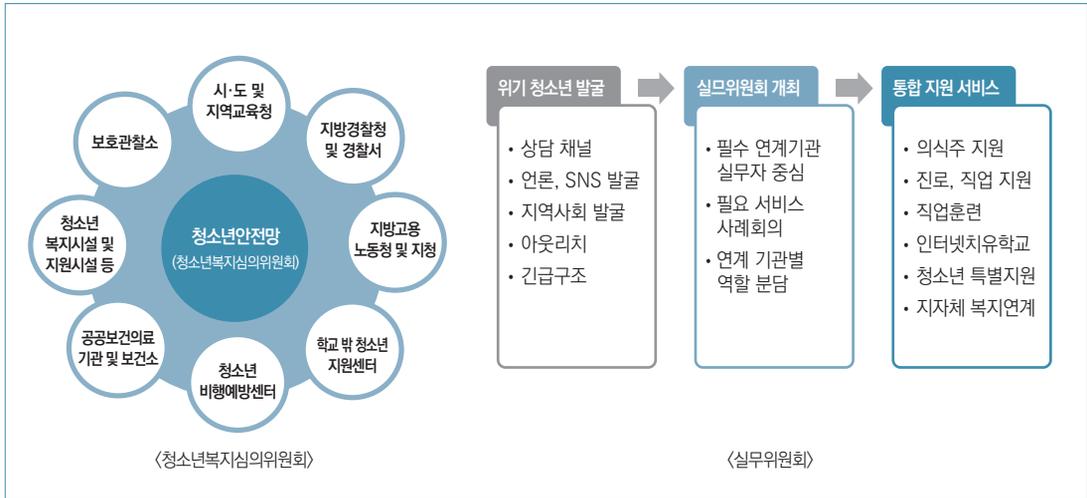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가. 운영배경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있거나 상호협력 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조기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정신건강문제’, ‘가출’, ‘폭력피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제 1 부
- 제 2 부
- 제 3 부
- 제 4 부
- 제 5 부
- 제 6 부
- 제 7 부
- 제 8 부
- 제 9 부
- 제 10 부
- 부 록

[그림 5-3-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1).

나. 운영 현황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2020년 전국 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의 23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23,022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2,713,713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2021년은 전국 17개 시·도 및 214개 시·군·구의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45,016명의 위기청소년에게 3,283,400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안전망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하여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짬뽕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해왔고, 점차적으로 의료, 법률, 자활 등의 전문분야에서도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청소년안전망의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이용 실인원은 구체적으로 2020년은 남자 청소년이 48.9%(60,144명), 여자 청소년이 51.1%(62,878명)였으며, 2021년은 남자 청소년이 48.5%(70,319명), 여자 청소년이

51.5%(74,697명)로, 2020년 및 2021년 모두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명)

연도	남	여	합계
2008	40,977	40,025	81,002
2009	47,825	50,195	98,020
2010	67,035	61,391	128,426
2011	77,836	67,540	145,376
2012	78,900	70,407	149,307
2013	94,901	88,427	183,328
2014	122,681	119,549	242,230
2015	113,482	111,310	224,792
2016	95,783	90,553	186,336
2017	90,779	87,349	178,128
2018	85,388	87,610	172,998
2019	82,548	85,829	168,377
2020	60,144	62,878	123,022
2021	70,319	74,697	145,016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원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2020년은 전체 2,713,713건으로 2019년 대비 17.2% 감소하였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73.9%로 가장 많이 지원된 서비스로 나타났고,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13.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전체 3,283,400건으로 2020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유형별로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69.7%로 가장 많고,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14.8%,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8〉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지원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 건)

연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합 계
2008	286,069	30,497	80,857	10,740	2,754	5,759	1,362	16,243	434,281
2009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715,589
2010	882,001	62,456	225,721	84,535	11,544	6,254	1,728	129,255	1,403,494
2011	1,102,858	64,147	237,072	146,621	18,565	8,513	4,981	191,135	1,773,892
2012	1,094,027	67,300	228,533	172,502	15,486	6,872	1,409	189,707	1,775,836
2013	1,207,143	53,946	255,286	101,809	15,475	5,036	3,749	278,829	1,921,273
2014	1,249,266	68,958	246,078	99,013	20,317	14,391	2,487	180,879	1,881,389
2015	1,288,115	61,151	311,197	80,118	20,703	4,966	1,803	232,547	2,000,600
2016	1,363,329	80,908	352,116	105,745	9,231	9,322	1,644	400,269	2,322,564
2017	1,566,866	71,396	417,669	84,188	18,138	11,404	1,986	388,194	2,559,841
2018	1,802,537	100,715	531,865	103,778	12,023	13,170	3,413	413,958	2,981,459
2019	1,943,644	93,958	638,904	88,982	32,939	17,373	3,259	460,349	3,279,408
2020	2,005,457	60,528	369,778	74,020	6,374	55,782	2,352	139,422	2,713,713
2021	2,287,565	96,443	484,789	114,405	26,514	91,248	8,743	173,693	3,283,400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6277

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였다.

〈표 5-3-9〉 2020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울산 (1개소)	경기 (3개소)	전북 (1개소)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사하구	남구	군포시 수원시 파주시	부안군

자료 : 여성가족부(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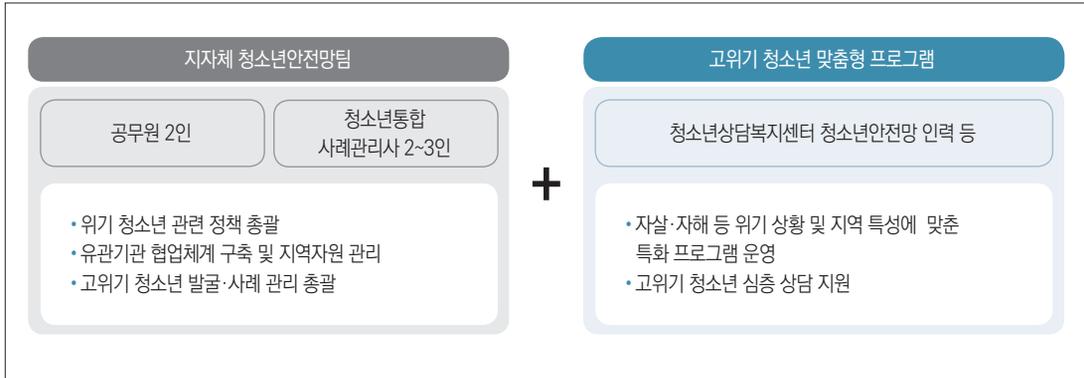
〈표 5-3-10〉 2021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울산 (2개소)	경기 (5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경남 (1개소)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사하구	남구 북구	군포시 수원시 파주시 구리시 화성시	부안군	장흥군	김해시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지자체 내에 전담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인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위기 청소년 발굴과 지원, 연계기관 관리 등 지역의 위기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소년안전망팀 사업’과 해당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와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이 함께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모형을 발굴하고, 정책대상자인 청소년 중심의 요구를 바탕으로 고위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3-2]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자료: 여성가족부(2021).

3. 청소년상담1388

2005년 4월 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가출청소년 상담전화 1588-0924,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전화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전화 등을 1388로 통합하고, 청소년의 생활환경 변화와 발맞춰 모바일(2007년)과 사이버(2011년) 등의 상담매체를 추가하여 청소년안전망의 관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1388’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상담채널로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상담1388 서비스 제공 수는 2005년 9월 통합 이후 20,77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 98,466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모바일상담과 사이버상담을 합하여 2020년에는 936,037건, 2021년에는 852,431건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은 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236개 센터에서, 2021년은 17개 시·도 및 214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238개 센터에서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은 문자와 카카오톡, 사이버는 인터넷 채팅 및 게시판상담 등을 통하여 청소년상담1388을 운영하고 있다.

〈표 5-3-11〉 청소년상담1388 주요 실적

(단위 : 건)

구분	실적			증감	
	2019년(A)	2020년(B)	2021년(C)	B-A(%)	C-B(%)
청소년상담1388 이용실적(상담건수)	902,294	936,037	852,431	33,743(3.6)	-83,606(-8.9)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한편, 청소년상담1388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폰 앱(APP), 카카오톡 배너,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했으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편의점 등의 다양한 시설 및 매체를 통하여 송출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전개하였다.

〈표 5-3-12〉 연도별 청소년상담1388 호소문제 유형별 이용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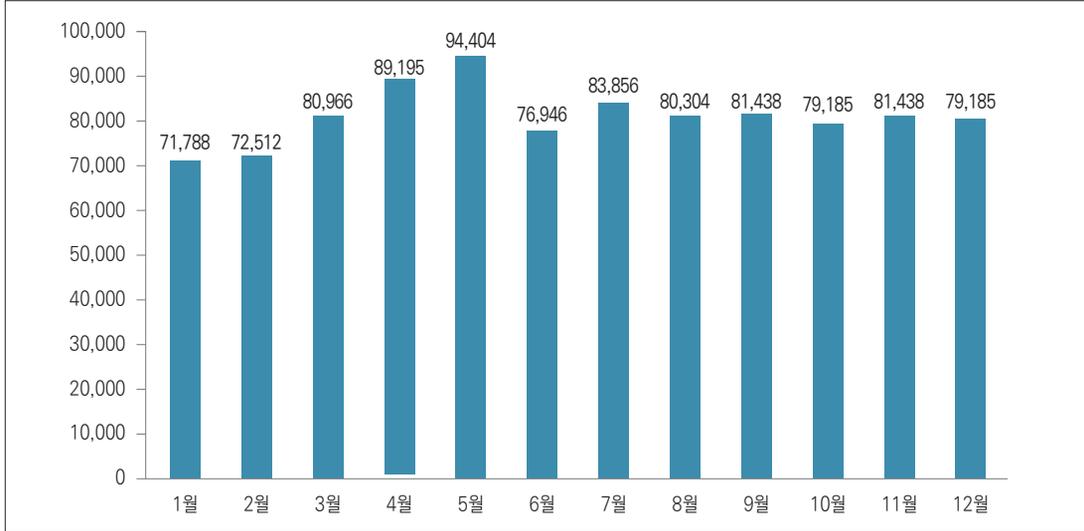
연도	가족	일탈/ 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대인 관 계	정신 건 강	생활 습관/ 외모	인터넷 사용	근로	정보 제 공	법률 정 보	활동	기타	합계
2011	48,469	48,361	96,925	27,368	18,999	107,020	36,643	18,257	20,275	-	184,264	1,500	7,512	69,638	685,231
2012	45,703	41,610	58,147	25,361	17,816	103,236	46,021	12,361	17,727	-	224,768	1,763	8,215	72,327	675,055
2013	45,618	37,308	81,103	29,451	19,000	105,574	49,615	11,513	17,624	-	251,748	1,969	6,463	71,895	728,881
2014	59,072	37,885	93,708	30,060	21,691	135,286	60,135	12,742	19,788	9,715	188,712	806	6,549	75,132	751,281
2015	109,623	32,777	89,934	31,802	27,064	140,437	77,126	18,161	24,259	6,372	135,926	1,480	11,351	66,185	772,497
2016	126,701	38,408	98,222	29,200	29,003	145,958	92,597	15,829	17,451	4,936	143,386	1,786	11,041	78,930	833,448
2017	94,470	39,471	101,340	29,649	29,583	157,171	117,590	16,403	22,480	6,541	167,616	2,268	17,011	61,077	862,670
2018	101,372	41,120	98,797	30,528	27,032	157,056	150,229	15,658	19,529	16,216	151,800	2,174	12,257	54,169	877,937
2019	81,745	38,745	110,739	25,683	36,166	149,686	162,986	16,135	23,957	25,697	164,510	1,853	10,227	54,165	902,294
2020	97,619	31,758	84,611	27,006	31,520	128,302	190,330	16,433	23,718	17,820	171,297	1,578	7,543	106,502	936,037
2021	84,772	30,691	79,957	19,519	31,722	118,421	205,373	12,316	21,390	2,718	170,834	1,335	6,661	66,722	852,431

주 : 상담유형 중 근로는 2014년부터 별도 집계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1).

[그림 5-3-3] 2020년 청소년상담1388 월별 이용실적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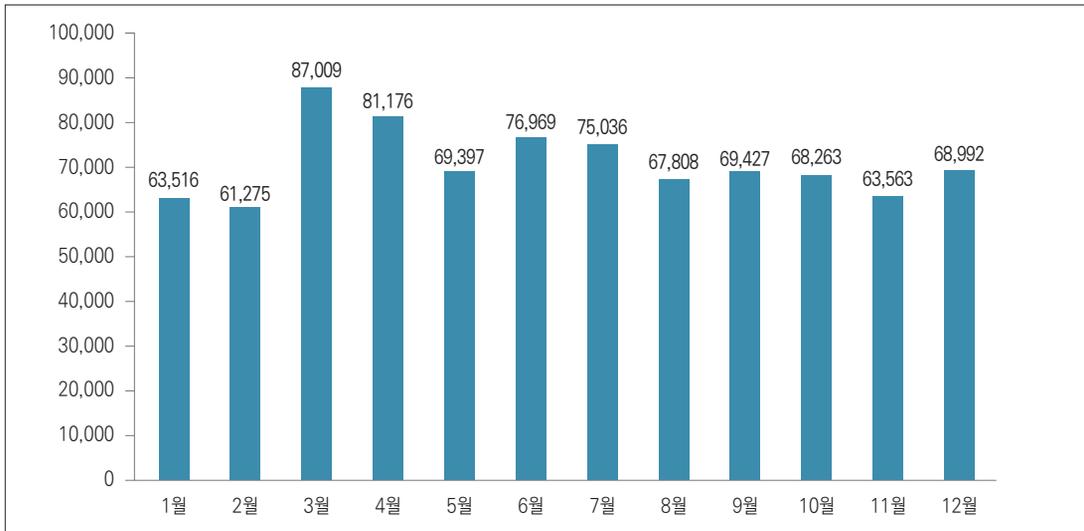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0).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0

[그림 5-3-4] 2021년 청소년상담1388 월별 이용실적

(단위 : 건)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0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아 상담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상담전문가가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후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을 돕고 위기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중심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에 힘쓰고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 (Youth Companions)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청소년 동반자들은 위기청소년에게 각종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진로 지도,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 4개 시·도(서울·경기·광주·경남)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동반자 223명이 활동하였고,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로 확대되어 운영되면서 청소년동반자도 470명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1,349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함에 따라 36,974명의 청소년이 지원받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보다 많은 고위기 청소년들이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른 수준 높은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표 5-3-13〉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소년동반자 수	470	1,270	880	880	980	985	1,000	1,044	1,066	1,146	1,261	1,313	1,349
수혜 청소년 수	14,510	24,515	25,675	26,324	31,226	31,190	33,471	34,775	35,710	38,456	41,392	43,246	36,974

자료 : 여성가족부(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6277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제 4 부
제 5 부
제 6 부
제 7 부
제 8 부
제 9 부
부 록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가. 또래상담 사업 개요

또래상담 사업은 교우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994년부터 개시되었다. 청소년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또래상담은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2021년 현재 전국 8,012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5-3-14〉 2021년 또래상담 사업 실적

(단위 : 개교, 명)

구분	또래상담 운영학교	또래상담 지도교사	또래상담자
2021년	8,012	3,319	301,985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나. 또래상담 사업 추진현황

1994년에 처음 시작된 또래상담 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오다가 2012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되었다.

또래상담의 취지는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있으며, 교사나 부모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래상담 지도자 및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해 지도자 지침서 제작 및 또래상담 홈페이지⁴⁾를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현장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래상담자용 스마트수첩을 개발하여 또래상담자 스스로 상담활동을 쉽고 효율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원활하지 않아 지도교사 양성체계를 온라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또래상담자 양성을

4) 또래상담 홈페이지: <http://www.peer.or.kr>.

위한 온라인 콘텐츠와 또래상담자 대상 비대면 활동 안내 매뉴얼을 신규 개발 및 보급하였다. 2021년에는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러닝 콘텐츠)을 제작·보급하고, 온라인으로도 또래상담(채팅상담, 전화상담, 화상상담)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또래상담 플랫폼’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다.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효과

또래상담은 일정시간 이상의 상담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조력하는 상담활동으로, 또래상담 동아리를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청소년 자치활동이다. 또래상담자는 학교 내에서 따돌림, 학교폭력 등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활동이 가능하도록 훈련받는다.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은 12시간 과정의 기본교육 및 이를 이수한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8시간 과정의 심화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또래상담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또래상담자 및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공감, 의사소통, 이타성, 리더십, 학교폭력 인지능력,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80.9점)의 점수 대비 실시 후(86.0점)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또래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은 내담자를 대상으로 또래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능력 등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역시 프로그램 실시 전의 점수(73.1점)보다 실시 후의 점수(77.6점)가 높게 나타나 참여자 모두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5) 2021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학교폭력 대응역량 향상도)

(단위: 점)

구분		사전(A)	사후(B)	변화량(B-A)
하위 요인	공감능력	83.4	89.2	5.8
	의사소통능력	78.7	85.0	6.3
	이타성	79.9	85.7	5.8
	리더십	79.2	84.8	5.7
	학교폭력 인지능력	81.9	84.2	2.3
	학교폭력 대처능력	82.4	87.0	4.5

구분	사전(A)	사후(B)	변화량(B-A)
전체	80.9	86.0	5.1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표 5-3-16〉 2021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내담자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점)

문항	사전(A)	사후(B)	변화량(B-A)
또래관계 만족도	72.1	77.0	4.9
학교생활 적응능력	74.1	78.1	4.0
전체	73.1	77.6	4.5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8

제4장 청소년의 건강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019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 6~17세)의 체격검사 결과, 17세의 평균 신장은 남학생이 173.8cm, 여학생이 161.2cm로 2018년 남학생 173.6cm, 여학생 160.9cm와 비교할 때, 남학생은 0.2cm, 여학생은 0.3cm만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7세 청소년의 평균 신장을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남학생은 동일하며, 여학생 0.1cm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연령별 체격의 성차를 살펴보면, 6~9세까지는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장이 약 1cm이상 크지만, 10세부터 11세까지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 신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2세가 되면서부터 다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 신장이 커지기 시작하여 15세가 되면 11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단위: cm)

측정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120.1	118.9	125.8	124.9	131.3	130.1	136.6	136.0	141.9	142.3	148.1	149.2
2005	120.6	119.3	126.5	125.3	132.0	131.0	137.3	137.1	143.0	143.7	149.1	150.3
2006	121.7	120.2	127.1	125.8	132.6	131.5	138.7	138.3	143.5	144.4	150.0	150.9
2007	121.6	120.4	127.4	126.1	132.9	131.8	138.6	138.4	143.7	144.7	150.4	151.1
2008	122.0	120.7	127.4	126.2	133.1	131.7	138.7	138.5	143.5	144.6	150.2	151.0
2009	121.9	120.6	127.7	126.2	133.0	132.0	138.3	138.0	143.9	144.7	150.5	151.0
2010	121.8	120.6	127.7	126.4	133.1	132.0	138.4	138.1	144.0	144.6	150.2	151.2
2011	121.7	120.5	127.8	126.4	133.5	132.3	138.7	138.4	143.9	144.8	150.4	151.1

측정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2	121.6	120.2	127.8	126.5	133.4	132.3	139.1	138.5	144.1	144.9	150.6	151.1
2013	120.6	119.6	125.5	124.4	131.7	130.4	137.1	136.6	142.7	143.2	148.8	149.5
2014	120.5	119.4	125.9	124.5	131.6	130.3	137.1	136.4	142.5	142.7	148.9	149.8
2015	120.5	119.6	125.7	124.5	131.5	130.5	137.1	136.5	142.9	142.9	148.9	149.8
2016	120.5	119.3	125.7	124.5	131.8	130.2	137.4	136.6	142.7	143.1	149.2	150.1
2017	120.4	119.3	125.7	124.6	131.6	130.6	137.1	136.5	142.9	143.3	149.5	150.1
2018	120.9	119.8	125.7	124.6	131.7	130.5	137.4	136.6	143.0	143.2	149.6	150.0
2019	121.1	119.3	126.0	124.6	132.0	130.6	137.8	136.6	143.1	143.6	149.7	150.0
측정 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154.9	154.4	161.8	157.3	167.2	158.9	170.4	159.5	172.2	160.2	173.0	160.5
2005	156.4	154.9	163.2	157.9	168.5	159.3	171.6	160.2	172.8	160.7	173.6	161.0
2006	158.1	156.1	164.2	158.2	168.7	159.5	171.8	160.4	173.0	160.7	173.9	161.1
2007	158.3	156.1	164.2	158.3	169.2	159.7	172.0	160.4	173.1	160.7	173.9	160.9
2008	158.1	155.9	164.3	158.4	169.1	159.7	172.0	160.5	173.3	160.8	173.9	161.2
2009	157.8	155.7	164.3	158.0	169.1	159.6	171.9	160.4	173.2	160.7	173.8	161.1
2010	157.9	155.5	164.2	158.2	168.9	159.6	171.8	160.6	173.0	160.7	173.7	160.9
2011	158.2	155.8	164.6	158.1	168.9	159.5	171.8	160.3	173.1	160.7	173.7	161.1
2012	158.2	155.7	164.3	158.0	168.7	159.3	171.8	160.2	172.9	160.6	173.6	160.9
2013	156.3	154.8	163.0	157.6	167.9	159.2	171.2	160.0	172.6	160.5	173.2	160.8
2014	156.4	155.1	163.4	157.7	168.1	159.5	171.3	160.2	172.7	160.5	173.4	160.9
2015	156.6	155.4	163.7	158.1	168.4	159.4	171.5	160.4	172.7	160.5	173.4	160.8
2016	157.2	155.3	164.0	158.4	168.9	159.7	171.6	160.3	172.8	160.6	173.5	160.8
2017	157.3	155.5	164.2	158.4	168.7	159.8	171.8	160.5	172.9	160.6	173.3	160.7
2018	157.2	155.5	164.3	158.4	169.1	159.9	171.8	160.8	173.1	160.9	173.6	160.9
2019	157.2	155.6	164.7	158.5	169.3	160.1	172.2	161.0	173.3	161.3	173.8	161.2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019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중은 17세 남학생 평균 71.0kg, 여학생은 57.8kg로 2018년 남학생 평균 70.8kg에 비해 0.2kg만큼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평균 57.3kg에 비하여 0.5kg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17세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중은 평균 13.2kg 차이가 있었고, 10년 전인 2009년에는 남학생은 68.1kg, 여학생은 56.0kg으로 평균 12.1kg 차이가 있었다. 2019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중은 2009년 남학생과 여학생보다 각각 2.9kg, 1.8kg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단위 : kg)

측정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23.3	22.4	26.4	25.4	29.9	28.5	33.6	32.2	37.8	36.3	42.0	41.8
2005	24.0	22.9	27.3	26.0	31.0	29.4	34.8	33.4	39.4	38.1	44.5	43.6
2006	24.5	23.2	27.7	26.4	31.6	29.7	35.8	34.0	39.8	38.6	44.7	43.7
2007	24.4	23.3	27.9	26.4	31.7	29.9	35.9	34.2	40.2	38.9	45.1	44.0
2008	24.7	23.5	27.9	26.4	31.9	29.9	36.0	34.3	40.1	38.6	45.5	44.0
2009	24.7	23.5	28.2	26.6	31.7	30.0	35.9	33.9	40.6	38.8	45.9	44.0
2010	24.9	23.7	28.4	26.9	32.1	30.3	35.9	34.2	41.1	39.2	46.1	44.4
2011	24.8	23.6	28.5	26.8	32.4	30.5	36.3	34.3	40.6	39.4	46.0	44.4
2012	24.7	23.5	28.4	26.8	32.4	30.4	37.0	34.9	41.0	39.6	46.2	44.2
2013	24.3	23.4	27.1	26.1	31.4	29.4	35.4	33.5	40.2	38.4	45.0	43.2
2014	24.1	23.1	27.2	25.7	30.9	29.1	35.3	33.0	39.7	37.8	45.1	43.6
2015	24.1	23.2	26.9	25.8	31.0	29.4	35.3	33.2	40.2	37.8	44.7	43.5
2016	24.2	22.9	27.1	25.7	31.4	29.0	35.6	33.1	40.3	38.0	45.9	43.6
2017	24.2	23.1	27.2	25.8	31.4	29.8	35.7	33.4	40.7	38.3	46.2	44.0
2018	24.4	23.6	27.4	26.1	31.9	29.6	36.0	33.5	41.0	38.6	47.0	43.8
2019	24.8	23.3	27.6	26.1	32.0	29.7	36.6	33.8	41.2	38.8	46.8	44.3

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47.4	46.7	52.9	49.9	57.7	52.5	60.8	53.3	63.2	54.2	65.3	54.9
2005	50.2	47.8	55.7	51.0	61.0	53.1	64.1	54.4	66.1	55.2	68.1	56.1
2000	47.4	46.7	52.9	49.9	57.7	52.5	60.8	53.3	63.2	54.2	65.3	54.9
2005	50.2	47.8	55.7	51.0	61.0	53.1	64.1	54.4	66.1	55.2	68.1	56.1
2006	50.7	48.0	56.6	51.2	60.5	52.9	64.3	54.2	66.5	54.8	68.2	55.4
2007	50.9	48.1	56.7	51.4	61.1	53.2	64.0	54.0	66.3	54.8	68.3	55.4
2008	50.8	48.1	56.7	51.5	61.4	53.3	63.8	53.8	65.8	54.4	67.7	55.1
2009	51.9	48.0	57.0	51.2	61.5	53.3	64.2	54.3	66.5	55.2	68.1	56.0
2010	51.7	48.2	57.2	51.5	61.5	53.2	64.7	54.9	66.6	55.5	68.1	55.6
2011	52.0	48.6	57.7	51.8	61.6	53.6	64.5	54.8	66.5	55.7	68.3	56.2
2012	51.7	48.7	57.6	51.7	61.6	53.7	64.9	55.1	66.6	55.9	68.4	56.2
2013	50.5	48.4	56.1	51.7	60.8	53.6	64.7	55.3	66.5	56.3	68.2	56.0
2014	50.4	48.2	56.3	51.6	60.7	53.9	64.5	55.4	67.0	56.1	68.1	56.7
2015	50.6	48.2	56.8	51.7	61.3	53.9	64.8	55.4	67.3	56.5	68.9	56.9
2016	52.0	48.4	57.6	52.0	62.4	53.9	65.4	55.6	68.1	56.8	69.6	57.1
2017	52.2	48.4	57.8	51.9	62.3	54.4	66.0	55.7	68.4	57.0	70.2	57.6
2018	52.4	49.1	58.6	52.3	63.3	54.8	66.6	56.4	68.8	56.8	70.8	57.3
2019	52.7	48.8	58.8	52.5	63.7	54.7	67.4	56.4	69.6	57.5	71.0	57.8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020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0m 달리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9.5초, 여학생 10.1초이고, 중학교 3학년 남학생 8.1초, 여학생 9.9초이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7.9초, 여학생 10.2초이다. 50m 달리기의 경우 남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기록이 단축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기록에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기록은 5분 45초, 여학생 6분 24초, 중학교 3학년 남학생 8분 36초, 여학생 8분 6초이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8분 21초, 여학생은 8분 40초로 나타났다.

2020년 제자리멀리뛰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163.8cm, 여학생 141.8cm,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 200.0m, 여학생 148.6cm,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14.0cm, 여학생 151.1cm이다.

2020년 윗몸일으키기(2011-윗몸말아올리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66.2회, 여학생 47.5회, 중학교 3학년은 남학생 72.2회, 여학생 38.2회,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64.2회, 여학생 32.3회이다.

2020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8.3cm, 여학생 14.1cm,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 10.6cm, 여학생 16.8cm,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1.8cm, 여학생 16.8cm이다.

〈표 5-4-3〉 성별·연령별 50m 달리기의 추이

(단위: 초)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9.8	10.3	9.4	10.2	8.8	10.0	8.4	10.0	8.0	10.0	7.8	9.9	7.7	9.9	7.7	10.1
2007	9.9	10.5	9.5	10.3	8.8	10.1	8.4	10.2	8.1	10.3	7.9	10.1	7.8	10.1	8.1	10.4
2008	9.9	10.4	9.5	10.4	8.9	9.9	8.4	10.1	8.1	10.1	7.9	10.2	8.0	10.1	8.0	10.3
2009	10.0	10.5	9.6	10.4	8.7	9.9	8.4	9.9	8.1	9.9	7.8	9.9	7.7	9.9	7.7	10.1
2010	10.1	10.5	9.7	10.4	8.9	10.0	8.5	10.1	8.2	10.1	7.8	9.9	7.7	9.9	7.9	10.1
2011	9.9	10.3	9.5	10.2	8.9	10.0	8.4	10.0	8.1	10.0	7.9	10.0	7.9	10.1	7.9	10.2
2012	9.7	10.2	9.3	10.0	8.8	9.9	8.4	9.9	8.0	9.9	7.9	9.9	7.8	10.0	7.9	10.1
2013	9.6	10.1	9.2	9.9	8.7	9.7	8.3	9.8	8.0	9.8	7.8	9.8	7.8	9.9	7.8	9.9
2014	9.6	10.1	9.2	9.9	8.7	9.7	8.3	9.8	8.0	9.8	7.8	9.7	7.7	9.8	7.8	9.9
2015	9.6	10.0	9.2	9.8	8.6	9.6	8.2	9.7	7.9	9.7	7.8	9.7	7.7	9.7	7.8	9.9
2016	9.7	10.1	9.3	9.8	8.6	9.6	8.2	9.6	7.9	9.6	7.7	9.6	7.7	9.7	7.7	9.8
2017	9.7	10.1	9.3	9.9	8.7	9.6	8.2	9.7	7.9	9.7	7.8	9.6	7.7	9.8	7.8	9.9
2018	9.7	10.1	9.3	9.9	8.7	9.6	8.2	9.7	7.9	9.7	7.7	9.6	7.7	9.8	7.8	9.9
2019	9.8	10.1	9.3	9.9	8.7	9.6	8.2	9.7	7.9	9.7	7.8	9.6	7.7	9.7	7.8	9.9
2020	9.9	10.4	9.5	10.1	8.8	9.9	8.4	9.9	8.1	9.9	7.8	10.1	7.8	9.9	7.9	10.2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단위 : 분, 초)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6:02	6:04	5:05	6:03	9:03	7:05	8:05	7:05	8:03	7:05	8:00	7:05	7:05	7:05	7:06	8:01
2007	6:27	7:06	6:15	6:57	9:49	8:26	9:20	8:36	9:07	8:36	8:29	8:14	8:20	8:19	8:37	8:36
2008	6:26	6:55	6:14	7:00	9:43	8:30	9:17	8:22	8:54	8:26	8:28	8:07	8:20	8:17	8:40	8:42
2009	6:29	6:56	6:15	7:00	9:34	8:20	9:20	8:36	8:44	8:22	8:23	8:03	8:15	8:08	8:19	8:23
2010	6:31	6:59	6:15	6:57	9:57	8:44	9:31	8:44	9:06	8:41	8:07	8:01	7:97	7:91	8:21	8:24
2011	6:10	6:40	5:54	6:39	9:36	8:33	9:13	8:35	8:46	8:26	8:26	8:08	8:18	8:11	8:20	8:21
2012	5:54	6:24	5:37	6:19	9:13	8:15	8:53	8:17	8:29	8:11	8:18	8:08	8:10	8:08	8:10	8:14
2013	5:47	6:14	5:29	6:10	8:57	7:58	8:40	8:02	8:17	7:54	8:07	7:53	7:59	7:52	7:58	7:58
2014	5:40	6:06	5:23	6:00	8:47	7:42	8:31	7:49	8:13	7:45	8:00	7:47	7:54	7:49	7:54	7:56
2015	5:40	6:04	5:21	5:57	8:46	7:40	8:27	7:43	8:10	7:42	8:01	7:44	7:55	7:46	7:55	7:53
2016	5:44	6:07	5:26	5:58	8:56	7:41	8:29	7:41	8:11	7:40	8:02	7:44	7:58	7:48	7:59	7:54
2017	5:45	6:07	5:27	6:01	8:53	7:43	8:29	7:44	8:09	7:43	8:02	7:48	7:59	7:55	8:04	8:04
2018	5:50	6:14	5:32	6:06	9:05	7:48	8:40	7:50	8:19	7:49	8:05	7:50	8:04	8:01	8:05	8:10
2019	5:51	6:15	5:33	6:08	9:07	7:50	8:42	7:54	8:19	7:48	8:06	7:51	8:04	7:57	8:10	8:08
2020	6:04	6:28	5:45	6:24	9:12	8:00	8:42	7:57	8:36	8:06	8:17	8:12	8:16	8:20	8:21	8:40

주 : 초등학교 1,000m. 중·고 여자 1,200m. 중·고 남자 1,600m.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153.4	138.3	165.2	144.6	144.6	153.6	203.0	157.1	214.7	158.6	226.9	165.2	231.4	164.8	236.7	164.8
2007	151.8	136.0	163.9	139.8	139.8	149.9	195.8	151.7	207.5	153.9	216.9	156.9	223.4	159.4	222.8	155.4
2008	155.0	140.4	163.7	141.3	141.3	148.3	196.9	151.5	209.2	155.3	219.3	156.4	224.4	156.6	226.2	157.2
2009	151.2	134.5	161.6	137.9	137.9	151.1	199.3	153.9	210.1	155.3	217.8	156.5	222.9	158.5	226.6	158.4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0	148.5	132.6	157.8	135.9	135.9	140.7	186.6	142.4	197.5	144.6	219.5	155.6	223.4	156.8	226.0	156.6
2011	150.3	134.6	159.7	138.8	138.8	140.8	186.8	142.2	196.7	143.7	205.0	147.6	209.5	147.8	211.8	147.5
2012	152.9	136.7	162.7	140.9	140.9	143.6	188.9	144.3	199.1	146.1	205.9	148.4	211.1	149.2	215.0	149.6
2013	155.7	138.8	165.2	143.0	143.0	144.3	190.0	145.4	200.8	148.1	208.1	150.8	214.1	152.5	217.8	153.0
2014	154.9	138.4	165.0	142.6	177.1	145.2	188.2	145.6	198.6	147.9	207.4	150.2	213.3	150.8	16.6	152.2
2015	156.8	140.8	166.6	144.9	181.1	148.4	192.9	149.1	201.7	150.2	209.9	152.6	215.4	153.2	218.5	153.7
2016	156.3	141.4	166.9	146.2	180.7	149.0	193.4	151.0	202.8	152.4	209.8	152.8	214.0	153.8	216.7	154.9
2017	155.3	140.4	165.9	145.4	179.7	148.3	192.1	150.0	202.1	150.7	209.5	152.8	213.7	152.9	216.0	153.3
2018	154.8	140.0	166.0	145.9	178.6	147.2	191.2	148.8	201.4	150.2	209.7	152.7	213.6	152.5	216.0	152.5
2019	153.2	139.2	163.7	144.5	178.2	147.7	190.6	149.0	200.2	150.1	208.1	151.7	212.8	152.2	214.2	151.2
2020	151.5	136.5	163.8	141.8	177.8	144.8	190.1	147.8	200.0	148.6	205.0	149.4	210.4	150.3	214.0	151.1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6〉 성별·연령별 읽몸일으키기의 추이(2011-읽몸말아올리기)

(단위 : 회)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32.2	24.5	34.9	26.3	27.7	26.4	40.5	27.7	43.2	29.2	45.6	30.1	47.0	31.0	49.4	32.2
2007	31.9	24.1	35.7	26.1	26.2	26.4	40.1	26.2	42.9	27.0	44.6	28.0	46.0	29.1	44.5	28.6
2008	31.9	25.3	35.8	25.8	27.6	26.4	40.8	27.6	43.0	28.3	45.6	29.2	47.1	29.9	44.4	29.3
2009	48.4	-	56.3	-	28.4	27.1	41.0	28.4	43.6	28.9	45.5	29.9	47.1	30.8	46.6	29.9
2010	49.7	39.0	55.9	38.9	33.0	32.6	58.2	33.0	59.2	33.0	45.6	30.9	47.0	31.2	45.6	30.3
2011	56.1	43.8	62.3	43.8	35.3	37.0	63.9	35.3	63.5	35.6	57.6	31.3	58.1	32.1	52.5	31.3
2012	62.2	49.0	69.8	50.1	38.6	40.2	65.2	38.6	67.4	38.0	61.4	32.6	60.1	33.0	56.4	32.8
2013	65.3	50.9	73.3	53.8	43.7	44.0	73.2	43.7	71.5	40.6	68.2	35.2	69.6	36.7	63.7	34.3
2014	69.7	55.4	76.2	56.0	75.7	47.9	77.7	46.2	79.2	45.5	68.8	35.9	68.3	36.3	64.9	35.9
2015	67.7	54.6	75.7	56.6	78.0	47.9	81.8	47.8	79.7	46.0	69.6	37.0	71.3	36.9	66.3	36.3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6	66.9	54.5	74.1	56.5	80.1	48.7	82.2	48.0	82.9	46.1	72.7	36.4	70.9	36.9	68.5	35.5
2017	65.6	53.5	73.1	56.4	79.3	48.4	83.3	48.6	83.2	45.6	76.0	37.0	73.0	36.3	69.2	36.3
2018	64.5	51.8	73.3	55.1	80.0	48.2	82.7	47.0	84.1	44.8	73.2	36.9	74.0	36.2	67.9	35.1
2019	64.5	52.7	71.7	54.3	79.9	48.5	82.9	47.1	82.9	44.7	75.3	36.9	74.2	36.7	69.3	35.1
2020	61.6	46.7	66.2	47.5	70.6	41.5	73.7	40.6	72.2	38.2	73.1	33.1	71.9	33.1	64.2	32.3

주 : 2011년부터 뿔뿔말아올리기로 개정.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7〉 성별·연령별 앞뿔뿔앞으로굽히기의 추이

(단위 : cm)

측정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8.4	11.6	8.1	12.1	9.2	14.0	10.7	14.8	12.6	16.1	14.7	17.2	16.1	16.1	17.5	17.4
2007	8.2	12.0	8.2	12.8	9.0	14.4	9.9	14.9	11.2	15.6	12.4	16.5	13.4	13.4	13.8	16.1
2008	8.8	12.5	7.9	12.3	8.8	14.2	9.7	14.9	11.1	16.0	12.5	16.3	12.8	12.8	13.1	16.0
2009	7.7	12.0	7.5	12.8	9.0	14.7	10.2	15.6	11.4	16.3	12.4	17.3	14.5	14.5	13.4	16.7
2010	7.5	11.9	7.0	12.6	7.6	13.7	8.6	14.4	9.8	15.1	12.8	17.3	13.0	13.0	13.7	16.9
2011	7.8	12.4	7.3	13.1	7.5	13.7	8.5	14.4	9.6	15.1	11.0	15.8	11.7	11.7	11.9	15.9
2012	8.1	12.5	7.7	13.3	7.8	14.0	8.7	14.7	9.8	15.4	10.9	15.9	11.6	11.6	12.0	16.1
2013	8.6	13.0	8.3	13.8	8.4	14.5	9.1	15.1	10.1	15.8	11.2	16.2	11.7	11.7	12.2	16.5
2014	8.7	13.2	8.5	14.2	8.6	15.0	9.5	15.8	10.3	16.5	11.3	16.7	11.8	16.7	12.2	16.8
2015	8.6	13.4	8.4	14.6	8.7	15.4	9.5	16.1	10.5	16.8	11.4	17.0	11.9	17.0	12.1	16.7
2016	8.2	13.1	8.0	14.3	8.5	15.4	9.5	16.2	10.5	16.8	11.5	17.1	11.9	17.0	12.0	16.9
2017	8.0	13.0	7.8	14.1	8.3	15.1	9.3	15.9	10.4	16.5	11.5	16.9	11.9	16.9	11.9	16.8
2018	8.0	12.8	7.8	14.0	8.1	14.9	9.0	15.7	10.2	16.5	11.4	16.9	11.8	16.7	11.8	16.6
2019	7.6	12.5	7.4	13.5	7.8	14.6	8.7	15.4	9.8	16.1	11.1	16.6	11.6	16.6	11.6	16.4
2020	8.4	13.0	8.3	14.1	8.9	15.2	9.9	16.3	10.6	16.8	11.6	17.1	11.9	17.3	11.8	16.8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 청소년의 영양

아동·청소년의 연령층별로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평균 섭취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연령층이 대부분의 영양소에 대해 권장섭취량에 근접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슘과 칼륨은 모든 연령층에서, 비타민A는 1~2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2~18세 청소년의 비타민A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5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C의 경우 6~11세(84.9%), 12~18세(66.1%), 19~29세(52.5%) 청소년에게서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나트륨에 대한 섭취는 권장섭취량의 164.8%(12~18세), 172.1%(19~29세)로 과다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단위 : %)

영양소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114.1	94.4	96.6	95.9	89.7
단백질	264.0	228.6	179.9	145.1	131.9
칼슘	90.5	76.3	65.6	63.7	66.5
인	151.7	136.4	112.7	94.7	153.5
나트륨	0.0	0.0	130.7	164.8	172.1
칼륨	75.5	72.7	69.5	70.3	70.2
철	105.6	114.4	91.4	79.8	102.8
비타민A	103.1	92.7	67.4	52.3	52.7
티아민	161.8	182.9	138.1	122.1	119.6
리보플라빈	205.6	199.7	148.8	133.6	127.5
나이아신	114.2	111.0	96.2	88.5	96.6
비타민C	132.5	136.6	84.9	66.1	52.5

주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에너지, 필요추정량; 나트륨, 목표섭취량; 칼륨, 총분섭취량; 그 외 영양소, 권장섭취량.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다음은 영양소별로 섭취량이 영양섭취기준 미만인 대상자 분율을 연령층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C의 섭취량은 전 연령층에서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한 사람이 약 40% 이상이었다. 특히, 칼슘의 경우 6세 이상부터 29세 이하까지 70% 이상이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칼슘에 대한 섭취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타민A 다음으로는 칼슘과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단위 : %)

영양소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10.6	22.0	25.0	35.2	38.1
단백질		1.8	1.3	5.1	16.4	23.4
지방		38.0	12.7	8.6	10.2	13.4
칼슘		47.4	59.3	70.8	73.9	70.3
인		10.8	12.5	33.2	44.5	15.2
철		22.1	29.2	39.7	60.6	46.5
비타민A		42.6	44.9	64.4	77.7	81.2
티아민		10.7	6.7	16.2	36.5	34.9
리보플라빈		8.8	6.3	16.0	27.8	29.3
나이아신		13.0	19.1	35.7	49.8	44.8
비타민C		46.8	42.4	59.2	74.4	77.6

주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 지방,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하한선; 그 외 영양소, 평균필요량.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영양섭취부족 대상자 분율은 12~18세 17.6%, 19~29세에 16.2%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12~18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의 분율은 6~11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의 비율이 같거나 높게 나타났으며 12~18세의 경우에는 영양섭취부족자의 분율에 이어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의 분율도 높게 나타나 영양 부족과 과잉 섭취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4-10〉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단위 : %)

연령	구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¹⁾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2세		5.3	3.8	6.7	1.3	2.5	0.2
3~5세		3.8	3.0	4.9	2.0	2.7	1.0



연령	구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¹⁾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6~11세		8.4	8.3	8.5	4.9	4.3	5.5
12~18세		17.6	18.3	16.9	7.3	7.3	7.3
19~29세		16.2	10.2	23.1	7.3	8.0	6.5

주 : 1)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³⁾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³⁾ 미만인 비율.

2)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³⁾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이 지방에너지적정비율³⁾의 상한선을 초과한 비율.

3)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아침식사 결식률은 19~29세는 54.0%, 12~18세는 39.5%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6~11세(12.0%), 3~5세(10.2%), 1~2세(3.6%) 순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3~5세와 6~11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여자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모두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4-11〉 아침식사 결식률

(단위 : %)

구분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전체		3.6	10.2	12.0	39.5	54.0
남자		1.2	13.4	13.3	36.0	51.0
여자		5.8	6.5	10.7	43.5	57.4

주 : 조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 2019 국민건강통계.

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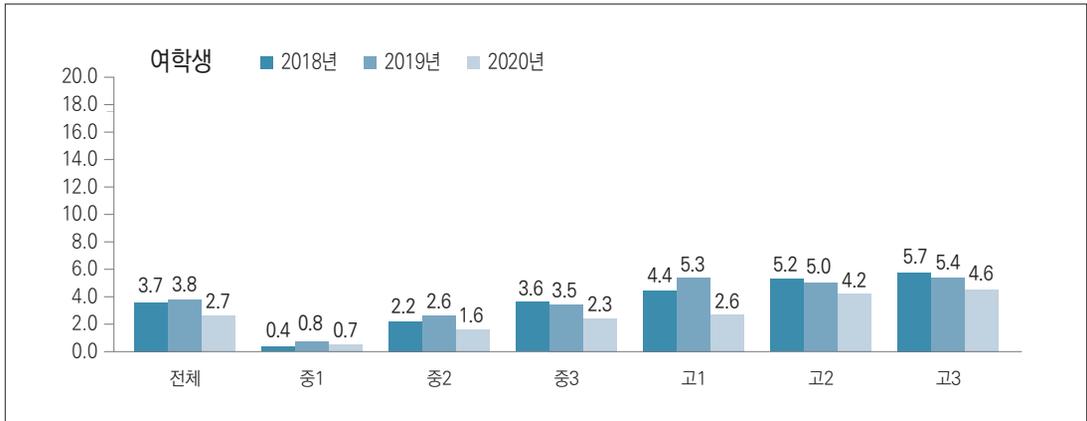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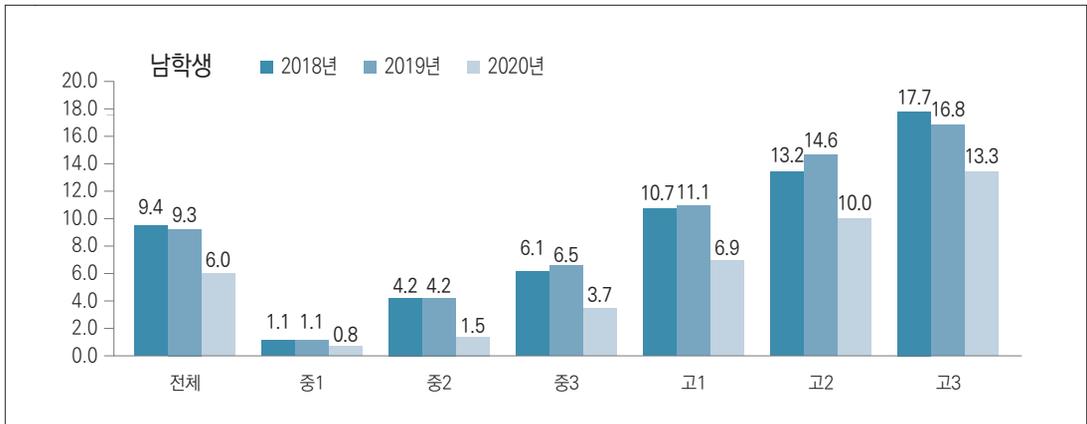
2020년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은 6.0%, 여학생은 2.7%로 나타나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이 여학생의 현재 흡연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2018년 3.7%, 2019년 3.8%, 2020년 2.7%로 나타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3.6세,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14.1세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3.4세, 여학생은 13.9세이며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남학생 14.1세, 여학생 14.1세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주 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남학생 23.3%, 여학생 27.7%로 나타났다.

[그림 5-4-1] 학년별 현재 흡연율

(단위 : %)



주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흡연 경험 연령(세) ¹⁾	13.0	12.8	13.5	13.2	13.1	13.6	13.6	13.4	13.9
매일 흡연 시작 연령(세) ²⁾	13.9	13.9	14.0	14.1	14.1	14.1	14.1	14.1	14.1
주 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3)*}	32.9	31.1	23.0	31.7	29.3	34.3	25.4	23.3	27.7

주 : 1) 평생 흡연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 피워본 연령의 평균.
 2) 최근 30일 동안 매일 흡연자 중에서 담배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의 평균.
 3)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피운 담배 연기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19년도 설문문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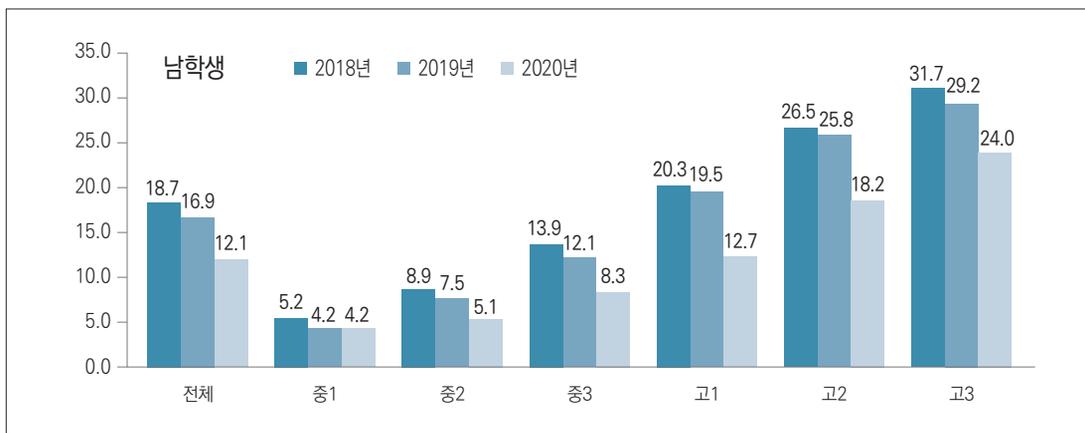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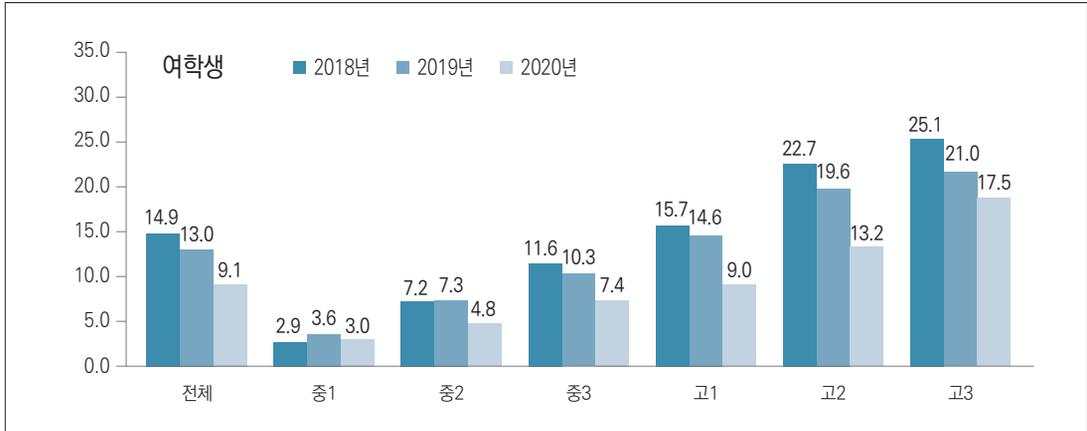
2020년 청소년의 현재 흡주율은 남학생 12.1%, 여학생 9.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고학년일수록 현재 흡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년별 현재 흡주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현재 흡주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19년 대비 2020년 현재 흡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의 처음 흡주 경험 연령은 남학생 13.2세, 여학생 13.7세로, 남녀 학생 간 차이는 0.5세였다. 위험흡주율은 남학생이 5.6%로 여학생의 위험흡주율(4.8%)보다 높았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년대비 위험흡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2] 학년별 현재 흡주율

(단위 : %)





주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음주 경험 연령(세) ¹⁾	13.3	13.0	13.7	13.2	12.9	13.5	13.4	13.2	13.7
위험음주율 ²⁾	8.9	9.1	8.6	7.8	8.2	7.5	5.2	5.6	4.8

주 : 1) 평생 음주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1잔 이상 술을 마신 연령의 평균.

2)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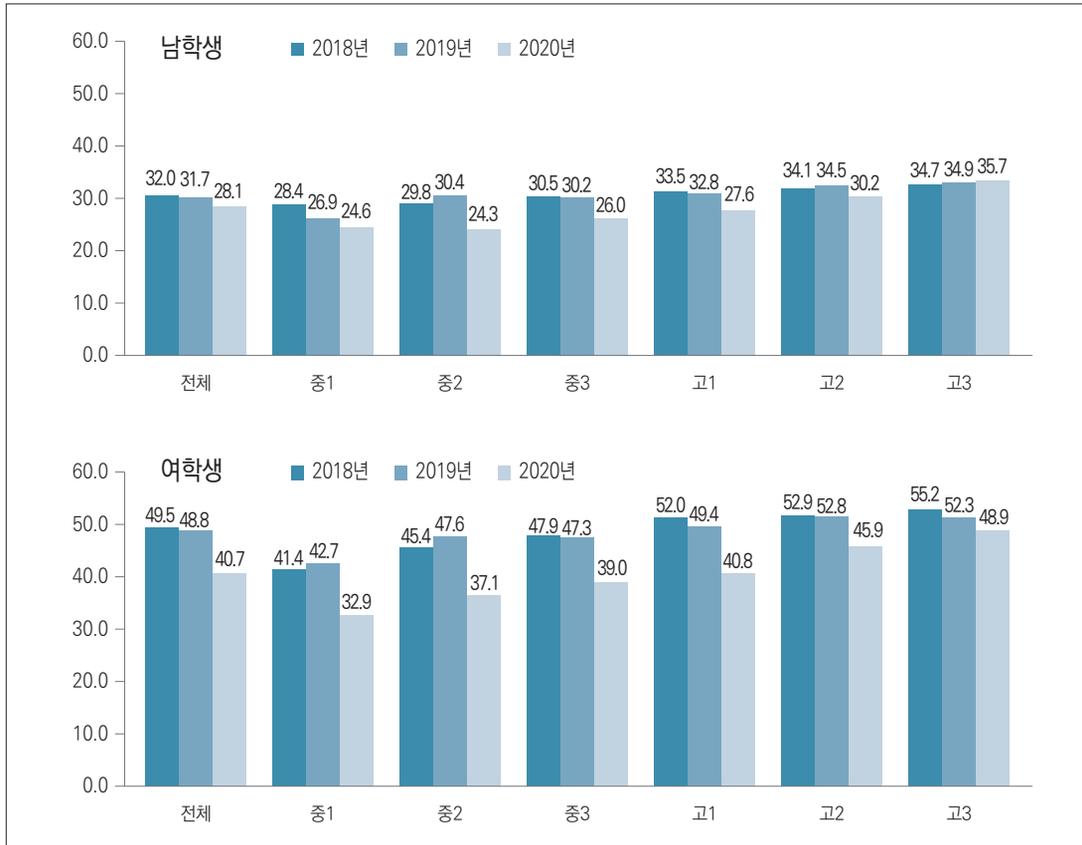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4. 청소년의 정신건강

2020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 28.1%, 여학생 40.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2018년에 비해서는 2019년과 2020년에 스트레스 인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3]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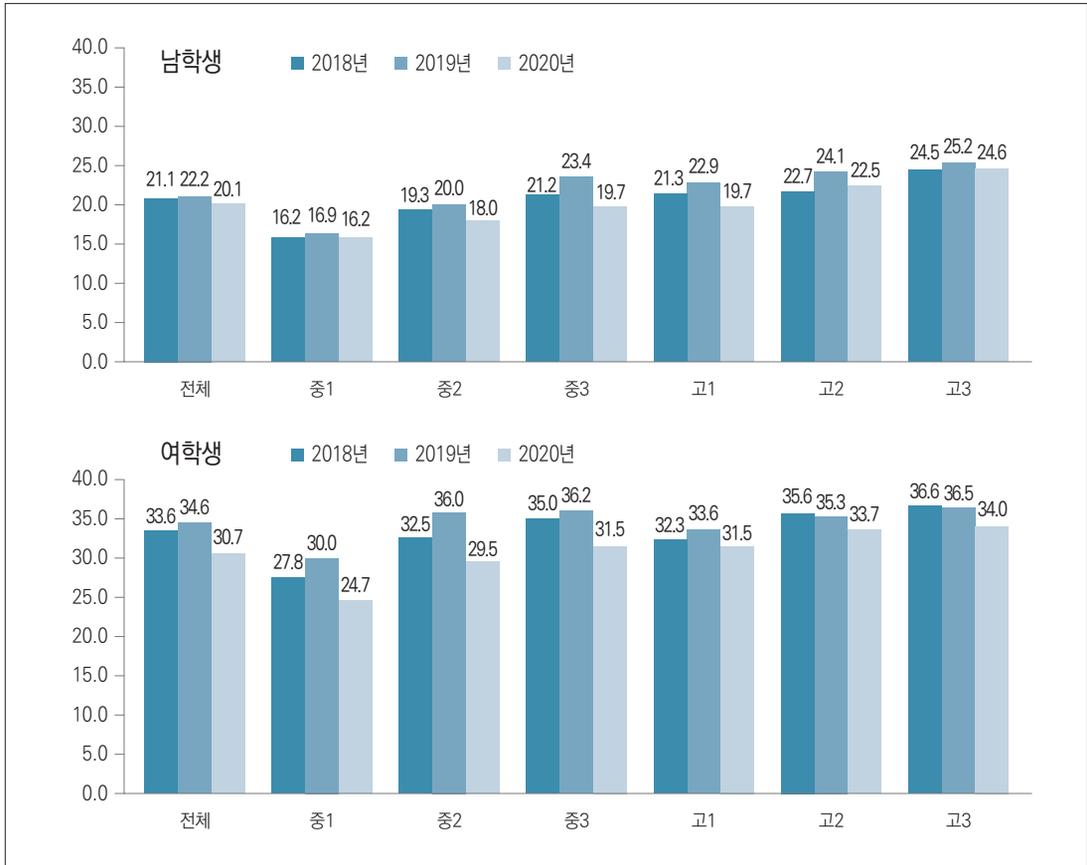
주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20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0.1%, 여학생 30.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 우울감이 소폭 낮아지고, 고등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시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4]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주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1).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